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  
출애굽기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출애굽기

## Exodus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19:5, 6)

וְעַתָּה אִם-שָׁמוּעַ תִּשְׁמָעוּ בְּקוֹלִי וְשָׁמַרְתֶּם אֶת-בְּרִיתִי  
וְהָיִיתֶם לִי סֹגְלָה מִכָּל-הָעַמִּים כִּי-לִי כָל-הָאָרֶץ:  
וְאַתֶּם תִּהְיוּ-לִי מִמְּלֶכֶת כֹּהֲנִים וְגוֹי קְדוֹשׁ אֱלֹהִים  
הַדְּבָרִים אֲשֶׁר תְּדַבֵּר אֶל-בְּנֵי יִשְׂרָאֵל:

## 출애굽기 차례

---

출애굽기 서론.....	〈17제〉...373
제 1 장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인의 번성과 노예 생활.....	〈18제〉...377
제 2 장 모세의 출생 및 지도자로서의 준비 기간.....	〈21제〉...383
제 3 장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민족 해방의 사명을 부여받다.....	〈21제〉...389
제 4 장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17제〉...395
제 5 장 모세의 해방 요구와 보다 심해지는 바로의 압제.....	〈17제〉...400
제 6 장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17제〉...405
제 7 장 모세의 두번째 요구와 첫째 재앙.....	〈23제〉...411
제 8 장 개구리, 이, 파리 재앙.....	〈24제〉...417
제 9 장 악질, 독종, 우박 재앙.....	〈21제〉...423
제 10 장 메뚜기와 흑암 재앙.....	〈24제〉...429
제 11 장 마지막 재앙의 경고.....	〈15제〉...437
제 12 장 출애굽과 첫 유월절.....	〈25제〉...442
제 13 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5제〉...450
제 14 장 홍해를 건너다.....	〈20제〉...455
제 15 장 홍해 도하(渡河)에 대한 감사의 찬양.....	〈21제〉...462
제 16 장 만나와 메추라기.....	〈17제〉...468
제 17 장 호렙 산 바위의 생수와 아말렉 정벌.....	〈15제〉...474
제 18 장 모세와 이드로의 재회.....	〈17제〉...479
제 19 장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현현(顯現)하시다.....	〈14제〉...485
제 20 장 십계명.....	〈27제〉...491
제 21 장 종, 살인, 불효, 배상 등에 관계된 법.....	〈27제〉...499
제 22 장 절도, 손해 배상, 간음 등에 대한 규제.....	〈21제〉...506
제 23 장 사회 정의 및 안식, 절기 등에 관한 규제와 하나님의 언약.....	〈17제〉...512

제 24 장	언약 체결을 위한 백성들의 맹세	〈12제〉	518
제 25 장	성소와 지성물들	〈16제〉	522
제 26 장	성막의 양식	〈13제〉	528
제 27 장	번제단과 성막 뜰의 모형	〈11제〉	533
제 28 장	제사장의 거룩한 옷	〈16제〉	537
제 29 장	제사장 위임식(委任式)에 대한 규례	〈14제〉	543
제 30 장	분향단과 물두멍 및 관유와 향 제조법	〈11제〉	548
제 31 장	성막 건축의 담당자와 안식일 규례	〈8제〉	553
제 32 장	금송아지와 깨어진 두 돌비	〈16제〉	556
제 33 장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10제〉	562
제 34 장	두번째 십계명 돌비	〈12제〉	566
제 35 장	성막을 위한 백성들의 헌물	〈11제〉	571
제 36 장	성막 건축을 시작하다	〈9제〉	576
제 37 장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다	〈7제〉	580
제 38 장	성막 뜰의 기구들과 재료의 총계	〈12제〉	584
제 39 장	제사장 의복 제작	〈10제〉	589
제 40 장	성막 봉헌식	〈10제〉	593

### 출애굽기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본장의 요절〉	382
제 3 장	〈연구 자료〉 요셉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애굽 역사	394
제 4 장	〈본장의 요절〉	399
제 5 장	〈화보 자료〉 강제 노동을 하는 히브리인들	404
제 6 장	〈본장의 요절〉	410
제 7 장	〈화보 자료〉 나일 강	416
제 8 장	〈본장의 요절〉	422

제 9 장	〈화보 자료〉	나귀와 약대.....	428
제 10 장	〈연구 자료〉	열 가지 재앙의 의미.....	436
제 11 장	〈화보 자료〉	귀금속 장식품.....	441
제 12 장	〈화보 자료〉	대곡녀 (代哭女).....	449
제 16 장	〈화보 자료〉	광야 (曠野).....	473
제 17 장	〈본장의 요절〉	.....	478
제 18 장	〈연구 자료〉	제사장 직제의 변천 과정.....	484
제 19 장	〈화보 자료〉	시내 산.....	490
제 20 장	〈화보 자료〉	돌로 쌓은 단 (壇).....	498
제 21 장	〈본장의 요절〉	.....	505
제 23 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사형 (死刑).....	517
제 24 장	〈본장의 요절〉	.....	521
제 25 장	〈본장의 요절〉	.....	527
제 26 장	〈본장의 요절〉	.....	532
제 27 장	〈본장의 요절〉	.....	536
제 28 장	〈연구 자료〉	우림과 둠뭇.....	542
제 29 장	〈본장의 요절〉	.....	547
제 30 장	〈화보 자료〉	분천 (噴泉).....	552
제 33 장	〈화보 자료〉	단장품 (丹粧品).....	565
제 34 장	〈연구 자료〉	성경상에 나타난 수자의 상징적 의미.....	570
제 35 장	〈화보 자료〉	보석.....	575
제 36 장	〈화보 자료〉	덧개를 찢힌 성막.....	579
제 37 장	〈화보 자료〉	성소의 기구들.....	583
제 38 장	〈화보 자료〉	네 모퉁이에 뿔이 달린 단.....	588
제 39 장	〈본장의 요절〉	.....	592
제 40 장	〈연구 자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록들.....	597

# 출애굽기 서론

## 1. ㉠ ‘출애굽기’ 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 ㉠ (1) 원래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웨엘레 세오트>로서 그 뜻은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이다.
- (2) 여기서 ‘그 이름들’이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말한다(1:1-5).
- (3)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LXX)은 본서의 명칭을 ‘엑소도스’로 붙이었다.
- (4) 이 ‘엑소도스’란 명칭은 19:1에서 따온 것으로서 그 뜻은 ‘나옴’(going out), ‘출발’(departure)이다.
- (5) 그리고 이 명칭을 라틴 벌게이트(Vulgate) 성경과 각종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Exodus)라고 그대로 음역(音譯)하였다.
- (6) 개역 성경의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바로 이 ‘엑소더스’를 의역(意譯)한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70인역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뜻은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책’임을 알 수 있다.

## 2. ㉡ 본서(本書)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오경(五經)의 저자인 모세이다.
- (2) 한편 오늘날까지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점과 그 기록된 내용들의 역사적 실재성이 심한 도전을 받고 있으나 계속 발견되는 고고학적 자료들은 오경에 대한 전통적 주장들이 사실임을 점점 확인시켜 주고 있다.
- (3) 따라서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는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은 점점 그 지지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 (4) 게다가 오경은 본래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으니 다른 네 권의 책과 함께 본서의 저자도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던 모세로 결론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 그러나 출애굽 연대를 B. C. 1446년경으로 보는 학설에 근거할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B. C. 1440-140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 ㉣ 출애굽 연대에 관한 2가지 학설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출애굽 연대에 관해서는 2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명 ‘초기설’과 ‘후기설’이다.
- (2) 초기설은 출애굽 사건이 아멘호텝 2세(B. C. 1450-1425) 치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왕상 6:1을 보면 성전 건축이 출애굽 사건 후 480년이 지난 솔로몬 재위 4년에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솔로몬 재위 4년은 B. C. 966년경이다. 따라서 출애굽 연도는 B. C. 1446년경이 되는 셈이다.
- (3) 그런데 후기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 동원되어 건축된 라암셋 성이 라암세스 2세(B. C. 1229) 이후에 수축되었다는 점과 요단 동편 땅에는 B. C. 1900-1300년에 정착민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B. C. 1300년까지 ‘하솔’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출애굽 연대를 B. C. 1290년경으로 잡고 있다.

(4)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하여 성경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 후기설보다는 오히려 초기설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출애굽 연대를 B. C. 144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 초기설을 정설(定說)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라.

- ㉠ (1) 한 때 애굽에서 바로의 귀빈이었던 야곱의 후손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다.
- (2)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할 방도를 모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고자 직접 역사하셨다.
- (3)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하신 후에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 이 구원 사건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 (4)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選民)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6.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애굽인의 압박 중에서도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참조, 창 15:13-16; 26:24; 35:9-15)대로 애굽에서 구출된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 (2) 뿐만 아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졌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신정국(神政國)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참조, 19-24장).
- (3) 한편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救贖) 사건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4) 특히 출애굽 전날 밤의 어린 희생 양(犠牲羊),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성막, 제사장 및 제물 등과 같은 제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의 모형이 된다.

7. ㉠ 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구원의 책'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서 신정국을 이루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 이는 곧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사실에 대한 모형을 제공해 준다(참조, 계 1:5).
- (3) 또한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流離)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신앙적 훈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벰전 1:6, 7).
- (4) 이처럼 창세기가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보여 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 국가로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8. ㉠ 본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본서의 요지이다(19:3-6).
- (2)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본서의 중심 사상이다.

9. ㉠ 본서에 나타나는 모세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使者), 즉 구원의 조력자이다(참조, 3:10-1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 (3)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죄악의|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

다(참조, 요 8:34, 36; 히 9:11, 12).

10. ㉠ 본서와 모세 오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라.

- ㉠ (1) 본서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46-50장)에 기록된 내용을 이어받아 다시금 이를 언급한 후 그 후속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 (2) 따라서 본서는 독립된 한 권의 책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오히려 창세기의 후편으로 여겨질 정도로 창세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3) 사실상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같은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고 본서는 이들 족장들의 후손에 관한 기록이다.
- (4) 또한 본서는 레위기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서의 후반부터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 제도가 레위기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사 제도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 (5) 그밖에도 민수기는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무수한 사건과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본서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재확인 및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 (6) 이처럼 본서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대부분 섭렵하고 있는 책으로서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책이라고 하겠다.

11. ㉠ 본서와 신약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라.

- ㉠ (1) 본서는 구약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신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책으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12:1-28; 17:6).
- (2) 그 이유는 모세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아니라(참조, 신 18:5, 18; 히 3:1-6)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19, 20장).
- (3) 이처럼 본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책일 뿐 아니라 구약 자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책이다.

12. ㉠ 본서 중 신약의 예표가 되는 몇몇 낱말과 예수의 사적(事蹟)을 비교하여 보라.

- ㉠ (1) 유월절(12:1-51) : 신약에서는 고전 5:7 이하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 (2) 만나(16:4-36) : 신약에서는 요 6:35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언급되어 있다.
- (3) 반석의 생수(17:1-7) : 신약에서는 고전 10:4 이하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언급되어 있다.
- (4) 성막(26:36) : 신약에서는 히 9:1-28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칭해졌다.
- (5) 대제사장과 제사장(28:1-29장) : 신약에서는 히 8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칭해져 있다.
- (6) 율법(20장)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마 5:17) 실제로 그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었다(참조, 롬 10:4).
- (7) 모세 : 히 3:1-6 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비교되고 있다.

13. ㉠ 출애굽 당시 애굽의 형편을 말하라.

- ㉠ (1)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왕은 제 18왕조의 아멘호텝 2세(Amen-hotep II, B. C.1450-1425)이었던 것 같다(참조, ㉠4).
- (2) 그는 2번에 걸친 시리아와의 대전투를 통해 애굽의 국위를 선양(宣揚)하였던 자이다.

- (3) 그의 치세하에서의 애굽에는 바알(Baal)과 아스도렛(Ashtoreth)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
- (4) 한편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의 하나로서 인종은 함(Ham)의 후손들이며 고대 애굽의 언어는 셈어와 함어의 복합어였다.

14. **㉠ 출애굽의 여정 중 거쳐간 곳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라 (민 33장).**

- ㉠** (1) 라암셋에서 홍해 비하히룻까지 : 라암셋-숙곳-에담-비하히룻  
 (2) 홍해에서 시내까지 : 마라-엘림-홍해-신 광야-둑가-알루스-르비딤-시내  
 (3) 시내-에시온게벨-브네야아간 : 기브룻핫디아와-하세룻-림마-림몬베레스-림다-릿사-그헬라다-세벨 산-하라다-막헬룻-다핫-테라-밧가-하스모나-모세룻-브네야아간  
 (4) 가데스-에시온게벨 : 옷바다-아브로나-에시온게벨  
 (5) 에시온게벨-모압 경계 : 살모나-부논-오봇-이에아바림  
 (6) 모압 경계-모압 평야, 여리고 반대쪽 : 디본갓-알몬디벵라다임-느보 앞 아바림-모압 평야, 여리고의 반대쪽

15. **㉠ 본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라.**

- ㉠** (1) 1장-12:36까지는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2) 12:37-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3) 19-40장까지는 시내 산에서 율법 및 성막, 제사장직 등의 제도들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

16.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 / 1:1-12:36  
 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 1:1-22  
 ② 구속사의 준비 / 2:1-4:31  
 ③ 바로와 충돌하다 / 5:1-11:10  
 ④ 유월절을 제정하다 / 12:1-36  
 (2) 광야에 방황하는 히브리인 / 12:37-18:27  
 ① 출애굽과 애굽 군대의 추적 / 12:37-15:21  
 ② 시내 산까지의 여행 / 15:22-17:16  
 ③ 이드로의 방문 / 18:1-27  
 (3) 시내 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 19:1-40:38  
 ① 십계명을 받다 / 19:1-20:26  
 ② 다른 율법들 / 21:1-23:33  
 ③ 언약을 비준하다 / 24:1-11  
 ④ 성막과 제사장직에 대한 지시 / 24:12-31:18  
 ⑤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의 복구 / 32:1-34:35  
 ⑥ 성막 건축 및 제사장직 제도 / 35:1-40:38

17.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19:5, 6).

# 제 1 장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인의 번성과 노예 생활

단락구분 1-7 애굽에서도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 / 8-14 이스라엘을 입제하는 새로운 왕 / 15-22 왕의  
남아(男兒) 실패 명령

1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  
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 잇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5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칠십 인이었다라  
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  
었다라  
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  
을 다스리더니  
9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  
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  
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11 감옥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  
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  
여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  
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

심하여

13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14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  
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심브라라 하는 자  
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16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여인을 위하여 조산  
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  
는 살게 두라  
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  
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18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  
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22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  
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 1. Q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 A (1) 본장은 창세기와 본서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2) 즉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 46-50장) 본장에서는 다시금 이 시간이 간략히 언급된 후 그 후속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3) 한편 이와 같이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여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에 당황한 애굽의 바로는 이들을 학대하기에 이르렀다 (7-11절).
- (4)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창대(昌大)케 되었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창 15:5; 26:24; 35:11) 과 축복 때문이었다.
- (5)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를 폄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으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의 수효가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참조, 행 9:26-31)을 확신할 수 있다.

2. **㉠**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그 어머니 별로 분류하고 또한 각 이름의 뜻을 쓰라(2-4절; 창 35:22-26절).

**㉠**

어머니	이름	이름의 뜻	태어난 순서
레 아	르우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의 아들	1
	시므온	하나님께서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증거	2
	레 위	부부간의 협약의 끈	3
	유 다	자기로 인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는 인물	4
	잇사갈	보상으로 받은 아들	5
	스블론	부부를 함께 거하게 만든 사람	6
라 헬	요 셉	하나님께서서 자식을 더해 주실 것이다	11
	베냐민	내 능력의 아들	12
빌 하	단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증거	9
	납달리	씨름하는 자	10
실 바	갓	행운이 찾아오다	7
	아셀	행복한 사람	8

3. **㉠**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 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라(5절).

**㉠** (1) 70명이라는 수자는 창 46:27 및 신 10:22의 기록과 일치한다.

(2)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수자가 66명(창 46:26) 또는 75명(행 7:14)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3) 그러나 이 같은 수자상의 차이는 성경의 모순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66명이라는 수자는 야곱, 요셉, 므낫세 및 에브라임을 계수하지 않은 것이며 75명이란 수자는 요셉의 손자 5명을 가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4) 한편 여기서 '70'이라는 수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의미한다.

(5) 이처럼 70명이라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출애굽시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 이상(603,550명)이 되었다는 사실(민 2:32)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창 46:3)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4. **㉠**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6절)

**㉠** (1)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누이 디나(Dinah)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권속들의 성인(成人)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뜻이다.

(2)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처럼 거의 동년대에 죽은 이유는 그들 중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연령폭이 7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3)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그곳에 정착한 지도 어언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특히 본서에는 모세의 출생 및 성장(2장) 그리고 출애굽 사건(11장)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였다는 기록(12:40, 41)이 나오는데 이에 의거하여 볼 때 지금 이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약 350여 년이 흐른 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비교, 행 7:17-36).

5. **㉠** 이스라엘 자손이 '중다(衆多)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7절)

- Ⓐ (1) ‘증다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루>인데 그 뜻은 ‘결실이 풍부하다’이다.  
 (2) 그러나 창 1:22, 28;9:1 등에서는 이 말이 ‘생육하다’로 번역되어 있다.  
 (3) 그리고 ‘번식했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쉬레추>는 생물이 번식하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에 차고 힘에 넘쳐 꿈틀거리는 것을 뜻한다(참조, 창 1:20;시 105:30;겔 47:9).  
 (4) 마지막으로 ‘창성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렘부>인데 이는 대체로 선한 의미에서 ‘증가하여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  
 (5) 한편 이와는 달리 악이 증가하는 것을 뜻할 때에는 대개 <바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다(참조, 말 3:15).  
 (6) 결국 여기서도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권고(眷顧)하시고 그들 선조들과 맺으셨던 약속(창 46:3)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찾아 볼 수 있다.
6. ⓐ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7절)
- Ⓐ (1) 이에 관한 학설은 2가지로 대별(大別)되는데 215년의 ‘단기간 체류설’과 430년 대의 ‘장기간 체류설’이다.  
 (2) 그런데 이같이 서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견해가 생긴 근본 이유는 70인역(LXX)과 맛소라(Masoretic) 사본 간의 차이점 때문이다.  
 (3) 즉 맛소라 사본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70인역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참조, 12:40).  
 (4) 여기서 ‘단기간 체류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70인역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기간을 215년으로 산정(算定)한 것이다.  
 (5)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 족장들이 가나안에 거주한 기간은 창 12:4;21:5;25:26 등에 근거하여 산정하면 215년이 된다. 그러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거주한 430년이라는 총기간 중 가나안 거주 215년 간을 빼면 애굽 거주 기간은 215년 간이 된다는 것이다.  
 (6) 그러나 ‘장기간 체류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맛소라 사본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애굽 거주 기간을 430년으로 보고 있다.  
 (7) 이러한 주장은 행 7:6의 기록과도 부합(符合)되는데 거기에는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여기서 우리는 ‘장기간 체류설’을 더욱 타당한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주장이 성경 본문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본학적으로도 맛소라 사본의 권위가 70인역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7. ⓐ 야곱의 가족 70명이 불과 430년 간에 장정만 약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수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7절)
- Ⓐ (1) 충분히 가능하다.  
 (2) 맬더스(Malthus)에 의하면 인공적으로 인구 조절을 아니하는 한 매 25년마다 인구가 배가(倍加)한다고 한다.  
 (3) 그러므로 이 계산대로 한다면 500명의 인구가 300년을 지나게 되면 약 200만 명이 될 수 있다.  
 (4)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야곱 가족의 수자 70명 가운데에는 여자들 및 그 밖의 식구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니 이를 어렵잡아 계산하더라도 4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따라서 430년 간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된다.
8. ⓐ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인가? (8절)

- Ⓐ (1) 아마도 그는 **히소스(Hyksos) 왕조**를 몰리치고 새로이 들어선 제 18왕조의 세번째 계승자인 **투트모스 1세(Thutmose I, B. C. 1539-1514)**였을 것이다.
- (2) 그는 제 18왕조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으로 애굽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을 압제했다.
- (3)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투트모스 1세가 직접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 외에도 이전에 요셉이 쌓았었던 공적에 관하여 그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다.
- (4) 한편 이와 같은 사실에 의거해 볼 때 모세를 물에서 건져 내어 기른 '바로의 딸'(2:1-10)은 바로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햇셉수트(Hatshepsut, B. C. 1504-1482)**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9. ⓐ **애굽 왕이 이스라엘인들을 압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첫째,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과대 망상적(誇大妄想的)인 생각이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 아무리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 사람의 수효를 따라 잡을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3) 아마도 이스라엘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과 적개심으로 인하여 애굽 왕은 이처럼 지나친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 (4) 둘째, 이스라엘인들이 강대해지면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들이 애굽의 적과 연합하여 애굽을 무찌르고 애굽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애굽 왕이 바랐던 바가 곧 이스라엘인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6)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3:8)이었으니 이상과 같은 바로의 생각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참조, 3:19, 20).

10. ⓐ **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3가지 정책은 무엇인가? (11-22절)**

- Ⓐ (1)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려 하였다.
- (2) 둘째,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히브리 산파에게 명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였다.
- (3) 셋째, 두번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아이가 출생하거든 하수에 던지라고 명하였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셨으니(참조, 2, 3장) 이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인 것이다.

11. ⓐ **국고 성 비돔과 라암셋에 대하여 말하라 (11절).**

- Ⓐ (1) 국고 성(國庫城)은 군대의 보급 물품이나 전쟁시에 사용할 물자 또는 흉년 때에 남아도는 곡식들을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이다(참조, 창 41:33-57).
- (2) 그런데 국고 성 비돔과 라암셋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비돔이 나일 강과 홍해를 연결시킨 지역(地域)에 있었으며 라암셋은 옛날의 헤루폴리스(Heropolis) 성으로 고센 땅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였다는 것이다.
- (3) 한편 '비돔'이란 말의 뜻은 '태양 신의 거소(居所)'이며 '라암셋'이란 말의 뜻은 '태양 신이 그를 낳았다'이다.

12. ⓐ **본절의 '감독들'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11절)**

- Ⓐ (1) '감독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레 밋심>인데 이를 여자적(如字的)으로 번역하면 '조공(朝貢) 관리자' 또는 '봉사 관리자'란 말이 된다.  
 (2) 이러한 명칭은 강제 노동을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애굽의 공적인 공무 명칭이었다.  
 (3) 실제로 애굽의 많은 묘비와 문서들에서는 이러한 감독들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

13. ⓐ '바로'란 명칭의 뜻은 무엇인가? (11절)

- Ⓐ (1) '바로' (Pharaoh)란 말은 <파라오>라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다.  
 (2) 여기서 <파라오>란 뜻은 '큰 집' (the great house)이다.  
 (3) 그런데 '바로'라는 말이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명칭이 된 이유는 왕이 왕궁 곧 '큰 집'에서 살았기 때문인 듯하다.

14. ⓐ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번성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을 '땅에 충만케' (창 1:28) 하신다는 점이다.  
 (2) 물론 무조건적으로 '수의 증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개인이나 민족이 사멸했다는 사실(참조, 사 13:19-22)은 '창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반증(反證)해 준다.  
 (3) 한편 이러한 사실은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 127:3)라는 말씀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4) 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는 것은 교회가 악한 세상에서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수가 더 많아지느' (행 9:31) 것을 상징한다.  
 (5) 이처럼 바로의 막강한 권력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저지시키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공중의 권세'를 잡아 악의 세력을 조장시키는 사단(참조, 엡 2:2)도 결코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15. ⓐ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어떤 사람들인가? (15절)

- Ⓐ (1) '십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고 '부아'는 '소리치는 자'란 뜻이다.  
 (2)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니고 단지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로서 애굽 여인이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견해일 뿐만 아니라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이 셈족의 이름이라는 점과도 모순된다.  
 (4) 아뭏든 이들 두 여인은 인간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17절).  
 (5)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그들의 양심과 인간적 본능을 거스리는 큰 죄악이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다.  
 (6)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집이 번영토록 하셨다(21절).  
 (7)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불의(不義)인 줄을 알면은 절대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참조, 고전 13:6), 이는 곧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이다.

16. ⓐ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이 중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 주도록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남자 아이는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장래를 책임질 주역(主役)들이었기 때문이다.  
 (2) 이에 반해 여자 아이는 성장 후 애굽 남자와 결혼을 하는 등의 일로 쉽게 애굽 문화에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특히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은 철저하였으니(참조, 신 6:1-9)이 같은 교

육을 받고서 자란 히브리 남아(男兒)가 쉽게 애굽 문화에 동조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17. ㉠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문책받을 때에 거짓말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 그러한 거짓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18, 19절)

- ㉠ (1) 그들이 거짓말한 내용은 히브리 여인이 건강하여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2)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한 단면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악과 담대히 싸우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회피였기 때문이다.
- (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는 곧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17, 21절).
- (4)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곧 선(善)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5)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6:1, 2).

18. ㉠ 애굽 왕 바로가 세번제로 이스라엘인을 압제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그 죄악성을 평가해 보라(22절).

- ㉠ (1) 그 방법은 '모든 남자 아기를 하수(河水)에 던지라는 것'이었다.
- (2) 이 같은 방법은 히브리 산파를 시켜 은밀하게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잔인성과 범죄의 대담성이 극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그리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남아 뿐만 아니라 모든 타민족들의 생명을 경시하여 역사적으로 전쟁 포로를 대량 학살하거나 노예로 삼았었다.
- (4)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존엄성을 인정치 않았다. 쓸모없는 아기는 버리거나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참조, 신 12:31). 어린이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후부터이다.
- (5)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의 생명과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참조, 마 18:1-7).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풍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



## 제 2 장 모세의 출생 및 지도자로서의 준비 기간

단락구분 1-4 모세의 출생 / 5-10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 / 11-20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 21-25 모세가 심보라와 결혼하다

1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2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3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4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다

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치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13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

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4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재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18 그들이 그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었나이다

20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할 때 그가 그 딸 심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숨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 하나님이 그 고��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라

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모세의 생애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무엇인가?

**㉠** (1) 본장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2) 즉 모세의 출생과 출생지의 수난, 기적적인 구출과 궁중에서의 성장 그리고 애굽인 살

해와 미디안으로의 피신 및 결혼 등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3) 이러한 모세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겪었던 일련의 수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하셔야 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마 2:13-18).
- (4) 그리고 모세가 궁중에서 40년간 모든 애굽의 학문과 풍습을 익히며 성장하였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 거하시면서 공생애(公生涯)를 준비하셨던 것과 흡사하다(참조, 마 2:23; 눅 4:23).
- (5) 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민족적 대과업을 앞두고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간 생활하였던 것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사건의 모형이었다(마 4:1, 2).
- (6) 이처럼 우리는 본장에서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훈련시키시는지 그 과정과 섭리를 찾아 볼 수 있다.

2. **㉠ 모세의 부모와 형제 자매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1-4절).**

- ㉠** (1) 아버지 : 아므람(Amram)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고상한 백성’이다. 그는 레위 지파 고향의 아들(6:16-18)이며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하였다(6:20).
- (2) 어머니 : 요게벳(Jochebed)으로서 ‘여호와와 영광이시다’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는 레위의 딸이다(6:16-20).
- (3) 형 : 아론(Aaron)이며 그 이름의 뜻은 ‘고상함’이다. 그는 모세보다 3년 먼저 출생하였다(비교, 민 33:39; 신 34:7). 그는 뛰어난 능변가(能辯家)이자(4:14)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참조, 28장).
- (4) 누나 : 미리암(Miriam)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높다’이다. 아론과 모세의 누나였으며 후에 여선지자가 되었다(참조, 15:20).

3. **㉠ 출생시 모세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2절)**

- ㉠** (1) 외모가 준수하였다. 행 7:20; 히 11:23에도 모세는 출생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 (2)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모세의 뛰어난 용모를 범상치 않은 것, 즉 하나님의 경륜의 표징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었다.
- (3) 이렇게 목숨을 내건 모험 뒤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철저한 믿음이 작용하였으니(히 11:23) 곧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이스라엘 보존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 (4) 한편 이러한 면에서도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수많은 아기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호되었기 때문이다(마 2:13).

4. **㉠ 갈 상자란 어떠한 것인가? (3절)**

- ㉠** (1)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이다.
- (2) 이 파피루스는 우리 나라 갈대와는 달리 섬유질이 많아 종이 또는 돛자리 배의 원료로도 쓰였다. 이것은 손가락 굵기의 삼각형 줄기를 가진 것으로 약 3,4m 가량 자란다.
- (3) 여기서 ‘상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로서 창 6:14 이후에 나오는 ‘방주’와 똑같은 낱말이다.
- (4) 한편 이 상자에는 역청(瘡靑)과 나무 진을 발랐는데 그리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배의 바깥 부분에는 역청을 바른곤 한다.

5. **㉠ 역청이란 무엇인가? (3절)**

- ㉠** (1) 여기서 ‘역청’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제페트>인데 ‘코올 타르’를 의미한다.
- (2) 이 역청은 고체, 반고체,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된 탄화수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인위적

내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3) 이것은 주로 도로 포장이나 방수(防水) 재료로 사용되는데 고대 애굽인들은 이것을 시체의 방부제로도 사용하였다.

6. **㉠**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강물에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신앙이 약화됐기 때문은 아니다. 아마도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서 더 이상 숨길 도리가 없었던 듯하다.
- (2) 그러나 모세를 그냥 유기(遺棄)하지 않고 상자에 담아 갈대 숲에 두었으니 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구출되기를 기대하여서다.
- (3)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먼 발치에 서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보도록 하였다.
- (4) 모세의 부모의 이 같은 행위는 위급하고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보시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히 11:23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다.
- (5) 결국 그들의 이 같은 믿음의 결과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신앙의 원리를 굳게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 9:27-31).

7. **㉠** 모세를 물에서 건져 내어 키운 바로의 딸은 누구인가? (5절)

- ㉠** (1) 애굽 제 18왕조의 세번째 계승자인 투트모스 1세(Thutmose I, B. C. 1539-1514)의 딸 핫셉수트(Hatshepsut, B. C. 1504-1482)이다(참조, 1장 Q 8).
- (2) 그런데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와 아멘호텝 1세(Amenhotep I, B. C. 1560-1539)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독녀(無男獨女)였다.
- (3) 그러므로 그녀는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으나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여 그 왕위 계승권을 남편에게 넘겨 주었다.
- (4) 그러나 핫셉수트에게는 아들이 없이 어린 딸만 있었으며 급기야 그 어린 딸도 어려서 죽어 버렸다.
- (5) 그러니 물에서 건져 내어 양자로 키운 모세에게 핫셉수트가 얼마만한 정성과 사랑을 쏟았을런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참조, 히 11:24-26).
- (6) 여기서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보시고 교육시키시는지 그 섭리를 다시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8. **㉠** 바로의 딸, 즉 공주가 강물에서 목욕할 수 있었는가? (5절)

- ㉠** (1) 할 수 있었다. 고대 애굽에서는 여자들만을 위하여 특별히 구분해 놓은 강의 특정 구역에서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종종 목욕을 하곤 하였다.
- (2) 게다가 애굽인들은 나일 강을 신성시하였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자식도 잘 낳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 (3) 따라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려 준 것도 아마 그가 이 나일 강에서 건져진 아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9. **㉠** 모세를 기르게 된 자와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과 그 중요성을 말하라(8절).

- ㉠** (1) 모세를 기르게 된 자는 그의 생모(生母)인 요게벳이며 그와 같이 된 동기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재치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에게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다.
- (2) 그리하여 모세는 생모의 품안에서 유아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3)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생모로부터 그 자신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

손이라는 사실과 ‘여호와 신앙’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그는 40년간이나 애굽의 궁정에서 생활하며 그곳의 학문과 풍습을 배워 익혔으면서도(참조, 행 7:22) 쉽게 애굽의 문화에 동화(同化)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행 7:23).
- (5)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본분이기도 하다(참조, 신 6:1-9; 엡 6:4; 딤후 3:15-17).

10. ㉠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0절)

- ㉠ (1) ‘물에서 구원된 자’라는 뜻이다.
- (2) 즉 바로의 딸은 모세에게 <모우세스> (Mouses)라는 애굽식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여기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음’이란 뜻의 애굽어이다.
- (3) 그러나 이 애굽식 이름은 후일 ‘건져 내는 자’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식 이름인 ‘모세’로 바뀌었으니 그는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내는 자’가 되었다(참조, 3:10).

11. ㉠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때린 애굽인을 죽였던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11, 12절)

- ㉠ (1) 우선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은 고통받는 동족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즉 그는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참조, ㉠8) 바로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동족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인에게 민족적 분(憤)을 품고서는 자기 동족을 고난에서 구해 내고자 그 애굽인을 죽인 것이다.
- (4) 따라서 애굽인을 죽인 모세의 행위는 부귀와 영광이 보장된 애굽의 궁전 생활과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고통 사이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 준 것이다(참조, 히 11:24-26).
- (5) 이 같은 행동의 결과 모세는 애굽의 부귀와 영광을 잃고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이로써 그의 마음은 도리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참조, 히 11:25).
- (6)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권위를 부여받기 전에 취했던 조급한 행위였다. 즉 이러한 행동은 행위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신중성이 결여된 것이었다.
- (7) 그리하여 이 같은 행동은 결국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여야만 하였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 (8)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 즉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바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약 4:15).

12. ㉠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다음 날 동족들의 싸움을 보고서 어떻게 말했으며 또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4절)

- ㉠ (1) 모세는 먼저 잘못을 범한 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꾸짖으면서 싸움을 말렸다.
- (2)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모세가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것을 알 수 있다.
- (3) 그러나 싸움을 하던 이들은 이 같은 모세의 말림을 언짢게 생각하였으니 그 이유는 전날에 있었던 모세의 살인 행위 때문이었다.
- (4) 이처럼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은 오늘날의 우리의 사랑어린 충고나 훈계를 무력(無力)

케 한다. 즉 한번 범한 악은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후일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여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고전 10:31).

13. **㉠**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숨은 곳은 어디인가? (15절)

**㉠** (1) 미디안 땅이다.

(2) 이곳은 미디안 족속, 즉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Keturah)의 자손들(참조, 창 25:1, 2, 4)이 살던 땅이다.

(3) 그들은 엘랏 만(Gulf of Elath) 동편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모압 경계선 북부까지 퍼져 나가기도 하였다(창 36:35; 민 22:4, 7).

(4) 모세는 이곳에서의 40년간 훈련을 통해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14. **㉠**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하라 (18절).

**㉠** (1) 본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르우엘'로 소개되고 있으나 3:1에서는 '이드로'로 그리고 사 4:11에서는 '호밥'으로 나와 있다.

(2) 여기서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고, '이드로'는 '탁월하다' 그리고 '호밥'은 '사랑하는 자'란 뜻이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이름이 나와 있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4) 첫째,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란 말을 할아버지에게도 사용하며 '딸'이란 말을 손녀에게도 사용한다. 그러므로 르우엘은 '일곱 딸'의 조부이며 '일곱 딸'은 그의 손녀들이다. 그리고 이드로는 르우엘의 아들로서 '일곱 딸'의 아버지이다.

(5) 둘째, 이드로나 호밥이 모두 르우엘의 아들들로서(참조, 민 10:29) 모세의 처남이었을 것이다.

(6) 셋째, 사 4:11의 '장인' (히, 호텐)이란 말은 '처남'이란 뜻도 지닌 단어이므로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고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일 것이다. 그리고 '이드로'란 이름은 르우엘이 그의 족속들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이거나 존칭이었을 것이다.

(7) 이상의 3가지 견해 중 학자들간에 대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견해는 세번째 견해이다.

15. **㉠** 모세의 아내는 누구인가? (21절)

**㉠** (1)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이다.

(2) 여기서 '십보라'란 이름의 뜻은 '지저귀는 새' 또는 '목청을 떨며 노래하는 자'인데 '십보라'를 정확히 음역하면 <칩포라>가 된다.

(3) 그녀는 모세의 첫번째 아내로서 '게르숨'과 '엘리에셀'의 어머니였는데(출 2:22; 18:3),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두 아들과 함께 그를 따라간 사람이었다.

(4) 그리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들의 양피를 베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살린 지혜로운 여자였다(출 4:24-2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를 즉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16. **㉠** 모세가 낳은 첫아들은 누구인가? (22절)

**㉠** (1) '게르숨' (Gershom)이다.

(2) '게르숨'이란 이름의 뜻은 '여기에 낫설은 사람' 즉 '여기서 나그네가 됨'이며 어원적으로 애굽어이다.

(3) 이같은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

러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애굽에서 생활하던 때와는 달리 모세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도록 연단하였을 것이다.
- (5) 특히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고 말하였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간간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욥1, 2장).

17. **㉠** 여러 해 후에 죽었다는 애굽 왕은 누구인가? (23절)

- ㉠** (1) 여기에서 죽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애굽 왕'은 15절에 언급된 왕과는 동일인이지만 1:8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는 다른 인물인 듯하다.
- (2) 아몽든 이 사람은 투트모스 3세(Thutmose III, B.C. 1482-1448)로 추정되어지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 왕이었던 아멘호텝 2세(Amenhotep II, B.C. 1448-1424)의 아버지이다.

18. **㉠**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23절)

- ㉠** (1)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 (2)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새로운 왕에게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다.
- (3)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5:17).

19. **㉠**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하셨는가? (23-25절)

- ㉠** (1) 기도를 들으시고 선조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眷念)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창15:13-16).
- (3) 그리고 '권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다.

20. **㉠**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 (1) 기도의 인내이다. 수십 년간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선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으며 때가 이르자 응답해 주셨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기도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창15:14;46:4)에 의해 보증된 것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간구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셨다.

21. **㉠** 모세의 생애를 간략히 구분지어 보라.

- ㉠** (1) 애굽에서의 40년 : 유년 시절에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배웠으며 그 이후에는 애굽의 궁전에서 그곳의 모든 학술을 다 익혔다.
- (2)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세는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과 겸손의 미덕을 쌓아 나갔다.
- (3)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 :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 문턱에까지 인도해 내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다.
- (4) 한편 이와 같은 모세의 생애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투영하고 있다(참조, ㉠1).

# 제 3 장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민족 해방의 사명을 부여받다

단락구분 1-6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심 / 7-1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다 / 11-14 사양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심 / 15-22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1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9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

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나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 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

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 물품을 취하리라  
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1. **㉠ 본장이 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본서 전체에 있어서 내용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 도입부라는 데 의의가 있다.  
 (2) 즉 본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세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부여하셨다(10절).  
 (4) 그런데 이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로서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는 말주변이 없었으니(4:10)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못한 자였다.  
 (5)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모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 호렘 산은 어떠한 산인가? (1절)**

- ㉠** (1) '호렘 산'은 '시내 산'의 다른 이름(신 5:2)으로서 '건조한 산'이란 뜻이다.  
 (2) 이 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시나이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예벨 무사'(Jebel Musa)인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3) 한편 이 산이 '하나님의 산'(민 10:33)으로 불리워진 이유는 훗날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다(참조, 19, 20장).

3. **㉠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2절)**

- ㉠** (1) 이는 천사(天使)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출현하지 않았으니 이 사자가 아마도 삼위 일체의 제 2위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4. **㉠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2절)**

- ㉠** (1) '떨기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세네>로서 '가시덤불'(thorn bush)을 의미한다.  
 (2) 즉 이것은 시내 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덩굴이다.  
 (3)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우람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무들과 대비되는데 여기서는 노예로서 굴욕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것이 타지 않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되 끝까지 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여기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으니(참조, ㉠ 4)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곧 애굽의 압제하에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사 그 같은 압제하에서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나타낸다.

6. **㉠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여기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참조, ㉠ 5).  
 (2) 그리고 여기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난을 겪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불꽃 가운데서도 그것이 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 118:18).  
 (3) 아뭏든 이처럼 불가사의한 사건은 모세를 불러서 특수한 임무를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啓示)의 한 방편이었다.

7. ㉠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4절)

- ㉠ (1)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이상히 여겨 그것에 가까이 올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셨다.  
 (2) 여기서 '부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외치다', '칭하다'란 뜻으로 대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다.  
 (3)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그를 2번이나 부르신 것은 일반적으로 사태의 긴급성을 뜻할 뿐만 아니라(참조, 삼상 3:10)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의미한다.  
 (4)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연민에 사로잡히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마 23:37)고 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난다.

8. ㉠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5절)

- ㉠ (1)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즉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댄발로 다니는 것이 관례였는데(눅 15:22) 이는 자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고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세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이라곤 단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지로 더럽혀진 신을 벗듯이 우리의 죄를 벗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9. ㉠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6절)

- ㉠ (1)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창 15:1-21; 26:2-5; 35:1-12).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先祖)들과 자신을 연계시킴으로써 관계의 계속성을 나타내 보이셨다.  
 (3) 그러므로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모셔 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10. ㉠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왜 얼굴을 가렸는가? (6절)

- ㉠ (1)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본능적 행위이다.  
 (3) 그러므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엘리야도 똑같은 동작을 취했으며(왕상 19:13)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거룩한 천사들도 그러했던 것이다(사 6:2).  
 (4) 특히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사 6:5)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 죽을 수밖에 없음을 탄식한 신앙 고백이다.

11. ㉠ '내가 정녕히 보고' '내가 내려와서' 등의 신인 동형 동성적(神人同形同性的)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라(7, 8절).

- ㉠ (1)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온다(창 11:5, 7; 18:21; 시 18:9; 144:5 등).  
 (2)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거나 인간의 속성(屬性)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표현 양식이다.  
 (3) 그런데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중에서 특히 육체적 속성에 관한 표현은 비유적 표현

(比喩的表現)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인간의 속성이 투사(投射)된 존재로 이해하면 안 된다.

(4) 한편 이러한 표현은 인격적(人格的)인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 자연히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다.

12. **㉠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憂苦)를 ‘알았다’는 말을 간략히 설명하라 (7절).**

- ㉠** (1) ‘본다’는 말은 시제상(時制上)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적 표현이다.  
 (2) 그리고 ‘듣다’의 히브리어 <שמע>는 ‘경청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원을 걸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경청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3) 한편 ‘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יָדָע>는 ‘확인하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3.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무엇을 뜻하는가? (8절)**

- ㉠** (1) 팔레스틴 본토를 말한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다(민13:27; 신 26:9, 15; 31:20; 렘11:5; 32:22; 겔 20:6).  
 (2) 그러나 ‘아름답고 광대하다’는 표현은 근동 지방의 메마른 사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갈혀 살았던 상황(참조, 창 47:27)과 비교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3) 즉 팔레스틴 본토는 사실상 그렇게 넓지 않으며 오늘날 벨기에의 크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주하던 고센 지역 보다는 훨씬 더 넓다.  
 (4) 그리고 ‘아름답다’는 표현도 가나안 땅이 주변의 사막 지대와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비옥하고 잘 가꾸어져 있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5)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소와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꽃을 통해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6)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실 풍성한 은혜를 뜻하는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그 무엇으로도 족히 묘사할 수 없는 은혜이다.

14. **㉠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족속들이 있는가? (8절)**

- ㉠** (1) 여기에는 여섯 족속, 즉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 언급되어 있다.  
 (2) 그러나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여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곤 한다(신 7:1; 수 3:10; 24:11).  
 (3) 그외에도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 족속 가운데서 가나안, 헷, 히위 족속만이 언급되어 있는 곳(23:28)도 있고 겐, 그니스, 갓몬, 르바 족속을 포함한 10족속이 언급되어 있는 곳(창 15:19-21)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들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로서 이스라엘에 의해 거의 전멸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살아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다(참조, 왕상 9:20, 21).

15.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었다.  
 (2) 그런데 모세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겸손히 대답하였다.

- (3) 즉 40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통해 겸손을 몸에 익혔던 것이다(참조, 행 7:25).
- (4) 또한 그 당시 모세의 상황은 실제로 절망적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나이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옛날의 지위를 잃어버린 그는 한낱 무명(無名)의 목자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다.
- (5) 한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도 이러한 겸손을 보였었다(참조, 렘 1:4-6).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 겸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참조, 롬 3:10).

16. **㉠**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2절)

- ㉠** (1)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상의 완전한 보장은 없다. 출애굽 사역의 주역자(主役者)는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다. 따라서 주역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보장의 증거로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이 산', 즉 '호렘 산'에서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7. **㉠**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가? (13절)

- ㉠** (1)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 (2)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여러 신들은 제각기 이름이 있었다. 그 예를 들면 가나안의 바알(Baal), 아스다롯(Ashtaroth), 모압의 그모스(Chemosh) 그리고 암몬의 몰록(Moloch) 및 블레셋의 다곤(Dagon) 등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도 각기 이름이 있었으니 라(Ra), 오시리스(Osiris), 하솔(Hazor), 프타(Phthah) 등이었다.
- (4)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히 그들의 '조상의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였을 것이다.

18. **㉠**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뜻은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은 <예호와>라는 단어의 여자적(如字的) 번역으로 하나님의 본질, 그의 완전함과 그리고 무조건적이고도 독립적인 존재 근거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 (3) 또한 <예호와>란 이름은 시작과 끝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이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4)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 귀절은 계 1:4, 8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 (5) 한편 '여호와'는 영어 'Jehovah'의 음역인데 실제로는 모음이 없으므로 히브리 원어가 'YHWH'로 표시되며 보통 '야훼' 또는 '여호와'로 읽혀진다.

19. **㉠**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또 어떤 말을 하도록 했는가? (18절)

- ㉠** (1) 이스라엘 장로들이었다.
- (2) 이들은 특별한 정치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시대에 각 혈연 집단의 대표자로 추앙받던 자들이다.

(3)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할 말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라는 청원이다.

(4) 이처럼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기를 멸시하며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0. **㉠**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9절)

**㉠** (1)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힘'이나 '능력' 또는 '수단'을 나타내는 환유법 (metonymy)적인 표현이다(참조, 창 32:11; 사 59:1).

(3)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역동적(dynamic)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

21. **㉠**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21, 22절)

**㉠** (1)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했다(참조, 1:8-14).

(2)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었다.

(3)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은 억울한 일을 신원(伸冤)하시는 하나님의 정의(正義)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승리의 표징이기도 하다(참조, 살전 4:6).

### 연구자료

요셉에서부터 출애굽까지의 애굽 역사.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갈 당시는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중왕국의 제 12왕조 시대였다(B. C. 1991-1786). 이 시대에 만들어진 베니 하산(Beni Hasan)의 무덤 벽화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애굽 여행에 대한 배경을 보여 준다(창 12, 46, 47장). 그 후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의 제 2중간기에 힉소스 왕조(B. C.1640-1540)가 일어났다. 이들은 셈 계통의 아시아인 통치자이었으나 단명했을 뿐 아니라 극히 약했다. 다음은 모든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 왕조인 신왕국의 제 18왕조와 제 19왕조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제 19왕조의 통치자는 라암세스 2세이다. 라암세스는 군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어떤 학자들은 비돔과 라암셋도 이때에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건설 사업들을 근거로 출애굽 사건이 B. C. 13세기에 발생했다는 출애굽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 기사는 증축 확장되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와 같은 논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제 4 장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단락구분 1-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3가지 이적 / 10-17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약속 / 18-23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 24-26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 / 27-31 모세와 아론의 재회

1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5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7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8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욕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욕지에서 피가 되리라

10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뇨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8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4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25 심보라가 차들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심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8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낸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29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심에 대해 계속해서 모세가 이를 사양하면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으로 친히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여 보이셨다.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민족적 대역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론이 모세를 보좌(補佐)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14-16절).
- (4) 그리하여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애굽을 향해 되돌아 가게 된 것이다(18-20절).
- (5) 결국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잠 19:21).

2. **㉠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또다시 한 변명은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야곱 이후 400여 년 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이러한 염려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한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3:18) 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아직도 그의 믿음이 부족함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신 것은 무슨 의도에서인가? (4절)**

- ㉠ (1) 일반적으로 뱀을 다루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뱀의 목을 잡는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순종 여부 및 그의 믿음을 보려는 데 그 뜻이 있었다.
- (3)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으니 뱀이 다시금 지팡이로 변하였다.

4. **㉠ 여기서 나오는 ‘뱀’ 이 상징하는 의미와 성경 전체에 나타난 ‘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라 (4절).**

- ㉠ (1) 본절의 ‘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쉬>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뱀을 지칭한다.
- (2) 이 뱀은 일반적으로 성경상에서 사단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데(계 12:9) 여기서서는 애굽을 상징한다. 실제적으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성행했었다.
- (3) 또한 뱀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위험하고 사악한 동물로 다루어졌다.
- (4) 그리하여 뱀은 악인(시 58:4), 앗수르 사람(사 14:29), 바벨론 사람(렘 8:17), 이스라엘의 적들(신 32:33), 술의 결과(잠 23:32), 일상의 위협(시 91:13), 서기관과 바리새인(마 23:33) 등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 (5)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한 가지 있으니 곧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타이른 것이다. 이처럼 뱀은 뛰어난 지혜로움을 상징하기도 한다(마 10:16).

5. **㉠ 모세가 지녔던 지팡이는 어떠한 것이었나? (4절)**

- (A) (1)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로서 연로한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도록 명하셨다. 사실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려는 것이었다.  
 (4)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어 자신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참조, 삼상 9:20, 21; 10:1).
6. **㉠** 모세가 두번째로 받은 '문둥병'의 이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 7절)  
 (A) (1)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을 의미한다.  
 (2) 당시 문둥병은 신의 저주로 인한 불치(不治)의 병으로 여겨졌는데 (대하 26:19)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노예 생활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했던 불순결한 죄악도 암시하고 있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문둥병과 같은 생활로부터 다시금 회복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  
 (4) 따라서 이 두번째 문둥병 이적은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낼 소명과 함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7. **㉠**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에 관하여 설명하라 (6, 7절).  
 (A) (1)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문둥병은 그 종류에 있어서 무척 다양하다. 현대 의학 용어로 말하면 백반(白斑), 건선(乾癬), 백선병(白癬病), 한센씨병 등과 같은 피부병도 그곳에는 문둥병으로 다루어져 있다 (왕하 7:3-9; 눅 17:11-19).  
 (2) 한편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자는 의식상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 (레 13, 14장).  
 (3) 또한 이스라엘인들은 이 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으며 따라서 문둥병자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거한 능력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조, 왕하 5장).
8. **㉠**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민으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A) (1) 첫번째 이적, 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두번째의 문둥병 이적은 그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번째 것보다는 쉽게 믿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2) 한편 '표징'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신적인 사명과 능력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 주는 증거를 뜻한다.
9.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3가지 이적 중에서 호렘 산에서 보여 주지 않은 이적은 무엇인가? (9절)  
 (A) (1) 하수(河水)가 육지에서 피로 변하는 이적이다.  
 (2) 한편 여기서 '하수'는 '나일 강'을 가리키는데 애굽인들은 옛날부터 이 나일 강을 오시리스(Osiris) 신이 준 신수(神水)로 여겨 신성시하였다.  
 (3) 그런데 헤카타이우스(Hecataeus)나 헤로도투스(Herodotus)가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애굽인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나일 강의 중요성은 정치, 경제, 종교를 망라하는 엄청난 것이었다.  
 (4) 따라서 모세가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참조, 7:17-8:14).
10. **㉠** 본절에 나오는 모세의 또 다른 변명은 무엇인가? (10절)  
 (A) (1) 말썽새가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같은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바로의 궁전에

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때문이다(행 7:22).

- (3)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서로 상반되는 2가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첫째는 겸손이다. 이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는 가운데 체득(體得)한 자세이다.
- (5) 둘째는 머뭇거림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의 변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번번이 주셨지만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는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6)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는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라고 나설 수 있는 결단의 자세이다.

11. ㉠ 모세의 계속되는 변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자 무조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 (2) 이 같은 모세의 자세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다.
- (3) 그러나 연약한 인간을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소명(召命)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부족일 수밖에 없다.
- (4)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유 없는 변명에 화를 발하셨다.
- (5)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벌하시거나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를 권면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볼 수 있다(요 13:1).

12. ㉠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언자(代言者)로 누구를 삼으셨는가? (15절)

- ㉠ (1)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셨다.
- (2)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직접 모세의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12절)
- (3)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간주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3. ㉠ 모세가 장인에게 공손히 자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절)

- ㉠ (1) 성도들이 인간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윤리를 견지(堅持)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40여 년 동안 그의 장인 집에 거주하였었다.
- (3) 그러므로 그가 장인 집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려 함에 있어서 먼저 장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올바른 일이다.
- (4) 이처럼 모세가 인간 윤리면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였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세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였던 것이다.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참조, 창 17:1-9)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 (2) 그 본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며(렘 31:9, 20; 호 11:1) 불쌍히 여기시고(시 103:13)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의 자비를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것(삼하 7:14, 15; 시 89:31-35)이다.

- (3)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 (4)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명칭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 (5)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獨子)가 아니라 처음 난 장자로 간주되었을 뿐이며 다른 민족보다 종교적 특권을 좀더 갖고 있었을 뿐이지 결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마 3:9).

15. **㉠** 길의 숙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까닭은 무엇인가?(24절)

- ㉠** (1)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명령(창 17:10)에 불순종한 것은 아마도 이방인 부인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다.
- (3)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것 같다(참조, 18:2, 3).
- (4)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부터 솔선 수범하여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써 그 행위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마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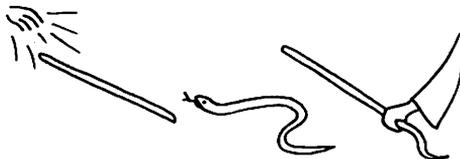
16. **㉠** 십보라가 모세를 '피 남편'으로 부른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1)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림으로써 모세를 다시 남편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즉 아들의 피로 인해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사실상 모세는 십보라에게 피로 산 남편이 되는 것이다.

17. **㉠**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9절)

- ㉠** (1)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직도 없는 야만적인 집단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 (2) 비록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정치 조직이 없었지만 각 지파별로 장로를 중심으로하여 내적 질서를 유지한 채 한 민족으로서의 존재와 종교적·문화적 전승을 유지하고 있었다.
- (3) 또 그들이 모세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믿으며 곧 여호와께 경배한 것은 그들이 비록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4절).

# 제 5 장 모세의 해방 요구와 보다 심해지는 바로의 압제

단락구분 1-5 모세와 아론의 해방 요구 / 6-9 보다 압제를 가하는 바로 / 10-14 벽돌용 짚을 얻지 못한 백성들의 고통 / 15-21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 / 22-23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은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5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줌게 하라

8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회생을 드리자 하니

9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니

11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은 땅에 흠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17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19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1. ㉠ 본장에 나타나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졌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때때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 (2) 본장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큰 축복을 누리기 전에 바로로부터 보다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6-14절).
- (3) 그러나 성도들에게 더욱 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 (4)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鍊鍛)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참조, 롬 5:3-11).
- (5)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획득하시었다(골 1:20).
- (6)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이나 위협이나 칼'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롬 8:35, 37).

2. ㉠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을 쉽게 알현(謁見)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당시 애굽에는 왕이 백성들의 요구와 탄원을 언제,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 주는 행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 (2)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신민(臣民)으로서 바로를 만나 뵈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3. ㉠ '절기를 지키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1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그>인데 '축제(feast)를 즐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다.
- (2) 그 당시 사람들과 민족들은 각기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 신의 영광을 기리며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뜻하고 있다.
- (3) 한편 모세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은 그들을 단합시키며 하나님의 선민 의식(選民意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참조, 대하 29장).

4. ㉠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 곧 애굽의 바로 밑에서 갓은 학대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즉 그분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전 1:27-29).

5. ㉠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바로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2절)

- ㉠ (1)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했다.
- (2) 이 말 속에는 각 지역에 따라 주관하는 신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방인의 미개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 즉 바로는 이스라엘인이 신(神)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무명(無名)의 신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3) 또한 이 같은 말에는 다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에 대하여 도전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즉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으니 어떻게 그에게 복종하겠느냐는 자세이다.
- (4) 이는 곧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7:14)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이스라엘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신 따위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곧 위신 문제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바로의 강박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셨다. 곧 결정적인 때에 바로를 굴복시키시어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참조, 3:19-22; 12:31-36).

(6) 여기서 우리는 천하 만물, 심지어 인간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오묘함을 깨닫게 된다(참조, 욥 11:7-11).

6. ㉠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명칭은 무엇을 뜻하는가? (3절)

㉠ (1)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신 곧 잡신들과는 다른 참신, 즉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7. ㉠ '사흘 길'은 어느 정도의 거리로 추정할 수 있는가? (3절)

㉠ (1) 히브리인들의 길이 및 거리 표시법은 오늘날처럼 명확한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드물다.

(2) 그들은 주로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뜻하는 '규빗'(창 6:15)을 길이 단위로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행 1:12), '하룻길'(눅 2:44), '돌 던질 만큼'(눅 22:41) 등과 같은 말을 거리를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3) 여기서 '규빗'은 보통 '45.6cm'로 환산되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1.1km' 그리고 '하룻길'은 '32km'로 환산된다.

(4) 그러므로 '사흘 길'은 '하룻길'의 3배의 거리, 즉 '96km' 정도의 거리로 추정되어진다.

(5) 그러나 여기서 '사흘 길'이란 말은 정확하게 96km 지점까지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8. ㉠ 본절에서 '은역'이나 '칼'은 무엇을 뜻하는가? (3절)

㉠ (1) '은역'은 악성 유행병을 말하며 '칼'은 '침략자', 즉 '병기를 지닌 자'를 의미한다.

(2)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종종 '은역'이나 '칼'과 같은 것을 신(神)들이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처벌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3) 본절에 나타난 모세의 말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한 것이다.

(4) 한편 '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가>는 '적개심을 가지고 때리다', '공격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9. ㉠ 모세의 재청(再請)에 대해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4절)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사실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게 해 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당시의 종교적 관념에 의할지라도 정당한 것이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였다.

(3)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사실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권(利權)만을 생각하고서는 모세의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10. ㉠ 모세의 재청에 대한 바로의 반응에서 나타난 지도자상(指導者像)은 무엇인가? (4-9절)

㉠ (1) 철저하게 독선적(獨善的)인 폭군형 독재자이다.

(2) 한편 독재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貫徹)하기 위하여 갈수록 더욱 심한 탄압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참조, 6-9절).

11. ㉠ '간역자'와 '패장'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6절)

㉠ (1) '간역자'는 히브리어로 <나가스>인데 1:11의 '감독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레 및 심>과는 그 직위가 다른 것 같다(참조, 1장 ㉠ 12).

(2) '감독들'은 비교적 소수의 고위층으로 구성된 반면 '간역자'는 그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솔한 애굽인들이었으며 소수의 이스라엘인도 포함된 듯하다.

(3) 그리고 '패장'(牌長)은 작업 현장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채용된 사람들을 가리킨다(참조, 14절).

12. ㉠ 바로가 모세의 청을 듣고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토록 한 명령은 무엇

인가? (7절)

- A** (1)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제조의 재료로 쓰이는 짚을 제공해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2)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벽돌이 짚과 점토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기와의 차이가 있지만 라암세스 2세(Raamses II, B. C. 1299-1232)가 건축한 비돔 성은 일부가 짚이 섞인 벽돌로 지어져 있음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드러났다.

13. **Q**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11절)

- A** (1) 애굽에서는 추수시에 곡식 이삭이나 이삭 밑부분의 줄거리를 자른다. 따라서 짚은 거의 땅에 남아 있게 된다.  
 (2) 여기서 짚을 주워 오라는 말은 곧 이러한 것들을 주워 오라는 것이다. 그 추수량이 많은 애굽의 삼각주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짚을 주울 수 있었다.  
 (3) 그런데 실제로 이 작업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벽돌 생산량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14. **Q** 패장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맞는 것을 가리켜 '왕의 백성의 허물'이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A** (1)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2) 혹자는 '왕의 백성'이 '애굽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본질을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구타하나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3)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왕의 백성'을 '이스라엘인'으로 보아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여 구타당하나이다'로 번역하였다.  
 (4) 한편 공동 번역은 본절 전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당신의 종들은 짚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5) 결국 본질의 '왕의 백성'이란 '애굽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

15. **Q** 바로 왕이 패장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한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A** (1) 이와 같은 바로의 냉담한 반응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으며 그 악한 인간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 어떠한 악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2) 하지만 우리는 본서를 읽어 나가면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능히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다.

16. **Q** 패장(牌長)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로의 탄압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21절)

- A** (1)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해방을 요구하여서 바로의 압제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여기서 우리는 정의나 진리보다도 순간적인 안일(安逸)을 더 원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을 찾아 볼 수 있다.  
 (3) 즉 모세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장들은 일시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모세의 의로운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4) 이처럼 굳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다가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곧 실망하여 원망하기 일췌이다(참조, 15: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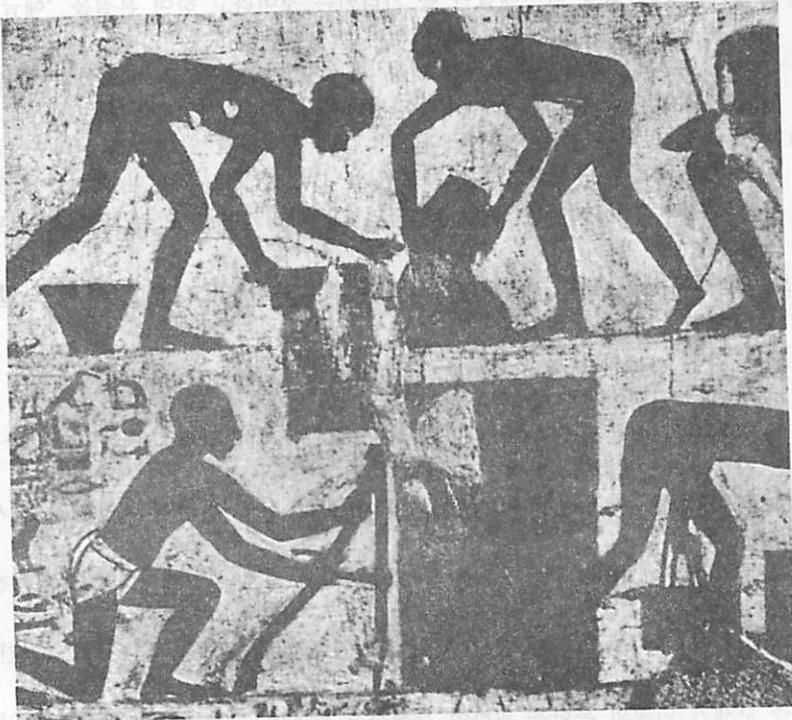
17. **Q** 이스라엘 패장들의 원성(怨聲)을 들은 후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2, 23절)

- A** (1) 하나님께 즉시 하소연하였다.

- (2) 모세는 자신이 시도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더우기 패장들의 비난까지 듣게 되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 (3)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평처럼 보이는 모세의 기도는 실상 불평이 아니다.
- (4) 모세의 절망적인 듯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不信)이나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자 분투하는 경건한 영혼의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 (5) 이처럼 모세는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 그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롬 12:12)라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화보자료

강제노동을 하는 히브리인들. 이 벽화는 테베 근처 레크미레의 분묘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벽돌을 제작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나님께서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동은 더욱 혹독해졌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탄원이 있을 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도록 명령했다(7절). 이러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끝내 '출애굽' 할 수 있었다.

# 제 6 장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단락구분 1-8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 9-12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 / 13 하나님의 명령 / 14-27 모세와 아론의 계보 / 28-30 모세가 다시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4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

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เบน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수는 일백 삼십 칠 세이었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랍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일백 삼십 삼 세이었으며

19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일백 삼십 칠 세이었으며

21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베허와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은 잇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삼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와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1. **㉠** 본장과 전장과의 내용상의 관계를 설명하라.

- ㉠** (1) 본장의 내용은 전장 마지막 부분 (22,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다.  
 (2) 즉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려다 부딪힌 난관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다.  
 (3) 한편 본장에는 모세와 아론의 제보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출애굽 사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의 제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탄원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가? (1절)

- ㉠** (1) 강한 손을 더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2) 여기서 ‘강한 손을 더한다’는 말은 의인적(擬人的) 표현인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처럼 추상적인 내용을 인간의 구체적인 신체 활동과 연결시켜 표현하곤 한다.  
 (3) 그런데 ‘강한 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참조, 3장 **㉠** 23).

3. **㉠**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절)

- ㉠** (1)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서 위안을 받으라는 뜻을 띠고 있다. 즉 하나님께선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시며 무한한 완전자(完全者)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2) 또한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지켜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이다.  
 (3) 한편 ‘여호와’께선 약속한 바를 이행하시며 그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삼상 15:29).  
 (4)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낼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4.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선 아브라함에게 친히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창 15:7).  
 (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선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도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셨다(창 28:13).  
 (3) 그렇다면 본질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관한 설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4)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선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5)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으로써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참뜻을 알게 하실 것이다(참조, **㉠** 3).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4절)

- ㉠** (1) 창 15:18-21; 17:7, 8; 26:3; 28:13 등이다.

(2) 한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는 자연적인 기득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것이다.

6. **㉠ 낙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5 절)**

㉠ (1) 인간의 허약이 극도에 이르고 인간의 신앙이 너무도 미약해져 마침내 불신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신다는 점이다.

(2) 예를 들면 믿음이 없었던 도마를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수난의 증거를 보여 주시며 더욱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셨다(요 20:2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한 종이라도 계속 돌보시며 그로 하여금 좀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게 하신다.

7.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구원의 내용을 요약해 보라 (6-8 절).**

㉠ (1) 바로에 의하여 부과된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고역(苦役)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 주신다.

(2)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여 혈연 관계와 같은 친근한 관계를 맺으신다(6절).

(3) 몇몇 개인들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7절).

(4)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

(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 그곳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신다.

(6) 한편 이와 같은 구원의 내용은 육적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요 1:12, 13)들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좋은 실례가 된다.

8. **㉠ ‘편 팔’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6 절)**

㉠ (1)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인법적 표현으로서 ‘강한 손’이란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 2).

(2) 이처럼 히브리 문학적 표현에 있어서 ‘손을 편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며 또한 능동적이고도 힘찬 도움을 뜻한다.

9. **㉠ 본절에서 ‘기업’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8 절)**

㉠ (1)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라샤)인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inheritance)을 뜻한다.

(2)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얻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것임을 의미한다(참조, 신 9:5, 6).

(3)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그들은 각 지파의 인구 비례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았다(수 14-19장).

(4) 그러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자손된 성도들이 누리는 ‘기업’은 ‘영생’이니 이는 가나안 땅과 같이 현세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영원한 기업’이다(히 9:15).

10. **㉠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의 구원 내용을 제시하신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라’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확실히 성취하실 것을 의미한다.

(2)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로라’(I am Jehovah)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who I am, 3:14)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참조, ㉠ 13).

11. **㉠**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9절)

- ㉠** (1) 모세의 출애굽 시도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욱 가중(加重)시켰기 때문이다.  
 (2) 즉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해방이라는 목표에는 찬성하였지만 이를 성취하는데 뒤따르는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하였다.  
 (3)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사 안일적인 극도의 이기주의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참조, 5장 ㉠16).

12. **㉠**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 ㉠** (1) 성경적 사고 방식(思考方式)에 의하면 이름이란 단순한 신분의 호칭이 아니다. 이름이란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본성(本性)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 인간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2) 특히 구약에서의 '이름'은 그 중심된 개념인 본질적 존재(本質的 存在)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람과 하나님 양자(兩者)에게 모두 적용된다.  
 (3) 한편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다 양한 성품의 소유자이심을 의미한다.  
 (4)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는 이름은 계시적 의미를 내포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적인 특성을 표현하면서 가장 완전한 신성(神性)의 자기현시(自己顯示)이기도 하다.

13. **㉠**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稱號)를 열거하고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

**㉠**

칭 호	의미(意味)
예호와 (Yahweh)	영어로 'YHWH'로도 표기될 수 있다. 고대에 이것이 어떻게 발음되었는가는 불명확하나 '야웨'가 가장 정확한 발음이다. '여호와'는 위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틀린 발음이다. 3:14에 의하면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다. 참으로 현존(現存)하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나는 있게 한다,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을 있게 한다'라는 원인적(原因的)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이름이 가진 중요성은 그것의 언어학적 가치에 있지 않고 역사적 연관성에 있다. 즉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本性)에 이 이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참조, 3장 ㉠19).
엘 (El)	하나님의 '강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강조하는 명칭이다(신 7:21; 삼하 22:33).
엘 쏘다이 (El 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다(출 6:3; 눅 1:49).
엘로힘 (Elohim)	이 명칭은 복수형으로서 하나님의 '위엄' 및 '충만하심' 그리고 '삼위 일체'(三位一體)를 강조한다(창 1:26). 70인역(LXX)에서는 보통 <데오스>란 말로 번역하고 있다.
엘 엘리 온 (El El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 또는 '영원한 하나님'이란 뜻이다(창 14:18).
엘 브릿 (El Berith)	'계약의 하나님'을 의미한다(삿 9:46).
엘 엘로헤 이스라엘 (El Elohe-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다(수 8:30).
엘 올람 (El Olam)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창 22:33).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엘 베크엘(EI Bethel)	하나님께서 베크엘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뜻하고 있다(창 35:7).
엘 로이(EI Roi)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창 16:13).
엘로아(Eloah)	'엘로힘'의 단수 호격이다. 욥기에 자주 나온다(욥 3:4; 4:9; 6:4).
예호와 제바울(Jehowah-Tsebaoth)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다(사 1:9; 6:3).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카도쉬(Kadoshi)	'거룩한 자'란 뜻이다(시 71:22).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로부터 분리된 자이심을 의미한다.
아도나이(Adonai)	'주'라는 의미로서(수 3:11)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인격적이고도 친근한 관계를 나타낸다.
바 알(Baal)	'주', '소유자'란 뜻으로서 사람의 지도자에게도 사용된 호칭이다(민 21:28). 그러나 본래는 가나안의 폭풍과 풍요의 신을 가리켰다.
그외의 칭호들	아돈, 추르, 기보르, 압, 샷파트, 가알, 야사, 팔라트, 마겐, 에알루트, 차디크 등이 있다.

14.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10-12절)

- ㉡** (1)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2)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 즉 언변(言辯)이 부족한 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  
 (3) 또한 그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들겠느냐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모세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니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모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었다(렘 32:17).

15. **㉠**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14-2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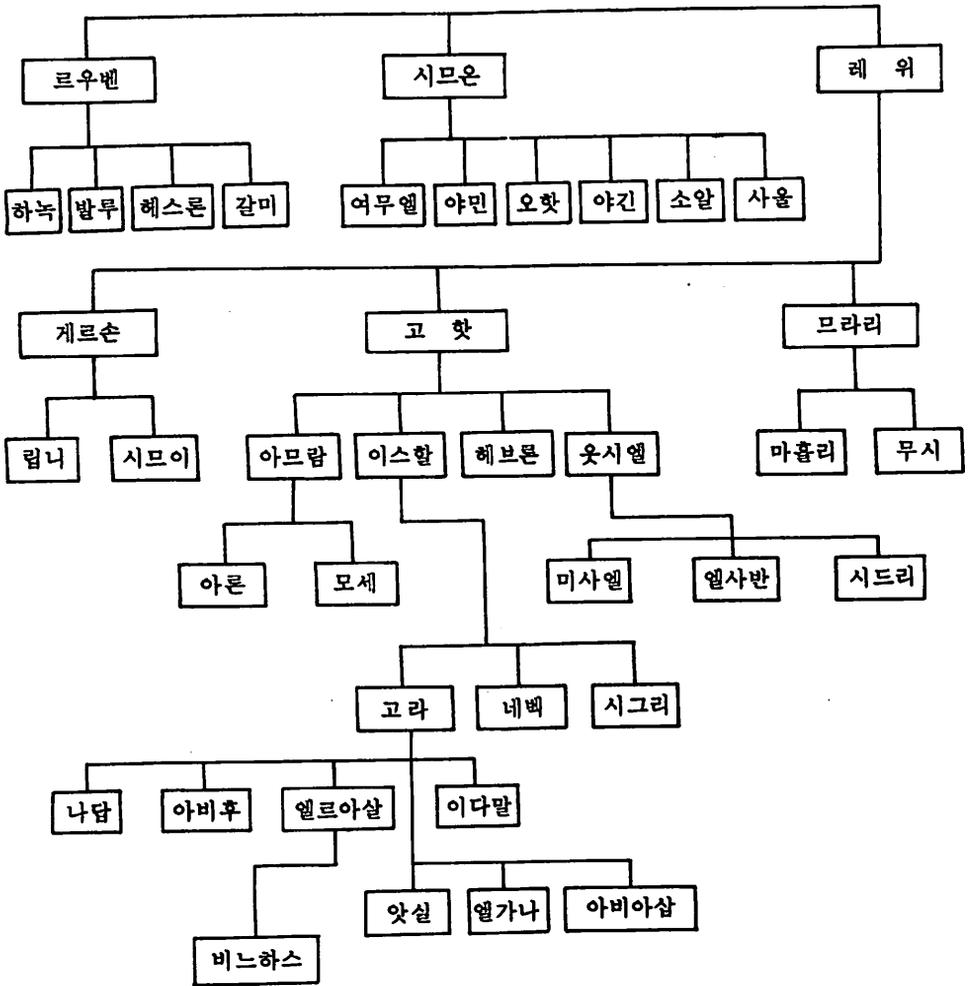
- ㉡** (1)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選民)으로 채택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진행되기(7장 이후) 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출애굽 운동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 준 자이며 아론은 제사장 직분받은 자의 시조이기 때문이다.  
 (3) 더우기 그들이 어떤 이방 민족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야곱)을 따라 애굽에 내려왔던 레위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질성(同質性)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16. **㉠** 성경에 나타난 계보에 대하여 말하라.

- ㉡** (1) 성경 속에는 계보(genealogy)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이 계보를 통하여 축복을 내려 주셨고 또한 이 계보는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참조, 창 15:1-6).  
 (2) 또한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의 사역직, 왕직 등과 같은 직분은 세습적이었는데 계보들은 이러한 직분들의 연속성을 뒷받침해 준다(참조, 29:9).  
 (3) 또한 계보는 토지 소유권을 보증해 주기도 하며, 신분 증명의 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참조, 삼상 9:21).  
 (4)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마 1:1-18).

17. ㉠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도식화(圖式化)하라(14-27절).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3절).

# 제 7 장 모세의 두번째 요구와 첫째 재앙

단락구분 1-7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여 바로에게 보내시다 / 8-13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 14-21 물이 피가 되는 첫째 재앙 / 22-25 첫째 재앙의 결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만

4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이었고 아론은 팔십 삼 세이었던라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들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칠 일이 지나니라

##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쟁론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행했으나 바로의 마음은 강박해지기만 하였다.

(3) 하지만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실상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권력과의 싸움이니 그 결과는 앞으로 자명(自明)하게 드러날 것이다.

2. **㉠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지배할 수 있는 신적(神的) 권세와 능력을 지니게 하였다는 뜻이다(참조, 4:16).

(2) 그러나 이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우상화된다거나 신격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3) 이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곧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다(참조, 시 82:6; 요 10:35).

3.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 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변명하며 자기의 사명을 회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 주신 것이다(4:10).

(2) 또한 모세의 마음이 자주 변했는데 그것은 그가 연약해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연약해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그 대언자로 세워 주셔서 모세를 돕도록 하셨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사용하시는 자기의 종을 끝까지 붙드시며 위로하시고 그로 하여금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참조, 왕상 19:9-18).

4. **㉠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1) 이것은 본래 바로의 마음이 선했는데 이 선했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의로 악한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즉 바로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행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다.

(3)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길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셨을 뿐이며 인간 스스로 택하는 길에 따라 그 결과는 좌우되는 것이다(참조, 창 2:17).

5. **㉠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5절)**

**㉠** (1)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목도(目睹)한 이후이다.

(2)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 즉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평가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능(無能)한 신으로 생각하였다(참조, 5:2).

(3)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겪은 후에는 비로소 여호와가 유일신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6. **㉠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어떻게 되었는가? (7절)**

**㉠** (1)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2) 이처럼 그들의 나이는 상당히 많아서 인간의 판단으로는 민족 해방과 같은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3)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였으니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뿐이었다.

(4)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모세와 아론이 철저히 자신들의 무능력을 통감하고 겸손해져야 했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시키셨고 아론을 모세의 보좌관적 위치에 두신 것이다(3:15-22; 4:14-16).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들어 쓰시는 자의 표본을 보게 된다. 첫

째, 겸손하며 들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절실히 통감하며 세째, 하나님만을 절 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이다.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 으로 받게 된다(잠3:34, 35).

7. **㉠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의 내용을 미리 보여 주신 의미 는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이심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 (2) 또한 낙망 중에 있는 모세의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8. **㉠ 바로는 왜 이적을 요구했는가? (9, 10절)**

- ㉠ (1) 신의 사신(使臣)이라면 기적적인 증거로써 그의 신분과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은 사실은 이방 신을 믿는 애굽의 박사와 박수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 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11, 22절; 8:7).
- (3) 그러나 이러한 바로의 요구는 실로 교만의 소산(所産)이 아닐 수 없다.
- (4)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奇事)와 ‘이적’은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동시에(참조, 사6:36-40) 불신자들의 완고한 심령을 깨뜨려 신앙 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강권적이고도 특이한 하나님의 역사이다(참조, 행 5:12).
- (5) 그렇지만 바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요구한 것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려 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애굽의 종된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신이 감히 그 어떠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비웃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6) 이에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의 손을 펴시어서 점차적으로 바로의 교만을 치셨으니 그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참조, 12:29-32).

9. **㉠ ‘박사’와 ‘박수’는 어떠한 자들인가? (11절)**

- ㉠ (1) ‘박사’는 점성술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에 필요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서 바로의 자문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참조, 창 41:8).
- (2) 그리고 ‘박수’는 애굽의 태양 신인 ‘라’(Ra)를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10. **㉠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12절)**

- ㉠ (1) 그 당시 뱀, 특히 코브라는 바로의 왕권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역대 바로들은 금으로 만 든 코브라를 왕관 중앙에 붙여 쓰곤 하였다.
- (2) 그런데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린것은 곧 바로의 권세 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 (3) 한편 ‘술객’은 대체적으로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것은 최면술을 이용해서 뱀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눈속 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그리고 이들이 참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행한 거 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일 수밖에 없다(참조, 살후 2:9).
- (5)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1. **㉠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애굽의 신 들을 도표화하라.**

㉠

재앙	성경경	도전을 받았을 애굽의 신
피	7 : 20	크눔(Khnum) : 나일 강의 제 1 홍수 지역을 관장하는 수호신

개구리	8 : 6	헤크트(Heqt) :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의 신
이	8 : 16	
파 리	8 : 24	
악 질	9 : 3	하도르(Hathor) : 본래는 하늘의 신이었으나 후일 암소의 수호신이 되었다.
독 종	9 : 10	임호텝(Imhotep) : 의술(醫術)의 신
우 박	9 : 23	누트(Nut) : 하늘의 여신으로서 오시리스(Osiris)의 어머니
메뚜기	10 : 22	세드(Seth) : 곡물의 수호신으로서 호루스(Horus)의 적대자
혹 암	10 : 22	라(Ra) : 태양의 신, 세케트(Sekhet) : 태양의 여신
장자의 죽 음	12 : 29	오시리스(Osiris) : 다산(多産)의 신 이시스(Isis) : 생명을 주관하는 신

12. ㉠ 이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지팡이는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되는 지극히 평범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들은 인간의 부(富)나 명예, 권세가 아니다.
- (2)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고전4:2).
- (3)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의 협조를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방 신화에서 보듯이 갑자기 벼락을 쳐서라도 바를을 항복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훗날 예수의 성육신(成肉身)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까지 낮추시고 인간을 찾아오셨다.
- (4) 여기서 보듯이 지팡이와 같은 하찮은 물건을 가지고 전애굽을 뒤흔드신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를 하여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능력의 근원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13. ㉠ 아론과 모세의 이적이 술객의 이적보다 우수한 증거는 무엇인가? (12절)

- ㉠ (1) 아론의 지팡이와 술객의 지팡이가 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지팡이를 삼켰기 때문이다.
- (2) 또한 술객은 10가지 이적을 다 행하지 못하고서 모세가 행한 이적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8:19).

14. ㉠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이적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2-15절)

- ㉠ (1) 처음 이적은 단순히 '표적'에 불과했을 뿐이지 전혀 재앙이 아니었다.
- (2) 그러나 둘째 이적부터는 재앙, 즉 하나님의 징계의 체적이란 것이다.

15. ㉠ 바로 왕이 아침에 나갔던 강은 무슨 강이며 그 나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나일 강이다.
- (2) 나일 강은 신성한 강으로서 애굽인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참조, 4장 ㉠9). 바로 왕이 아침에 나일 강으로 나갔던 것은 나일 강을 위한 제사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에 발견된 고대 애굽의 한 파피루스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 파피루스에는 나일 강을 숭배하는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미가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16.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 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15절)

- Ⓐ (1)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모든 사람에게 경고되어 알려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받을 것을 원치 않고 계시며 오직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2:4;3:25).

17. Ⓒ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내려졌던 까닭은 무엇인가?

- Ⓐ (1) 첫째, 나일 강이 애굽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나일 강을 더욱 숭상(崇尚)하고 예배했다.  
 (2) 둘째, 애굽인들이 나일 강을 무죄한 아기들의 피로 물들였었기 때문이다(참조, 1:22).  
 (3) 그런데 이 재앙은 신약 시대 교회의 대적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참조, 계 16:3, 4). 여기에서는 재앙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바다까지 피로 변한다고 한다. 이처럼 영적 심판은 일시적 심판보다 더욱 두려운 것이다.

18. Ⓒ 본질에 나오는 물, 하수, 운하, 못, 호수들을 비교하여 도표화하라(19절).

Ⓐ

이름	히브리어	뜻
물	마 임	샘, 호수, 바다, 비 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하수	나하르	사시 사철 물이 흐르는 강을 말한다.
운하	예 을	나일 강에서 갈라져 나온 농업용 관개 수로를 의미한다.
못	아 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호수이다.
호수	미크웨, 마임	인공적으로 건축된 물 저장소를 가리킨다.

19. Ⓒ 바로의 강박함의 특징은 무엇인가? (22, 23 절)

- Ⓐ (1)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고 모세의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의 강박함 때문이었다.  
 (2) 이러한 강박함은 고의적인 것이었다. 23절에 보면 바로는 엄청난 이적과 재앙을 목도하고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궁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에 대하여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의 강박함은 양쪽 귀를 꼭 막고 이를 악물은 철벽 같은 고집에서 나온 고의적인 것이었다.  
 (3) 또한 그의 강박함은 끈질긴 것이었다. 재앙이 발생한 지 7일이나 지났건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20. Ⓒ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애굽 술객들이 갖고 있던 능력이 사단으로부터 기원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이적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적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 Ⓒ 바로가 첫번째 재앙에 관념(關念)도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3절)

- Ⓐ (1) '관념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주의(注意)도 기울이지 않았다' 혹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2) 이 말은 첫 이적을 무시했던 바로가 첫번째 재앙도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목도하고도 술객들의 거짓에 힘 입어서 그 이적을 외면할 정도로 마음이 강박했다.

22. Ⓒ 성경에 나타난 이적(異蹟)에 대하여 말하라.

- Ⓐ (1) 이적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나 계시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적(自然的)

또는 초자연적 사건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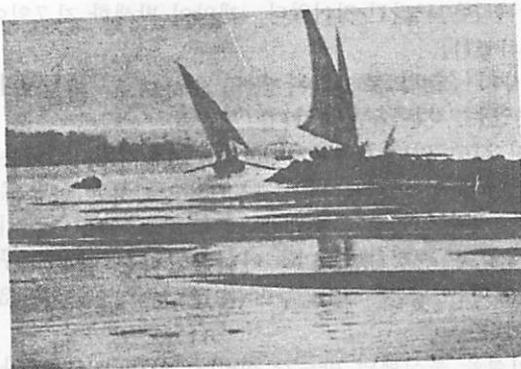
- (2) 구약에 나오는 ‘이적’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오트>와 <모페트>와 <펠레> 등이다. 여기서 <오트>는 어떤 물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 물건에 표적이나 표시를 해 둔다는 동사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다.
- (3) 그리고 <모페트>는 어원(語原)이 불확실하지만 ‘기사’, ‘표적’, ‘경이’, ‘이적’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 주는 말이다.
- (4) 한편 <펠레>는 어떤 초월적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이변(異變)과 경이, 역사에 대한 신(神)의 지배,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사들을 의미한다.
- (5) 신약에서는 <오트>의 헬라 역인 <세메이온>과 <모페트>의 헬라 역인 <테라스>외에 <뒤나미스>와 <에르곤>이란 단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뒤나미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며 <에르곤>은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를 가리킨다.
- (6) 우리는 자연적이건 초자연적이건 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사건은 모두가 다 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7)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지도 않고 반증(反證)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신앙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 있다.

### 23. ㉠ 성경상에서 이적이 성행하였던 시기를 3구분하라.

- ㉠ (1) 모세 시대  
 (2) 엘리야, 엘리사 시대  
 (3)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

#### 화보자료

나일 강. 아래의 사진은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 B. C. 484? - 425?)가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라고까지 묘사한 이집트의 젖줄, 나일 강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과 애굽 온 땅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은 (20, 21절) 바로 그분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 제 8 장 개구리, 이, 파리 재앙

단락구분 1-7 두번째 개구리 재앙 / 8-15 모세의 간구와 다시 강박해진 바로 / 16-17 세번째 이 재앙 / 18-19 무능한 술객들의 고백 / 20-24 네번째 파리 재앙 / 25-32 다급해진 바로의 거짓 승낙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3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에와 네 침실에와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덕에와 네 벽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4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되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의 여호와께 회생을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10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되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18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19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케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네 짐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되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회생을 드리라

26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회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회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이 떠나게 하시니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 ㉠ 본장의 요지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인간 능력의 한계성을 보여 주면서 이와 대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8, 19절).
- (2) 애굽의 술객들은 술수로 두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행할 수 있었으나 세번째 이 재앙부터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었다.
- (3)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절).
- (4)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은 '과학 만능주의' (scientism) 이다.
- (5) 이는 곧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인본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두 허구(虛構)라는 결론으로 이끄는 사상이다.
- (6) 이런 자세를 견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허구일 수밖에 없게 되므로 '하나님은 없다'는 망상(妄想)에 빠지게 됨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맹신(盲信)에 빠지게 된다.
- (7) 그러나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어불 성설(語不成說)이므로 우리는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8, 9)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 ㉠ 둘째 재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1-7절)

- ㉠ (1) 애굽을 징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경멸하기 위함이었다.
- (2) 그 당시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거룩한 동물, 즉 일종의 신으로 숭상(崇尚)하였는데 개구리의 신상(神像)이 새겨진 비석이 오늘날에도 발견되곤 한다.
- (3) 한편 여기에 나오는 '개구리'는 히브리어로 <체팔데아>인데 학명(學名)으로는 '라나 모사िका' (Rana Mosaica)로 불리운다.
- (4) 특히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 중의 하나인 '헤카' (He Ka)는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이기도 하다.
- (5) 그런데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생산력'의 거룩한 상징이다. 개구리들은 12월 중순경 나일 강물이 빠지게 되면 무수히 육지로 기어 오른다. 이때는 강물이 범람한 후이므로 새로 생긴 비옥한 충적토 위로 개구리가 올라 오게 된다.
- (6) 애굽인들은 이 옥토(沃土)와 관련해서 개구리를 생산력과 관계된 풍요의 신으로 생각했다.
- (7) 그런데 둘째 재앙의 결과로써 이러한 애굽인들의 신앙이 산산 조각으로 부서어지게 된다. 즉 이제 개구리는 고통과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 결국 개구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3. ㉠ 하수에서 쏟아져 나온 개구리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3절)
- ㉠ (1) 바로의 궁(宮), 침실, 침상, 바로의 신하의 집, 애굽 백성, 화덕,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이다.  
 (2) 일반적으로 이곳은 애굽인들이 가장 깨끗하게 여기던 곳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된 것이다.
4. ㉠ 둘째 재앙을 첫째 재앙과 비교해 보라 (3절).
- ㉠ (1) 첫째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세를 비치도록 하지 못하였으나 (7:23) 둘째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순종의 기미를 보이도록 하였다(8절).  
 (2) 또한 둘째 재앙은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역전(逆轉)시켰다. 즉 바로는 청원자가 되고 모세는 응답자가 되게 하였다(8-11절).  
 (3) 그리고 둘째 재앙이 일어나자 모세는 바로에 대한 구출의 중재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되었다.
5. ㉠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첫째 재앙에서와 같이 애굽 술객들은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을 모방하였다.  
 (2)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미 생기게 한 개구리를 가져다가 눈속임을 하였거나 아니면 사단의 힘을 빌어서 실제로 적은 수의 개구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하였을 것이다.  
 (3)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려 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개구리를 출현시킬 수는 있었지만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었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5) 한편 이 둘째 재앙, 즉 개구리 재앙까지만이 애굽 술객들이 흉내를 낼 수 있었던 이적이었다.
6. ㉠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8절)
- ㉠ (1) 이제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5:2) 라고 말하면서 교만했었던 바로도 두번째 재앙을 겪으면서부터는 여호와의 능력을 부득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즉 바로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를 거두어갈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한다.  
 (3) 따라서 그는 개구리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탄원한 것이다.
7. ㉠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8절)
- ㉠ (1) 이는 곧 바로 왕의 긍정적인 약속이 내려진 최초의 것이다.  
 (2)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의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물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임기 응변에 불과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재앙이 사라지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진 것에서도 증명될 수 있다(15절).
8. ㉠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물리칠 시기를 물어본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먼저 바로로 하여금 자신이 약속한 바를 스스로 재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 또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탄원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언제라도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다.
9. ㉠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언제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는가? (10절)

Ⓐ (1) '내일'이었다. 즉 재앙이 내린 그 다음 날이었다.

(2) 여기서 우리는 바로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의 권능을 믿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즉 바로는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자연히 개구리 떼들이 소멸되기를 기다리려고 모세의 중재 사역을 내일로 미루었던 것이다.

10. Ⓢ 8-13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당면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임기 웅변적인 회개를 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역사의 주역이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하여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참조, 창 1:26-28).

(3)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울러 밝혀 주고 있다(참조, 욥 1:21).

(4)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생사 회복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1. Ⓢ 개구리 재앙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개구리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14절)

Ⓐ (1) 무더기로 쌓아 올렸다. 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더기로 쌓고 또 쌓았다'는 뜻이다.

(2) 한편 죽은 개구리의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죽은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12. Ⓢ 개구리 재앙이 사라진 후에 바로 왕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5절)

Ⓐ (1) 다시금 완강하여졌다. 즉 목전의 위협이 사라져 버려 이제는 다른 재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이 강박해졌다.

(2) 이처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깨닫지 못한다(사 26:10).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멸시한다(롬 2:4, 5).

(3) 우리는 여기서 알팍한 인간 심성(心性)과 이중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4)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mammon(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번덕스럽고 불안정한 사람은 결국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파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13. Ⓢ 세번째 내린 재앙은 무엇인가? (16절)

Ⓐ (1)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다.

(2) 여기서 '이'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켄>인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심하다.

(3) 보통 <켄>이란 말은 '이', '등에', '작은 모기', '각다기' 등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머리털 속, 옷 속까지 들어가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다.

(4) 이런 것들이 여름 밤의 하루살이와 같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 달라 붙는다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14. Ⓢ 들째 재앙과 세째 재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6절)

Ⓐ (1) 들째 재앙은 사전 경고가 있는 후에 내려졌지만 세째 재앙은 사전 경고없이 내려졌다.

(2) 또한 들째 재앙까지는 애굽 술객들이 흉내를 낼 수 있었으나 세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를 낼 수 없었다.

(3) 그리하여 애굽 술객들은 이와 같은 이적이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이다(19절).

15. **㉠** 술객들이 보여 준 능력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한다. 현대인이 보이는 능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18절)
- ㉠** (1) 현대인은 과학(학문)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학은 그들 능력의 최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과학 만능주의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 (2)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과학은 그들 능력의 한계의 표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과학은 주어진 대상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체계화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성(理性)에 모순되는 존재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술객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19절)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현대인은 과학(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16. **㉠** 술객들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었는가? (19절)
- ㉠** (1)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술객들의 고백은 비록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유일신론적인 사상을 표현한 말은 아니었다.
- (2) 그들은 이제까지의 이적과 재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인간의 능력이나 마술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역사하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고백은 살아계신 인격신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17. **㉠**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재앙부터 그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21-24절).
- ㉠** (1)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곧 '고센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 (2) 이것은 곧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준다.
- (3) 재앙의 혹독함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구별을 두셨다.
- (4)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동의 동기와 결과를 선명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계시하려는 의미가 있다.
18. **㉠** 여기서 파리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1-24절)
- ㉠** (1) 본질의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로브>인데 원래의 뜻은 '혼합물'이다.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개파리'(dog-fly)로 번역하였다.
- (2) 이 파리는 보통 파리보다 크고 쏘는 힘이 강하다. 특히 애굽의 파리, 모기, 기타 작은 곤충들은 때를 지어 날아다니기로 유명하다(참조, 사 7:18; 18:1).
1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3절)
- ㉠** (1) '구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페두트>인데 본래는 '구속(救贖)'을 뜻한다.
- (2)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맹목적인 사랑을 쏟으시는 것 같기도 하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 축복하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어 항상 옳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참조, 잠 15:3).
- (4)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암흑과 죽음의 행사(行使)만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빛과 생명의 행사가 있는 것이다.
20. **㉠**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방에서 너희 하나님께 회생을 드리라고 한 의도는 무

엇인가? (25절)

(A) (1)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노예로 묶어 두려는 의도에서였다.

21. Q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미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A) (1) 고대 애굽인들은 황소와 같은 생축(牲畜) 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곤충들까지도 신으로 숭배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물을 잡아 회생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 혐오를 금치 못하였던 것이다.

(2) 특히 그들은 흰 암소나 어린 암소와 같은 동물을 신성시(神聖視)하여 그것들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3) 또한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채소, 곡식, 가금(家禽), 수육(獸肉) 등을 제물로 드렸으며 양이나 염소는 거의 드리지 아니하였다.

22. Q 모세와 아론이 사흘길 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27절)

(A) (1) 일찌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엔 시내 산에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참조, 3:12, 18).

(2) 애굽의 라암셋에서 시내 산까지의 직선 거리는 당시 일반인들의 걸음걸이로 사흘이 소요되는 거리였으니 여기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23. Q 바로가 모세를 향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의도는 무엇인가? (28절)

(A) (1) 이것은 바로가 자신과 온 애굽에 미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었지 모세의 이적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한 것이 아니다.

(2) 이러한 사실은 파리 재앙이 멈추자 바로가 다시금 마음을 완강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아니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31, 32절).

24. Q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바로의 제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8절)

(A) (1) 바로의 완고한 성품을 느끼게 해준다.

(2) 바로는 앞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했다가 거부되자(25, 26절) 이번에는 멀리가지 말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는 전부 그의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바로의 됴됨이로 볼 때에 노예 민족의 해방에 의한 노동력 상실은 도부지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구원 행동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참조, 7:5).

본장의 요절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들에게  
오르리라 (4절).



## 제 9 장 악질, 독종, 우박 재앙

단락구분 1-7 다섯번째 악질 재앙 / 8-12 여섯번째 독종 재앙 / 13-26 일곱번째 우박 재앙 / 27-33 바로가 모세에게 구원을 호소하다 / 34-35 교활한 바로의 변심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 두면

3 여호와와 그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4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10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11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12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슴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19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1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때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탈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른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26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28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와 향하여 퍼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35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애굽에 내린 3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축들에게 악질이 생기고(3, 6절) 사람과 짐승들에게 독종이 발하며(10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다(23-25절).
- (2) 이와 같은 재앙의 결과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는 다시금 '이변은'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27절).
- (3) 이는 곧 바로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재앙이 그치자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청하는 모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이다(33-35절).

2. **㉠ 다섯번째 재앙과 그 이전의 재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1) 그 이전의 재앙들, 즉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 땅이 개구리로 덮이고 이와 파리로 뒤덮인 재앙들은 애굽인들의 재산에 보다는 애굽인 자신들에게 내린 것이었다.
- (2) 그러나 이제 다섯번째 악질 재앙부터는 애굽인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의 재산에까지도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되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3. **㉠ 본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호칭은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는 히브리어로 <에호와 엘로힘>이다.
- (2)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3) 이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임을 뜻하며 동시에 바로를 대적하시는 분임을 뜻할 뿐이다.
- (4) 한편 '야웨'와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하여선 6장 ㉠ 13을 참조하라.

4. **㉠ 다섯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어디에 내리도록 되어 있는가? (3절)**

- ㉠** (1) 다섯번째 재앙은 모든 생축(牲畜)에 심한 악질(惡疾)이 생기는 것이었다.
- (2) 그런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생축들에게 내릴 것이었다.
- (3) 여기서 생축이란 말, 나귀, 악대, 우양(牛羊) 등을 모두 포함한 말이다.

5. **㉠ 악질은 어떠한 병인가? (3절)**

- ㉠** (1) 악질(히, 데베트)은 전염병이라는 의미로써 일반적인 역병(疫病)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물에 미치는 전염병에만 국한된다.
- (2) 그런데 생축들이 악질에 걸려 죽게 된다면 우선 농경 작업에, 다음으로 수송 작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 (3) 또한 애굽인들의 동물 숭배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이 신성시 했던 짐승들이 힘없이 죽음으로 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6. **㉠** 바로의 불순종과 고집 때문에 애굽의 생축들에게 악질이 발생한 사실이 주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가? (1, 7절)

- ㉠** (1)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 3:17).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 8:22)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짐승들이라도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인간과 더불어 함께 당한다.
- (2) 이것은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창 1:28).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이 타락하면 전가정이, 지도자가 타락하면 집단 전체가, 위정자가 타락하면 온 나라가 고통에 신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대표의 위치에 있는 자는 더욱 근신하여야 한다.

7. **㉠**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 사이에 있었던 구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4절)

- ㉠** (1)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이유없는 환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잠 11:8).
- (2) 한편 이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 염소는 영원 전부터 예비된 진노의 불꽃 속에 처하여지지만 양은 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연상시켜 준다(마 25:31-46).
- (3) 둘째로 짐승을 숭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죽지 않았으나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숭배되었던 애굽인들의 짐승은 죽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섬기는 우상에 의해 언젠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8. **㉠**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미리 그 기한을 알려 주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5절)

- ㉠** (1) 예고한 기한에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도록 하려 함이다.
- (2) 또한 시간적인 여유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려 함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시에 천사가 롯에게 그 기한을 알려 주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한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창 19:12-29).
- (4) 그런데 이때 롯의 사위들은 롯이 들려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죽고 말았다(창 19:14, 24, 25).
- (5) 한편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이 하시려고 계획하신 바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신다. 그것은 곧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믿는 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의 영벌(永罰)’인 것이다(참조, 요 3:16-18).
- (6) 이 같은 사건은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것인데 아직도 이를 믿지 않으려는 자들과 모르고 있는 자들이 많다.
- (7)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을 먼저 전해 들은 우리들에겐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군을 삼음이…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 33:7, 8).

9. **㉠** 여섯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인가? (8-12절)

- ㉠** (1) 사람과 짐승들에게 독종(毒腫)을 일으키는 재앙이다.
- (2) 독종(히, 세힌)은 ‘뜨겁게 되다’, ‘열이 나다’라는 뜻을 지닌 <쉬한>에서 유래한 말로

물집을 발하게 하는 독한 종양이나 종기를 가리킨다(참조, 왕하 20:7; 렘 13:18이하).

- (3) 흔히 이것은 상피병(象皮病), 발진성 피부염 등으로 해석되는데 부스럼이 생겨서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진물과 고름이 흐르는 증세를 나타낸다.
- (4) 애굽에는 옛날부터 피부병이 많았었다(참조, 신 28:27). 그 당시 독종과 피부염 등은 먼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5) 여하튼 이 재앙은 세계 재앙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보다 심각한 재앙이었다.

10. **㉠ 여섯번째 재앙의 결과 애굽 술객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 ㉠** (1) 애굽 술객들은 이 재앙을 모방하기는 커녕 도리어 자신들도 이 재앙의 화를 입어 온 몸에 독종이 생기게 되었다.
- (2) 이처럼 재앙이 더해 갈수록 애굽 술객들은 그들의 무능력을 확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 (3)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기는 커녕 이제 그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에도 급급해진 것이다.
- (4)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가장 지혜 있다고 뽐내던 술객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고전 1:25)는 말씀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전 3:20)는 말씀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6)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과 관련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번째 재앙의 전조(前兆)가 되고 있다(12:29, 30).

11. **㉠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4 절)**

- ㉠** (1) 일곱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며 그 마음 속에 고통을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뜻이다.
- (2) 그 이전까지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재앙을 인하여 그는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에 못이겨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27절)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12. **㉠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바로를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16 절)**

- ㉠** (1)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그 같은 대항의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참조, 삼상 2:10).
- (2)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들은 바로를 개심시키기 위한 헛된 노력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실증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3. **㉠ 일곱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18-26 절)**

- ㉠** (1) 우박 재앙인데 여기서 우박(히, 바라드)은 얼음 알갱이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우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본질에 언급된 우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 (3) 그리하여 이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무척 컸으니 거의 다 자란 아마(亞麻)와 보리 농작물의 피해가 특히 심했으며 사람과 가축들도 크게 다쳤다.
- (4) 때로는 우박이 얼음 조각과 같아서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참조, 수 10:11) 이 경우와 같이 성경에는 '우박' 이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로 사용된 예가 몇 차례 기록되어 있다(시 78:47; 학 2:17).

14. **㉠ 하나님께서 일곱번째 우박 재앙에 대하여서는 바로에게 구제책을 알려 주신 사건**

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가? (19절)

A (1) 자비이다.

(2) 하나님께서 여섯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에게 그 어떠한 구제책도 알려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일곱번째 재앙에 대하여는 그 구제책을 알려 주셨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3) 즉 재앙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별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를 구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박이 있을 것이니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을 집으로 다 불러 모으라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애굽인들은 가축 및 인명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20절).

(5)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 곧 본래 이방인이던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행 11:18).

(6)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니 유대인들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꺾이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롬 11:13-24).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 (롬 11:20).

15. C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23절)

A (1) 뇌성과 우박이 일어나고 불덩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 여기에서 불덩어리는 전기 현상에 의해 발생한 번갯불이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번쩍거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수초나 수분 동안 사라지지 않거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16. C 우박이 내려올 때 동반되었던 '뇌성과 불'은 어떤 효과를 가졌는가? (23, 24절)

A (1) 뇌성과 불은 그 자체로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벼락은 사람이나 가축 또는 가옥을 강타해서 그것들을 죽이거나 파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뇌성과 불 (번갯불)은 물리적 (物理的)인 효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시위 (施威) 하는 것으로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고막을 울리는 뇌성은 인간에게 심판의 공포에 대해 경고해 주는 것이며 번갯불도 역시 하나님의 불 같은 심판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참조, 시 18:13; 144:6; 마 28:3).

17. C 바로의 임시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가? (27절)

A (1)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 라고 했다.

(2) 그런데 바로의 회개는 거짓 회개였다 (참조, C 21).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참조, 삼상 16:7) 이러한 거짓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증된 재앙을 불러일으키었다 (10:4; 11:4-6).

18. C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는 바로의 고백 앞에 불은 '이번은'이라는 단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7절)

A (1) 사실 바로는 이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이번은'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그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무서운 뇌성과 번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 앞의 재앙을 면하고자 했을 뿐이다.

19. C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9절)

- A (1) 당시 애굽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다. 그러므로 바로는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계시해 주시고자 하셨다.
- (2) 바로는 우박의 재앙에 대하여 속수 무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며 또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자연계까지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셨다 (참조, 시 147:8, 9).

20. Q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은 어느 계절이었는가? (31, 3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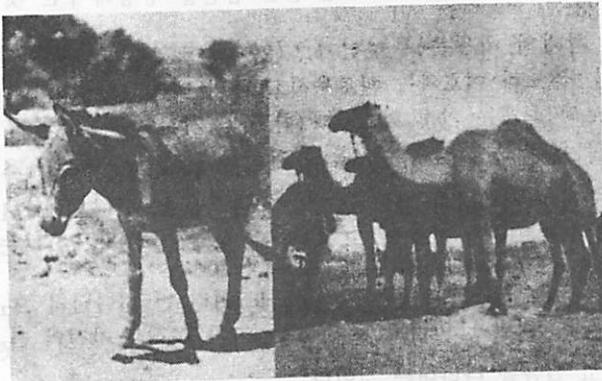
- A (1) 아마 1월말에서 2월초 사이였을 것이다.
- (2)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때쯤 되어야 보리의 싹이나고 삼의 꽃이 피기 때문이다.

21. Q 우박 재앙시 바로 왕이 회개하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참 회개와 거짓 회개는 외양(外樣) 상으로 볼 때에 구별하기가 힘들다. 바로의 회개에서도 다음과 같은 위선적 요소가 있었다.
- (2) 그의 회개는 자기 겸손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 (3)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주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 (4) 그의 회개는 자기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 (5) 그의 회개는 태도를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내린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 (6)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죄를 철저히 증오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다. 즉 바로는 죄로 인한 형벌의 모면에만 큰 관심을 가졌었지 죄 자체를 용서받는 것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화보자료

나귀와 약대. 아래의 사진은 나귀와 약대이다. 이들은 짐을 운반하는 일에 이용되었으며 성경에서는 가축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다.



본장에 나타난 '생축'이라는 말은(3절) 히브리어로 <미크네>이다. 이 말은 사거나 혹은 취득한 가축의 '소유'를 나타낼 때 많이 쓰였으며 양과 염소 때(12:38), 말, 소, 약대 등 모든 가축에 대하여 쓸 수 있는 표현이다.

## 제 10 장 메뚜기와 흑암 재앙

단락구분 1-6 메뚜기 재앙의 예고 / 7-11 바로의 신하들의 권고 / 12-20 여덟번째 메뚜기 재앙 / 21-23 아홉번째 흑암 재앙 / 24-29 바로의 마지막 타협과 모세의 거절

10-1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음으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들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7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이까 하고

8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뇨

9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10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1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 나니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14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리라

15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날으매 땅이 여덟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17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19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20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들어서

23 그 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24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

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27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28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 **㉠ 본장에 나오는 재앙은 무엇이며 또한 이 같은 재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여덟번째 메뚜기 재앙과 아홉번째 흑암 재앙이 언급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애굽 역사상 전무 후무(前無後無)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애굽인들의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오늘날까지 보지 못한 것이었다(6절).  
 (3) 그리하여 바로는 자신의 죄과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앙이 물러가자 그의 마음은 다시금 강박해졌다(16-20절).  
 (4)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홉번째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셨는데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사 흑암이 그들을 주관치 못하게 하셨다(21-23절).  
 (5)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강박한 마음을 품는 것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버려두신 채 도리어 이 가운데서 더욱더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6)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시 17:8).

2. **㉠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여호와와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2)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에게 행하신 표징(表徵)'을 대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어 악을 머금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에 관여치 않으셨다는 뜻이다(참조, 7장 ㉠ 4).

3. **㉠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을 자손의 귀에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역사(歷史)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역사를 떠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  
 (2)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남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일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 줄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이 된다.  
 (3) 더우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 10:17).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들에게 낱말이 상기시켰다(수 24:1-15). 올바른 신앙은 인간의 주관적인 사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는 데서 비롯된다.

4. **㉠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태도는 어떤 태도였는가? (3절)**

- ㉠** (1) 겸비(謙卑)한 태도였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셨다.  
 (2)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바로는 종종 자기 비하(自己卑下)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9:

27).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않았다.

- (3)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말만 앞세우는 것(lip service)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다(참조, 약 2:16, 17).
- (4) 한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한 날을 예비하사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까지도 회개치 아니하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6) 한편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라고 외쳤던 것이다.
- (7)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빌 2:12).

5. **㉠ 성경에 나타난 ‘교만’에 대하여 말하라.**

- (A) (1)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 관계와 부수 관계(contingence)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다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참조, 시 71:5, 6; 잠 3:26).
- (2) 그런데 교만이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켜서 하나님보다 더욱 높이는 것을 말한다(사 14:14). 따라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인(他人)의 가치와 능력도 무시한다(참조, 5장 ㉠ 5).
- (3) 이처럼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의 필수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독립적 태도이며 일종의 자기 고립이고 참된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나니 그들이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잠 16:5) 집을 지어도 필경은 그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잠 15:25).
- (5)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야 할 것’이다(빌 2:3, 4).

6. **㉠ 여덟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4절)**

- (A) (1) 온 땅이 메뚜기로 뒤덮이는 재앙이다.
- (2) 메뚜기(히, 아르베)는 ‘많음’, ‘증식자’라는 뜻을 지닌 <라바>에서 온 말이다.
- (3) 이 메뚜기는 아프리카 동북부, 나일 강 계곡에서 늦겨울에 발생하여 아라비아, 요단,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라크, 멀리는 인도와 중국까지도 떼를 지어 날아 다니며 풀잎과 곡식을 갉아 먹는다.
- (4) 메뚜기는 초식 동물로서 대량 생식을 하며 바람의 변화에 따라서 집단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 메뚜기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엄청나게 크곤 해서 고대 사람들은 이를 천벌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7. **㉠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받은 후 바로의 신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7절)**

- (A) (1) 공포에 질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야 한다고 바로에게 고하였다.
- (2) 한편 여기서 ‘함정’(히, 모케쉬)이란 말은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덫’을 가리키는데 애굽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 (3) 그러나 이 말은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면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에서 나온 것이다.

8. ㉠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 갈 자가 누구 누구뇨’라는 바로의 질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8, 9절)

- ㉠ (1) 바로는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출애굽하여야 하겠다는 모세의 요청을 받았었다 (참조, 5:1).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모세의 요구에 응할 의향이 없이 아예 처음부터 진실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하지만 모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바로에게 분명히 대답하였다.
- (4)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가야만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참조, 3:18).

9. ㉠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본절을 허브리어 성경에 근거하여 바로 직역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이 된다.
- (2) 그런데 이 귀절을 Living Bible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컨대 결단코 너희가 너희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허용치 않겠노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 (3) 그리고 공동 번역은 본절 전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성 싶으나?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 (4) 그러므로 본절의 뜻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5) 이러한 언행은 곧 바로의 교만과 무지의 소치였으니 이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12:31-41).
- (6) 이와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잠 16:18)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0. ㉠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11절)

- ㉠ (1) 이 이전까지의 면담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이토록 거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 나니라’는 말은 ‘한 사람이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직역된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모세가 양보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를 바로 앞으로 다시 데려왔던(8절) 신하들은 모세가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자 화를 냈던 것이다. 모세와의 대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분노에 사로잡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자 그들은 재빨리 강제로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처사였으며, 그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사건이었다.

11. ㉠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 동풍(東風)을 일으키어 메뚜기 떼가 날아 오게 하셨다.
- (2) 메뚜기들은 일반적으로 바람을 타고서 멀리까지 이동한다. 애굽 지방에서는 메뚜기들이 일반적으로 리비아나 이디오피아로부터의 남풍 또는 남서풍을 타고 이동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라비아에서 애굽 쪽으로 부는 동풍을 타고 날아들었다.
- (3) 이처럼 애굽 땅으로 날아든 메뚜기는 사방에 내려앉아 그 해가 심하였으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었다(14절).
- (4) 이것은 곧 이 재앙의 광대성을 말해 준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메뚜기 떼는 어

는 특정 지역만을 찾아들지만 이번 경우에는 애굽 전지역에 찾아들어 그 해를 기친 것이다.

(5) 결국 이러한 현상은 메뚜기 재앙이 자연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초자연적인 이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12. **㉠** 메뚜기 떼로 인해 땅이 어둡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

**㉠** (1)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메뚜기가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다 보니 햇빛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질 수도 있고 또한 메뚜기 떼가 지면 위에 새까맣게 앉아 있게 되면 그것의 어두운 몸빛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견해를 타당한 것으로 취한다. 이것은 5절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에 보다 합리적이다.

13. **㉠** 16절의 바로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1) 9:27에서 단순히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로가 여기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전보다 더 깊이 인식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께 득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명령에 불순종 했다는 뜻이며, 그들(모세와 아론)에게 득죄했다는 것은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어겼던 것을 암시한다(8:15, 32; 9:34, 35).

14. **㉠**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17절)

**㉠** (1)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 달라는 것이었다.

(2)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은 메뚜기 떼들이 애굽 땅을 황폐화하고 그 땅에 파멸을 가져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3)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15. **㉠** 바로의 요청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응답하였으며 또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8, 19절)

**㉠** (1)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받고서 곧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2) 이는 곧 모세의 관용을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에게 아무런 책망도 아니하며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바로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서풍을 일으키시어 메뚜기 떼를 홍해(紅海)에 몰아 넣으셨다.

(4) 여기서 '서풍'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얌>인데 여자적(如字的)으로는 '해풍'(海風)을 뜻한다.

(5) 그런데 이 '해풍'은 보통 지중해로부터 애굽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니 '서풍'은 실제 상으로 북서풍이었을 것이다.

16. **㉠** 애굽에 내리던 아홉번째 재앙은 무엇이며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21-29절)

**㉠** (1) 애굽은 땅에 흑암(黑暗)이 뒤덮이는 재앙이다. 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쉐크>라고 하는데 '감신'(Khamshin)이라고 불리우는 폭풍에 의해 생기곤 한다.

(2) 이 '감신'은 '사막의 바람'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보통 춘분(春分) 때쯤에 애굽으로 불어오며 미세한 모래를 날라 오기 때문에 온 땅이 어둡게 된다.

(3) 한편 아홉번째 재앙에 있어서의 첫째 특징은 세번째, 여섯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한 재앙이라는 점이다(8:16-18; 9:8-12).

(4) 둘째 특징은 이 재앙이 미친 범위가 애굽 전지역이라는 것, 즉 평상시의 재앙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다(14, 15절).

(5) 그리고 셋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다(23절).

(6) 마지막으로 네째 특징은 이 재앙이 연례적인 재앙과 틀리게 재앙의 강도(強度)에 있어서도 훨씬 심각했다는 점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앞이 안보여 더듬을 정도의 흑암이었다는 것이다.

17. ㉠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1절)

- ㉠ (1)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람들이 느끼거나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한 흑암’이란 말이 된다(참조, 공동 번역).
- (2) 따라서 이 말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졌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날이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더듬어서 찾아야 할 정도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3) 여하튼 이 말은 어둠의 상태가 극에 달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18. ㉠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서로볼 수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3절)

- ㉠ (1) 흑암이 극심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카신’(Khamshin), 즉 ‘열풍’을 동반하는 일식 현상도 이렇게 심한 어둠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 (2) 한편 이 말은 애굽인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서로의 진상(真相)을 엿볼 수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이와 같은 흑암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 이적이 아닐 수 없다.
- (4)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또한 영적으로 여호와께선 성도들의 빛이시니(시 27:1) 우리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발하여 결코 어두움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할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참조, 미 7:8).
- (5)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빛 가운데서 거하며 행하기를 힘써야 할지니 그렇지 못할진대 마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요 11:10).

19. ㉠ 흑암의 재앙을 당한 후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24절)

- ㉠ (1) 어린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던(10, 11절) 바로가 흑암의 재앙을 당하게 되자 그의 조건을 완화시켰다. 즉 소 떼와 양 떼는 남겨두고 가라는 말이였다.
- (2) 그러나 이 제안을 하면서 바로가 노렸던 것은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소 떼와 양 떼를 두고서 떠난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였다. 왜냐하면 소 떼와 양 떼가 없으면 광야에서 여러 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현명하게 답변했다(26절).

20. ㉠ 우양을 두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25, 26절)

- ㉠ (1) 단호히 거부하였다.
- (2) 그 이유는 제물로 사용할 우양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3) 한편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은 역설적인 말로서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 (4)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제의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모세의 굳은 자세와 참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 (5)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며 또한 인간적인 사고(思考)에 의한 불의와의 타협을 일절 배격하는 것이다(참조, 삼상 15:17-23).
- (6)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약 4:15)는 신앙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21. **㉠** 아홉번째 재앙 후 바로와 모세가 협상을 벌인 끝에 바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업포를 놓았는가? (28절)

**㉠** (1) 자기를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위협했다.

(2) 모세는 이 위협을 받고서 그것에 대해 수궁을 하며 바로에게 최후의 경고를 했다. 즉 이제 바로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고 최후의 심판만이 남게 된 것이다.

22. **㉠** 이처럼 수차례 거듭된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강박한 바로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8절)

**㉠** (1) 먼저 물질 세계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2)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강박히 먹은 것을 돌이켜 주시지 않고 그를 자신의 악한 의지(will)대로 행동하도록 버려 두셨다(4:21). 그러나 택하신 성도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엡 2:8). 즉 성도는 천국가기 위해서나 또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므로 믿는 것이다.

(3)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관여한 일을 정치, 외교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려는 바로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명예, 권력, 부, 건강은 모두 삶의 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언제나 인생의 모든 일을 믿음의 빛 앞에서 판단하여야 한다(참조, 대하 1:7-13).

23. **㉠** 이적(異蹟)과 자연 과학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1)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이적은 자연 법칙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도 있다.

(2) 그런데 이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이적을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국한(局限)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는 스킨라주의의 이원론(二元論)이 있으며, 또한 이신론(理神論, Deism)에서의 기계론적 우주관과 같이 자연 질서는 자동적이고 합법칙적으로 운행되어가며 이적은 그것을 벗어난 초자연적 세계에서만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초자연 할 것없이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적도 또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적은 자연 과학과 상충(相衝)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적은 자연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은 미지(未知)의 세계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이적이 되는 것이다.

24. **㉠**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에 대하여 말하라.

**㉠** (1) 구약 성경에서 빛은 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 하나의 실체이거나 힘이며, 이 빛이 빛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참조, 욥 3:20). 또한 빛은 생명의 원천(源泉)이 되며 이 세상에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창 1:5).

(2) 어두움은 빛의 부재(不在)가 아니라 하나의 적극적인 세력이다. 본래 어두움은 혼돈과 관련되어 불행, 불운 또는 고통 등을 의미하며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어두움은 죄와 불법의 영역이고 또 그것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참조, 욥 24:13-17; 시 10:8, 11; 74:20; 사 21:11, 12; 29:15; 59:9).

(3)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일컬어 '저는 듣는 해 아침 빛'(삼하 23:4)과 같다고 한 반면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욥 18:5)이라고 하였다.

- (4) 한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 곧 '각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이 되신다(요 1:1-9).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요 8:12).

## 연구자료

열 가지 재앙의 의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열 가지의 재앙은 일종의 형벌이었으며 애굽의 여러 우상들(참조, 서론 ㉒11)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사건이었다(7:8-13:16).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악해지도록 놓아 두심으로써(7:22; 8:15; 9:12) 그가 스스로 징계를 초래하게 하셨으며, 바로가 받는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셨다(8:10; 9:14). 애굽에 행하여진 이러한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8:22; 9:4) 오로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에게만 고통을 주었다(8:3, 4; 9:14).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 내셨는가 하는 교훈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었다(2절). 생명 없는 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우월성을 과시한 이 이적들은 그 후 계속되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되며(14:21)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반석에서 나온 물로 갈증을 해소했다(16:13-15; 17:6, 7).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까지 계속된 이적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의의를 지닌다. 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②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시려는 의도도 있다. ③ 약 2백만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려면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요 5:17)을 볼 수 있으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

# 제 11 장 마지막 재앙의 경고

단락구분 1-3 애굽의 재물을 취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다 / 4-8 마지막 열번째 장자(長子) 멸망의 경고 / 9-10 여전히 강퍽한 마음을 품는 바로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 내리니

2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빛있더라

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땃들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6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8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좃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시고

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퍽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 **㉠** 전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다시금 바로를 보지 않겠노라고 하였는데 본장에서 그가 다시금 바로를 대면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얼핏 보면 본장은 10:29에서 했던 말과는 달리 모세가 다시금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하고 나면 그러한 오해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본장 1-3절은 10:29과 본장 4절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다.

(3) 그리고 10:29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본장 4-8절 내용이다. 즉 모세는 바로에게 자신이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4-8절에 기록된 내용을 선언한 것이다. 그와 같이 말하고서 모세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물러나온 것이다(8b절).

(4) 한편 본장 1-3절이 10:29과 본장 4절 사이에 삽입된 이유는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그토록 확신있게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5)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1절)는 결정적인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그토록 확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10:28, 29).

(6) 한편 본장에는 애굽에 마지막 열번째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이 내릴 것과 이와 같은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 열번째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쫓아낼 것이라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강제로 축출(遂出) 되는 것을 뜻하지 않고 바로가 이제까지의 자세와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을 급히 내보낼 것을 의미한다.
- (2) 즉 열번째 재앙이 내린 후 바로는 더 이상의 재앙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모세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락할 것이다(12:31-34).
- (3)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버티어 오던 바로의 위엄과 우매한 고집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이 완전히 승리라'(잠 19:21)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행여나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판16:21-23).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취해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 Ⓐ (1) 이웃 사람, 즉 애굽인들의 은금 패물이다.
- (2) 여기서 '패물'이란 말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잔이나 그릇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 말이다.
- (3) 한편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참조, 3장 ⓐ 23).
- (4)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였다(3:22).
- (5) 그런데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애굽인들이 쉽사리 들어 준 것은 그간의 노고(勞苦)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화해(和解)를 위한 제스처도 아니었다.
- (6)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참조, 3:21; 12:36).

4. ⓐ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 (2) 애굽의 신하들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신적 존재였다. 그러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부터 흑암 재앙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상 모세가 바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 (3)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즉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심히 크게 보인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다(참조, 4:21).
- (4) 그러나 본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크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3:1)를 크게 만드셨다는 것이다(참조, 공동번역).
- (5) 그리고 이로써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7:1)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5. ⓐ 모세가 바로에게 예고한 마지막 재앙의 내용은 어떠한가? (4-10 절)

- Ⓐ (1) 여호와께서 밤중에 들어 가시는 것이다.
- (2) 즉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들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이다.
- (3) 그리하여 애굽 전국에 전무 후무한 큰 곡성이 있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것이다.
- (5) 왕의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와서 테리고 나가라고 애걸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6. **㉠** 마지막 재앙과 그 밖의 아홉 가지 재앙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4절)

**㉠** (1) 다른 아홉 가지 재앙들은 강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등을 통하여 재앙이 임했지만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몸소 일으키셨다.

(2) 이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를 들어가리니'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강조형으로 쓰여졌다.

7. **㉠** 마지막 장자 사망의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5절)

**㉠** (1) 첫째 재앙부터 아홉번째 재앙까지는 자연계나 생축에게 임한 것이었으며, 사람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 열번째 재앙은 인명(人命)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재앙이었다.

(2) 또한 이 재앙으로 인하여 장자만 죽었지만 사실 상징적으로 애굽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장자는 가계(家系)를 이어가는 계승자요 또한 한 가문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3) 한편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마 16:26). 잃어버린 물질은 다시 얻으면 되는 것이고, 파괴된 생태계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4) 그런데 아홉 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도 깨어지지 않았던 바로의 강박함과 불순종은 급기야는 이러한 재앙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더우기 장자를 존중히 여겼던 애굽의 관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8. **㉠** 생축의 처음 난 것이 멸절당하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 (5절)

**㉠** (1) 애굽인들은 원숭이, 개, 침팬치, 족제비 등의 애완 동물들을 길렀다. 그리고 그들은 몇몇 동물들을 신성시하여 그것들을 성수(聖獸)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런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동물들이 죽는 것을 불길하게 여겼다.

(2) 따라서 그런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이 일시에 폐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애굽인들에게 큰 고통과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즉 애완 동물들의 죽음은 그들의 가정에 충격을 주었을 것이며 신성시되던 동물들의 죽음은 그들의 종교에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9. **㉠** '처음 난 것', 즉 장자(長子)는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는가? (5절)

**㉠** (1) 모든 자식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2) 이와 같은 이유는 곧 장자가 가계(家系)를 잇는 계승자임과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자이었기 때문이다.

(3) 당시 사회에서는 왕도 세습제였으니 장자가 합법적인 왕위 계승권을 지녔으며, 일반 백성들간에서도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과 권위가 부여되었다(참조, 창 27:18-40).

(4)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참조, 시 89:27; 히 12:23)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0. **㉠**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 (1) 애굽인들 사이에 전무 후무(前無後無)한 큰 곡성(哭聲)이 있게 될 것이다.

(2) 여기서 큰 곡성이란 극심한 슬픔을 뜻하는 말이다.

(3) 즉 애굽인들에겐 장례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관습이 있었으니 '큰 곡성'이란 온 애굽인들의 곡성이 합쳐져 그 소리가 클 것이라는 뜻 외에 그 슬픔의 심도가 무척 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11. **㉠**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1) 애굽인들에게는 큰 곡성을 발할 만한 일이 생기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2)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개가 짖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개가 혀를 놀려 짖지 아니하고 편안히 쉴 것이라는 말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 하사 그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12. ㉔ 죽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구별을 두신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7절)

㉔ (1)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창 2:17; 3:19). 질병, 사고, 전쟁, 기근 등으로 인한 죽음은 선인(善人)이나 악인(惡人)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라고 반드시 장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반드시 단명(短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법칙이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혹 예외적으로 죽음을 통하여 섭리하기도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엔 선인들과 악인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창 6:13-7:24), 롯과 소돔의 사람들(창 19장),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 하셨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3) 그런데 보통의 경우 악인들이 즉각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지(롬 9:22), 그들이 선하다거나 또는 그들이 살아남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13. ㉔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어떤 태도를 취한 후에야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했다는가? (8절)

㉔ (1) 자기에게 내려와서 절하며 나가 달라고 사정한 후에야 나가겠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신격화되었던 바로의 권위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14. ㉔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후 심히 노하여 나온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8절)

㉔ (1) 이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 대한 모세의 권위를 나타내 준다.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더우기 모세가 아무 현실적인 지위나 권력을 소유하지 못했다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받은 자로서 바로를 압도할 수 있었다.

(2)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란 절대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버리라'(엡 4:31)는 말씀을 극단적으로 인용한다. 물론 일면(一面) 이것은 옳은 말이다.

(3) 그러나 '기독교인은 절대로 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분노를 정죄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엡 4:26). 이것은 분을 내는 행위에 제한을 가하되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조심스럽게 허락하는 것이다.

(4)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실 때 그들을 조용히 설득시키려 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치시며 크게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를 발하신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는 것은

그릇된 사상이다.

- (5) 의분(義憤), 공분(公憤) 등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없다면 불의(不義)는 시정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거절당하고 그분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일어났던 모세의 분노는 의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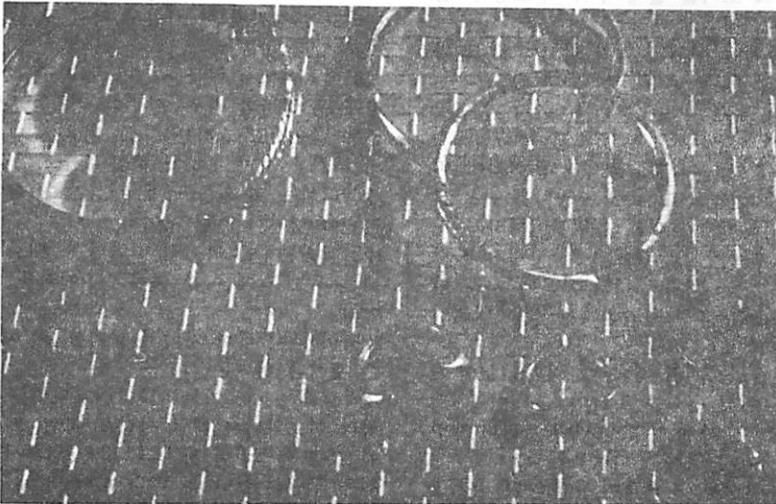
15. ㉠ 지금까지의 아홉 가지 재앙들을 도표로 작성하라.

㉠

순서	재앙	예고 여부	시행자	기간	상해(傷害) 대상자
1	강물이 피로 변함	○	아론	7일	사람, 짐승
2	개구리	○	아론		사람
3	이	×	아론		사람, 짐승
4	파리	○	하나님		사람
5	악질	○	하나님		사람, 짐승
6	독종	×	모세		사람, 짐승
7	우박	○	모세		사람
8	메뚜기	○	모세		사람
9	흑암	×	모세	3일	사람

### 화보자료

귀금속 장식품. 아래의 사진은 금과 은으로 만든 반지와 팔찌로서 레크미레의 분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한 귀금속과 패물들은(2절) 오랫동안 강제로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귀금속을 갖게 되었던 이스라엘은(3:22) 그 후 광야에서 바로 이 제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했다(참조, 32:2-8).

## 제 12 장 출애굽과 첫 유월절

단락구분 1-2 새 역법(曆法)의 시작 / 3-14 유월절 규례 / 15-20 무교절 규례 / 21-28 모세가 이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다 / 29-30 열번째 장자 재앙 / 31-36 출애굽의 시작 / 37-51 출애굽과 첫 유월절

1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 달 십사 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 그 피로 양을 먹음 짐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 그 밤에 그 고기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 날로나 불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칠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5 너희는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칠 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6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칠 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8 정월에 그 달 십사 일 저녁부터 이십 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 칠 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20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2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물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나 하거든  
 27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대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얹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육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차시매

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라

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34 백성이 발고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께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속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38 중대한 잡곡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고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라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 삼십 년이라

41 사백 삼십 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 거류인과 타국 품군은 먹지 못하리라

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47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 1. ㉠ 본장에 규정되어 있는 유월절 규례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선 유월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다.
- (2)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다(27, 42절).
- (3) 이 같은 유월절 절기는 신약 시대에까지 면밀히 이어져 왔으니 예수께서도 친히 이 절기를 지키시었다(막 14장; 눅 2:41-49).
- (4) 그러나 실상은 유월절 의식이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에라! (참조, ㉠ 8, 15)
- (5)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루 앞둔 유월절 만찬에서 유월절 예식을 대신할 새로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재림시까지 대대로 기념하여야 할 예식이 된 것이다(마 26:17-29).
- (6) 한편 본장은 전반부(1-28절)와 후반부(29-51절)로 나뉘어 그 첫째 부분에는 유월절 절기의 제정에 관한 기사(記事)가, 그리고 둘째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작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 2. ㉠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월력(月曆)이 주어진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것은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함을 의미한다.
- (2)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기로 생긴 서력(西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류와

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듯이 출애굽과 더불어 생긴 이스라엘의 새로운 월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한다.

- (3) 한편 이 새로운 월력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민간력(民間曆)에 따라 분주하게 생활하던 사람일지라도 새로 제정된 이 종교력(宗教曆)에 의하여 신앙적인 각성을 받고 종교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새로운 월력의 첫 달은 언제인가? (2절)

**㉠** (1) '아빽 월' (13:4)이다.

(2)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제정해 주신 종교력 외에 일상 생활을 위해 오래 전부터 민간력을 사용해 오고 있었다.

(3) '아빽 월'을 이 민간력으로 환산하면 제 7월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종교력 제 1월로 삼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4) 그리고 이 '아빽 월'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4월에 해당된다.

(5) 한편 '아빽 월'이란 명칭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니산 월' (느2:1;에3:7)이라는 바벨론식 명칭으로 바뀌었다.

4. **㉠** 매인(每人)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합하여 하나를 취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 4절)

**㉠** (1)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2)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다는 것은 식구가 많지 않아서 준비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이럴 경우에는 이웃 사람과 합하여 그들이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양고기를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10절).

(4) 이러한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곧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참조, 사53:7), 어린 양고기를 아침까지 남겨 두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의 공로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참조, 고전 11:27-29).

5. **㉠**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5절)

**㉠** (1) 흠 없고 일 년된 양이나 염소 중의 수컷이어야 한다.

(2)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히 7:26)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3) 율법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으니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베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있는 것, 비루먹은 것 등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다(참조, 레 22:22).

(4) 한편 제물을 일 년생 양이나 염소로만 규정한 것은 좀더 순수한 것을 택하려 하였기 때문이며 수컷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 제물이기 때문이다.

6. **㉠** 어린 양은 아빽 월 며칠에 택하여져서 언제까지 보관되며 또한 어느 때에 도살(屠殺) 당하는가? (6절)

**㉠** (1) 아빽 월 14일까지 4일 동안 보관되었다가 그날 해질 때에 도살당한다.

(2) 이렇게 양을 4일간 보관해 두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양들을 충분히 검사하여 혹시 흠이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또한 4일 동안 양을 보관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

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4) 한편 '해질 때'란 말은 문자적으로 '두 저녁 사이'를 가리킨다. 이것의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한 견해는 해질 때부터 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의 오후 3-5시라는 것이고 다른 한 견해는 해진 후부터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의 오후 6-7시라는 것이다.
- (5) 그런데 신 16:6에 의거해 볼 때 이 두 가지 견해 중 두번째 견해가 보다 더 타당한 것 같다.

7. **㉠ 어린 양을 잡는 사람은 누구인가? (6절)**

- ㉠** (1) 이스라엘 회중 곧 각 가정의 가장(家長)들이다.
- (2) 여기서 의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제물을 잡음으로써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참조, 레 1:1-13).
- (3) 이것은 사도 베드로(벧전 2:5)와 사도 요한(계 1:6)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간주한 것과 비슷하다.
- (4) 한편 루터(M. Luther)도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하였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직과 세속직의 구별은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요 14:6).

8. **㉠ 죄우 설주와 인방에 발리운 어린 양의 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7, 23절)**

- ㉠** (1)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는 죄를 속(贖)한다(레 17:11). 죄의 값은 사망(롬 6:23)이기 때문에 죄는 생명의 근원인 피로써만 속해질 수 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히 9:22). 죄우 설주와 인방에 발리운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다. 따라서 그들은 사망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 (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피로써 상징되는 죄사함과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회생 제물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제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는 것이다. 믿음 없이 드린 회생 제물은 의미가 없다(사 1:12).
- (3)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사 53:7; 벧전 1:19)은 화해(和解)를 위한 회생 제물을 상징하는데, 이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회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완벽한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속죄(贖罪)를 실제로 완성하였다.
- (4) 한편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길이 기념되고 있다(마 26:17-29; 고전 11:23-26).

9. **㉠ 무교병(無酵餅)은 어떤 음식인가? (8절)**

- ㉠** (1)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한다.
- (2)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에 대한 상징이다(참조, 고전 5:6-8).
- (3)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으며(마 16:6) 사도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전 5:72)고 교훈하였다.
- (4) 한편 유월절 전날 밤 유대 여인들은 촛불을 키고 집안에서 누룩이 든 떡반죽 부스르기

를 찾아 불에 태워 버리고 깨끗이 절기를 맞근 한다.

10. **Q** 양고기를 무교병 및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8절)

- A** (1) 대속의 세물인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함께 먹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죄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참조, Q 9).  
 (2) 그리고 이와 아울러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 쓰라렸던 생활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3)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두 가지 자세를 배우게 된다.  
 (4) 첫째, 성도들은 과거에 죄의 종으로서 의(義)에 대하여 자유하였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는 자신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러 기록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롬 6:17-20).  
 (5) 둘째, 성도들은 과거에 자신이 죄의 종으로서 지내었던 시절을 되돌아봄으로써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항상 자신의 신앙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1. **Q**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구워 먹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8, 9절)

- A** (1) 이것은 어린 양을 온전히, 즉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에 굽기 위해서이다.  
 (2) 여기서 어린 양을 태우는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분께서 속죄 사역을 하시면서 받으신 고통과 고난을 의미한다.  
 (3) 그리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屍身)이 꺾이우지 아니하는 것을 예표한다(시 34:20; 요 19:33).  
 (4)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뼈가 꺾이우지 아니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요 19:30).

12. **Q** 양고기 중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였는가? (10절)

- A** (1)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도록 하였다.  
 (2) 이는 곧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즉 남은 것을 그냥 버리게 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를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오늘날에도 영국 교회는 이 원리를 좇아 성찬식 때 쓰인 떡과 포도주 중 남은 것들은 식이 끝난 후 곧 바로 소화(燒火)해 버린다.

13. **Q** 유월절 성물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1절)

- A** (1) 이것은 출애굽을 눈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던 바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애굽을 떠나려 하였음을 의미한다.  
 (2)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신앙을 가진 후에는 즉시 새 생활을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세속 생활을 떠나야 할 것을 교훈받게 된다.

14. **Q** '유월절'이란 뜻은 무엇인가? (11절)

- A** (1) '유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그 문자적 의미로는 '넘어 간다' (pass over)이다.  
 (2) 이 말은 '장자 재앙'을 집행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 데서 비롯되었다.  
 (3) 한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절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이다(23:14-16; 대하 8:13).

15. **Q**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는데 양자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여 설명하라(12-14절).

- A** (1)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흠과 점이 없는 분이셨다(벧전 1:19).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을 상징했던 어린 양은 어떤 흠이 있어서 안 되었다.
- (2) 마찬가지로 죄 많은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가 없으셔야 했다(히 4:15). 그리스도의 무죄(無罪) 하심은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증언되었다(벧전 2:22; 요일 3:5). 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도 그리스도의 결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마 26:59, 60; 27:23, 24), 배반자인 가롯 유다도 그의 무죄를 고백하였다(마 27:4). 죄인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代贖)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 주셨다.
- (3) 그리고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인들을 무서운 형벌, 즉 장자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시 모든 믿는 자들을 '장래의 하나님의 진노'(살전 1:10)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 (4)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양식이 되었다. 그들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출애굽의 첫발을 내디디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요 6:55). 인자(人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되고(요 6:54) 날마다의 신앙 생활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16. C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하여 설명하라(15-18절).**

- A** (1)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은 상호 교체적으로 쓸 수도 있으나 이를 엄격히 구분하면 유월절은 نيسان 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며 무교절은 15일부터 1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을 가리킨다.
-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통털어서 한 절기로 간주한다.

**17. C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 A** (1)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 (2)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참조, 시143:5, 6).
- (3) 신앙 생활은 현재의 만족이나 혹은 미래에 구원받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며 이것이 상호 연결되는 것이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현재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에 모두 연결되는 것이다.

**18. C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5절)**

- A** (1) 첫날부터 7일까지 사이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이다. 여기서 첫날부터 7일까지란 아빔 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를 말한다.
- (2)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곧 회중에서 제거당한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생명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을 자격이 없다(참조, 마 23:37, 38).

**19. C 무교절 기간 중 성회(聖會)로 모이는 날은 언제인가? (16절)**

- A** (1) 첫날과 제 7일이다.
- (2)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며 단지 음식 장만하는 일만 허용될 뿐이다.
- (3) 그런데 이런 휴식 규정의 근본 의미는 노동을 쉬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다.

**20. C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무엇으로 바르는가? (22절)**

- Ⓐ (1) 우슬초 (hyssop) 묶음으로 바른다.
- (2) 우슬초는 박하의 일종으로서 다년생 약초인데 주로 서부 아시아에 많으며 팔레스틴 도처의 들담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 (3) 그런데 우슬초는 여기서 처럼 장자 재앙을 면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도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레 14:4; 민 19:6).
- (4)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빗대어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삼하 11장)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 51:7) 라고 회개하였던 것이다.

21. ⓐ '멸하는 자'란 누구인가? (23절)

- Ⓐ (1)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관 징벌을 대행하는 천사(참조, 사 5:23; 삼하 24:16; 대상 21:15), 즉 '멸하는 사자' (시 78:49)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멸하는 자'를 통제하셨다는 표현은 곧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모든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관할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 애굽에 내린 열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29, 30절)

- Ⓐ (1) 위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래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 (2)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이미 모세에 의해 바로에게 예고되었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이었다(11:4-8).
- (3)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초태생(初胎生)들이 죽어버린 것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멸절당한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농경(農耕) 수단 및 운송 수단의 몰락, 즉 애굽 경제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니 더 이상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4)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성취되었으니 곧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된 것이다(31절).
- (5)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의 세력은 결국 '여호와와 손'에 의하여 꺾여지고 만다는 것이다(참조, 시 138:7).
- (6) 뿐만 아니라 바로가 모세에게 굴복하면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32절)고 말한 것은 곧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임을 잘 보여 준다.
- (7) 즉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세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계 14:8).

23.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점은 어디이며 또 그때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37절)

- Ⓐ (1)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숙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 '라암셋'은 국고성이 있던 '라암셋' (1:11)과 동일한 곳으로 생각되는데 나일 강 동쪽 삼각주에 위치했을 것이다(참조, 1장 문 11). 그리고 '숙곳'은 애굽의 국경인 '에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다(참조, 13:20; 민 33:5, 6).
- (2) 한편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유아 외에 장정(壯丁)만 60만 가량이었다. 여기서 유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타프>는 보행하지 못하고 짐승과 마차를 타며 여행하는 여자와 아이들을 전부 포함하는 말이다.
- (3) 하지만 60만 이라는 수자는 군사치이다. 아마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백성의 총수는 약 200만 명이었을 것이다.

24. ⓐ 출애굽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행한 잡족(雜族)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8절)

- Ⓐ (1) 결혼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 살던 이방족들을 말한다.
- (2) 대체로 이들은 나일 강 삼각주 지대에 거주하던 다른 셈족들과 일부 애굽인들로 추정

된다.

(3)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베푸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가담하였을 것이다.

25. **Q**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8절)

- A** (1) 할례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 그리고 돈으로 산 종이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표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  
 (3)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율법 시대였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었듯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등하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참조, 롬 1:16).

### 화보자료

대곡녀(代哭女). 아래의 사진은 죽음을 맞은 가족들을 대신하여 곡(哭)해주는 대곡녀들의 모습으로서 라암세스(Raamses) 왕가 분묘의 벽화이다.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었다(29, 30절). 이같이 처참한 열번째의 재앙이 있기 전에 이미 애굽은 여러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10:7). 하나님을 모르고 강박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이같은 애굽의 모습은 범죄한 나라에 임하는 심판의 예표이다(31-33절).

# 제 13 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2 초태생(初胎生)의 구별 / 3-10 무교절에 관한 규례 / 11-16 초태생용 여호와께 바치라 / 17-20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발하다 / 21-22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4 아빔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6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 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 칠 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뵈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키라  
 11 여호와께서 나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들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

지니라  
 14 장래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네  
 15 그 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  
 16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향오를 지어 나올 때에  
 19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20 그들이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라.

**㉡** (1) 본장의 서두(2절)와 중반부(11-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

께 바쳐야 한다는 명령과 함께 그 이유가 기술되어 있다.

- (2) 그리고 전반부(3-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킬 것과 이 같은 규례와 그 의미를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 (3) 반면에 후반부(17-22절)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된 이유와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심을 보여 주고 있다.
- (4)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단(間斷) 없는 사랑과 아울러 그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찾아 볼 수 있다(참조, ㉠ 12).

2. ㉠ 초태생(初胎生)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을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하라(2절).

- ㉠ (1) 출애굽 당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히 12:23은 구원받은 무리를 초태생, 즉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묘사하고 있다. 초태생이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음은 양자 사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다.
- (2) 먼저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그리스도로 예표(豫表)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구속 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참조, 벧전 1:18, 19).
- (3) 그리고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소유이다(참조, 고전 6:19, 20; 행 20:28).
- (4) 또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참조, 벧전 1:15, 16).
- (5) 한편 모세 오경에서만 해도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10회 이상 반복되었다. 이처럼 자주 반복된 것은 그 의미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제 이 세상의 것, 즉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다. 따라서 자신을 악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보이지도 말게 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7절)

- ㉠ (1) 무교절을 완전하고 정성스럽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 (2) 성경 여러 곳에서 누룩은 전염성이 있는 죄악을 상징하고 있다(마 16:6, 12; 막 8:15; 고전 5:6).
- (3) 따라서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보이게도 말라'는 것은 곧 모든 종류의 죄악을 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살전 5:22).

4.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유월절의 규례와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가?(8절)

- ㉠ (1) 이는 곧 히브리인들의 자녀에 대한 종교 교육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 (2) 히브리인들은 절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어 그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가르쳐야만 하였다(참조, 신 6:6, 7).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개인적으로나 당대(當代)에만 국한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민족적으로 선택하셔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창 12:7; 17:7, 8).
- (4)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자신이 먼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을 자녀

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참조, 잠22:6).

5. **Q**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9,10절)

- A** (1) 여기서 '이것'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무교절의 중대성을 가리킨다.  
 (2) 그리고 그것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것은 마치 손에 표시하며 머리에 표시하여 둔 것과 같이 항상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신 6:8,18).  
 (3) 결국 여기서 뜻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바는 행사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그 의미, 즉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6. **Q** 무교절 의식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상기해야만 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9절)

- A** (1) 종 노릇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의미한다(신 16:3).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고난과 핍박, 수치를 당했던 종 되었던 집과 그곳에서의 해방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과 죄와 사단에 종 노릇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더 이상 과거의 습관을 좇지 말아야 한다.  
 (2) 누룩을 제거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해야만 했다. 누룩은 과거 애굽의 죄악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애굽의 가증스런 죄악을 행하지 말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했다. 오늘날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또한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등의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요일 2:16).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해야만 했다. 불신자와 2세를 위한 교육은 신약 시대에도 교회의 중요한 한 역할이다(참조, 엡 4:11; 딤후 3:3; 딤후 2:24).  
 (4)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들은 무교절 의식을 통하여 행사 그 자체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생활은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과 길의 빛이기 때문이며(참조, 시 119:105),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3:16, 17).

7. **Q** 사람이나 생축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인가? (12절)

- A** (1) 수컷으로서 제일 처음에 태어난 것이다.  
 (2) 그 이유는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 수컷들만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11:4-7).  
 (3) 따라서 모든 초태생 수컷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게 된 것이다.

8. **Q**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A** (1) 나귀는 원래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굶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했다(레 11:1-8).  
 (2) 따라서 나귀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질 수 없었고 깨끗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代贖) 되어야만 했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야만 했다.

9. **Q**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보다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17절)

- A** (1)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

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 (2)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병사를 가진 호전적인 족속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섯 개의 동맹 도시, 즉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의 지배자가 된 족속이다(수 13:3).
- (3)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의 가사(Gaza)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또한 이 길이 애굽 19왕조 시대에 가장 왕래가 빈번한 통로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광야 길은 여섯 배 정도로 멀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한 자비심 때문이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심신(心身)이 연약해 있었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참조, 14:10-12).

10. ㉠ 이스라엘 자손이 거쳐 간 홍해의 광야 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길인가? (18절)

- ㉠ (1) 홍해는 히브리어로 <얄 수프>인데 ‘갈대 바다’(sea of reeds)라는 뜻이다. 라틴어로는 ‘홍해’라고 불리우는데 그 어원은 바다 밑에 깔린 붉은 산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홍해는 길이 1,900km, 넓이 200-250km<sup>2</sup>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 수에즈 만, 동북쪽으로 아카바 만을 끼고 있다.
  - (3) 이스라엘 자손은 수에즈 만 북단을 거쳐서 술 광야, 혹은 바란 광야를 거쳐서 지나갔다.
  - (4) 한편 본절의 ‘항오’란 말은 군대 행렬에 쓰이는 말로서 사람들이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행진하는 것을 말한다.

11. ㉠ 출애굽시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출애굽이야말로 요셉이 믿은 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창 50:24).
- (2) 일찌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사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알았었다.
  - (3)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자신의 유골을 취할 것을 유언(遺言)하였던 것이다(창 50:25).
  - (4) 결국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한 것은 요셉의 유언을 신실되이 이루어 드린 것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도 확실히 믿은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이다.
  - (5) 한편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이 순간의 우리의 삶이 영적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일 것이다(참조, 히 11:13-16).

12. ㉠ 이스라엘 자손들은 숙곳에서 발행하여 어디를 향해 갔으며 그곳의 위치는 어디인가? (20절)

- ㉠ (1) 에담을 향해 갔다.
- (2) ‘에담’의 문자적 뜻은 ‘요새’인데 흔히 ‘광야의 끝’으로 언급된다(민 33:6). 그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르 광야의 끝으로 추정되며(참조, 15:22), 애굽 동쪽 국경 지방을 경계하는 요새의 일부이기도 했다.

13. ㉠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 크신 사랑의 의미는 어떠한가? (21, 22절)

- ㉠ (1)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의 기둥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야 한다(참조, 14:4). 즉 똑같은 하나의 구름기둥이 환한 대낮에는 짙은 수증기의 밀집 현상인 회색빛 구름으로, 어두운 밤에는 밝히 타는 듯한 불빛

을 포함한 불 기둥(즉 불구름 기둥)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2) 타는 듯이 뜨거운 광야의 한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또 뜨거운 한낮과는 전혀 다른 사막의 추운 밤에는 따스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사랑의 특징을 배울 수 있다.
- (3) ① 하나님의 사랑은 밤낮으로 계속된다는 것이다(참조, 시 121편). ②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미래 지향적인 사랑이라는 것이다(23:20). ③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랑을 적절히 공급하신다는 것이다(참조, 벰전 4:11).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그리고 세밀하고 적절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

14. **㉠** 불과 구름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21, 2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를 초월하신 분으로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 오신다. 그리고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과 다정스럽게 동행하여 주신다(참조, 창 28:10-15).
- (2)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근본 원리, 즉 역사에 동참하셔서 직접 구원 행동을 하심은 변하지 않으나 그 임재하심의 방법에는 시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소수의 인간에게 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외형적 상징을 통하여 임재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완성된 성경과 성도의 영혼 안에 내재(內在)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25:8; 창 3:8; 12:7; 17:1; 18:1 이하; 대하 6:12, 20; 7:16; 마 18:20; 엡 2:20-22; 계 21:2-4).
- (4) 한편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에의 동참, 나아가 성도 개인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부딪침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 인격의 부딪침이 곧 신앙의 출발이다.
- (5) 신앙은 철학적 사변(思辨)이나 이론이 아니고 더우기 일시의 감정적인 흥분이나 맹신(盲信)은 전혀 아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가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과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며, 알며 확신하고 살아왔는가 매일 반성해야 한다.

15. **㉠** 모세는 본장에서 '여호와와 손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모세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 주는가? (3, 9, 14, 16절)

- A** (1)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의 공로를 조금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지혜없음을 깨달은, 곧 가장 큰 지혜를 깨달은 자였다(참조, 3:11; 4:10).
- (2) 또한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 '능하신 손'이라는 의인법적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다.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구원하시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 구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참조, 시 23:1-3).

## 제 14 장 홍해를 건너다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홍해 바닷가 바알스본에 진치는 이스라엘 / 5-9 바로의 주격 / 10-14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위로 / 15-20 여호와의 전진 명령 / 21-25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 / 26-31 애굽 군대가 수장(水葬) 되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락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4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 인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5 흑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6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7 특별 병거 육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결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10 바로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김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

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 할 것 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18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쁜 여호와 인줄 알리라 하시더니

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리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하니하였더라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

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 **㉠** 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약과 관련된 예표론적 사건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애굽을 떠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홍해 광야 길로 진행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2절).  
 (3) 그러자 이 같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전해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들의 뒤를 쫓기에 이르렀다(3-9절).  
 (4)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 놓여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들이 닥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쪽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15절).  
 (5) 그리하여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홍해를 갈라 바다 한 가운데 마른 길을 내어 주셨으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 저들의 생명을 구원받았다(21, 22절).  
 (6)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은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롬 10:10)을 물로 세례받음으로써 증거하는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참조, 막 1:4, 5).  
 (7)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1, 2)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2. **㉠** 이스라엘 자손을 '돌쳤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2절)

- ㉠** (1) '돌치다'란 말은 '뒤로 돌다'(turn back) 또는 '옆으로 돌다'(turn aside)란 의미를 지닌다.  
 (2)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껏 숙곳에서 에담까지 행군해 왔던 북동쪽의 방향으로부터 되돌리어 다른 방향, 즉 남쪽이나 남동쪽의 방향으로 행군토록 하신 것을 의미한다.

3. **㉠**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帳幕)을 친 곳은 어디인가? (2절)

- ㉠** (1) 바다와 므딕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2)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한다. 그리고 '므딕돌'(Migdol)은 나일 강의 델타 지역으로부터 팔레스티노로 향하는 통로상에 위치한 한 지점으로서 애굽의 국경 요새인 '트르'에서 북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이다.  
 (3) 한편 '바알스본'(Baal-zephon)은 '북쪽의 바알'이란 뜻인데 추측하기는 라암셋 남동쪽 약 35km 지점에 위치한 것 같다. 그렇게 볼 때 '비하히롯'(Pi-hahiroth)은 자연이 바알스본 앞, 즉 그 동쪽에 위치한 곳이 된다.

4. **㉠**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3, 4절)

- ㉠** (1)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이 한 쪽은 바다이고 다른 쪽은 사막인 곳에 갇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또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국(自國)의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

한 그로서는 이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3) 그러나 바로의 이같이 무모한 짓은 결국 여호와와 능력과 영광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야기시켰다(26-31절).

5. **㉠**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찌 이스라엘을 섬김에서 놓아 주었는고' 하며 후회한 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5절)

**㉠** (1)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얼마나 끈덕진가를 보여 준다. 몇 가지 재앙에 굴복하였던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사라지자 다시금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다.

(2) 사실상 60만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선 상당한 손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 노동력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놓아 준 것을 후회하였을 것이다.

(3) 그런데 이와 같은 애착과 욕심이 무모하게 이스라엘의 뒤를 쫓는 행동으로 옮겨졌고, 결국 그 같은 행동이 저들의 죽음을 가져 왔으니(26-30절) 이는 곧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판 행위였던 것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 15)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여 이 같은 화(禍)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6. **㉠**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무엇을 사용하였는가?(6, 7절)

**㉠** (1) 특별 병거(兵車) 육백 승(六百乘)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사용하였다.

(2) 여기서 병거란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를 말한다. 평화시에는 이것이 행진, 의식 등에 사용되었으나(참조, 창 41:43;45:19) 여기에서는 전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당시 애굽의 병거는 주로 2인승 내지 4인승이었으며 청동과 철로 된 주요 부품 외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나무와 가죽 등으로 가볍게 만들어졌다.

(4) 한편 '특별 병거'란 무슨 특별한 장치가 된 병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애굽의 모든 병거'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일종의 특공대를 의미하는 것 같다.

7. **㉠**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나왔는가?(8절)

**㉠** (1) 담대히 나왔다.

(2)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 라마>인데 '높은 손'을 뜻한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시에 도망하는 자들처럼 초라하거나 비겁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손'(참조, 사 26:11) 곧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서 담대하고도 자신 만만한 태도로 나왔던 것이다.

(3)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이니 그러한 신앙은 우리들에게서 온갖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담대한 삶의 태도를 견지(堅持)하도록 해줄 것이다(참조, 요 16:33).

8. **㉠**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였는가?(10절)

**㉠** (1)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달려온 애굽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하였다.

(2)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곧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서 겁에 질렸다는 사실이다.

(3) 물론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기 및 전투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다.

(4) 따라서 수많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와 대적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5)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출애굽할 당시의 그들의 담대한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가 된다(8절).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다시금 그들의 힘되시고 능력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 (6)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위기와 환난은 종종 닥쳐온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제시받아야 할 것이다(빌 4:6).

9. **㉠**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여 드러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앙적 차이 점을 비교하라(10-14절).

- ㉠** (1) 인간은 평상시에는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자신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과시할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하게 되면 곧 인격의 진면모(眞面貌)를 드러내게 된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너무나 대조적인 신앙의 차이를 보였다.
- (2)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의 믿음은 변덕장이 믿음이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12:34-41),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16:13-20), 바위를 쳐 물을 낸 사건(17:1-7) 등과 같이 당장 눈에 무엇인가 보일 때에는 마치 죽음이라도 불사를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지만 잠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곧 하나님 모독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끊임없고 무한한 사랑에 대조되는 간교하고 가증한 속성을 드러내었다. 훗날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말씀하셨다(마 13:5-8).
- (3)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모세는 홍해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13절)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15절). 모세는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개의치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
- (4)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준다. 즉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이나 신념(信念)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 시련이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참조, 벰전 1:7).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며 또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해 타산적이고 변덕스러운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내린 굳건한 믿음이다(참조, 마 13:1-23).

10. **㉠** 모세에게 갖은 원망을 다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빼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마저 거부하는 백성 앞에 선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여 보라(10-12절).

- ㉠** (1) 우리는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을 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고독(the loneliness of the leader)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리석고 배은 망덕한 백성들에게 한마디 대꾸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미 예고 받았기 때문이다(1-4절). 이처럼 지도자는 때로 갖은 모함과 불평을 들어가면서도 백성들을 참 길로 인도하여야 할 때가 많다.
- (2)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세가 겪은 고독과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던 우리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자(마 27:27-44).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의 고난에도 동참하자(빌 1:29; 히 9:26).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도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야 한다(고전 9:19-23).

11. **㉠**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한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다.  
 (2)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는 말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일시적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애굽인의 노예가 되는 것을 더욱 원하였다.  
 (3)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현실을 극복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분의 역사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이다(롬 8:28, 35-39).
12. **㉠** 우리가 역경 중에서도 가만히 서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시험을 내리시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기 때문이다(고전 10:13).  
 (2)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경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더욱 굳건하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롬 5:3, 4).  
 (3)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롬 5:1-4).  
 (4) 그러기에 사도 바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2, 13).
13. **㉠** 모세가 홍해 앞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위로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모세는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했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야 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담대한 믿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무모한 만용(蠻勇)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에 근거한 참된 용기이다(수 1:5-9). 플라타크 영웅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창과 방패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창과 방패를 들고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이다'. 이 세상 싸움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2)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인생을 살다보면 실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다. 이것은 어차피 유한한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참조, 렘 15:11). 물론 이것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것을 전제로 한다.  
 (3) 또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다. 그렇다. 기독교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된 종교가 아니다. 살아 계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다(참조, 사 34:4).
14. **㉠**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15절)
- ㉠** (1)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의미이다.  
 (2) 흔히 우리들의 신앙은 내면으로 움츠러 드는 수동적인 신앙이 되기 쉽다. 하지만 항상 기도함과 동시에 그 기도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왜냐하면 신앙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였으면 찾아 나서고, 찾았으면

두드리는 적극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마 7:7, 8).

15. ㉠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 쪽으로 전진 하라고 명하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15 절).

- ㉠ (1) 이것은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모세에게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상당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이다.
- (2) 왜냐하면 홍해를 지팡이로 치기 전, 즉 홍해의 물결이 갈라지기도 전에 바다 쪽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물 속에서 몰사(沒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능성을 바라보게 한다(참조, 히 11:1).
- (4) 그 한 예로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같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것이다(히 11:17).
- (5)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믿음에 입각하여 그 같은 명령에 순종하여야 했다. 그러할 때 결국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이다(21절).
- (6)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조그마한 위기나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한 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는 말씀이 우리의 행동 좌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6. ㉠ '하나님의 사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9 절)

- ㉠ (1)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 (2)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와 사자'란 대개 천사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현현(顯現)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장된다(참조, 창 16:7-14; 21:17-21; 슥 1:12).
- (3)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훗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제 2위의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진다.
- (4) 한편 본절에 사용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명칭은 <엘로힘>인데 이는 하나님의 '위엄' 및 '충만하심', 그리고 '삼위 일체' (三位一體)를 강조하는 호칭이다(참조, 6장 ㉠13).

17. ㉠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21 절)

- ㉠ (1)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 결국은 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
- (2) 여기서 '큰 동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 카담 아즈>인데 이는 동풍만을 의미하지 않고 북동풍이나 남동풍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은 '큰 동풍'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생겨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 생겨난 바람임을 보여 준다.

18. ㉠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속으로 행진할 때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2 절)

- ㉠ (1) '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호마>인데 '담'이나 '둑'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곧 '보호'나 '방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닷물의 좌우 벽이 이스라엘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보호 벽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 (3)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을 통과함으로써 저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의 표로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참조, 고전 10:2).

19. ㉠ 홍해에서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밝히라(21-30 절).

- Ⓐ (1) 이것은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스런 행위를 나타내 준다 (참조, 요 1:4; 12:46).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애굽인들을 흑암 가운데 방치해 두신 것같이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 (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과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친히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소경이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방향 감각과 목적을 상실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20절).
- (3)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음과 장사(葬事)의 터널, 즉 하늘 위의 구름과 양벽의 바닷물로 싸인 홍해 바다 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죽음과 장사와 그로부터 나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게 하셨다 (참조, 고전 10:1, 2; 롬 6:3-5).
- (4) 그리하여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애굽에서 살았던 옛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부활로써 옛 신분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진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위치에서 살아가는 신분이 되었음을 입증해 주셨다 (22절).
- (5) 마지막으로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들을 명확히 구별하였듯이 양으로 상징되는 그의 백성과 이리로 상징되는 불신자들을 엄격히 구별하여 진노의 손길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마 25:31-46).
- (6)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어디에서나 그의 백성과 그의 대적자인 악인들을 간과하지 않고 살피시어 빛과 어두움의 대조적인 현상처럼 그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대조적으로 대하신다. 즉 한쪽에게는 구원으로, 다른 한쪽에게는 멸망으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참조, 계 19:11-16).

20. ㉠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이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과 믿음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라 (31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현상(現狀) 세계에서 종종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나타내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흥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한다.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적은 우리들의 믿음을 유발시키는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 (2) 그러나 이런 가시적(可視的)인 초자연적 기적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 이것은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이내 곧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잘 증명되며 또한 예수님 당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 (3) 엄격히 말해 진정한 믿음은 기적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적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만을 유발시킬 뿐이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롬 1:17; 10:17), 기적은 단지 그 말씀을 확실케 하며 (막 16:20)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제 15 장 홍해 도하(渡河)에 대한 감사의 찬양

단락구분 1-19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감사 찬양 / 20-21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과 노래로 화답하다 / 22-26 마라의 쓴 물 / 27 열림에 장막을 치다

1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다  
 2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 여호와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와는 그의 이름이 시로다  
 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5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개같이 사르니이다  
 8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영기니이다  
 9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달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날같이 잠겼나이다  
 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12 주께서 오른 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14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

에 잡히며  
 15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힘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라 주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 여호와와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19 바로의 과와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다  
 하였더라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

회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  
는 여호와임이니라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 들과

중려 칠십 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결에 장막을 치니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인 모세의 감사 찬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 기록된 모세의 감사 찬송은 이스라엘의 뒤를 쫓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沒殺)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2)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래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롬6:17-23).

(3)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할렐루야'(시117:2)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바로의 군대가 멸망당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 진노를 받아 완전히 멸절될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계20:9).

2. **㉠ 모세의 찬양을 그 내용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특징을 비교하라(1-18절).**

**㉠** (1) 이 찬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현재, 과거, 미래의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다. 1-5절까지는 현재 사실들, 즉 현재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당시 백성들은 현재의 구원 사실에 너무 벅찬 나머지 전후(前後)의 일들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오직 넘치는 희열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다. 이런 축제의 찬양은 현재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2) 6-10절까지의 찬양에서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다. 그들의 현재의 구원에 대한 넘치는 감사는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회상하게 하였으며 또한 과거의 은혜로운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회상은 현재의 찬양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하며 찬양할 근거를 더욱 밝히 보여 주었다.

(3) 11-18절까지는 찬양으로 표현된 미래의 예언적인 사건으로 장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신앙 고백한 것이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차 있었으니 이는 과거에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 확신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과거와 현재에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3. **㉠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선한 결과를 설명하라.**

**㉠** (1)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노래하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발로(發露)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2)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은 그것을 준비하고 행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4. **㉠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2) 한편 전반절에서는 찬송의 주체(主體)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등장했는데 후반에서 '나'라는 단수로 바뀐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3)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체험을 겪은 성도라면 그 누구든 감사의 찬송을 안 할 수 없다. 즉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부조리(不條理)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강하게 체험한 자라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참조, 행 16:24, 25).

5. **㉠** 본절에서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는 은유적 표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절)

- ㉠** (1) 나의 힘(strength), 나의 노래(song), 나의 구원(salvation), 나의 하나님(God),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father's God)이다.  
 (2)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즉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객관적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주관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성립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요 10:26, 27).

6. **㉠** 본절에서는 여호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3절)

- ㉠** (1) '용사'(勇士)로 표현하고 있다.  
 (2) 여기에서 '용사'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능한 자'를 가리킨다(렘 48:14).  
 (3)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14:14, 25) '여호와와의 전쟁'을 지도하신다는 뜻이다(민 21:14; 삼상 18:17; 25:28).  
 (4) 그리고 이 말은 뒤이어 언급되고 있는 애굽 병거 침몰 사건을 암시한다.

7. **㉠**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어떤 식으로 침몰시켰다고 표현되어 있는가? (4절)

- ㉠** (1) '던지셨다'고 표현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는 것을 뜻한다.  
 (3)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바로의 군대에 비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감히 대적받을 수 없는 전능자이시다(참조, 시 68:14; 사 13:6).

8. **㉠** '주의 오른손'이란 무엇을 상징하는가? (6절)

- ㉠** (1) 성경에서 '손'은 종종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3:19; 7:4; 창 16:12; 욥 5:15; 사 43:13).  
 (2) 그리고 '오른편'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 곧 지극한 권위와 탁월한 능력을 상징한다(참조, 마 25:31-46; 막 10:37).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시 20:6; 44:3; 60:5).  
 (4) 한편 여기서 '주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沒殺)시키심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의미한다(4, 5절).

9. **㉠** 주께서는 어떤 자를 일으키는가? (7절)

- ㉠** (1) 주를 거스리는 자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애굽 군대를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2) 여기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안과 평화를 얻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공포와 전율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요 12:47, 48).

10. **㉠** '주의 콧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여기서 '주의 콧김'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 위하여 일으키신 '동풍'을 의미한

다(참조, 14장 ㉑ 17).

(2) 한편 '궂김'이란 말에서 '김'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우주 만물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기도 한다(욘 4:9).

11. 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㉑ (1) 여호와께서는 애굽 군대들을 멸망시키셨으니 그들의 보호신인 애굽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 그러나 이 말은 모세가 '다신론'(多神論)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신론'은 천지 만물(天地萬物) 모든 것에 영(anima)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도 실상은 여호와와 피조물에 불과하며 참된 의미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잠신인 것이다(참조, 눅 10:17-20; 유 1:6).

(4) 여기서 모세가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선 다른 열방들의 잠신과 같은 그러한 신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유일 사상(唯一思想)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신 6:4).

12. 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3절)

㉑ (1)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뜻이다.

(2)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충성, 자비, 확고함, 진실 등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리킨다.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성결한 처소'로 들어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성결한 처소'란 직접적으로는 성소들이 많이 있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나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가리킨다.

13. ㉑ 본절에 나타나는 여러 민족들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 (14, 15절).

㉑ (1) 블레셋 거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오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에게 해(Aegean Sea)의 여러 섬들, 특히 그레테(Crete)에서 가나안의 블레셋(Philistia) 지방으로 이주해 온 해양 민족(海洋民族)이다. 이들은 인종학적으로 블레셋족이 아니라 함의 후손으로서(창 10:6-14) 아리안 종(Aryan)에 속한다. 이 민족은 가나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서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하였는데(삼상 17장; 삼하 5:17-25; 대하 26:6) 훗날 헬라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 C. 356-323)의 침략을 받아 다른 민족들에게 흡수되어 마침내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2) 에돔족: 세일(Seir) 산지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에서(Esau)의 후손이다. 이들은 본래 그곳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Horites)을 제압한 후 그들과 통혼(通婚)하였다(참조, 창 36:8-43).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胎) 속에서부터 다투었듯이(창 25:21-26) 이스라엘과 에돔족은 서로 끊임없이 다투었다(민 20:14-21; 왕하 8:20-22).

(3) 모압족: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딸과의 근친(近親相姦)에 의해 태어난 모압의 후손이다(창 19:37).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해 동쪽 고원 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다윗의 증조모인 롯이 모압 여인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룻 1:4; 4:13-22).

14. ㉑ 여성인 미리암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과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 교훈을 설명하라.

㉑ (1)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활약하였다. 즉 미리암은 구약의 홀다(왕하 22:14-20)나 신약의 안나(눅 2:36)처럼 선지자로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드러내었던 것이다(민 12:2).

- (2)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도 그의 뜻을 알려 주시며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초자연적으로 교통하시사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심을 뜻한다.
- (3) 미리암은 여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하도록 세움을 입었다(미 6:4).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으며(삿 4:4),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이 전멸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과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을 경시(輕視)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성(性)에 대한 차별과는 달리 많은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일을 이루셨다.
- (4)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녀의 성(性)에 대한 차별이나 또는 빈부(貧富)의 차이, 사회적 귀천(貴賤)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속에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을 택하여 그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로 삼으신다.
- (5) 미리암과 많은 여자들은 찬양의 화답으로써 남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종교 의식(宗教儀式)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후렴송(頌)으로 각절 사이와 끝절에서 화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감사 예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도 초대 교회 당시부터 여성들의 교회 참여가 인정되었고 또한 매우 활발하였다(참조, 눅 8:2,3; 행 1:14; 롬 16:1).
- (6)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서 우리들은 남자들의 주도권과 여자들에 대한 편협된 경시감(輕視感)을 버리고 여자들의 역할과 위치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며 여성들의 기능과 성품에 합당한 활동을 고취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15. **㉠**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 갔는가? (22절)

- ㉠** (1)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다.
- (2) '수르'라는 말은 '뻥'이란 뜻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주로 '술' 광야로 불리웠으며(참조, 창 16:7; 20:1; 25:18; 삼상 15:7; 27:8) 민 33:8에서는 '에담' 광야로 불리워졌다.
- (3) 이곳은 애굽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를 말하는데 지중해에 면한 지역을 수르 광야, 홍해에 면한 지역을 에담 광야라고 불렀던 것 같다.

16. **㉠**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행한 후 도착한 지점은 어디인가? (23절)

- ㉠** (1) '마라'이다.
- (2)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로움'이란 뜻인데 실제로 그곳의 물은 무척 썼다고 한다.
- (3) 이곳의 위치는 불분명하나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의 남동쪽 약 75km, 그리고 수에즈로부터 동쪽 약 11km에 위치한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Ain Hawarah)로 추정된다. 요즘도 사막 지대에 가면 염분을 함유한 토양으로 말미암아 물맛이 쓴 지역이 곳곳에 있다.

17. **㉠**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지은 죄의 특성을 분석하라 (22-26절).

- ㉠** (1)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지은 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과 원망의 죄였다. 광야 생활 도중에서(민 14:22) 이미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그 이전에 벌써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불평을 터뜨린 백성들을 꾸짖었다.
- (2) 22-25절의 기사(記事)만 해도 바로 3일 전에 그토록 놀라운 홍해 도하(渡河)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물이 필요하게 되자 곧 원망을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 (3) 이러한 원망은 근본적으로 불신과 불순종에서 나온다. 아마도 그들이 이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분명히 물도 주실 것을 믿고 조용히 간구했다면 그들은 더욱더 큰 축

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원망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같이 되는 큰 죄이다(참조, 고전 10:10-12).

18. ㉠ 원망 죄의 심리적 원인과 그 악영향을 지적하라(22-26절).

- ㉠ (1) 일반적으로 원망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또는 무능력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도피 성향에서 기인된 것이다.  
 (2) 따라서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쉬우며 이로써 공정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심적 안정을 잃어버려 매사에 불평을 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도 악영향이 미쳐지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피차 원망과 시비(是非)가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빌 2:15).

19. ㉠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하셨으며 또한 자신을 무엇이라고 밝히셨는가? (26절)

- ㉠ (1) 먼저 여호와와 말을 청중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다.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밝히셨다.  
 (3) 여기서 '치료하는'이란 히브리어는 <라파>로서 '의원'이나 '의사'를 가리킨다(참조, 대하 16:12; 욥 13:4).  
 (4) 신·구약은 다같이 건강과 신앙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것은 모든 고대 세계에서 공통되는 점이기도 하다. 건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하다.  
 (5) 이 '치료하는 여호와'는 질병을 고쳐 준다는 면을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근원적 문제와 고민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의미도 지닌다(참조, 마 9:2, 11-13).

20. ㉠ 이스라엘이 마라를 떠나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27절)

- ㉠ (1) '엘림'인데 수에즈 동남쪽 약 100km, 그리고 마라 남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와디 가란델'(Wadi Gharandel)인 듯하다.  
 (2) 이곳에는 물 샘 열 둘과 종려 칠십 주가 있었다. '엘림'이란 말은 '신들' 또는 '테레빈 나무들'이란 뜻인데 아마도 성소(聖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3) 한편 이곳은 좋은 휴식처로서 안성마춤이었다. 즉 완전수인 12와 70(7×10)이 상징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주 좋은 안식처였다.  
 (4) 이처럼 인생 여정 중에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즐거움도 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바쁘게 쫓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기쁨으로 말미암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5)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 난 삶은 시종 여일(始終如一)하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기쁨 수밖에 없다(빌 3:1; 4:4-7).

21. ㉠ 13장에서 15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을 쓰라.

- ㉠ (1) 애굽(13:18) → 숙곳(13:20) → 예담(13:20) → 바알스본(14:2) → 비하히롯(14:9) → 홍해(14:21, 22) → 수르 광야(15:22) → 마라(15:23) → 엘림(15:27)

## 제 16 장 만나와 메추라기

단락구분 1 이스라엘 민족이 신 광야에 도착하다 / 2-3 굶주린 백성들의 불평 / 4-12 하나님의 지시 / 13-20 만나와 메추라기 / 21-30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심 / 31-36 만나 한 오멜을 기념으로 간수하다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이 월 십 오 일이라

2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4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제 육 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 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감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

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등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둔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일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20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22 제 육 일에는 각 사람이 감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대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굶고 삼을 것은 삼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26 육 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

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제 칠 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제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 불지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육 일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 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제 칠 일에 안식하니라

31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낫새 같고도 회고 맞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2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델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3 또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36 오델은 에바 심분의 일이더라

###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식량이 없음으로 인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 주신 이 만나는 곧 하늘로부터 오신 신령한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요 6:31-35).
- (3) 즉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만나와 함께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며(25-29절), 또한 이것을 향아리에 담아 보존함으로써 자신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를 통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시었다(33절).

### 2. ㉠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나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엘림과 시내 산 사이의 신 광야이다.
- (2)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 광야는 오늘날의 '와디 타이베'(Wady Taiyibeh)에서 동쪽으로 이르는 산악 도로를 통과하여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황량한 고원 지대를 가리키는 것 같다.
- (3)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5일(민 33:3)이니 엘림에 도착하기까지는 꼭 1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출애굽시에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은 아마도 거의 다 소모되었을 것이다(3절).

### 3. ㉠ 이스라엘 민족이 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 내용은 무엇인가? (3절)

- ㉠ (1)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그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원망하였다.
- (2)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시적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은 결과였다.
- (3) 즉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사건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림에서도 역시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사 6:9).

### 4. ㉠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몸에 젖은 그들의 심각한 노예 근성을 찾아 볼 수 있다.

(2) 애굽에서 강제 노동자들이 고기가 끊는 가마 앞에 앉아 있을 수가 거의 없다.

(3) 따라서 본문의 표현에는 과장이 섞여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차라리 쌀 한 톨이라도 더 많은 애굽에서의 종 생활이 차라리 더 낫다는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14장㉒9).

5. ㉒ 먹을 것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4절)

㉒ (A) (1)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백성들이 일용(日用)토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들어 주셨으니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한 것이다.

(3) 단지 이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은 매일매일 하루분의 양식만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믿는가 시험해 보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4) 한편 어떤 사람은 수년, 수십 년을 위해서 재물과 양식을 비축해 두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성도들은 비록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참조, 욥 42:10-15).

6. ㉒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그 양식을 얻어야 했던 사실이 보여 주는 성도의 물질관은 어떠한가? (4절)

㉒ (A) (1)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므로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배제(排除) 하라고 가르치신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다(참조, 마 6:11).

(2) 이와 같은 까닭은 세상 만물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지 인간이 세상 만물의 장식품이 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창 1:26-30). 따라서 인간이 물질을 이용하여 기쁘게 살아야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배반이다.

(3)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은 창지기에 불과하므로(참조, 학 2:8; 고전 10:26; 딤후 1:12; 벰전 4:10) 그분의 뜻에 맞게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전 10:31).

7. ㉒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답변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어떠한가? (6-9절)

㉒ (A) (1) 먼저 자신의 신분과 능력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 '우리가 누구관대'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며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 필요를 충족할 능력이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할 줄 알아야 하니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여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큰 죄이다(참조, 단 5:18-23).

(2)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배하며 믿을 대상과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힌다. 즉 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문제가 발생할 때에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기 전에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마 11:28; 요 14:6).

(3)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유하게 가르쳐 참된 길로 인도해야만 한다. 모세는 후에 원망과 불평만 했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이 없었던 것

처럼 책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행할 바를 자세히 제시해 주셨었다. 여기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무엇보다 교육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참조, 신 6:7).

8. **㉠**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라는 모세의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7절)

- ㉠** (1)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라는 뜻이다. 즉 아론과 모세 자신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은 자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 (2)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권 대행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8절) 라고 저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책망하였던 것이다.

9. **㉠**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 오라’ 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여호와께’ 라는 말은 원어로 <리프네 예호와>인데 ‘여호와와의 면전에’ 라는 뜻이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장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앞으로 오라는 말이다.
- (3) 한편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각가지 시련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다(마 28:20).

10. **㉠** 저녁 때에 진(陣)에 온통 덮인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메추라기이다.
- (2) 그런데 이 말이 원어 성경에는 <핫셀라우>, 즉 ‘그 메추라기들’ 이란 말로 나와 있으니 이는 곧 많은 수가 떼지어 다니는 메추라기를 의미한다.
- (3) 이 메추라기들은 팔레스틴을 중심하여 봄 때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쯤 되면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옮겨가 겨울에는 다시금 아프리카로 돌아간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초월하여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陣)에 뒤덮히게 하셨던 것이다.
- (5) 한편 민 11 장에도 동일한 기사(記事)가 나와 있는데 그 기사에 의거해 보면 40여 년 간 만나가 내린 것과는 달리 이 메추라기는 1개월 동안 만 내린 것을 알 수 있다(민 11:19, 20).

11. **㉠** 아침에 진 사면에 덮인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14절)

- ㉠** (1) 만나이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하게 생겼다. 또한 이것은 찻 씨와도 같고, 희고 맑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도 묘사되어 있다(31절; 민 11:7).
- (2) 만나라는 이름은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나’, 즉 원어로 <만후>라고 말한 데서 나왔다(15절). 즉 <만후>에서 ‘만나’가 나왔다.
- (3)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만나를 자연 현상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즉 시나이 반도 내륙 지방의 유목민들은 ‘만’이라 불리우는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만나로 알고 있다.
- (4)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충분히 반박될 수 있으니 만나가 6일 동안 만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25-29절).
- (5) 한편 현재의 ‘만나’ 라는 명칭은 민 11:5, 6의 <만후>에서 비롯된 <만>이란 단어를 70 인역에서 ‘만나’ (manna)로 번역한 데에서 유래했다.

12. **Q**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을 때에 작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음을 무엇을 가리키는가? (18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너무 많은 물질로 인해 교만하거나 너무 적은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고 균등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13. **Q** 오멜을 현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18절)
- A** (1) 오멜(omer)은 원래 조그만 토기 사발인데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이다.  
 (2) 36절의 설명에 의하면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 즉 현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24ℓ 가 됨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오멜이란 단위는 성경에서 본장에만 나온다.
14. **Q** 만나를 당일(當日)에 소비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두게 되는 경우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20절)
- A** (1)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2) 이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무한한 능력의 결과이다. 우리는 모든 자연 현상의 배후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3)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단한다(참조, 벰전 4:11). 내일 일을 염려하여 혼자 힘으로 먼 미래의 일까지 계획하며 준비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교만이다(참조, 잠 16:1-3).
15. **Q** 제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얼마만큼 걸렸으며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22, 23절)
- A** (1) 평소의 두 배인 두 오멜씩 걸렸다.  
 (2) 그 이유는 다음날이 안식일이니 일을 해서는 안 되므로 6일째 되는 날에 이튿날의 만나를 내려 주신 것이다.  
 (3) 그런데 이 만남은 7일째 아침이 되어도 냄새가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평소와 다른 기적적 현상을 보여 주었다(24절).  
 (4) 이처럼 제 7일의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준비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날에는 다만 먹고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야만 했기 때문이다(25절).  
 (5) 한편 이러한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신 규례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후일 십계명에 성문화(成文化)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참조, 20:8-11; 창 2:1-3).
16. **Q**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 한 오멜을 취하여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32, 33절)
- A** (1) 증거판 앞에 보관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증거판'이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뜻하는데 본절에 기록된 사건 후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판을 받았다(31:15, 16; 34:29).  
 (2) 아론은 이 증거판을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함께 법궤 안에 보관했었다(참조, 히 9:4).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시를 하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신성시하거나 숭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4) 이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7. **Q**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렸던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 주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14-36절)
- A** (1) 만남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생활 양식으로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 성도들의 양식으로서 매일 매일 먹고 살아야 할 분이시다(요 6:31, 35, 57).

- (2) 이는 곧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아 그를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생활을 광야 생활과 나그네 생활로 비유하고 있다(벧전 1:17;2:11). 따라서 우리들은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겠다.
- (3) 또한 이 만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에게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어졌다(18절). 따라서 이들은 광야 생활의 하루하루를 부족함이 없이 생활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의미한다.
- (4)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갈 때에 부족하지 않고 모든 생활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함이란 단지 기복 신앙(祈福信仰)적인 육체의 축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평안함과 영생의 확신들까지를 의미한다.
- (5)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말의 어원인 '이것이 무엇이냐'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강력한 기적이었다(15절).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이며, 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들의 양식이라는 점에서 경이로운 것이었다.
- (6)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새롭고 비밀스럽기만 한 분이였다. 육신적으로는 단순히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자손이셨으나 실제로 그분은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을 구원할 분이시고, 우리가 양식으로써 먹어야만 하는 분이셨다.

## 화보자료

광야(曠野). 아래의 사진은 나그네가 광야의 모습을 바라보는 광경으로서 삭막하고 황량한,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황량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않았다(13-15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궁핍이 없다(빌 4:6, 7).

# 제 17 장 호렙 산 바위의 생수와 아말렉 정벌

단락구분 1-3 목마른 백성들의 원성/ 4-7 호렙 산 바위에서 생수(生水)가 솟아나다 / 8-14 아말렉족의 정벌(征伐) / 15-16 단을 쌓고 '여호와 닛시'를 부르다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 백성이 모세와 다루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루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였느냐

3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때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라 또는 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루었음이었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제신인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8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서 싸우니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 모세의 팔이 피곤할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옮겼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 1. ㉠ 본장에 나타난 르비딤의 2가지 대사건은 무엇인가?

- ㉠ (1) 첫째, 그곳에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 그가 지팡이로 호렙 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다(6절).
- (2) 그런데 이 반석과 물은 곧 신약 시대의 반석과 생수(生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참조, ㉡ 7).
- (3) 둘째,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최초로 대적자인 아말렉과 싸워 승리함으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다(13-16절).
- (4) 이때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을 담당하였고 모세는 배후에서 기도로서 조력하였으니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패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을 깨닫게 된다(참조, ㉡ 9).

2. **㉠**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다시금 장막을 친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르비딤이다.  
 (2) 이곳이 호렙 산, 즉 시내 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참조, 5, 6절).  
 (3) 그러나 혹자는 르비딤이 시내 산 서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의 '와디 페이란' (Wadi Feiran) 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툰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상투적인 불평을 늘어 놓았다. 즉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는 것이었다.  
 (3) 이러한 불평은 신 광야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직결되니(참조, 16장 ㉠ 3) 곧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언행이다.  
 (4)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언제나 뒤따른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주신 것같이 매 순간 지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렘 15:11).
4. **㉠**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원성(怨聲)을 들은 후 어떻게 하였는가? (4절)
- ㉠** (1)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모세의 훌륭한 지도자적 성품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었다.  
 (2) 모세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다. 또한 백성들이 자기에게 들길하려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낱말이 아뢰었다.  
 (3) 한편 여기서 '들길'이란 군중 폭행으로 알려진 방법 중의 하나인데(참조, 삼상 30:6),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해진 심리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수없이 체험하였으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더욱더 마음이 강박해져 갔다.
5. **㉠**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5, 6절)
- ㉠** (1) 호렙 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응답하셨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건에 장로들을 참여케 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배부시는 이적을 그들이 보고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여기서 '장로'란 히브리어로 <자켄>인데 '어른', '연장자', '우두머리' 라는 뜻이다. 이 말과 같이 장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연장자 또는 우두머리인 자들로서 백성들 간에서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4) 한편 하나님께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서시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권능을 그에게 부여하시겠다는 의미이다.
6. **㉠**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칭하였는가? (7절)
- ㉠** (1) '맛사' 또는 '므리바' 라고 칭하였다.  
 (2) 여기서 '맛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으로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험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3) 그리고 '므리바'는 '비난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인하여 모세에게 원성을 늘어 놓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7. **㉠** 갈증(渴症)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 산 반석의 물로써 해소시킨 이적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7절)

- (A) (1) 광야에서 백성들이 육체적 갈증을 느꼈듯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갈증 상태에 있다. 이러한 갈증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 즉 육체적인 향락이나 권력, 명예, 지식, 부(富) 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기갈 상태에 빠져 허덕이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여름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이 생명의 물을 갈구하게 된다(참조, 행 17:16-22).
- (2)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만 물을 얻었듯이 오직 생수(生水)를 내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고전 10: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7)고 말씀하셨다. 그분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갈증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다(참조, 마 11:2-5).
-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회생을 당하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셨다. 반석이 모세에 의해 때림을 당함으로 물을 쏟은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저주를 받아 상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생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셨다(요 19:3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신 영혼의 갈증을 느끼셨고, 우리들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처럼 되셨으며,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자신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요 7:38)고 선포할 자격을 가지셨던 것이다.
- (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값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사 55:1)라고 하셨으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 22:17)고 하셨다. 이처럼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생수를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베푸신다.

8. C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된 족속은 어느 족속인가? (8절)

- (A) (1) 아말렉 족속이다.
- (2)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이다. 즉 에서는 아다르부터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딘나로부터 아말렉을 낳았다(창 36:11, 12).
- (3) 당시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 부터 갈라져 나와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두려워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참조, 신 25:17, 18).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도말(塗抹)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14절; 신 25:19).

9. C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과정 및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10-13절)

- (A) (1)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으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었으니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였었다.
- (2) 그런데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해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게 되었으니 결국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파하게 되었다.
- (3) 여기서 모세가 팔을 든 행위는 수 8:18, 26에서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향해 창을 내뿜은 것과 비교될 수 있다.
- (4) 또한 여기서 모세가 팔을 든 것은 기도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기도의 표현으로 손을 들어 간구하는 것이 종종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대하 6:13, 14, 29; 시 28:2; 딤페전 2:8).

- (5) 그리고 모세가 두 팔을 펴 든 모습은 십자가의 형상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두 팔을 치켜 든 모습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6)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같은 기도는 그에게 큰 영감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펴 2:1; 약 5:16).

10. **㉠** 르비딤에서 격돌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8-13절)

- ㉠** (1)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싸움은 광야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암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향(本郷)이 아닌 나그네의 광야 생활이며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엡 6:12)과 영적인 싸움을 하여야 하니 이 싸움은 우리들의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2)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즉 진리의 허리 띠와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엡 6:13-17) 악한 대적자들이 간교한 속임수로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깨어 경계해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여 연약한 상태로 뒤에 처져 있을 때 아말렉에 의하여 기습 공격을 받았었다(신 25:18).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현재의 광야 생활에서 원수들의 간교한 습격이 있을 것을 항상 생각하여 깨어서 무장함으로 거룩한 싸움에 선택된 군사로서 흠이 없어야겠다(7절).
-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싸움에서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기도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모세의 기도였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했던 이스라엘이 거칠고 강인한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 갑주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이다(엡 6:18).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인 것이다.

11. **㉠** 훌은 누구인가? (10절)

- ㉠** (1) '훌' (Hur)이란 이름의 뜻은 '존귀함' 또는 '고귀함'이다.
- (2) 그는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자손이며 성막 건축가였던 브사렐의 조부이기도 하였다(참조, 대상 2:19).
- (3) 그런데 요세푸스(Josephus, A. D. 38-100) 같은 사학자는 이 훌이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2. **㉠**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모세의 팔이 피곤해진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며 그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즉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는 자로서 자칫 잘못하면 영웅시되며 우상시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모세도 역시 연약한 인간임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 (3) 이처럼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연약하여 피곤해질 수밖에 없던 것처럼 오늘날의

- 교회 지도자도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피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지도자들을 돌아보아 그들로 하여금 피곤해 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히 13:17).
  - (5)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조화를 이루어 영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6)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고후 4:7)고 하였으며 또한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고 하였던 것이다.

13. **㉠**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준 아론과 훌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 생활의 모범은 무엇인가? (12절)

- ㉠** (1) 역사상 지도자가 훌륭한 일을 하게 된 이면(裏面)에는 늘 유능한 보조자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본장에 나오는 아론과 훌도 이러한 유능한 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도자는 의로운 싸움으로 인하여 고독할 때가 많고 기력을 잃을 때가 흔히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 아랫사람들은 지도자만을 원망하기 쉽다.
- (2) 교회 생활도 이와 같다.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도 힘을 잃을 때가 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은 지도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도와야 할 것이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힘을 잃은 지도자를 소생시킨 예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

14. **㉠**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14절)

- ㉠** (1) 그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들려 주라는 것이었다.
- (2)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기록의 명령을 받은 드문 경우 중의 하나이다(34:27). 또한 이는 오경의 모세 저작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 (3) 그런데 이와 같은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의 위협성을 경고하여 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후대에까지 전해 주기 위함이다.

15. **㉠**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 모세는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15절)

- ㉠** (1) 르비딤에 단(壇)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하였다.
- (2) '여호와 닛시'란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고대에는 전쟁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神)을 그린 상(像)이나 신들을 상징하는 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풍습이 있었다.
- (4) 한편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여 선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인 것이다(참조, 딤후 2:3).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1절).



## 제 18 장 모세와 이드로의 재회

단락구분 1-6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거느리고 찾아오다 / 7-12 모세와 이드로의 재회 / 13-23 행정 제도에 대한 이드로의 조언 / 24-26 모세의 실행 / 27 이드로의 귀향

1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들려 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3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숨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4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6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7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9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13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

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15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음이라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18 그대와 그대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라도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23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뽑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27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1. **㉠** 본장 전반에 걸쳐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이드로가 모세의 처자(妻子)를 데리고 모세를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모세의 환대, 이드로의 여호와 신앙 소유, 모세의 행정 제도에 대한 충고 및 이드로의 귀향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는 단순한 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인 이드로가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가를 보여 주려는 데 있다.
  - (3) 이드로는 모세의 환대를 받는 가운데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전해 듣게 되었다(8절).
  - (4)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번제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 (5) 이처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이드로는 그 후 모세의 행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고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조력한 것이 된다.
  - (6) 여기서 우리는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은 곧 모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 10:17).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필요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고전 1:2). 이를 위하여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딤후 4:2).
2. **㉠** 모세의 장인은 누구인가? (1절)
  - ㉡** (1)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이다.
  - (2)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들이다(창 25:1, 2).
  - (3) 이들은 주로 아카바 만(Gulf of Aqabah) 동쪽 지역에서 유목을 하던 민족인데 이드로는 이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나이 반도(Sinai Peninsular)에 거주하던 무리 중의 제사장이었다.
  - (4) 한편 그는 성경에서 ‘르우엘’(2:18) 또는 ‘호밥’(삿 4:11)으로도 불리웠는데 이에 관한 사유와 자세한 내용은 2장 ㉠13를 참조하라.
3. **㉠**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3, 4절)
  - ㉡** (1)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 (2) 게르솜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으로 2:22에 이미 언급되었다.
  - (3) 그리고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라’는 뜻으로 이는 곧 모세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2장).
4. **㉠** ‘엘리에셀’이란 이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이는 곧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모세의 신앙을 보여 준다.
  - (2) 즉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중에 두 아들을 낳고 살면서도(참조, 4:20) 지난날 애굽에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철저히 기억하고 있었다(2장).
  - (3) 따라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둘째 아들에게 엘리에셀이란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 (4) 그런데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자립 자족할 수 있다는 교만한 풍토를 자아내고 있다.
  - (5) 그러나 우리는 인간 학문의 제한성과 인간 능력의 한계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 (6)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전혀 그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참조, 요15:5).

(7)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들은 참된 생명을 영위하며 의미있고 복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5. **㉠**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은 어느 산을 가리키는가? (5절)

**㉡** (1) 호렙 산, 즉 시내 산이다(참조, 3장 ㉠ 2).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란 호렙 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호렙 산에 근접해 있는 르비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을 의미한다(참조, 17:1, 6).

6. **㉠** 모세는 그의 장인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였는가? (7절)

**㉡** (1) 모든 친절과 경의(敬意)를 다 표하면서 맞이하였다. 즉 그는 전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장인을 맞이하여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반가움의 표시로서 입을 맞추었다.

(2) 이러한 자세는 올바른 윤리관과 도덕성을 지닌 모세의 인간성의 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교만하여지기 십상이고 그리하여 연장자에 대한 인간 본연의 공경심마저 잃어버리기 쉬운데도 모세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들려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인도하였다(8-12절).

(4) 이처럼 모세는 사사로운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이로써 그분께 영화를 돌리었으니 하나님께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5)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본받아 행실로서든 말로서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고전10:31).

7. **㉠** 출애굽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한 모세의 간증은 이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8-11절)

**㉡** (1) 이드로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드로는 비록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를 듣자 그 사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9절).

(2)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세의 간증은 이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다. 당시에 모세의 간증은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따라서 그는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10절).

(3) 또한 이드로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참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11절).

8. **㉠** 이드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 (10, 11절)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내신 분이시며 모든 신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2) 이러한 신앙은 그가 모세의 간증(干證)을 들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 활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8절).

(3) 그런데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창조주와 역사의 주권자(主權者)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다.

9. **㉠**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한 후 이드로는 무엇을 하였는가? (12절)

- Ⓐ (1) 번제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 및 아론과 함께 떡을 나누었다.
- (2) 여기서 우리는 이드로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새로운 여호와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조, 12:48, 49).
- (3) 그런데 이는 곧 오늘날 이방인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예표하고 있다(요6:35).
- (4) 한편 ‘번제’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었다(참조, 10:25; 창4:3, 4; 8:20; 22:2-13). 그리고 이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

10. Ⓒ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느라고 분주한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모세의 민족애를 느낄 수 있다. 즉 오랜만에 장인과 처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치리에 열중하는 데에서 우리는 그의 민족애를 찾아볼 수 있다.
- (2)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대 의연(舊態依然)한 노예 근성 및 완악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서 계속되는 그들 주변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모세에게 시비를 가려 달라고 하였다.
- (3)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 즉 타인의 사소한 잘못에는 엄격하며 자신의 과실에는 너그러운 태도와 이웃의 잘못을 꼭 들추어 내어 밝히려는 태도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려는 자세도 찾아볼 수 있다.

11. Ⓒ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당시 백성들은 모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해 모세에게 나아온 것이다.
- (2) 여기서 모세는 예언자의 초기 형태인 선견자(히, 로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후대에는 선지자(히, 나비)가 선견자의 일을 대신하였으니 선견자란 이름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참조, 삼상9:9).

12. Ⓒ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맡았던 여러 가지 직무들 중 본절에 나타나는 직무는 무엇인가? (16절)

- Ⓐ (1) 백성들의 송사(訟事)를 재판하는 일이다.
- (2) 모세는 마치 오늘날의 베두인(Bedouin) 족장의 직무와 같이 매일 아침 재판장 노릇을 했다. 즉 모세는 제사장인 동시에 재판장이었다.
- (3)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재판은 신탁 재판(神託裁判)이었다. 즉 자신의 지혜로써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재판을 했다.

13. Ⓒ ‘이드로가 모세의 행위를 선하지 못하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17절)

- Ⓐ (1) 여기에서 ‘선하지 못하다’는 말은 모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능률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로 토브>가 ‘좋지 못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데에서 뒷받침된다.
- (3) 즉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비효율적으로 행한다고 과감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 (4) 또한 이 말의 배경에는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비대화에 따른 제도적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참조, 21-23절).
- (5) 왜냐하면 각종 제도가 인간의 삶을 제약하고 구속할 수는 있지만 복잡해 가는 인간 생

활에 있어서 상당한 편리함과 효용성을 주기 때문이다.

- (6) 그리고 제도의 부당성(不當性)은 제도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인간의 삶의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데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14. ㉠ 이드로가 재판에 열중하는 모세에게 충고한 사실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17-23절)

- ㉠ (1) 때때로 과도한 열심은 침착한 지혜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모세는 철저한 자기 희생 속에서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세의 행위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행정적 비능률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은 모두 다 지루하고 기진하게 되었다.
- (2) 우리는 이런 모세를 충고하는 이드로의 조언에서 충고자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① 애정 깊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당시에 이드로는 사건의 진위(眞僞)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필요와, 이에 응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결해야 하는 부담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었다.
- ② 분명한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사심(私心) 없이 지적하는 정직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드로는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지라도 그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지혜롭게 지적하고 충고하였다.
- ③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발전을 위한 비판과 충고이어야 하므로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드로는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흠 없는 충고를 하였다.
- ④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만 한다. 당시에 이드로는 모든 충고를 한 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재차 권고함으로써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보여 주었다(23절).
- (3) 또 이 충고를 받아들인 모세로부터 우리는 좋은 충고를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만 한다. 모세는 당시 이드로가 자신보다 학문과 지위가 낮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자기에게 예기치 않는 충고를 했을 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또 듣고 난 그 충고가 정당하자 이를 실천에 옮겼다. 모세의 이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의 겸손과 신앙 인격의 건전함을 보여 준다.

15. ㉠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력이 쇠하여 질 것'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8절)

- ㉠ (1)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기에 모세나 백성이나 피차간에 피곤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 (2) 이 귀절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선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마10:16).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며 여러 사람의 공동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 준다(롬12:3-8).

16. ㉠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의한 인재 등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21절)

- ㉠ (1) 재덕(才德)을 겸전한 자여야 한다. 즉 백성들을 이끌어 갈 재질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덕도 겸비해야 한다. 재질은 있으나 덕이 없는 자는 폭군이 되기 쉽고, 덕은 있으나 재질이 없는 자는 무능한 자가 되기 쉽다.
- (2)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 즉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자라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기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좇아가야만 한다.
- (3) 진실 무망한 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한 자만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 불의한 이(利)를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 역사상 금전(金錢)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된 지도자가 많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라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진리의 편에 설 줄 알아야 한다.

17. **㉠** 모세는 장인의 충고에 어떻게 응하였는가? (24, 25 절)

- ㉠** (1) 진지하게 충고를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였다.  
 (2)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의하면 이드로가 제의한 행정 제도는 곧바로 실행되지 않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신1:6, 9, 15).  
 (3) 그런데 이처럼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각 지파에게 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알리어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참조, 신1:13, 14, 15).  
 (4) 이러한 사실은 당시 모세가 얼마나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또한 모세가 자신의 독단적인 주관대로 백성들을 지도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민의(民意)를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갔음을 알게 해준다.

### 연구자료

제사장 직제의 변천 과정. 성경을 살펴볼 때 모세 이전에는 멜기세덱(창14:18; 히7:1-3)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1절; 3:1) 그리고 애굽인 제사장들(창41:45; 46:20; 47-22, 26) 외에 언급된 제사장이 없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 이르러 히브리 민족의 정규적인 제사장 직제가 시작되었다(28:1 이하; 레9장). 이때부터 제사장 직무는 아론 자손들에게만 위임되었고 그밖의 지파 사람들이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은 금지되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다(28:1, 43; 민3:10). 모세 시대에 제정된 제사장 직제는 사사 시대에 이르러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위임되지 않아 매우 문란해졌다(삿6:11, 25; 13:2, 16). 그러나 레위 지파 제사장은 비(非)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우대를 받았다(참조, 삿17:5-13). 한편 사사 시대에도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이는 아론의 네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의 가문이다(삼상1:3; 22; 20; 왕상2:27).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제사장 직제는 많은 변천과 발전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제사장 직제가 조직적으로 편성되어 제사가 성전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윗 때에는 이다말 반열의 아비아달과 엘르아살 반열의 사독이 가장 유력한 제사장으로 간주되었다(삼하8:17). 그러다가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솔로몬에 의해 파멸 당하고(왕상2:26, 27) 사독이 그 자리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독의 가문이 엘리 가문을 대신하여 가장 뛰어난 제사장 가문으로 자리를 굳힘 이후 사독 가문의 제사장 직분은 B. C. 586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속되었다(대상6:8-15).

# 제 19 장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현현(顯現) 하시다

단락구분 1-2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다 / 3-6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 7-15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제 3일을 위한 백성들의 준비 / 16-19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다 / 20-25 모세가 홀로 시내 산에 오르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 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뿔뿔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 예비하여 제 삼 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 삼 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 손을 그에게 댄이 없이 그런 자는 들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무론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4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 삼 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16 제 삼 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뿔뿔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들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들격할까 하노라

23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들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들격할까 하노라

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1. **㉠** 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된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언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는 기사가 언급되어 있다(1, 2절).
- (2) 그런데 이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셨다.
- (3) 그 언약의 내용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다(5, 6절).
- (4)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제시하여 주신다는 것이다(참조. ㉢ 7).
- (5)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은 언약과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에 앞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다(10-15절).
- (6)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교훈해 주고 있다. 생명과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표 곧 진실한 믿음과 변화된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마22:1-14).
- (7)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엡4:1-3).

2. **㉢**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던 시내 광야는 어느 곳에 있는가? (1, 2절)

- ㉡** (1) 시내 광야란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고 단지 시내 산, 즉 호렘 산 주변의 광야 지역을 표현하는 말이다.
- (2) 그런데 시내 산은 고대의 전승에 의하면 시내 반도 남쪽의 모세의 산이나 성 캐더린의 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시내 광야는 시내 산의 남동쪽으로 펼쳐 있는 세바에(Sebayeh) 평지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본절에서 말하는 '산 앞'도 바로 시내 산 앞쪽의 이곳을 일컫는 것 같다.

3. **㉣**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절)

- ㉡** (1) 구약 성경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허공에 떨어뜨렸다가 그것을 날개로 업음으로 새끼를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었다(신32:11).
- (2) 이것은 곧 독수리가 그 새끼를 거칠게 다룸으로써 강하게 기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평안과 순경(順境) 가운데서 다루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 없이 성장하도록 연단하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 (3) 한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마23:37).
- (4)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암탉이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병아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생활에서 사랑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 (5)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강한 연단자와 자애로운 보호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다.

(6) 또한 이는 하나님께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과 같다(참조, 사 45:21; 요 3:16).

4. **㉠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가? (4절)**

**㉠** (1) 독수리는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등지에서 떨어뜨린다. 새끼새가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미새가 재빨리 날아가 날개로 받쳐 주곤 한다.

(2)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비유는 곧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양육(養育)하시며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신 32:11).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시련을 주셔서 믿음으로 연단을 받게 한다(참조, 욥 1:6-12).

(4)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롬 5:3, 4)고 교훈하고 있다. 이처럼 참다운 신앙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5. **㉠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5절)**

**㉠** (1) 물론 이 말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말이긴 하다(대상 29:11).

(2)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곧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악으로 오염된 것에 대하여 슬퍼하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참조, 사 11:6-9).

6. **㉠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 했는가? (5, 6절)**

**㉠** (1) 열국(列國)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소유' 라는 말은 원어로 <세굴라>인데 이는 '아주 값진 소유물' 이라는 뜻이다.

(3)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세상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

(4)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청종하기만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에 의해 귀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참조, 롬 9:24-32).

(5)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중재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6)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된다는 것은 다른 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을 수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뜻이다.

7. **㉠ '제사장 나라가 될 것' 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1)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 역할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벧전 2:9).

(2)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교직·세속직의 분리주의에 대항하여서 '만인 제사장설' 을 제창하였다.

(3)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직접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하에서 모든 불신자들과 하나님 간에서 중재역, 즉 제사장역을 맡을 수 있다.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체결을 제의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8절)**

**㉠** (1)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전부 행하겠다' 고 서약하였다.

- (2) 이 같은 서약은 그 동안 갖은 어려움과 난국에서 견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 (3) 그러나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약 체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 나갔느냐 하는 것이다.
- (4)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마 7:21).

9. **㉠** 성경에 나타난 '언약' 사상에 대하여 말하라(5-8절).

- ㉠** (1)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로 구약 성경에서 286번 사용되었다(창 9:9; 레 24:8; 민 25:12; 신 7:2; 시 25:10). 이 말의 어원에 관한 확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유력한 설명은 창 15:10에 나오는 '제물을 둘로 쪼갬다', '배당한다' '결정한다' 라는 말이 그 어근(語根)이라는 것이다.
- (2)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행되던 언약의 종류에는 '동등 언약', '종주권 언약', '보호 언약' 등이 있으나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종주권 언약이다.
  - (3) 여기서 '종주권(宗主權) 언약'이란 우월한 자와 보다 열등한 자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을 말한다. 이 종주권 언약은 그 양식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아주 비슷한데, 당시 쓰이던 종주권 언약의 일반적 양식은 다음과 같다.
  - (4) ① 전문(前文) : 종주권자의 권위나 신분이 제시된다.
  - ② 역사적 서문 : 종주권자의 역사, 특히 종속자를 위해 베풀어 온 구원의 역사가 서술된다.
  - ③ 규약(規約) : 종속자의 의무 조항이 일반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④ 보관과 공개 낭독
  - ⑤ 증인 명단
  - ⑥ 축복과 저주 : 종속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리지는 처벌에 관한 조항이 나오고 그 뒤에 축복이 뒤따라 나온다.
  - (5) 한편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는 에덴 동산의 언약(창 2:16, 17), 노아의 언약(창 9:8-17), 족장 시대의 언약(창 15:5; 26:24; 35:10-15; 46:3), 시내 산 언약(19:5, 6), 다윗의 언약(삼하 7:4-17), 신약 시대의 언약(요 3:16) 등이 있다.

10. **㉠**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오늘날 우리들이 맺은 언약의 특징을 각각 진술하고 그 차이점을 말하라(5-8절).

- ㉠** (1) 당시에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말씀을 다 행하여 지키겠다는 그들의 맹세로써 언약이 맺어졌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義)를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언약이었다.
- (2)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서 우리들의 행위의 공로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게 되며 그 관계가 유지된다.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며, 그의 은혜로 의(義)롭게 되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롬 3:21-24; 11:5, 6).
  - (3) 이 신·구약 언약의 차이점은 다음 몇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구약의 행위 언약은 모세의 중재 속에서 맺어졌으나 신약의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중재로 성도가 믿자마자 곧 언약 관계가 형성된다.
    - ② 행위 언약은 동물의 피에 의하여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가 확증되었으나(24:5-7)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언약이 맺어지고 확증되어진다(마 26:28).

- ③ 행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존재하게 되는 일시적인 것이었으나(갈 3:23-25) 은혜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히 13:20).
- ④ 행위 언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실패했으나(32:1-6; 갈 2:16; 3:10, 11) 은혜 언약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한다(마 26:28; 갈 2:16; 엡 3:12).
- ⑤ 행위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자신의 능동적인 행위의 외부적인 변화만을 요구하였으나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심령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11. **㉠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떻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9절)**

- ㉠** (1) 뿔뿔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겠다고 하셨다.  
 (2) 그런데 그 목적은 모세와의 대화 내용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모세를 영원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3) 한편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한다. 그 같은 구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13:21) 시내 산부터의 여정에서는 회막 위에 덮였으며(41:34-38) 나중에는 성전에 가득했었다(왕상 8: 10, 11).

1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하셨는가? (10-15절)**

- ㉠** (1) 먼저 자신의 옷을 빨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곧 자신의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이고도 상징적인 행위이다.  
 (2) 그리고 나서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선 자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기에 앞서 그들이 스스로 삼가며 준비할 시간을 주시었다.  
 (3) 또한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장소를 설정하라고 하셨다. 이러한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본성에 있어서는 그들이 죄인임에 반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여인 곧 자기의 아내를 가까이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성관계를 죄악시하여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특수한 일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제하며 경성토록 하시기 위함이었다(참조, 딤후 3:3).

1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0-15절)**

- ㉠** (1)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3:5).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참조, 사 6:1-5).  
 (3) 이런 이유로 해서 신체의 성결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으며 또한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4)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으니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골 1: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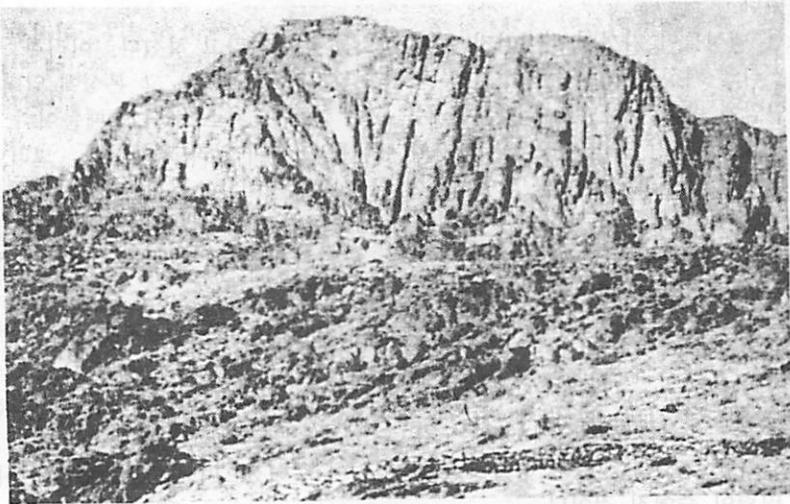
14. **㉠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일어난 현상과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되어진 금지 조항은 무엇인가? (16-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번개를 동반하시고 연기와 불 가운데 시내 산에 강림하셨다.  
 (2) 여기서 우리와 번개는 대개 하나님의 권능과 지극히 크신 위엄을 의미하는데(참조, 삼상 7:10; 시 77:18)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보아너게’

- (Boanerge), 즉 '우뢰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셨다(막 3:17).
- (3) 또한 구름과 연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9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일종의 신호이다(마 24:31). 그리고 산이 진동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때 모든 세상 만물이 변모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2:18-27).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강림하신 후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제차 명하셨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선 ㉒ 12를 참조하라.

### 화보자료

시내 산. 이곳의 위치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거있는 것은 오늘날의 '에벨 무사' (모세의 산)인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A. D. 38-100)도 에벨 무사와 시내 산을 동일시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전설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서 감히 그곳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한편 이 산은 모세가 바로를 피해 양 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호렘 산과도 동일시되고 있다(2:15).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지 3개월 만에 이 산에 도착하여 저들이 그 산의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진을 쳤다(1, 16, 18, 20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이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계속 상기되었다(참조, 삿 5:5; 느 9:13; 시 68:8, 17; 말 4:14; 행 7:30, 38).

## 제 20 장 십계명

단락구분 1-17 십계명 / 18-21 여호와와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 / 22-23 우상 금지 / 24-26 제단에 관한 규제

-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9 옛새 동안은 험새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 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 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13 살인하지 말지니라

- 14 간음하지 말지니라
- 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18 못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불 때에 떨며 멀리서서
-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 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의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 21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제신 암혹으로 가까이 가니라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 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 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 25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 26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 1. ㉠ 본장이 본서 중에서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집대성한 최고 법전, 즉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2) 그러므로 본장은 본서 중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의 비중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 2. ㉠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방법과 다른 율법을 주신 방법과의 차이점을 밝히라(1-22절).

- ㉠ (1) 다른 율법이 일반적으로 생활의 한 일면에 대한 각론적(各論的)인 율법이라면 십계명

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중요한 의무를 총괄적으로 언급한 소위 헌법과 같은 위치를 갖는다. 이러한 십계명은 여타 세부적인 율법을 포괄하는 기본법적(基本法的)인 성격을 갖고 있다.

- (2) 이와 같은 십계명은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율법과 다른 장엄한 과정을 거쳤다. 즉 다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을 다시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주어진 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22절).
- (3) 그리고 십계명은 수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울려 퍼졌으니 그 큰소리는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였고(신 5:26) 그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찼었다(19절).
- (4)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돌판 위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 주셨다(31:18).
- (5) 이제 우리는 전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돌비에 새겨 주기까지 하신 율법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참고로 톰슨(F. C. Thompson) 박사의 '율법의 7단계'라는 흥미있는 구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율법의 7단계

- ① 자연에 나타난 율법 시 19:1
- ② 양심에 쓰여진 율법 롬 12:1
- ③ 돌비에 쓰여진 율법 출 24:12
- ④ 성경 전체에 쓰여진 율법 롬 15:4
- ⑤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율법 요 1:14
- ⑥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쓰여진 율법 히 8:10
- ⑦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실천되는 율법 고후 3:2, 3

3. **㉠**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율법 관계가 은총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하라(1-21절).

- ㉠**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으니(창 15:13, 14; 35:12) 이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율법 관계가 은총에 근거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 (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들어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도 또한 그 율법 관계가 은총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참조, 젤 18:30-32).
- (3) 한편 법이 도덕이나 양심보다 하위의 규범이라는 것은 법철학의 상식이다. 물론 세상의 율법이 인간 세상의 치안 유지를 위한 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도의 양심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경의 법은 인간에게 삶의 올바른 길과 이념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일종의 교육법이라는 것도 성경 율법의 한 가지 특성이다.
- (4)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범(말하자면 율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엄두조차 못낸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심지어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쉬지 못하는 것, 교회 출석, 술, 담배 문제들까지도 문제 삼는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간증할 것은 단 한 가지다.
- (5) 이런 성경의 율법들은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것을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아주 쉽고 가볍게 지켜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쉽고 가벼운 것이다(마 11:28-30).

4. **㉠**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내려 주시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2절)

- ㉠** (1)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주의 창조자, 온 세계의 주' 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 (3) 이러한 말씀은 자신이 은총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며, 이 말씀에 토대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이다.
- (4) 그러기에 칼빈(Calvin)은 본절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 수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5)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으며 율법을 부여하셨다. 인간측의 공로는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따름이다.
- (6) 어떤 사람은 율법의 기능이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며 옳아매는 데에만 있다고 한다.
- (7)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행위가 베풀어진 다음에 주어졌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에게 베풀어진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참조, 롬 13:8, 10).

5. **㉠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은 각 종교마다 다르다. 각 구분법을 설명하라(2-17절).**

- ㉠** (1) 유대교에서는 2절을 첫째 계명으로, 3-6절을 둘째 계명으로 구분한다.  
 (2) 로마 카톨릭에서는 3-6절을 첫째 계명으로, 17절을 둘로 나누어 아홉째, 열째 계명으로 구분한다.  
 (3)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3절을 첫째 계명으로, 4-6절을 둘째 계명으로, 17절을 열번째 계명으로 구분한다.

6. **㉠ 십계명을 각 조항의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라(3-17절).**

- ㉠** (1) 제 1계명에서 제 2계명까지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2) 제 3계명에서 제 4계명까지는 예배 방법을 지시한다.  
 (3) 제 5계명은 인류의 근본되는 부모 공경에 관한 교훈이다.  
 (4) 제 6계명에서 제 9계명까지는 타인의 생명, 정조, 재산, 명예를 침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5) 제 10계명은 행위상으로 뿐 아니라 심리상으로도 범죄의 동기를 버리도록 가르친다.

7. **㉠ 제 1계명은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2) 여기서 '외에는'이라는 말은 원어로 <알 파나이>인데 '앞에서' 또는 '면전에서'로 번역되기도 한다.  
 (3) 이 계명은 당시 근동 지방의 다신론이나 우상 숭배의 풍조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이다.  
 (4) 기독교는 유일신론(唯一神論)을 주장하는 종교이다. 즉 온 세계는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며, 한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고 한다.  
 (5) 따라서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도 찬미할 대상도 없는 것이다(마 4:8-10).

8. **㉠ 제 2계명은 무엇인가? (4-6절)**

- ㉠** (1)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2) 여기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든, 그 밑의 하위 세력을 상징하는 형상이든간에 일체의 제의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3)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물의 형상의 도움을 빌면 그 존재물 자체를 지배할 수 있다

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배하려는 시도조차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 (4) 또한 범죄한 인간들은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종교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쉽게 가시적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참조, 행 17:16-22). 즉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靈)이시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 (5)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는 자기의 종교적,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우상 숭배를 금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명하신다.

9. **Q** '하늘, 땅, 땅 아래 물'이란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가? (4절)

**A** (1) 우주 전체를 뜻한다.

- (2) 성경은 이와 같은 삼중적(三重的)인 구분법을 통하여 세계 전체를 묘사하곤 한다(참조, 창 1:26). 즉 옛 사람들은 우주를 '하늘', '땅' 그리고 '땅아래 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었다.

10. **Q**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5절)

**A** (1)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표현으로서 엄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요구의 근거로서 제시되곤 한다(신 6:15; 수 24:19).

- (2)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영혼이 우상을 향할 때엔 선의의 질투를 하신다(참조, 34:14; 신 4:24; 5:9).

11. **Q**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6절)

**A** (1)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 (2) 왜냐하면 사랑의 감정은 상대방에 대하여 언제나 능동적인 자세를 유발하게 하니 사랑하는 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꼭 같은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신 6:5; 요일 5:3).

12. **Q** 제 3 계명은 무엇인가? (7절)

**A** (1)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성 없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 (2) 고대에는 어떤 존재물의 이름 속엔 그 존재물의 능력이 현존해 있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 (3) 그러므로 본계명은 이러한 이름의 마술적 남용을 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와 찬양, 감사 등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13. **Q** 제 4 계명은 무엇인가? (8-11절)

**A** (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 (2) 즉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특수하게 봉헌된 날이므로 무심결에 지나치지 말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다.
- (3)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므로 인간들은 안식일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만 한다. 즉 이날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노동의 금지는 예배와 묵상, 말씀 연구, 자녀 교육 등에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존재 의의를 성찰해 보라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 (4) 따라서 이런 안식일의 정신에 의하면 예수의 가르침과 같이 안식일에 적극적인 선(善)을 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참조, 마 12:12).

(5) 이런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어져 지켜져 오고 있으니(참조, 행 20:7)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6) 한편 이러한 주일 곧 일요일이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us the Great)에 의해 A. D. 321년 전세계의 공휴일로 선포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4. **㉠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이를 지키는 자의 받을 축복에 관하여 설명하라(8-11절).**

**㉠** (1)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옛새 동안은 자신의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야 한다.

(3)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아울러 물질적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사 58:14).

(5) 아뵘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데에는 그 이전 6일간 창조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창 2:1-3).

15. **㉠ 네째 계명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8-11절)**

**㉠** (1)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다만 안식일에 세속(世俗)적인 일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종교 교육이나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더욱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다.

(2) 예수께서는 사람이 형식적인 안식일 제도에 얽매어 있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셨으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막 2:27). 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규정하셨으며(마 12:12),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다.

(3) 당시 유대인의 관념과는 배치되었으나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베테스다 못가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심(요 5:5-18)

② 가버나움에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막 1:21-27; 눅 4:33-37)

③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마 8:14, 15; 막 1:29-32)

④ 밀 이삭을 잘라 먹음(마 12:1-8; 막 2:23-28; 눅 6:1-5)

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요 9:1-16)

⑥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막 2:5)

⑦ 18년간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심(눅 13:10-17)

⑧ 고창병(鼓脹病) 들린 자를 고치심(눅 14:1-16)

(4)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안식일에 적극적인 선을 행하여야 한다. 한편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 시대의 주일로 대체되었다.

16. **㉠ 제 5 계명은 무엇인가? (12절)**

**㉠** (1)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2)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잠 3:9).

(3) 따라서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4) 또한 본질의 '부모'라는 말도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한 개인의 영적 생명을 증진시키도록 도와 주는 여러 어른들까지도 포함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종종 이러한 스승이나 어른들에게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왕하 2:12; 13:14). 그러므로 본계명은 일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명한 것이지만 나아가 스승과 웃어른들을 존경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6)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는, 즉 장수(長壽)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17. **㉠ 제 6 계명은 무엇인가? (13절)**

**㉠** (1)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여기서는 고의적이건 우발적이건 간에 일체의 살인 행위를 금하고 있다.

(3)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4) 한편 성경에서는 살인의 원인을 대체적으로 분노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과(레 19:17, 18) 폭력을 사용함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21:12-18).

18. **㉠ 제 7 계명은 무엇인가? (14절)**

**㉠** (1)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창 2:24) 이 성스러운 연합체를 깨뜨리는 것은 곧 범죄 행위이자 신성 모독이다.

(3) 예수께서는 이 계명을 영적으로 더욱 확대시켜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범죄로 간주하셨다(마 5:27-32).

19. **㉠ 일곱째 계명이 현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인가? (14절)**

**㉠** (1) 현대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성(性)에 있어서 만큼 타락한 인간의 윤리 조항은 없을 것이다. 건전한 성생활은 인간의 궁극적 안식처인 가정 생활의 기둥과 같은 것이다.

(2)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정신적 불안, 청소년 범죄 등도 모두 이 성 윤리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다. 엄숙한 결혼 계약으로 맺어져야 할 성적 결합이 헌신짝처럼 취급되는 사회에서 무슨 정의와 신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인간의 가장 고귀한 속성 중의 하나인 성생활이 오염된 후에는 인간의 다른 생활도 곧 무너지게 마련이다.

(3) 그런데 마귀는 성 문제와 같은 약점을 통하여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유혹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성 윤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세워 주신 결혼법(창 2:23-25; 마 19:4-6)에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 **㉠ 제 8 계명은 무엇인가? (15절)**

**㉠** (1)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이 계명은 사유 재산 제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재산은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다.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재산 및 타인의 근로 대가를 착복하는 일은 죄악이다.

(3) 한편 이와 같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도적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 곧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다(말 3:8).

(4)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도적질하여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지 않는 보다 더 근본적인 죄악을 범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21. **㉠ 제 9 계명은 무엇인가? (16절)**

**㉠** (1)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이것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못하게 하는 말씀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위증인(僞證人)은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도록 되어 있다(신 20:15-21).

(3) 그런데 이와 꼭 같은 법규가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에 명시되어 있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4) 한편 이러한 거짓 증언 및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요 8:44).

22. ㉠ 제 10계명은 무엇인가? (17절)

- ㉠ (1)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 (2) 다른 계명이 구체적 행동에 대한 규정인 반면 이 계명은 탐심에 대한 일반적 계명이다.
- (3) 성경은 탐심을 죄의 근원으로 보며(약 1:13-15), 또한 우상 숭배와도 동일시하고 있다(골 3:5).
- (4) 왜냐하면 탐심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安逸)과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사고(思考)이기 때문이다.
- (5) 뿐만 아니라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결국은 재물에 탐닉하여 그것을 우상시하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마 6:24).

23. ㉠ 본장의 십계명과 산상 보훈 속에서 나오는 예수의 말씀과 비교하여 보라.

㉠

번호	십 계 명		산 상 보 훈	
	내 용	성 구	내 용	성 구
1	한 분 하나님	3 절	우리 아버지	마 6:9
2	우상 금지	4 절	형식 금지	마 6:7
3	성호의 모독 금지	7 절	성호의 거룩	마 6:9
4	안식일을 위한 사람	10절	사람을 위한 안식일	막 2:27
5	부모 공경	12절	성 도 들	마 12:50
6	살인 금지	13절	노여움 금지	마 5:22
7	간음 금지	14절	음욕 금지	마 5:28
8	도적질 금지	15절	구하는 자에게 주라	마 5:42
9	위증 금지	15절	맹세 금지	마 5:34
10	탐욕 금지	17절	의(義)에 주리라	마 5:6

24. ㉠ ‘백성들이 멀리 서서 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

- ㉠ (1) 백성들이 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떨었다는 뜻이다.
- (2) 우리는 죄와 벌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여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와 숭배, 사랑의 대상이다.
- (3)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때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래적 모습 곧 죄성(罪性)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예수의 신성(神性)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성을 느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다(눅 5:8).

25. ㉠ 20:22에서 23:33까지의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불리우는가?

- ㉠ (1) ‘계약(契約)의 책’ 또는 ‘언약의 책’으로 불리운다.
- (2) 이 부분의 내용은 다양한 양식으로 이루어진 법규(法規)들로 가득차 있다.
- (3) 이 계약의 책은 함무라비(Hammurabi) 법전과 유사한데 특히 결의론적인 표현 양식이 섞여 있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결의론’(決疑論)이란 사회적 관습이나 성경상의 규례에 비추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을 가리킨다.
- (4) 결의론적 복합문에서는 ‘만일...일 경우에는’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조건절에 어떤 사

건의 경우가 예시되어 있고 다음의 귀결절에는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 (5) 십계명이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민법, 형법, 각 소송법 등과 같은 구체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6. Q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 을 금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23절)

- A (1) 이는 곧 모든 신상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 명령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지 명령은 금이나 은보다 가치가 덜한 재료로 만든 신상도 금지하는 것임은 물론이기 때문이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형상을 빚어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자신의 신성(神性)을 수호하시기 위함이다.  
 (3) 그러나 인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재(實在)를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본연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 이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품격을 격하시키며 우상 숭배로 전락할 소지(素地)가 있는 것이다(참조, 34:4).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철저히 배격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27. Q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관해 어떤 규정을 내리셨는가? (24-26절)

- A (1) 제단을 쌓되 토단(土壇)을 쌓을 것이며 돌로 된 제단을 쌓을 시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며, 양과 소로 번제 및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다.  
 (2) 이처럼 토단 및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건축 규정은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3) 왜냐하면 이러한 외형적 아름다움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래적 요소 곧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 24:1, 2).

화보자료



돌로 쌓은 단(壇). 옆의 사진은 세겜에 보존되어 있는 돌로 쌓은 단으로서 이 장소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성별(聖別)된 장소임을 가르쳐 준다.

제물을 바치는 단은 옆의 사진과 같은 비(碑)가 없었으며 넓고 평평한 단 위에 제물을 놓을 수 있는 것이었다(참조, 창 22:9). 이러한 단은 돌로 쌓을 경우 자연 상태의 돌만을 사용해야 했으며 돌을 깎거나 다듬어서는 안 되었다(25절).

# 제 21 장 중, 살인, 불효, 배상 등에 관계된 법

단락구분 1-6 남중에 관한 율법 / 7-11 여중에 관한 율법 / 12-17 사형에 속하는 4가지 죄 / 18-27 손해 배상법 / 28-32 가족들에 의한 피해 배상법 / 33-34 짐승에 대한 피해 배상법 / 35-36 짐승과 짐승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손해 배상

- 1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올레는 이러하니라
- 2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 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 19 지팡이를 쥐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 20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 21 그가 일 일이나 이 일을 면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뺨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 지니라
-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입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입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입자도 죽일 것이며
-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입자에게 행할 것이며
-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입자가 온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하여 짐승의 입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

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 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값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1. **㉔ 본장에 나와 있는 규례들은 십계명 중 몇 계명에 관한 적용 규례들인가?**
  - ㉔ (1) 제 5계명과 6계명에 관한 적용 규례들이다. 본장 전반부에는 5계명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한 규정들이 서술되고 있다. 즉 종들에 대한 주인의 의무와 불효자들에 대한 처벌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리고 후반부에는 6계명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다. 즉 살인자, 강도, 폭행, 종들에 대한 교육, 임산부 상해, 보복률, 종에 대한 상해, 가축들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한 규정들이 열거되었다.
2. **㉔ 21:1-23:13까지에 기록된 규례를 분류하라.**
  - ㉔ (1) 21 : 1 - 11까지는 종교와 도덕에 관한 규례이다.
  - (2) 21 : 12 - 32까지는 재산에 관한 규례이다.
  - (3) 21 : 32 - 22 : 17까지는 생명에 관한 규례이다.
  - (4) 22 : 18 - 23 : 13까지는 기타 여러 가지 규례이다.
3. **㉔ 본장에 나오는 율례(律例)들과 고대 법전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1절)**
  - ㉔ (1) '율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쉬파트>로서 '판단'(judgement)이란 뜻을 지닌다.
  - (2) 이 말은 보다 구체적으로 2 가지 뜻을 지니는데 법정에서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판례(判例)'라는 뜻과 '사회 도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3) 고대 법전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본 율례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근거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과 대체적으로 만인 평등 사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덕법·민법·형법 등이 종교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4. **㉔ 히브리 율법은 인간의 평등을 저해(沮害)하는 노예 제도의 폐지를 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의(公義)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2절)**
  - ㉔ (1) 히브리 율법은 당시 사회 요건에 맞게 주어진 규례이다. 이것을 당시의 시대 문화적인 상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만약 율법이 당시의 역사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졌다면 공리 공론(空理空論)에 불과했을 것이다. 즉 율법은 당시 사람들이 생활에 적용하도록 주어진 규례인 것이다.
  - (2)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공의가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이 율법이 주어진 시대 보다 훨씬 후대의 고대 아테네의 노예 제도를 살펴보자. 아테네는 그 인구의 4/5 이상이 노예였다. 모든 자유인은 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떤 자는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유민들은 언제나 종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종들을 혹독하게 취급했고 비굴한 인간들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며 상전은 오만했고 종들은 위선과 비굴한 군상(群像)이 되었다.
  - (3) 이와 같은 이방의 노예 제도와 비교할 때 히브리 노예들은 생명과 육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다(26, 27절). 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대한 온당한 대우와 안식일의 휴식을 즐기며 가정 생활에 있어서 방해받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그의 상전이 지나치게 혹사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제 7년에는 자유로이 해방되는 특권을 지니고 있기까지 하였다(2절).

- (4)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만이 지킬 수 있었던 율법이다. 즉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원과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 (5) 그러나 모세와 당시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즉 율법은 문자에 의해 고정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해석되며 수정되어 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으며(마 5:17) 최종적인 규례로 확정되었다.
- (6)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자구(字句)보다 그 근본 정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선 고대라는 시간적 상황과 근동(近東)이라는 지리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반영하는 율법을 주셨던 것이다.

5. **㉠** 본절에 나타난 두 개의 전문 용어를 찾아내고 그 뜻을 밝혀라 (2절).

**㉡** (1) '히브리'와 '자유하다'라는 용어이다.

(2)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민족의 구성원을 뜻한다기 보다는 B. C. 20세기 정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일종의 법적·사회적 신분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히브리인'은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나온 사람들로써,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지녔거나 또는 특권을 지닌 주민층에 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속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Martin Noth, 1902-1968).

(3) 그리고 '자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ஷפֿי>인데 이 말도 역시 일종의 법적·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바 어떤 의무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자유인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는 얻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6. **㉠** 히브리 종이 7년 만에 해방될 때 그의 가족들의 해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절)

**㉡** (1) 종 되기 전의 형편에 따라 결정된다. 즉 종으로 들어올 때 홀몸이었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가족이 있었으면 가족과 함께 나간다.

(2) 그런데 나갈 때는 공수(空手)로 나가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우양, 곡식, 포도주를 주인으로부터 받게 된다(신 15:13, 14).

7. **㉠**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종이 자식들을 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처가 배풀어지는가? (4절)

**㉡** (1) 7년 만에 그 종은 단신(單身)으로 나가게 되고 처자는 계속 상전의 소유로 남게 된다.

(2) 이 율법의 특징은 자식들이 어머니편을 따르는 것이니 이는 곧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8. **㉠** 그러나 만약 그 종이 상전과 처자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5, 6절)

**㉡** (1) 상전이 그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그 종의 귀를 뚫어야 한다.

(2) 그런데 여기서 '재판장'이란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과 RSV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70인역에는 이 말이 '재판장'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개역 성경도 이를 따랐다. 따라서 '재판장에게로 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장소로 간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노예 신분을 공적으로 표식하는 것이다. 귀는 예속의 기관으로 여겨졌기에 귀를 뚫는 것은 곧 자유를 상실하는 것의 상징적 표식이 되었다.

9. **㉠** 만약 어떤 사람의 딸을 종으로 소유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7절)

- A** (1) 여종은 남종과 같이 제 7년되는 해에 내보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2) 당시에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서 아버지가 딸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여종으로 팔린 여자는 첩의 신분을 얻게 된 듯하다. 그러하기에 이 여종은 무기한으로 주인에게 속하며 또 첩으로서 주인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다.  
 (4) 이러한 여종의 대우는 후일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제 7년되는 해에 해방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참조, 신 15:12, 17).

10. **Q**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서 상관치 않는다'란 무슨 뜻을 내포하는가? (8절)

- A** (1) 첩으로서의 신분을 얻은 여종은 주인과 동거하면서 모든 생계 문제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와 같은 대우를 안 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2) 이것은 간접적인 계약 위반이며 따라서 그럴 경우 그 여종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주인은 처음에 그 여종을 샀을 때의 값을 받고 그 여종을 보내야만 한다.  
 (3) 허나 주인은 당시의 관습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는 팔 수가 없다.  
 (4) 그런데 이처럼 상전이 여종을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파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줄 수도 있었다.  
 (5) 단 이 경우에는 그 여종을 자신의 딸처럼 대우해 주어야만 한다.

11. **Q** 만일 상전이 또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되면 여종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하는가? (10절)

- A** (1) 여종의 의복과 음식을 대주며 계속해서 동침하여야 한다.  
 (2) 이것은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관한 기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3) 한편 상전이 여종에 대한 이상과 같은 3가지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전(贖錢)을 받지 않고서 여종을 내보내 주어야 하였다.

12. **Q**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 (12-14절)

- A** (1)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다.  
 (2)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살인자의 목숨을 앗아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다. 또한 이런 사형 집행은 피살자의 친척을 중심으로 했으며, 살인이 일어난 마을의 장로들은 살인범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3)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형상을 파괴하는 죄는 곧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참조, 창 9:6).  
 (4) 다만 우발적인 살인자에게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참조, 신 4:41; 19:1-13; 민 35:12).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참조, 왕상 1:51; 2:28). 즉 살인자가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어 있었다.  
 (5) 그렇지만 고의적인 살인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졌다. 즉 여호와와의 제단에 숨었다고 할지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져야만 했다.

13. **Q**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에 대한 형벌은 어떠하였는가? (15, 17절)

- A** (1)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2) 여기서 부모를 친 죄와 저주한 죄에 대한 형벌이 똑같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저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탈>은 '경히 여기다', '비방하다', '욕설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부모에게 이와 같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조차도 폭행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루었다.

- (3) 부모에 대한 불효를 극형으로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부모 공경을 증시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서도 부모를 친 자는 그 손을 잘라 버렸다.
- (4) 이 법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족 질서 및 사회 질서에 따른 공동 생활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4. ㉠ 사람을 후린 자는 어떤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가? (16절)

- ㉠ (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 (2) 여기서 '사람을 후린 자'라는 말은 '사람을 훔친 자' (히, 고네브 이쉬)라는 뜻으로 오늘날 사람을 유혹하는 자나 '유괴범'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3) 이러한 유괴와 이에 따른 인신 매매 행위는 실로 비인도적인 범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마땅히 사회로부터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15. ㉠ 불효자에 대한 사형법의 현대적 중요성을 논하라(15, 17절).

- ㉠ (1)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모든 자식들이 공경하여야 할 대상이다. 특히 키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공경해야 할 것이다. 늙은 부모를 냉대하는 것은 사실 간접 살인이요 인륜을 저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이다.
- (2) 현대 문화 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가정 파괴의 문제, 결혼의 타락 등과 아울러 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 (3)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의 문제는 인간 윤리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명령이요 계명인 동시에 이를 순종하였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부모에게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상황 여하를 막론하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다(엡 6:1).

16. ㉠ 상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떠한가? (18, 19절)

- ㉠ (1)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면 가해자는 부상자의 치료비와 그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 (2) 그러나 피해자가 죽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살인죄가 적용된다.
- (3) 한편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은 일단 가해자를 감옥에 구금한 후 상처 입은 사람의 용태(容態)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만일 부상자가 죽으면 가해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회복되면 벌금형이 가해졌다.

17. ㉠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인 경우에는 어떠한 형벌이 주어졌는가? (20, 21절)

- ㉠ (1) 종이 즉사를 하게 되면 그 주인은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이 하루 이틀을 더 연명하다가 죽게 되면 그 주인은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 (2) 왜냐하면 종이 즉사한 경우에는 그 주인의 살인 의도가 명백해지므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이 며칠 후에 죽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주인의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벌이 면해지게 된 것이다.
- (3) 이 규정은 고대 사회의 종에 대한 잔악한 대우를 완화시키는 법이다. 종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이러한 규정은 상당한 통제 기능을 갖게 된다.

18. ㉠ 임신부에게 부상을 입혀 낙태시켰을 경우의 처벌은 어떠한가? (22절)

- ㉠ (1) 그 임신부의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 (2) 이처럼 남편이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곧 그가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참조, 엡 5:28).
- (3) 그러나 남편되는 자의 보상 요구가 꼭 100% 관철되는 것은 아니었으니 가해자의 생

각에 그 요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재판장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기본 권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23-25절)

- ㉠** (1) 이는 곧 ‘동해 보복법’ (同害報復法)을 뜻한다. 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영구한 상해를 입힌 자는 그 죄를 그대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고대 사회의 생각이었다.
- (2) 이것은 당시 지중해 연안 민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법률로서, 특히 함무라비 법전에 뚜렷이 나타난다.
- (3)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동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4) 즉 여기서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비록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눈 이상을 그 죄 값으로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5) 훗날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역설하였으니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겐 왼편도 돌려 대라’고 하셨다(마5:38-48). 이처럼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는 정신, 이것이 곧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것이다.

20. **㉠** 본절에 나타난 동해 보복법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것이 여자적(如字的)으로 적용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가? (23-25절)

- ㉠** (1) 형벌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법 집행의 초기 형태로 보복률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실례(實例)는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도 발견되어진다.
- (2)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사람들이 서로 싸운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세게 쳤으며, 또 상처로 인한 괴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또한 상해(傷害)를 입힌 자가 별로써 불구자가 되면 그 개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의 공공 정책에도 위배된다. 왜냐하면 불구 시민들의 수효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게 되고 국가의 발전도 저해되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이러한 형벌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즉 단순하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교도(敎導)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구미(歐美)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이제는 보편적인 형태의 법률로 정착했다.

21. **㉠**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에 피해를 입힐 경우의 처벌 규정은 어떠하였는가? (26, 27절)

- ㉠** (1)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만 하였다.
- (2) 눈과 이는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한번 상처를 입으면 영원히 불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영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어 보내야만 했다.

22. **㉠**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28-32절)

- ㉠** (1) 우연한 사고였을 경우에는 소는 죽이되 그 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 (2) 그리고 그 소는 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소가 저주받은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참조, 민35:33).
- (3) 그러나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잘 받는 습성을 지닌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졌다.
- (4)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형 대신에 속죄금으로 대속(代贖)될 수 있었다.

23. **㉠**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사람의 몸값은 얼마인가? (32절)

- ㉠** (1) 일반적으로 종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는데 반해 일반인의 몸값은 성인 남자가 은 50세겔, 여자가 은 30세겔이었다(참조, 레27:3, 4).

(2) 여기서 1세겔 (shekel)은 무게 단위로 11.4g이나 30세겔은 342g이 된다.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팔리셨다(마26:14-16).

24. **㉠** 본장에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규례를 요약하라 (28-32절).

**㉠** (1) 성경에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가 여러 번 나온다. 그중 가장 먼저 주어졌던 규례는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즉 피를 흘린 자는 피로써 갚겠다는 보복률의 법칙인 것이다(창9:6). 이러한 법칙이 성립된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창1:27).

(2)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간 생명에 천하(天下)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마 16:26). 이러한 말씀은 다른 것과는 비교될 수 없고 절대로 대체(代替)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언급이다. 즉 인간 생명은 근본적이며 변경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3) 본장에서는 특히 과실 치사(過失致死)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며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팔레스틴에 있어서 소는 재산으로서 중요시되었으나 사람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고기조차 먹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재산보다 인명(人命)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4) 또한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소 주인의 부주의함이 인정되면 주인까지 사형을 당했다. 이러한 규례 역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25. **㉠** 이상의 여러 규례 가운데 나타난 '돌로 쳐죽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8, 29 32절)

**㉠** (1) 본장에 나타난 규례에는 소를 사형에 처할 때 전부 돌로 쳐죽이도록 되어 있다.

(2) 이러한 형벌의 의미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공동체 생활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를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축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레 24:16; 민 15:35; 신 21:21).

(3) 그런데 소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 소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사람의 생명이 소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26. **㉠** 만약에 소가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되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33, 34 절)

**㉠** (1) 초기에는 웅덩이 주인이 그것과 같은 짐승으로 보상을 했으나 후기에는 돈으로 배상하였다. 이때 죽은 짐승은 웅덩이 주인이 취하였다.

(2) 여기서 웅덩이란 저수지나 우물 등을 가리킨다.

27. **㉠** 소끼리 싸우다 한쪽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5, 36절).

**㉠** (1) 산 소를 팔아서 그 금액을 반분하고 죽은소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하였다.

(2) 단 가해측 소 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었다면 그는 피해자에게 산 소로 배상을 해주고 자기는 죽은 소를 차지해야만 하였다.

### 본장의 요절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 제 22 장 절도, 손해 배상, 간음 등에 대한 규례

단락구분 1-4 절도에 관한 규례 / 5-6 손해 배상 / 7-13 보관물에 관한 규례 / 14-15 차용물에 관한 규례 / 16-17 혼인 빙자 간음 금지 / 18 무당 금지 / 19 수간 금지 / 20 무상 금지 / 21-27 약자를 위한 규례 / 28-31 종교적 의무에 관한 규례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값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값을지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움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돌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감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날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감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아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감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

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닐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 지니라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피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였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번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짚넨 즘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제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 일 만에 내게 줄  
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먼저 제 8계명, 즉 도둑질, 가축으로 인한 손해, 화재로 인한 손해, 가축의 차용, 금전의 차용 등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  
(2) 그리고선 제 7계명, 즉 간음 및 수간에 관한 금지 규례가 나온다(16, 17, 19절).  
(3) 그 외에도 무당 금지, 우상 숭배 금지와 같은 규례가 나오는데 이는 곧 제 1, 2 계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20절).  
(4) 끝으로 본장에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 및 그 규례와 함께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물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다.  
(5) 아뭏든 이상의 규례들은 공의와 정직을 요구하는 규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육체적 순결을 요구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다.

2. ㉠ 소나 양 등의 가축을 절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떠한가? (1, 3, 4절)

- ㉠ (1) 만일 절도범이 도둑질한 짐승을 죽이거나 팔아 버렸을 경우에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만 하였다.  
(2) 그런데 절도범이 배상할 돈을 갖고 있지 않을 시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하였다. 당시에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  
(3) 그리고 절도범이 훔친 짐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죄가 가벼워져서 배상금으로 2배만 내면 되었다.  
(4) 이처럼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까닭은 소를 훔치는 것이 더욱 큰 대담성과 교활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고등 범죄였기 때문일 것이다.  
(5) 또한 절도범이 그가 훔친 짐승을 즉시 도살하거나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 짐승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보다 배상률이 높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에는 절도범이 계획적인 악의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 ㉠ 도둑에 대한 방어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처벌 규정은 어떠한가? (2, 3절)

- ㉠ (1) 어두운 밤에 현장에서 발각된 절도범을 때려 죽였을 경우 이는 정당 방위로 인정되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절도범을 죽인 자에게 살인의 도가 있었다고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2) 그러나 밝은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정은 다르다. 왜냐하면 낮에 들어온 도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쫓거나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그런데도 절도범을 죽였다면 그에게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절도범이라 해도 그의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피 흘린 죄' 즉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4. ㉠ 모세의 율법은 절도(竊盜)를 다른 범죄보다 중벌(重罰)로 다스린다. 성경에서는 절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4절)

- ㉠ (1) 모세의 율법은 절도의 죄질(罪質)에 따라 형벌도 나누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주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가벼운 범죄일 경우에는 두 배의 배상으로 그칠 수도 있었다.  
(2) 그러나 배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만약 절도범에게 배상의 능력이 없다면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이 규정을 지켜야 했다.

- (3) 성경이 이와 같이 절도범을 가혹하게 대하는 목적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미리 큰 경고를 주어 절도를 근절(根絶)시키려는 데 있다.
- (4) 따라서 성경은 여러 번 도둑질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신 23:24; 엡 4:28; 딤후 2:10; 벧전 4:15 등).
- (5)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소산물로써 생활할 것을 명하셨다(창 3:19). 그러므로 절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된다. 타인이 힘써 얻은 재산을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심리 그 자체가 범죄이다.
5. **㉠** 모세의 율법은 동일한 절도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을 달리 하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1-4절)
- ㉠** (1) 하나의 죄목(罪目)일지라도 그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은 절도범에 대한 형벌을 기술하면서 범죄의 우발성(偶發性), 대담성 그리고 지속성에 따라서 형벌을 달리하였다.
- (2) 남의 재산을 사전(事前)에 계획하지 않고 도적질한 자보다 계획적으로 도적질하여 도살하거나 팔았으면 벌이 가중(加重)되었다(1절). 또한 양은 4배를 배상한 반면 크고 힘이 센 소를 훔치는 데는 대담성이 요구되었으므로 5배를 배상하여야 했다(1절).
- (3) 뿐만 아니라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는 주인이 그 도둑을 죽일지라도 정당 방위(正當防衛)로 인정받지만, 낮에 도둑을 죽이면 과잉 방위(過剩防衛)로 처벌되었다(2, 3절). 즉 같은 죄목(罪目)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졌던 것이다.
- (4) 이러한 법 적용(法適用)은 인간의 동기(動機)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연유된다(삼상 16:7). 그리스도 교훈 가운데도 음욕(淫慾)과 간음을 동일시하며(마 5:27, 28), 살인과 형제 미워함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마 5:21, 22).
- (5)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도들의 지향점(指向點)은 분명해진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진실한 사랑만이 모든 선행의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6. **㉠** 율법에 규정된 배상 원칙은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1-4절)
- ㉠** (1) ‘호리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6)는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곧 영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그러나 우리가 갚지 못하는 죄 값을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시므로써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을 수 있었다.
7. **㉠** 남의 밭에 짐승을 놓아서 먹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5절)
- ㉠** (1) 자기 가축 떼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유로 해서 그런 피해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가해자는 그 피해액을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하였다.
- (2) 이때 대개는 자기 밭과 포도원의 제일 좋은 소출로 보상해야만 하였다.
- (3)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는 그 근방의 밭과 포도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8. **㉠**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적맞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7, 8절)
- ㉠** (1) 그 맡긴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게 되면 그 도둑이 갑절로 배상해야만 하였다.
- (2)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맹세한다(참조, 왕상 8:31, 32). 그 맹세에는 자기 저주가 포함되었으므로 만약 유죄하다면 그 저주를 받을 것으로 믿었다.
- (3) 어쨌든 우리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즉 은밀한 중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9. **㉠** 어떤 분실된 물건을 놓고서 서로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 (9절)
- ㉠** (1)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아야만 하며, 재판장이 죄 있다고 판정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해야만 하였다.  
 (2) 우리는 여기서 도둑질을 한 자와 거짓말을 한 자의 받는 형벌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짓말은 도둑질만큼이나 크나큰 범죄인 것이다.
10. **㉠** 가축을 이웃에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어떻게 보상받는가? (10-13절)
- ㉠** (1) 짐승은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기에 만일 아무도 모르는 중에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둑맞았을 경우에는 가축 관리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관리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증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축 주인은 그 맹세를 그대로 믿어야 하며 관리인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2) 그러나 자기 집에서 가축이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다면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인은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만 하였다.  
 (3) 또한 꿈이나 사자 등 맹수의 공격으로 가축이 죽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가축의 찢긴 부분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관리인은 자기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11. **㉠** 이웃에서 빌어 온 가축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14, 15절)
- ㉠** (1) 가축의 주인이 함께 있을 때에 죽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주인이 없었을 때에 그랬다면 반드시 배상해야만 하였다.  
 (2) 그렇지만 만일 그 가축이 세넨 것이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단 임대료는 지불을 해야만 하였는데 그 임대료 속에는 예상되는 손해액까지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2. **㉠** 처녀를 범한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 (16, 17절)
- ㉠** (1) 일정한 빙폐(聘幣), 즉 결혼 지참금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만 하였다.  
 (2) 당시와 같은 고대 사회에선 처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으니 따라서 처녀를 강간하는 것은 곧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한 소유권 침해였다.  
 (3) 그러므로 처녀를 강간한 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결혼 지참금으로 은 50 세겔을 지불하고서 그 처녀와 결혼해야만 하였다. 단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돈만 치뤄야 했다.
13. **㉠** 무당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 (18절)
- ㉠** (1) 사형이다.  
 (2)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무당은 여자, 그리고 요술장이는 남자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마법, 요술 같은 것을 근절시키려고 노력했으나(참조, 삼상 28:3)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3) 그런데 본질의 규제가 중세에 마법사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마술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능과 그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죄악으로서 사신(邪神)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 하여 처벌하였다.
14. **㉠** 무당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항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가? (18절)
- ㉠** (1)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모든 사람들이 과학 만능을 외치는 20세기 말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다양한 접촉 방법은 한번도 근절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최근에 구미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명문 대학에서까지 악마 숭배가 성행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2) 서양에도 다양한 형태의 악령 숭배가 있지만 그래도 각종 잡귀를 섬기는 전통이 뿌리깊이 내린 곳은 아무래도 동양일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여전히 다양한 형태

의 무당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 (3) 이런 무당 행위는 종교적으로 볼 때 사악한 원수 사단의 조종을 받은 귀신들의 꾀임이며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우러난 기복 신앙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을 받겠다는 비윤리적인 악마와의 부정 거래인 것이다.
- (4)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무당 금지의 명령이 먼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향한 명령임을 분명히 깨닫고 문화 유산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미신 타파와 무당 행위의 근절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5. **Q** '짐승과 행음(行淫)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9절)

- A** (1) 변태적인 성행위를 가리킨다. 당시 애굽에서는 사람과 짐승과의 교합이 종교 의식 중의 하나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 (2)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품위를 버리고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레 18:23, 29).

16. **Q**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는 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인가? (20절)

- A** (1) 사형이었다. 여기서 '멸할지니라'의 히브리어는 <헤렘>으로 '파문'의 뜻을 지닌다. 즉 공동 사회에서 추방한다는 말인데 실제적으로는 죽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잡신을 섬긴다는 것은 곧 종교적 반역이며 간음 행위이다(참조, 20:3).
- (3) 한편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사신(邪神) 숭배자들을 화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17. **Q**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21절)

- A** (1) 여기서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인데 자기 혈족과 종족을 떠나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보호에 의존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잠시 한 곳에서 쉬는 여행인과는 다르다.
- (2) 나그네는 그 고장 토착민도 아니요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 몫의 땅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착취, 학대하지 말라는 뜻이다(레 19:33, 34).
- (3) 오늘날도 이러한 나그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들을 사랑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 **Q** 과부와 고아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24절)

- A** (1) 학대하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2) 과부와 고아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다. 이들은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 (3)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공의로 보호해 주신다. 이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들의 처자가 도리어 과부와 고아가 되는 벌을 받을 것이었다.
- (4)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불우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고 계신다(숙 7:9, 10). 오늘날에도 사회적 환경 및 구조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생활을 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야 하며, 만인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19. **Q** 성경은 자신의 동족(同族)에게 변리(邊利)를 받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25절)

- A** (1) '변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섹>인데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

다. 이것은 '뺨이 침으로 쏘다'는 뜻의 <나썩>과 그 어근이 같다(참조, 창49:17). 즉 이 말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심하게 착취한다는 뜻을 강하게 담고 있다.

- (2) 성경은 이러한 가진 자의 횡포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레25:36; 시15:6; 잠28:8; 겔18:8 등). 즉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의 증식(增殖)을 꾀하는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 (3) 그러나 성경에는 합당한 이식(利息)을 취하라는 귀절이 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대(賃貸)나 차용(借用)을 허용하였고 이 경우에 매달 1/100의 돈을 주라고 명했다(참조, 느5:5-13; 겔22:12).
- (4)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종합하여 보면 선한 의도로 돈을 빌어 주며 합당한 이자를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님을 알 수 있다(참조, 눅19:13-15).
- (5) 따라서 오늘날의 은행 거래는 합법적이며, 장사나 기타 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돈을 빌리거나 꾸어 주며 얼마간의 이자를 받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으로 돈을 빌어 주는 행위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 **㉠** 본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21-26절)

- ㉠** (1)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21절).  
 (2)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22절).  
 (3)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선 그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23절).  
 (4) 또한 가난한 자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고 변리를 받지 말라고 나와 있다(25절).  
 (5)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라고 나와 있다(26절).

21. **㉠**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기쁘게 그리고 속히 바쳐야 할 명령을 중심으로 헌금의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라 (29, 30절)

- ㉠** (1) 헌금해야 할 이유  
 ①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이다(사4:7; 시103:3; 116:12; 사33:24; 마9:2).  
 ②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레27:30; 잠3:9; 말3:10).
- (2) 헌금하는 자세  
 ① 능력에 맞게 하여야 한다(신16:7).  
 ②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마6:3).  
 ③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여야 한다(마10:8; 눅6:38; 12:33).  
     ㉠ 순수하게(롬12:8)  
     ㉡ 규칙적으로(고전16:2)  
     ㉢ 즐거운 마음으로(고후9:7)  
     ㉣ 아낌없이 하여야 한다(민7:13; 왕상3:4; 왕하5:5; 스6:9; 막12:43; 고후8:3).
- (3) 헌금의 용도  
 ① 성막 건축(출30:16)  
 ② 구제(신15:7, 8; 요일3:17)  
 ③ 제사장의 분깃(창14:17-20)  
 ④ 말씀 전파(살전2:9)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 제 23 장 사회 정의 및 안식, 절기 등에 관한 규례와 하나님의 언약

단락구분 1-2 중상(中傷) 금지 / 3-9 공의에 관한 규례 / 10-11 안식년 규례 / 12 안식일 규례 / 13 우상 금지 / 14-19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삼대 절기 / 20-33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1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 두호하지 말지니라  
4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7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 하겠노라  
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10 너는 육 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 제 칠 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 할지니라  
12 너는 육 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 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쉬는 것이며 네 제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 내가 네게 이룬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14 너는 매년 삼 차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 너는 내 회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회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라  
19 너의 토지에는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0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 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 나의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25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27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28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29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

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

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32**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33**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율무가 되리라

1. **㉠ 본장의 특성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20:22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 이면서 또한 그 언약의 결론 부분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먼저 본장의 전반부에는 9계명과 관련된 거짓 증거 및 거짓 재판 금지 규례와 함께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규례가 나온다(1-10절).  
 (3) 그리고 중반부에는 안식년, 안식일, 3대 절기와 이와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다(10-19절).  
 (4) 마지막 후반부에는 20:22로부터 본장 18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과 아울러 갖가지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이다(20-33절).

2. **㉠ 본질의 내용을 쉽고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해 보라(1-9절).**

- ㉠** (1) 거짓말장이가 되지 말고 악한 일을 돕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고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라.  
 (2)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공정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공명正大하게 대하라.  
 (3) 떳떳하지 못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무죄한 자를 해치거나 악한 자를 무죄하게 만들지 말고 뇌물을 무서워하라.

3. **㉠ ‘허망한 풍설(風說)’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 (1) ‘허망한’은 원어로 <샤웨>인데 ‘거짓된’, ‘근거없는’, ‘터무니 없는’ 등의 뜻을 지닌다.  
 (2) 그리고 ‘풍설’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소리’, ‘소문’, ‘풍문’, ‘소식’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3) 그러기에 공동 번역은 이를 ‘근거없는 말’이라고 번역하였다.  
 (4) 누구든지 이러한 허망한 풍설을 퍼뜨려서는 안 될 것이니 이는 곧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몽든 이 규례는 제 9계명의 구체화로서 오늘날의 증거 재판주의와 흡사한 점이 있다.

4. **㉠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誣陷)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말이 공동 번역에는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 권세 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2) 이는 곧 법정에서 증인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아는 것을 모르는 체하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5. **㉠ 법정에서의 증언에 있어서 일반적인 준수 사항은 무엇인가? (1-3절)**

- ㉠** (1)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1절).  
 (2) 다수의 의견을 따라 악을 행치 말아야 한다(2절).  
 (3)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도 공정한 증언을 하여야 한다(3절).  
 (4)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일 수는 없고 우리들이 몰려받은 전통이나 일반적인 상식도 항상 옳은 것일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위(眞僞)를 가려야 하며, 다수가 그르다면 이들을 거스르고 설혹 이단자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하나

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 (5) 또한 이해 관계에 따라 부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며 가난한 자를 두둔해 주어서도 안 된다. 항상 우리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표준을 따라 냉정하게 일들을 처리해 가야만 한다.
- (6)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참조, 신10:17; 행10:34)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6.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라고 명하셨는가? (4, 5절)

- ㉠** (1) 혹시 그들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집으로 돌려 보내 주고, 집에 눌러 허덕이는 것을 보면 도와 주라고 명하셨다.
- (2) 여기서 ‘원수’나 ‘미워하는 자’란 법정 투쟁의 상대자나 상대자였던 사람을 가리킨다. 비록 이들이 법정안에서는 대적자이지만 법정 영역 밖에서는 이웃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 (3) 우리는 여기서 만인(萬人)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겔 18:23; 33:11, 12).
- (4) 한편 예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5:44).

7. **㉠** 본절에 나오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책들을 열거하라 (6-9절).

- ㉠** (1) 가난한 자의 소송 사건에서 그의 권리를 꺾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2) 그리고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급게 하여서는 안 된다.
- (3) 또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 (4) 뿐만 아니라 허위 고발을 물리치며 의로운 자를 살리고 죄있는 자를 벌하여야 한다.
- (5) 아물든 부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既得權)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제재를 자기들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다.
- (6)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다. 부한 자들은 위에 열거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힘없는 자들을 압제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8. **㉠** 안식년에 관한 규례에 대하여 설명하라 (10, 11절).

- ㉠** (1) 이는 곧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묵혀 둬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소출을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도록 하는 것이었다.
- (2) 이러한 규례에 대한 이유 설명은 본장에서는 사회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종교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참조, 레25:4).
- (3) 안식년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참조, 레25:23). 즉 실제상의 토지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땅을 빌어서 소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토지를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 (4) 그리하여 안식년 중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은 토지 없는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위해 남겨 두게 된다.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땅이건간에 7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한다.
- (5) 한편 이러한 안식년 제도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에 더욱 요청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 자본가, 기업주 등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서 재산을 불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릴 줄 모르며 가난한 대중의 복지를 생각할 줄 모른다.

(6)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들짐승과 땅에게조차 안식을 주려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정신만은 오늘날에도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 구약 시대의 3대 순례 절기(巡禮節期)는 무엇인가? (14절)

- ㉠** (1) 유월절(일명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여기서 맥추절은 칠칠절이나 오순절로도 불리우며 수장절은 장막절이나 초막절로도 불리운다.
- (2) 여기서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인데 이 말은 ‘순례를 하다’, ‘비틀거리다’를 뜻하는 동사 <하가그>에서 파생되었다.
- (3) 따라서 본절의 절기란 정확히 말해서 순례 절기를 뜻한다. 보통 순례 절기의 중심은 회생제였으며 이 회생제는 함께 모여 큰 기쁨 속에서 나누는 식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사에는 행진, 춤, 축제, 음주(飲酒) 등이 포함되었다(신 16:14; 대하 35:7-16).

10. **㉠** 무교절에 대하여 설명하라 (15절).

- ㉠** (1) 종교력 제 1월, 즉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이다. 이 무교절은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도 불리우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되었다(12:17).
- (2) 일반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용어가 혼용(混用)되나 정확히 말해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을 가리키며 그날 전야에 어린 양의 회생제가 드려졌다. 또한 무교절이란 그날 이후 7일간의 무교병 축제를 말한다(참조, 레 23:5, 6).
- (3) 그런데 무교절은 농업과 관련이 깊은 절기로서 새 보릿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 것이 축제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레 23:9-11).

11. **㉠** 수장절에 대하여 설명하라 (16절).

- ㉠** (1) 농사력(農事曆)이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절기 중 하나로,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을 기억하며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절기이다.
- (2) 한편 수장절은 초막절(레 23:34), 성막절(聖幕節), 장막절 등과 같은 이름으로도 불리워진다.
- (3) 이 절기는 종교력 제 7월 곧 디스리 월 15일에 시작되어 7일간 지켜졌다. 수장절에 참석할 사람들은 7일간 먹고 잘 초막을 준비해야 하며 예루살렘 주위에서 버드나무, 종려나무의 잔가지들을 모아서 일부는 장식용으로 일부는 건축용으로 사용해야만 했다(레 23:40).
- (4) 이 기간 중 매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헌수 의식(獻水儀式)을 가졌다. 제사장들은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길어 와 제단에 바쳤으며 밤이 되면 성전의 전지역을 촛불로 밝히고서 참여자들이 모두 즐겁게 춤을 추었다.

12. **㉠** 맥추절에 대하여 말하라 (16절).

- ㉠** (1)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두번째 절기로, ‘칠칠절’(신 16:10), ‘오순절’, ‘초실절’(34:22)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 (2) 맥추절은 원래 추수 감사 절기로서 보리의 첫 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의 7주 가량되는 곡물 수확 기간과 관련이 있다.
- (3) 정확한 날짜는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搖祭)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참조, 레 23:15)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 하루이다.
- (4) 칠칠절은 7주 전에 시작된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져서 성공적으로 끝나치게 된 데 대한 기쁨과 감사를 격식(格式)을 갖추어 표현한 절기이다. 이날은 성회로 모였다(23:21).
- (5) 이 절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떡 두덩이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이다. 즉 새로 거둔 밀에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을 요제로 드렸다(레 23:17). 그리고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이 함

께 모여 공동 식사(共同食事)를 하였다.

13. **㉠** **㉠**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이는 곧 가나안 사람들의 식생활과 종교 의식을 좇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 당시 가나안 거민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아 먹는 것이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법이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일종의 주술적(呪術的) 의미까지도 부여했었다.  
 (3)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사랑과 자비가 결여된 잔인한 처사였으니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기 전에도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었다.  
 (4)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근본 정신은 천하 만물에 대한 극진하신 사랑에 의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참조, 신22:6).

14. **㉠**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사자(使者)를 앞서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2) 한편 여기서 '사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아크>로서 '여호와와 사자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참조, 창 17:8) 우리들이 아직 죄중에 거하고 있을 때에도 먼저 은혜의 손길을 뻗치신다.

15. **㉠** **㉠** 하나님께서는 사자(使者)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1-23절)

- ㉠** (1)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사자에게 있다고 하셨다. 즉 이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의 말을 잘 청종(聽從)하고 그를 노엽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3) 또한 그 목소리를 잘 듣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 자신의 원수와 대적으로 삼으시며 사자가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6. **㉠** **㉠** 하나님께서는 위와 같은 은혜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24절)

- ㉠** (1)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소위(所爲)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상(神像)과 주상(柱像)을 훼파하라고 하셨다.  
 (2) 이러한 명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고대 사회와 형식만 다를 뿐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우상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찬미받을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17. **㉠** **㉠** 위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내려 주겠다고 하셨는가? (25-33절)

- ㉠** (1) 양식과 물에 복을 주어 풍족케 하시며 모든 질병을 제해 주시며 낙태하는 자와 수태(受胎)치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각자 자신의 명(命)대로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셨다.  
 (2) 또한 가나안 주민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어 그들을 쫓아내고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되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왕벌'이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인한 자연적 재앙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신 7:20; 수 24:12).  
 (3) 그리고 영토의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며 광야는 수르(Shur) 광야

(15:22)를 의미한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居民) 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을 섬기며 울무에 말려들 것을 염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 (5) 이는 곧 가나안 거민이 쫓겨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우상 숭배 및 기타 여러 가지 관영(貫盈)한 죄악 때문임을 증거하고 있다(참조, 신9:5).

## 연구자료

### 구약에 언급된 사형(死刑)

히브리 사회에서 범죄자에게 가해진 형벌의 종류는 단순했는데 이러한 형벌에는 사형 이외에 체형(體刑)과 벌금형(罰金刑) 등이 있다. 이러한 처벌 방식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실시되었던 것이 사형이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형태의 살인(20:13)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범죄자를 죽이는 합법적, 도덕적인 살인 행위(사형)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창9:9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인명에 대한 중죄들: 속전으로 대치할 수 없는 고의적인 살인(21:12; 레24:17; 민35:16-21, 31; 신19:11)과 노예를 만들 목적에서 사람을 훔친 행위(21:16; 신24:7)가 이에 속한다.

(2)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중죄들: 우상 숭배(22:19; 렘 20:1-5; 신 13:2-19; 17:2-7; 비교, 민 25:1-5),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레 24:15), 안식을 범한 죄 즉 안식일의 거룩함을 더럽힌 행위(31:14; 비교, 민 15:32-36), 무당 행위(22:17; 레 20:37; 비교, 삼상 28:3, 9),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행했을 경우가 이에 속한다.

(3) 부모에 대하여 범한 중죄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20:12; 레 19:3). 그래서 부모를 치는 것(21:15)이나 경멸하는 것(21:17; 레 20:9; 신 27:16)은 사형으로 처벌하기로 규정된 것이다.

(4) 성범죄: 간음(레 20:10; 신 22:22), 여러 형태의 상피(相避)들(레 20:11, 14, 17), 남색(sodomy, 레 20:13), 그리고 수간(獸姦, 레 20:15)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취해진 형 집행의 방법도 다르게 나타난다(참조, 32:27; 레 21:9; 24:14; 왕하 6:31).

# 제 24 장 언약 체결을 위한 백성들의 맹세

단락구분 1-2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다 / 3-8 언약서의 낭독과 백성들의 순증 서약 / 9-11 모세와 그의 동행자들이 하나님을 보다 / 12-18 모세가 40일간 산에 머무르다

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십이 지파대로 열 두 기둥을 세우고

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7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피니라

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

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제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13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 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칠 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1. **㉠** 본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비준(批准)되는 과정을 상술하라.

- ㉠** (1)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였다(3절).
- (2) 이러한 언약의 비준에는 반드시 제사가 따랐으니 모세는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움으로써 이 언약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임을 알게 하였다(4절).
- (3) 뿐만 아니라 제사의 과정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개입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험이 더욱 감동적인 것이 되게 하였다(5절).
- (4) 제사와 더불어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였고 그들에 의해 비준됨으로써 그 언약은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백성의 언약이 되었다(7절).
- (5) 이어서 뒤따른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리는 행사는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8절).

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만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는가? (1, 2절)

- ㉠** (1)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다.  
 (2) 하나님께선 백성들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모세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도 산 위까지만 올라오게 하셨으니 오직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3) 여기서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론이 등장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다(레 10:1-3).  
 (4) 이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결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셨던 것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차등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엡 3:11, 12).

3. **㉠**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준 것은 무엇이었으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3절)

- ㉠** (1)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율례였다. 여기서 모든 말씀과 율례는 십계명을 제외한 20:22에서 23:33까지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모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했다.  
 (2)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들려 주었는데 이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노라고 대답하였다.

4. **㉠**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代言者)였다. 이 직책의 현대적 의미를 논하라(3절).

- ㉠** (1)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였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교훈을 주시지만 특히 지도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객관적인 자신의 뜻을 보여 주신다.  
 (2) 그런데 당시에는 성문화(成文化)된 성경이 없었으므로 모세의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3) 이 말씀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교회의 영적·도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충족성'(充足性)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성경적 권위와 객관성을 가진 계시가 주어질 수 없다. 모세의 시대에는 성문화된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에 있었고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는 점이 분명한 차이점이다.  
 (4)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임에 반해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충족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이 시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야만 한다.

5. **㉠** 모세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기록한 후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4절)

- ㉠** (1)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열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  
 (2) 그런데 제단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장소로서 이미 계시된 바 있다(20:24).  
 (3) 그리고 열 두 개의 기둥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상징하며,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6. **㉠** 모세는 단을 쌓은 후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5, 6절)

(1) 청년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기서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지니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친교의 회복 및 유지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

(2) 이때 모세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뿌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교제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한다(참조, 열 2:13).

7. **Q**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8절)

- A** (1) 여기서 '언약의 피'란 하나님께서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뜻이다.  
 (2) 고대인들에게는 피로써 언약을 맺는 관습이 있었다. 양측 사람의 피를 교환해서 마셨는데 만약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피흘림을 당해야만 했다.  
 (3) 신약에서도 피는 언약의 표가 되었다(마 26:28; 고전 11:25). 즉 언약의 피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피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8. **Q** 모세와 그의 동행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A** (1) 하나님께서 영(靈)이시니(요 4:24)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본체(本體)를 볼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했다(33:20).  
 (3)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와 그의 동행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신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다는 것과 지금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9. **Q**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A** (1) 청옥, 즉 푸른 사파이어(sapphire)는 하나님의 티없는 성결을 의미한다.  
 (2)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매우 아름다웠으니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 균형을 갖춘 아름다움을 통하여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3) 한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며 또한 성경도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마 5:8).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겸손히 나 자신을 맡길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참조, 약 3:17).  
 (5) 뿐만 아니라 성도의 이러한 성결은 일회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만족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니 우리는 일평생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0. **Q**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1절)

- A** (1) 여기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일종의 계약의 식사를 의미한다.  
 (2) 이 계약의 식사는 계약의 체결을 유효하고 타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들 사이에서 행하는 공동 식사와 같은 것이다(참조, 창 31:46, 54).  
 (3) 한편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갖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념하고 회상하기 위한 공동 식사와 같은 것이다(고전 11:23-26).

11. **Q**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전에 산 아래 일을 아론과 훌에게 부탁하였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 A** (1)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뵈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도 산 아래 일이 잘 되어 나가도록 대책을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사람의 일도 무시하지 아니하는 태도이다.

- (2)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성도들에게 암시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도 가운데는 한쪽으로 치우친 자가 많기 때문이다.
- (3) 기독교는 이 세상에 뿌리를 박고 있는 동시에 하늘을 향해 커가는 종교이다. 이 세상의 토양에서 깊게 뿌리를 박으며 자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동시에 하늘의 태양과 단비를 충분히 받음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 (4) 그런데 이 땅에만 침잠해 있는 자를 보라. 그들은 세상 일에 분요(紛擾)하여 고요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 기진(氣盡)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
- (5) 또한 하늘만 바라보는 자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할 인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영화로움 가운데 머물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보라. 마 17:4).
- (6) 결국 우리는 여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수 1:7)을 지향하는 성도의 모범을 찾아볼 수 있다.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도 지상의 일에 소홀하지 않는 중용의 도리를 오늘날의 성도들도 배워야 할 것이다.

12. **㉠**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18절)

- ㉠** (1) 40주야를 머물렀다.
- (2) 여기서 40주야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6일을 포함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기간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신 9:9).
- (3) 그런데 40이라는 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엘리야가 천사들로부터 음식을 받아 힘을 내어 호렙 산까지 여행한 기간도 40일이다(왕상 19:8).
- (4)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금식하신 기간도 40일이다(마 4:2; 눅 4:1).
- (5)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도 40년이다.
- (6) 이상의 사례(事例)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0이라는 수는 '시험의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적인 힘으로 믿음을 강화하는 기간' 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 (7)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후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이후 결실을 많이 맺어야 하며 이 결실은 특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될 것이다(참조, 갈 5:22).
- (8) 하나님과의 영교(靈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 말, 행동 등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갈 5:22-24).

**본장의 요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26절).

## 제 25 장 성소와 지성물들

단락구분 1-9 성소 건축 명령과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들 / 10-16 범계의 양식(樣式)과 재료 / 17-22 속죄소의 양식과 재료 / 23-30 진설병을 놓을 상의 양식과 재료 / 31-40 등대의 양식과 재료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 3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 4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털과
- 5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 6 동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 7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 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 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11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 12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 13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 14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하며
- 15 채를 궤의 고리에 편 대로 두고 빼어 내지 말지며
- 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 17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 19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 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 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 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 23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24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 25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 26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 27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 28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 29 너는 대접과 술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 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 31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 32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 33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갈게 할지며
- 34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 35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 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 만들고
- 37 등간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 38 그 불집게와 불뿔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라
- 39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 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1. **㉠** 본장을 적확(的確)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 (1) 본장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건립하고 그 제반 시설을 갖추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다(8절).
- (2)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수집하라는 명령과 함께 각종 성물(聖物) 제작에 관한 자세한 지시 사항이 나온다. 즉 법궤, 속죄소, 진설병 상 그리고 등대 등에 관한 제작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3) 그런데 본장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세세한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그 배후에 담겨 있는 주요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 (4) 그러므로 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각 규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목적, 교훈 등을 파악한 후에 그 규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찰해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이다.

2. **㉠** '예물'이란 말에 대하여 설명하라(2절).

- ㉠** (1) '예물'이란 말은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뜻한다.
- (2) 왜냐하면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루마>로서 <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롬>은 '능동적으로 일어나다', '높이 들어 올리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물'은 능동적으로 공손히 바치는 물건이라는 의미이다.

3. **㉠** 2절에 나오는 예물에 대한 규정과 오늘날의 헌금의 정신을 비교하여 기술하라.

- ㉠** (1) 하나님의 사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껏 낸 헌금이 사용된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다.
- (2) 따라서 이러한 예물은 드리는 자의 정성과 함께 즐거운 마음이 부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헌금의 정신은 드리는 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론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 (3) 하나님께 바쳐진 성막 역시 이러한 원칙대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의 결과였다.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아낌없이 그리고 서로 앞을 다투어 드렸으니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 마침내 예물 가져오는 것을 정지하기에 이르렀다(36:6).
- (4)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다. 이것을 행하는 데는 권유도 필요없고 설득도, 강제성을 띤 어떠한 요구도 필요없다.
- (5) 다만 드리는 자 스스로가 고무(鼓舞)되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칭찬을 얻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 (6) 다윗 시대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고(대상 29:6-9), 스룹바벨과 더불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러하였다(스 2:68, 69; 느 7:70-72).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땅히 이러한 정신에 따라 헌금을 바쳐야 할 것이다.
- (7) 아뭏든 1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즐겨 받으시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는 예물은 단호히 거절하신다는 점이다(참조, 고후 9:7).

4. **㉠** 백성들이 바친 성막의 재료를 유형별로 분류하라(3-7절).

- ㉠** (1) 성막 재료들의 종류에 관해서는 본절과 35:5-9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본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이다.
- (2) 반면에 35장의 기록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주고(35:1 이하)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명대로 성막의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것이다(35:20-29).
- (3) 그들이 바친 성막의 재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귀금속류 : 금, 은, 놋 등이다(25:3; 35:5).
- ② 유색 면사류(有色綿絲類) :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 등이다(25:4; 35:6).

여기서 실은 양털을 말한다. 공동 번역에는 ‘자주빛 양털, 붉은 보라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로 번역되어 있다.

- ③ 피혁류: 염소 털, 붉게 염색한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등이다(25:4, 5; 35:6, 7). 염소털은 어느 시대에도 천막천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해달은 홍해에 있는 ‘바다소’ [海牛]를 가리킨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들고래로 번역되어 있다.
- ④ 목재류: 조각목(25:5; 37:7)이 있다. 조각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쉬팀>으로 시내 반도에 많이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학명(學名)으로는 ‘아카시아 세알’ (Acacia seyal), ‘아카시아 토르틸리스’ (Acacia tortilis)이다. 이 나무는 단단하고 나무결이 고와서 가구를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었으며 요즘도 쓰이고 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되어 있다.
- ⑤ 향유류(香油類):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 재료들이다(25:6; 35:8).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감람유로 만들었는데 등유는 등불을 켜는 기름이며 관유는 성막과 제그리고 모든 성물을 성별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여할 때 사용되는 기름이다(참조, 30:26-30). 한편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향품은 몰약(沒藥), 육계(肉桂), 창포, 계피 등이다.
- ⑥ 보석류: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이다(25:7; 35:9). 이 보석은 39:10-13에 보면 12종류의 보석들이다. 한편 호마노(鑄瑪瑙)는 겹겹으로 여러 빛깔의 줄이 진 보석인데 대제사장의 흉패와 성전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 5. Q 에봇과 흉패는 무엇인가? (7절)

- A (1) 에봇은 제사장이 흉패 밑에 바쳐 입을 일층의 앞치마 또는 조끼와 같은 것인데 하나는 가슴을 다른 하나는 등을 덮는 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참조, 28장).
- (2) 그리고 흉패는 일명 ‘판결 흉패’ (28:15)라고도 하는데 장방형의 세마포를 2겹으로 짜서 만든 주머니로서 표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넣어져 있다(28:15-30). 이 흉패는 에봇 위에 맨다.

#### 6. Q 성소에 대하여 설명하라(8절).

- A (1) ‘성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다쉬>인데 이는 ‘거룩’이라는 말인 <코데쉬>에서 유래되었다.
- (2)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의미한다.
- (3) 그런데 이 ‘성소’라는 말이 26:36에서는 ‘성막’으로, 29:42에서는 ‘회막’으로 그리고 민 17:7에서는 ‘증거의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다(참조, Q11).
- (4) 한편 무소 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께선 사실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선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고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참조, 40:34, 35, 38).

#### 7. Q 법체에 대하여 말하라(10-22절).

- A (1) 법체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속에는 언약의 돌비가 보관되어 있다(40:20).
- (2) 그것은 길이 2규빗 반(114cm), 폭 1규빗 반(68.4cm), 높이 1규빗 반(68.4cm)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서 대략 45.6cm가 된다.
- (3) 이 법체의 밖은 모두 황금으로 싸여 있으며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테가 둘러져 있다.
- (4) 또한 금고리 넷이 네 귀퉁이에 달려 있어서 그곳에 채를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채는 언제라도 빠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채란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기를 말한다.
- (5) 그리고 그 뚜껑 부분은 속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죄소’란 히브리어로 <캄포텐>이

며 이 말은 <카파르>에서 유래했다. <카파르>는 ‘덮는다’,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궤 뚜껑 곧 속죄소는 ‘화해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었다.

(6) 한편 그 뚜껑에는 그룹들이 마주 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8. **㉠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부속물을 지으라고 명하신 사실이 주는 교훈에 관해 기술하라(10-22절).**

- ㉠** (1) 성막과 거기에 속한 부속물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지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성막을 지으셨다.
- (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머무르심으로써 그의 백성들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백성의 필요에 응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과 함께 거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전의 원형이라고 지적하시면서(마 12:6; 요 2:19-22) 그의 사랑을 몸소 보이셨다.
- (4) 이처럼 구약 시대에 성막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 신약 시대에 성육신(成肉身)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 주신 그 사랑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내재(內在)를 경험하며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참조, 행 10:44-46).

9. **㉠ 속죄소와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을 약술하라(17-22절).**

- ㉠** (1)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상징한다. 그것이 율법이 적힌 돌판을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다(참조, 시 32:1; 롬 4:7).
- (2) 그리고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뿌린 속죄의 피를 받아 들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레 16:1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들여 죄를 사하는 분이시다.
- (3) 또한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정금과 같이 귀중함을 암시한다.
- (4) 마지막으로 속죄소는 법궤 위에 놓여 있는데 법궤는 율법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율법과 공의를 초월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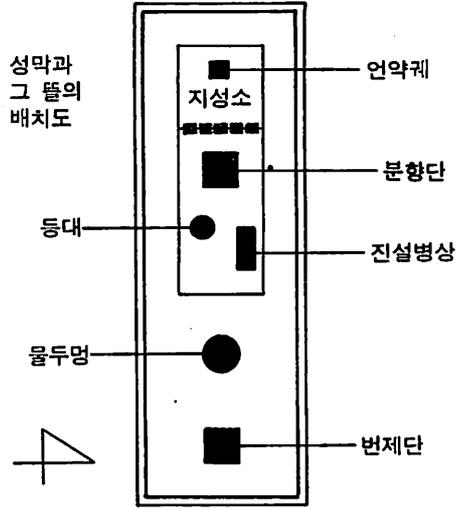
10. **㉠ 그룹이란 무엇인가? (18절)**

- ㉠** (1) 그룹(cherubim)이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존재 곧 일종의 천사이다(참조, 겔 1, 10장; 계 4:6-8).
- (2) 이 그룹의 모양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날개를 갖고 있으며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한편 여기서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마주 대한 채 속죄소를 향하여 비스듬히 숙여 있는 것은 곧 그룹들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22절).

11. **㉠ 성막(聖幕)에 대하여 말하라(22절).**

- ㉠** (1)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성소(聖所)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이다.

- (2) 이곳에는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광야 기간 동안 존속하다가 훗날 슬로몬의 성전으로 대치되었다.
- (3) 한편 성막은 '회막' (會幕, 31:7;33:8), '장막' (帳幕, 36:37), 또는 '증거막' (38:21) 등으로도 불리웠다.
- (4) 회막이란 이름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붙여졌다. 사실상 회막의 뜻은 계시막, 내소막 (內所幕), 증거막이라 할 수 있다.
- (5) 그리고 장막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와 장막', '여호와와의 집' (왕상 2:28 이하), '하나님의 집' 등으로 나온다.



12. **㉠ 상(床) 곧 떡상의 규격과 재료 등에 관하여 설명하라 (23-28 절).**

- ㉠** (1) 떡상, 즉 진설병 상의 규격은 길이 2규빗(90cm), 폭 1규빗(45cm), 높이 1규빗 반(67.5cm)이다. 이 크기는 법궤의 크기보다 약간 작은 셈이다.
- (2) 재료는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을 사용했으며 네 다리가 달린 넓적한 판 모양을 이루고 있다.
- (3) 그리고 그 겉은 금으로 싸여 있고 금테가 둘러져 있으며 4개의 고리가 있어서 그곳에 채를 걸어 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3. **㉠ 진설병(陳說餅)이란 무엇인가? (30절)**

- ㉠** (1)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인데 '면전(面前)에 놓인 떡'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다.
- (2) 진설병은 떡상 위에 항상 12개씩 진열되어 있었고 매일 새 것으로 교환되곤 하였다(레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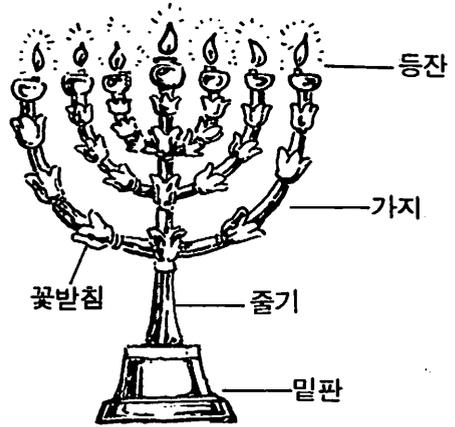
14. **㉠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30절)**

- ㉠** (1)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을 땅, 즉 가나안 땅에서 거두게 될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바치는 자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다.
- (3) 한편 그 당시 떡은 이스라엘인들의 일용 양식이었으니 이로써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 (4)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곧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사람들에게 내어 줌으로써 그를 취하는 자마다 영적 죽음을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요 6:35).
- (5) 그러므로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5. **㉠ 등대(燈臺)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라 (31-41절).**

- ㉠** (1) 성경에 묘사된 등대의 모양은 이해하기가 애매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모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추측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래 그림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2) 여기서 '밑판'(base)은 등대를 바로 서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줄기'(shaft)는 밑판으로부터 가운데 등잔까지 이르고 그 가운데 가지(branch)가 각각 3개씩 좌우로 뻗

어나 있다. 또 그 사이에는 잔 4개와 꽃받침 4개, 꽃 4개가 부착되어 있다. ‘잔’ (bowl)은 각 가지에 3개씩 그리고 줄기에 4개를 만듬으로써 모두 22개가 된다. 이것은 살구꽃 (almond)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꽃받침’ (knob)은 잔을 지탱하는 것으로서 각 잔 밑에 달려 있는데 전체 22개이다. ‘꽃’ (flower)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잔을 장식하는 것으로서 22개가 있다. 또한 등잔 (lamp)은 각 가지 끝에 줄기 끝에 달려 있으며 모두 7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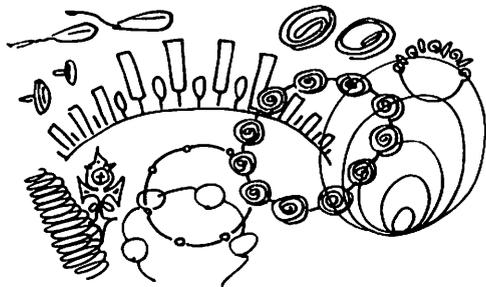
- (3) 한편 살구꽃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케트>인데 ‘깨우는 자’, ‘지키는 자’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살구꽃은 각성(覺醒)과 보호, 희망의 상징이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감, 복숭아’로 그리고 개역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파단행’ (바르 참)으로 번역되어 있다(창 43:11).

16. **㉠** 본절에 나와 있는 등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31-39절)

- ㉠** (1) 등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한 것이다.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 성소 안을 비추었고 밤에는 이 등대에서 빛을 발해 성소를 비추었으니(27:21) 곧 성소는 밤낮으로 환하게 밝았다.
- (2) 여기서 우리는 어둠이 아무리 두텁고 깊어도 등대에서 빛나고 있는 불을 가리울 수 없듯이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3)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것은 곧 그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요 12:46).
- (4) 그리고 등대 위에 놓아 두는 등잔 일곱은 ‘보좌 앞의 일곱 등불’ (계 4:5)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한편 39절의 ‘정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중량으로 환산하면 약 34kg에 해당한다.

본장의 요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3절).



## 제 26 장 성막의 양식

단락구분 1-6 성막의 제 1양장(仰帳) 제조법 / 7-13 성막의 제 2양장 제조법 / 14 덮개와 옷덮개의 양식 / 15-25 성막 본체를 위한 널판과 은받침 / 26-30 조각목 띠 / 31-37 지성소 휘장과 성막 휘장의 제조

1 너는 성막을 만드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곧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지니

2 매 폭의 장은 이십 팔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3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4 그 양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5 양장 말폭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양장 말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6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7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드되 열 한 폭을 만들지며

8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열 한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9 그 양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10 양장을 연락할 말폭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11 놋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12 그 막 곧 양장의 나머지 그 반 폭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13 막 곧 양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14 붉은 물 드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당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15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6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으로 하고

17 각 판에 두 측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8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드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펀을 만들고

19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측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측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20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펀로 하고

21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22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23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24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25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26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27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28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29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30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31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곧 베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32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지며

33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드리운 후에 증거 케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34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케 위에 속죄소를 두고

35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36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곧 베실과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

37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같고리도 금으로 만들

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聖幕) 본체의 모형에 대하여 계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제일 처음에는 성막 내부에 치는 제 1양장(1-6절)과 염소털로 만드는 제 2양장의 제작 및 그것의 연결에 관한 지시(7-13절) 사항이 나와 있다.
- (3) 그리고 성막의 덮개와 함께 성막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막대로 된 띠, 널판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주어진다(14-30절).
- (4) 끝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 출입문의 휘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31-37절).

2. **㉠ 성막이란 어떤 곳인가? (1절)**

- ㉠** (1) '성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쉬칸>으로서 '거처'(居處)를 뜻한다. 그런데 <미쉬칸>이라는 말은 '거주하다'라는 뜻을 지닌 <쉬칸>에서 유래된 단어로 '목자들의 막사', '짐승의 우리' 또는 '무덤'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2) 그러나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장소'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 (3)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으로서(참조, 행7:38)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그분을 경외하던 장소이다(참조, 40:34).

3. **㉠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임재하시는 곳을 천막으로 지으라고 하셨는가? (1절)**

- ㉠** (1)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행군하는 도중이었으므로 한 곳에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장막과 유사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2) 이러한 성막은 그때로부터 480년이 지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왕상6:1)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로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통하여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을 보여주셨다.
- (3) 즉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계셨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표증(表證)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번영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정착하거나 방황하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는 말씀(사43:2)은 성도에게 큰 힘을 준다.
- (4) 또한 성막 제도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 상태임을 보여 준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객(過客)이므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참조, 히11:13-16).

4. **㉠ 양장(仰帳)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양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리아>로서 성막 본체를 덮는 제일 안쪽의 휘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본래 '양장'은 한자로서 천장이나 상여 위에 치는 휘장을 의미한다.
- (2) 16-30절과 비교하여 보면 알겠지만 성막 본체는 남쪽, 북쪽 그리고 서쪽 벽은 있었지만 동쪽 입구는 성막 휘장으로 되어 있었고 천장은 1-6절에 언급되고 있는 양장을 포함하여 4점의 피륙으로 덮여 있었다.
- (3)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양장은 길이 28규빗(12.76m), 넓이 4규빗(1.82m)인 포목 10폭

에 그룹 모양을 수놓아 만들어졌다.

(4) 한편 본장에서는 1-6절에 나와 있는 이 양장을 편의상 제 1양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5. **㉠ 성막 내부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제 1양장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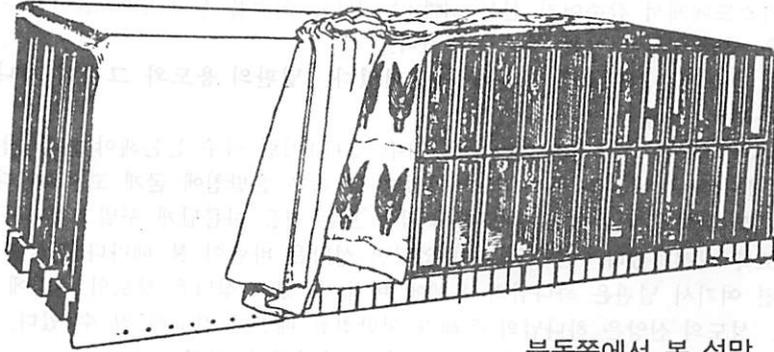
- ㉠** (1) 성막의 지붕은 4겹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양장은 성막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양장(仰帳)이다. 이것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하늘의 천사인 그룹들의 모양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다.
- (2) 성막 내부의 아름다움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자들만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불품없이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우중충한 가죽 덮개만 볼 수 있었다.
- (3) 이것은 영적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그 내부에 있는 자들만이 바로 알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단지 이론적인 관찰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려고 하는 자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해달의 가죽과 같이 불품 없는 인간적인 조직으로만 보일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참된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요6:68) 라고 고백하였듯이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6. **㉠ 성소 안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제 1양장의 세부 모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기술하라 (1-6절).**

- ㉠** (1) 성막의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제 1양장은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색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2) 청색의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나신 분' (고전 15:47) 혹은 영광의 주' (고전 2:8)라고 부른다. 그분은 땅 위에 계셨을지라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다(요 3:31). 즉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永生)에 참여할 수 있다.
- (3) 자색(purple, 진홍색) 옷감은 비싼 것이기 때문에 왕이나 부자만이 입고 다녔다.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은 궁정 의복으로 묘사되어 있다(삿8:26). 이와 같은 자색은 전우주적 혹은 전세계적인 부요(富饒)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는 만주(萬主)의 주(主)요, 만왕(萬王)의 왕이신 것이다.
- (4) 또한 마태복음에는 홍포(紅袍)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마 27:28).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홍색의 염료는 진홍 색깔을 띤 작은 곤충에서 얻어졌는데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 죽었는지 능히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색은 희생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뿌린 피 역시 붉은 색이다.
- (5) 가늘게 꼰 베실은 흰 색깔이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정결과 의(義) 그리고 순결을 상징한다. 제 1양장에 나타난 흰색에서 우리는 성부(聖父)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보아야 한다.
- (6) 또한 제 1양장에 수놓아진 그룹들은 성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머리 위를 덮고 있다. 그룹들은 제사장들의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지켜 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선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이니 하나님께선 이러한 인간의 생활을 항상 지켜보시는 것이다.

7. **㉠ 성막의 모형은 어떠한가? (1-14절)**

- ㉠** (1) 성막의 모형을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동쪽에서 본 성막

8. **㉠** 본절에 나오는 양장 곧 제 2양장에 대하여 설명하라 (7-13절).

- ㉠** (1) 제 2양장은 제 1양장과는 달리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천막의 재료로 사용하였던 염소 털로 만들어졌다.
- (2) 이것은 모두 11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폭의 넓이는 제 1양장과 같으나 길이는 2꺼빗이 늘어나 30꺼빗(13.68m)이었다.
- (3) 이처럼 이 제 2양장은 제 1양장보다 더 큰데 값비싼 첫번째 양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9. **㉠** 제 2양장을 염소 털로 만든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7-13절)

- ㉠** (1) 성막의 내부는 4가지 색으로 그룹을 수놓은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그 위에 덮혀진 제 2양장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성도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朽敗)하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참조, 고후4:16).
- (2) 또한 성경에는 염소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참조, 레 16장).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의식적(儀式的)인 정결한 동물로서 간주되었다(레 1:10). 속죄일(贖罪日)에 제사장은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제단에 피를 뿌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했으나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전가(轉嫁)시켜 사막으로 내쫓았다(참조, 레 16장).
- (3) 제단에 바쳐지는 염소는 친히 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사막으로 쫓김을 당한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외로운 삶을 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豫示)한다(참조, 눅9:57, 58; 요 19:30, 34).
- (4) 이처럼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효력있게 하신다. 즉 염소 털 양장이 제 1양장 위에 덮히어 외부의 습기를 막아 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 역사(役事)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정죄(定罪)로 손상 당하는 것을 막아 주신다.

10. **㉠** 성막의 웃덧개를 이루는 해달(海獺) 가죽이 주는 교훈을 기술하라 (14절).

- ㉠** (1) 해달의 가죽은 우중충하며 약간 붉으스레한 회색으로서 미적(美的)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은 비와 폭풍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성막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었다.
-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보여 준다. 중생(重生)하지 못한 자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신성(神性)을 발견하지 못한다.
- (3)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의 겉 모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風彩)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欽慕)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4) 그런데 증생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겉모양만을 보는 반면에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감추어진 신성(神性)을 본다. 이것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아름다운 성막 내부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

11. **㉠ 성막의 건축에는 48개의 널판이 사용되었다. 널판의 용도와 그것이 지니는 영적 교훈에 관하여 말해 보라 (16-30절).**

- ㉠** (1) 널판은 성막을 지탱하는 것으로서 지주(支柱)처럼 아주 튼튼해야 했다(참조, 사54:2). 이 널판에는 측이 두 개씩 달려 있었고 그 측은 은받침에 굳게 고정되었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밀 것은 물론 튼튼하게 하도록 배려하셨다. 만약 널판이 없다면 성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것이다.  
 (3) 한편 여기서 널판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길 수 있고 성막은 성도의 신앙에 견줄 수 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될 때만이 견고해 질 수 있다.

12. **㉠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관하여 설명하라 (33절).**

- ㉠**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그 이유는 아무나 지성소에 출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2)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밝혀 준다(히9:8,9). 즉 의식적인 율법은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은 둘로 찢겨졌다(마27:51). 이것은 그리스도의 찢긴 육체를 통하여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즉 이로써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가해지던 제한의 상징이었던 휘장이 제거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공개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3. **㉠ 성막의 휘장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36, 37절)**

- ㉠** (1) 성막의 휘장은 단순한 천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거하시는 거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지상 교회(地上教會)가 언뜻 보기에는 약하고 무방비적인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 주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참조, 마 16:18).  
 (3)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막이든 오늘날의 교회가든 간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의 진리는 영존(永存)되고 있는 것이다(참조, 딤후 3:15).

본장의 요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34, 35절).

## 제 27 장 번제단과 성막 뜰의 모형

단락구분 1-8 번제단의 모형과 규격 / 9-19 성막의 뜰 / 20-21 성막의 등유와 등불의 관리에 대한 규정

1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 규빗, 광이 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 규빗으로 하고

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낫으로 싹지며

3 채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아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읊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낫으로 만들지며

4 단을 위하여 낫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낫고리 넷을 만들고

5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6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낫으로 싹지며

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메게 할지며

8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낫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1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낫

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14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 오 규빗이며 그 기둥도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5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 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17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낫이며

18 뜰의 장은 백 규빗이요 광은 오십 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오 규빗이요 그 받침은 낫이며

19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낫으로 할지니라

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찼어 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대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접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주된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번제를 위한 낫 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성막을 밝힐 등불에 관한 모형 및 여러 가지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2) 낫 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거나 예물을 드리는 장소이며 (참조, 레 1-3장) 성막 뜰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이다(참조, 눅 1:8-10).

(3) 그런데 1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제단이 성막 뜰의 맨 앞쪽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성막 뜰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딪치는 것이 이 번제단인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불에 태우듯이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하니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요일 1:9).

2. **㉠** 제단, 즉 번제단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라(1-8절).

- ㉠** (1) 번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이 5규빗(2.28m), 높이가 3규빗(1.37m)인 네모 반듯한 기구이다.  
 (2) 그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겉은 놋으로 둘러쌌으며 네 모퉁이에 뿔(horn)을 만들어 붙였다.  
 (3) 그리고 놋으로 그물 곧 철망을 만들어 제단의 절반 지점, 즉 제단의 상하(上下)로부터 1.5규빗(68.4cm) 지점에 부착하였다.  
 (4) 한편 제단을 운반할 때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 즉 채(pole)를 제단 양편 고리에 꿰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다.

3. **㉠** 번제단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부속 기구들이 놋으로 만들어진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성경에서 놋은 흔히 하나님의 공의(公義)와 심판을 상징한다(참조, 민 21:9; 요 3:14). 계 1:15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심판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피의 희생을 흘리는 곳이었다(레 17:11).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공의가 짐승의 피흘림으로 이루어 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寶血)로 단번에 성취되었다(히 9:12).  
 (3) 따라서 우리는 번제단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성소와 지성소에는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이나 그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듯이(참조, 히 9:25)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4. **㉠**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 있는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절)

- ㉠** (1) 뿔이 달린 제단은 이방인들의 제사 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스라엘 특유의 양식으로 이 뿔은 희생 제물을 묶는데 사용된 듯하다(시 118:27).  
 (2) 그런데 왕상 1:50을 볼 것 같으면 비록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성전으로 도피하여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도움의 상징이면서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권세의 상징이라 하겠다.  
 (4) 그러기에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칭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했으며(시 18:2; 112:9) 세례 요한이 탄생한 후 사가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고 찬양했던 것이다(눅 1:69).

5. **㉠**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읍기는 그릇이 갖는 용도와 영적 의미를 밝히라(3절).

- ㉠** (1) 이러한 모든 기구는 번제단에서 제사드리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의미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公義)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히 9:22).  
 (2) 여기서 ‘재’는 제단에서 타고 남은 찌꺼기로서 모든 성도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처럼 소멸되는 것을 상징한다.  
 (3) 그리고 ‘부삽’(shovel)은 번제단으로부터 떨어진 재를 통에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대야(basin)는 단에서 흘러 내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받는 그릇인데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  
 (4) 또한 고기 갈고리(fleshhook)는 ‘세 살 갈고리’와 동일한 듯한데(참조, 삼상 2:13) 잘려진 고기를 단 위에 끌고루 퍼는 작업에 쓰였던 것 같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의미한다.

6. **㉠** 그물과 채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라(4-8절).

**㉠** (1) 그물은 낚으로 만들어졌으며 번제단의 중간 지점에 부착되었다.

(2) 번제단은 아래 위가 뚫렸는데 그 사이에 그물이 걸쳐 있어서 제물을 올려 놓고 태우기에 쉽게 끄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물은 불을 더 잘 타게 하며 재가 아래로 떨어지기 쉬운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낚이 덮여 있어 제단 양편의 고리에 꿰어서 제단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다.

7. **㉠** 성막 뜰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라(9-19절).

**㉠** (1) 뜰의 남편과 북편에는 넓이 100규빗(45.6m)이 되는 세마포 막이 서편에는 넓이 50규빗이 되는 막이 쳐져 있다.

(2) 그리고 성막의 출입구가 있는 동편에는 20규빗이 되는 문 좌우에 각각 15규빗이 되는 세마포 막이 쳐져 있다.

(3) 따라서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는 세마포 막 안쪽 곧 뜰의 면적은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이 되는 것이다.

8. **㉠** 성막 뜰의 모형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기술하라(9-19절).

**㉠** (1) 성막의 뜰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 뜰에는 바깥 세상과는 구별되는 구획(區劃)이 지워져 있다. 이곳의 여러 개의 받침 기둥으로 이루어진 울타리는 교회의 견고성을 의미하며 세마포장을 드리운 것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상징한다(계 19:8).

(2)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은 인간 자신의 의(義)도 또한 율법의 의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진리의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의에 이르게 된다(참조, 요 14:6; 행 4:12; 히 7:25).

(3) 한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전 3:15)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과 성막의 뜰을 이루는 포장과 병행시켜 이해하면 성막의 기둥은 진리의 기둥이며 그 기둥 받침은 진리의 터, 즉 진리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한다.

(4) 그리고 그곳에는 성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하여 문이 만들어졌다. 이 문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규이며 척도이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다(요 10:9). 또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다. 따라서 문을 통하여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그리스도계선 그의 구속 사역의 공로에 의하여 택한 백성을(히 3:1) 사죄의 문, 구원의 문, 의와 천국의 문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9. **㉠** 성막을 만드는 데는 여러 재료들과 부품들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성막을 이룬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9절)

**㉠** (1) 성막에는 금으로 만든 것과 은으로 만든 것 혹은 낚으로 만든 것 등 여러 종류의 기구들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은 성막의 적재 적소(的的所)에 배치되었으며 독특한 기능을 지녔다.

(2)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게 하셨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어떤 것도 경멸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만유(萬有)를 선대하시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사 145:9)라는 말씀이 있다. 즉 모든 것은 각각 그 나름대로 적합하고 온당하게 쓰일 자리가 있으며 모든 것이 하

나눔 세계에는 필요한 것이다.

- (4) 땅 위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교회에서 감당하여야 할 책임도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서로간에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롬 12:5).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여야 한다(롬 12:3).
- (5)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며 직책이 다른 성도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한다(롬 12:6-11).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이며 구약의 성막 및 자연 현상을 통하여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10. **㉠**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교훈을 기술하라(20절).

- ㉠** (1) 아무리 훌륭한 등대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불을 밝힐 기름이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 그 당시 불을 켜고 관리할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었으나 그것에 필요한 기름을 조달(調達)하는 것은 백성들의 책임이었다.
- (2)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와 유사하다. 교회 구성원 각자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 사명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이나 그들이 감당하는 책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3) 교회의 사명은 빛의 사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참조, 마 5:14-16). 이 빛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등대의 관리자와 같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할 것이나 그외의 사람들은 순결한 기름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 한편 본절에서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다’는 말은 밤낮으로 계속 켜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 밤 규칙적으로 등불을 켜는 뜻이다.

11. **㉠** 감람유는 어떠한 기름인가? (20절)

- ㉠** (1) 이 기름은 감람나무(olive)의 약간 덜 익은 열매를 착유기(搾油機)에 넣어 짜지 아니하고 절구에 넣고 찼어 만든 것이다.
- (2) 이처럼 찼어 만든 기름은 감람나무에 섞인 모든 것을 착유기로 짰 기름에 비하여 감람 열매의 가장 좋은 부분만 손으로 짜낸 것이므로 고급일 수밖에 없다.
- (3) 이 감람유는 깨끗하고 무색이며 연기가 나지 않고 밝은 빛을 낸다.
- (4) 한편 이러한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뿐 아니라 식용(食用), 의약품, 제사용, 제사장·선지자·왕에 대한 기름 부음용으로도 사용되었다(참조, 레 2:4; 민 11:8; 사 1:6; 61:1).

본장의 요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찼어 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  
 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20절).

## 제 28 장 제사장의 거룩한 옷

단락구분 1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 2-5 제사장 의복의 제작과 그 재료에 관한 지시 / 6-14 에봇 / 15-30 흉패, 우림과 둠뿔 / 31-35 에봇 받침 걸옷 / 36-39 반포, 속옷, 금패, 관 / 40-43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한 베로 된 고의(袴衣)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걸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5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니라

6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7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8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짚지며

9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11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13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14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땅고 그 땅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15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16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18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19 세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20 네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매 보석에 열 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22 정금으로 노끈처럼 땅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23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24 땅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25 다 땅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매

26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27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뒷편에 달고

28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 너는 우림과 둠뿔을 판결 흉패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들지니라

31 너는 에봇 받침 걸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2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감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33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 놓고 금방울을 간직하여 달되

34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5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7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38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39 너는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고의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1. ㉠ 본장과 앞·뒷장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25-27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 및 그 제반 시설물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본장과 29장은 그곳에서의 주요 업무를 담당할 제사장의 복장과 위임식에 관한 규례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2) 특히 본장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복장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의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에 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3) 한편 인간의 의복은 개인의 인품, 신분, 지위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중보자로서의 직책을 맡은 제사장에게는 의복에 관한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례가 주어졌다.

2. ㉡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4:24) 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복잡한 규례를 제시하셨는가? (2-42절)

- ㉡ (1)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거룩하여야 했기 때문이다(벧전 1:15). 죄를 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제사장에게는 거룩하다는 표로서 특별한 복장이 필요하였다.  
 (2) 이러한 복장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시청각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사장을 대하는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의 복장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오늘날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 실물 교육(實物教育)과 시청각 교재의 도입은 교육의 효과를 배가(倍加)시키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과 제사장 복장이 종교 교육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3. ㉢ 하나님께서 지혜있는 자로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교훈을 기술하라(3절).

- ㉢ (1) 본절에는 ‘지혜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것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롬 11:33),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단 2:20, 21).  
 (2)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혜있는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신다.  
 (3)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잠 2:3, 4).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의 일을 경영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主)로 알며 그분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욘 28:28).  
 (4)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

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벽(偏僻)과 거짓이 없게 된다(약3:17).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

(5)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약1:5).

4. **㉠ 흉패와 에봇과 겹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과 띠에 대하여 설명하라(4절).**

**㉠** (1) 흉패: 대제사장의 가슴 곧 에봇 앞쪽 상단에 다는 주머니로서 가로, 세로 한 뼘(22.8cm)이 되는 네모 반듯한 판이다(16절). 그 재료는 세마포이며 표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도록 되어 있었고 또 그 안에 우림과 들땀을 넣었다(참조, 25장 ㉠ 5).

(2) 에봇: 이것은 제사장이 흉패 밑에 입는 것으로서 하나는 가슴을, 다른 하나는 등을 덮는 2개의 조각으로 된 일종의 조끼인데 어깨 부분의 이음새와 허리 부분의 띠로써 서로 연결하게 되어 있다.

(3) 겹옷: 에봇 밑에 받침으로 입는 옷으로서 공동 번역에는 '도포'로 나와 있다.

(4) 반포 속옷: 국어 사전에 의하면 반포 속옷이란 뜻은 '반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무명 속옷'이다(참조, 39절). 그러나 '반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쉬베츠>는 '바둑판 무늬의' 또는 '수놓은'이란 뜻이 있다. 그러므로 RSV와 Living Bible은 이를 '바둑판 무늬 옷'으로 그리고 KJV는 '수놓은 옷'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자수 속옷'으로 되어 있다.

(5) 관: 머리에 쓰는 일종의 사모(紗帽)인데 가늘게 꼰 베실로써 금관 모양으로 만든 흰색 관이다.

(6) 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옷 위에 매는 것(40절)이고 다른 하나는 에봇 위에 매는 것(28절)이다. 이 띠들은 둘 다 여러 색깔의 실로 아름답게 무늬를 놓아 엮어 짠 것이다.

5. **㉠ 본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색상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1) 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한다.

(2) 청색: 이것은 하늘과 동일한 색깔로서 곧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한다.

(3) 자색: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4)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한다.

(5) 베: 이것은 흰색을 띠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흰색은 순결을 의미한다.

6. **㉠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모양과 교회를 상호 비교하라(6-12절).**

**㉠** (1) 에봇의 모든 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즉 에봇의 두 견대(肩帶)는 서로 연하였으며(7절) 에봇 위에 매는 띠도 에봇에 공교히 붙어 있다(8절). 이처럼 에봇이 비록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하나의 단일성을 가지며 분리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고전 12:12; 엡 4:4).

(2) 또한 제사장의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 그리고 가늘게 꼰 베실 및 많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함과 그들이 소유한 은사가 각양 각색인 것과 유사하다(고전 12:8-11).

(3)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우며 완성된 에봇이 될 수 있듯이 교회의 구성원들도 스스로 역할에 충실하며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는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음,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참조, 고전 12:12-31).

7. **㉠ 성경에서 띠를 매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8절)**

**㉠** (1) 성경상에서 띠를 맨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떠한 일에

전심 전력하기 위하여 힘을 모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헌신과 봉사의 행위를 의미한다.

- (2) 첫번째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엡 6:14)고 권면하고 있다.
- (3) 두번째 의미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模本)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하여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띠셨다(요 13:4).
- (4)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자신의 온 힘을 모아 하나님께 봉사하며 수고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5) 또한 이러한 제사장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 그분은 '공의로 그 허리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 분' 이시다(사 11:5).

8. **㉠ 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휘장 그리고 문의 재료가 동일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 (1) 성막이 아름다움과 같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의복도 아름다웠다. 성막과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복장은 이와 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다.
-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써 가르치신 '왕의 아들을 위한 결혼 잔치의 교훈'과 유사하다(마 22:11-13). 그것은 곧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괴로움에 대한 것이다.
- (3) 스스로 천국을 가꾸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눅 17:20, 21).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마 12:28)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다.
- (4) 이런 자는 제사장 복장을 갖추지 않고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예복을 입지 않고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천국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9. **㉠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예복 두 건대에 붙인 의미는 무엇인가? (9-14절)**

- ㉠** (1) 호마노(carnelian)는 '홍옥수'라고도 하는데 겹겹으로 여러 빛깔의 줄이 진 보석이다. 이러한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은 곧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 (2) 그리고 이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예복 두 건대에 부착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니(참조, 신 33:12; 사 22:22) 이는 곧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또한 이러한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두 어깨에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로도 이해될 수 있다(참조, 사 9:6, 7).

10. **㉠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어서 흉패가 갖는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라(15-30절).**

- ㉠** (1) 흉패는 일명 '판결 흉패'로도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간의 중요 재판이나 결정 등을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뉘뉘'에 의하여 판결했기 때문이다(민 27:21).
- (2) 그리고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다. 여기서 흉패는 가슴에 위치하게 되니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달려 있는 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아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참조, 사 54:11-15).
- (3) 이처럼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혀 주시는

도구가 간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게 될 사실을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자못 중요한 것이다.

11. **㉠**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된 12보석에 대하여 설명하라 (17-21절).

- ㉠** (1) 흉패에는 세로 4줄, 가로 3줄씩 도합 12개의 보석이 질서 정연히 배열되어 있는데 이 12란 수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일체성을 상징한다.  
 (2) 이 보석들을 도식화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홍보석	ruby	황옥	topaz	현주	garnet
	빨강색		금 색		녹 색
석류석	emerald	남연석	sapphire	홍마노	diamond
	연녹색		청 색		연황색
호박	torquoise	백마노	agate	자사결	amethyst
	오렌지색		여러 가지 색		자 색
녹보석	beryl	홍마노	carnelian	벽화	jasper
	연두색		검정, 빨강, 흰색		빨강, 노랑, 갈색

12. **㉠** ‘고리’와 ‘뿔은 사슬’은 무엇에 사용되는 것인가? (22-28절)

- ㉠** (1) 이것들은 흉패를 예봇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2) 이런 고리와 사슬은 모두 금으로 제조되었는데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한다.  
 (3) 한편 흉패와 예봇 띠 사이는 청색 끈으로 연결되었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12지파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함을 뜻한다(참조, **㉠** 5).

13. **㉠** ‘우림’과 ‘뿔뿔’은 무엇인가? (30절)

- ㉠** (1)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일종의 제비(lot) 도구이다(참조, 레 8:8; 신 33:8; 삼상 28:6).  
 (2) 여기서 ‘우림’은 히브리어 <우르>의 복수형으로서 ‘빛들’이란 뜻이며 ‘뿔뿔’은 <뿔>의 복수형으로 ‘완전’이란 뜻이다.  
 (3) 그런데 이것들의 모양이나 재료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 다만 막대 모양의 제비였거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였으리라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14. **㉠** 겔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석류를 수놓으며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33-35절)

- ㉠** (1) 석류(pomegranate)의 원산지는 본래 인도지만 오늘날에는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2) 이 석류나무와 그 열매는 고대로부터 풍요와 신성(神性)을 상징하였으니 솔로몬의 성전 두 기둥에도 석류 열매가 새겨져 있었으며(왕상 7:18-20) 앗수르의 비문에도 조각되어 있다.  
 (3)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겔옷에 석류를 수놓는 이유는 이 석류가 하나님의 신성 곧 거룩성과 그의 말씀의 풍요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움 받았던 것이다.  
 (4) 그리고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성막 밖에서 방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을 연합시키기 위함이었다.  
 (5) 즉 방울 소리는 백성들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자신도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어 직무에 임할 수 있었으니 이로써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6) 왜냐하면 제사장 직무를 바로 행하지 못하는 자 곧 참된 제사의 정신을 망각한 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참조, 레 10:1, 2).

15. **㉠** 대제사장의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라고 새긴 패를 붙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6-38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이다.  
 (2) 그러므로 비록 대제사장이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그가 인정받고 있는 공적인 성결함으로 인해 그를 통해 바쳐지는 백성들의 불완전한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3) 그리고 이런 사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중보자(中保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참조, 히 9:11-15).
16. **㉠**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과 고의(袴衣)는 어떠한 것인가? (40-43절)
- ㉠** (1)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대제사장의 반포 속옷과 유사하다(참조, ㉠ 4).  
 (2) 그런데 여기서 '속옷'이라는 말의 히브리어(크토네트)는 속옷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입는 겉옷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KJV와 RSV는 이를 '코트'(coat)로 번역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속옷은 가는 베로 만든 일종의 두루마리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39절).  
 (4) 그리고 고의는 일종의 훌바지로서 엉덩이로부터 무릎 약간 위까지 내려오는 옷이다.  
 (5) 이것은 제사 의식을 집전할 때 제사장의 치부(恥部)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연구자료

우림과 둠뭉. 성경에 나타난 기록으로는 그것들의 모양이나 재료, 그것에 새겨진 기호나 상징도 명확하지 않다. 우림과 둠뭉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속에 두었으며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 사용하였다(30절). 그리고 이 흉패는 에봇에 달았기 때문에 에봇이 어떤 경우에는 우림과 둠뭉에 대한 동의어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우림과 둠뭉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그것들은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참조, 삼상 23:9-12; 30:7, 8).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날 경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응답 대신 대답을 안하시고 침묵하셨다(참조, 삼상 14:37; 28:6). 우림과 둠뭉은 국가적인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사용되기도 했지만(민 27:21)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도망다닐 때 사용하기도 했으며(삼상 23:10-13), 미가에게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에게 단 지파의 대표자 다섯 사람이 질문했을 때에도 사용되었다(삿 18:1-6, 14). 아물든 우림과 둠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존중한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배울 만한 점이다.

# 제 29 장 제사장 위임식 (委任式) 에 대한 규례

단락구분 1-3 위임식 제물의 준비 / 4-9 위임식을 위한 목욕 및 복장 착용, 기름 부음 / 10-14 위임식의 속죄제 / 15-18 위임식의 번제 / 19-28 위임식의 화목제 / 29-30 대제사장직의 전수 / 31-34 위임식 제물의 식사에 관한 규례 / 35-37 칠 일간의 위임식 기간 / 38-44 매일 드릴 정거 제사에 관한 규례

1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2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 오고

4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뻐 밧침 걸옷과 예뻐 입을 입고 흉패를 달고 예뻐에 공교히 짠 띠를 띠우고

6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7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8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10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11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2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13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겨뿔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14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라 이는 속죄제니라

15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위에 안수할지며

16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17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뜯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18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19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0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 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21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22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겨뿔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23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떠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24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25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26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27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회생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29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

임을 받을 것이며

30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칠 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31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32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꿩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33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34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들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35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칠 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36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케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 내가 칠 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38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 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39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0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십분 일과 짙은 기름 한의 사분 일을 더하고 또 전제로 또 도주의 한의 사분 일을 더할지며

41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42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되리니

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 ㉠ 본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 즉 제물의 준비, 목욕, 예복 착용, 기름 부음, 그리고 3가지 제사 등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 (2) 이처럼 25-28장에는 성소, 성소의 제반 기구,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지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나 본장에는 기구 제작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 (3) 한편 본장에 나오는 이러한 규례들은 레 8장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 ㉡ 제사장 위임식 중 2마리의 수양을 잡는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함과 아울러 자신의 성결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이러한 사실은 제사장이 직분을 위임받기 이전에 먼저 수양을 잡는 행위에서 잘 나타난다.
- (3) 즉 먼저 1마리의 수양을 잡아 피를 취하여 단 주위에 뿌리고 그 고기를 화제(火祭)로 여호와께 드리는 행위(15-18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리고 다른 1마리의 수양을 잡아서 제사장의 몸에 바르는 것(19-21절)은 제사장 자신의 성결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누구든간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자신의 성결, 그리고 피를 흘리는 고통과 몸을 불살라 드리는 회생을 각오해야만 한다(참조, 마25:35; 계2:10).

3. ㉢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을 위하여 준비할 제물은 어떤 것들인가? (1-3절)

- A** (1) 삶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다.
- (2) 여기서 수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며 수양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교병, 무교 과자, 무교전병은 소제(素祭)를 위한 것이다(참조, 레2장).
- (3) 그런데 성경상에서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니(참조, 고전5:6) 무교병은 곧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의미하게 된다(참조, 고전5:8).
- (4) 또한 '흠 없는 수양'이란 완전한 수양을 가리키니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참조, 말1:6-14).

4. **C** 기름을 무교 과자와 무교전병에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A** (1) 본절의 '기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멘>인데 이는 감람 열매로 만든 기름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 기름을 무교 과자나 무교전병에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그것에 기름을 붓던 족장 시대의 관습을 대신하는 것인 듯하다(참조, 창28:18;35:14).
- (3) 이처럼 제물이나 제단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며 또한 제사장과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레8:12;삼상10:1)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별(聖別), 성화(聖化)를 의미한다.
- (4) 한편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이나 무교 과자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경우 뿐만 아니라 화목제의 감사 예물로(레7:12), 소제물로(레2:4), 그리고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도(대상23:29) 사용되었다.

5. **C** 제사장 위임식의 세 단계를 설명하라(4-7절).

- A** (1) 첫째, 온 몸을 물로 씻는다. 이렇게 물로 씻는 예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인격이 새로와짐을 상징한다(계1:5;7:14).
- (2) 그리고 나서 예복을 입는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일반 제사장의 예복보다 겹옷, 예복, 흉패, 금패가 더하여 있는데 이는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상징한다(히7장).
- (3)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여기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스라엘 초기에는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으나(레16:32;21:10) 후대에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다(28:41;30:30;40:15).

6. **C** 제사장 위임식(委任式)의 법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일군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4-7절)

- A** (1) 먼저 물로 몸을 씻어 깨끗이 하듯이 회개하여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행실을 깨끗케 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마18:3)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일군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딤후3:9).
- (2) 그리고 하나님의 일군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일은 인간의 계획과 힘,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선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다(참조, 막9:14-29;행1:8).
- (3)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마5:16).
- (4)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군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

이 아니라' (갈 1:10)고 외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 관유 (灌油)란 무엇인가? (7절)**

- A** (1) 관유 (anointing oil)는 히브리어로 <쉐멘 하미쉬하>인데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기름을 가리킨다.
- (2) 30:23-25에 의하면 관유는 유질 몰약 500세겔, 육계 (肉桂)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 기름 1 힌 (hin, 약 3.67ℓ)을 섞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 (3) 그런데 이러한 재료를 단순히 혼합시키는 것만으로써 관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니 이에 는 정교한 기술과 지식으로 재료를 배합시키며 가공하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브사렐 (Bezalel)이 도맡아서 관유를 제조했던 것 같다 (참조, 37:29).

8. **㉠ 속죄제 (贖罪祭)에 관하여 설명하라 (14절).**

- A** (1) 속죄제 (sin offering)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이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 (2) 이러한 제사의 제물로는 수송아지, 암·수염소, 어린 양이 사용되었는데 (레4장) 범죄한 자의 신분 및 처지에 따라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
- (3) 즉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드렸으며 (레 4:3-21) 족장은 수염소를 (레 4:22-26),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의 암컷을 드리었다 (레 4:27-35).
- (4) 그런데 평민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자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대신하여 비둘기를, 그리고 극빈자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바쳤다 (레 5:7-13).

9. **㉠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생 제물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 15절)**

- A** (1) 모세의 율법에는 구약 시대의 희생 의식인 속죄제와 번제를 거행할 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희생 제물을 죽이기에 앞서 그 제물에 안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 레 1:4; 4:4; 민 8:12).
- (2) 이러한 행위는 곧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게 되는 것의 예표가 된다 (고후 5:21).

10. **㉠ 번제 (燔祭)와 화제 (火祭)에 관하여 설명하라 (18절).**

- A** (1) 번제 (burnt offering)는 속죄제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드리는 자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 (2) 번제의 제물로는 흠 없는 수소, 수염소, 수양, 그리고 비둘기가 있는데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이들 제물 중에서 자유로이 택하여 바쳤다 (레 1장).
- (3) 한편 이러한 번제에는 특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를 상번제 (常燔祭) 또는 화제 (fire offering)라고 한다 (38-42절; 민 28:1-4).

11. **㉠ 수양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옷에 바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0, 21절)**

- A** (1) 희생 제물의 피를 몸에 바르는 것은 자신의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 가운데서도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뜻한다.
- (3)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도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거룩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분을 맡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한다.

12. **㉠** 요제(搖祭)와 거제(擧祭)에 관하여 설명하라(24-28절).

- ㉠** (1) 요제(wave offering)란 말은 히브리어로 <트누파>인데 제물을 제단 쪽으로 높이 들었을 때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뜻한다(참조, 레 7:32-34).
- (2)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왜 이처럼 제물을 앞뒤로 흔들거나 위로 쳐드는지 그 이유에 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요제는 이 세상의 모든 곳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리고 거제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봉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한편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요제물과 거제물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되돌려졌다.

13. **㉠**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계속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35-37절)

- ㉠** (1) 제물의 준비, 세정식(洗淨式), 예복 착용, 각종 제사 및 화목 제물의 식사로 이어지는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된다.
- (2) 이것은 제사장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죄를 씻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을 기쁘게 먹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군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여기서 7이란 수자는 거룩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니 모든 백성들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이란 인간적인 종교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야만 했다.
- (4)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외형적 상징을 통해 내적 진리를 드러내는 구약 시대의 한 단면이다. 즉 이런 형식 뒤에는 진정한 내적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된 것이다.
- (5)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군된 우리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구약 시대보다 더욱 밝은 계시의 빛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행 1:8; 계 2:10).

14. **㉠** 전제(尊祭)와 소제(素祭)에 관하여 설명하라(40, 41절).

- ㉠** (1) 전제(drink offering)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것으로서 번제수에 병행되어졌다.
- (2) 그러나 전제의 절차와 이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 (3) 소제(meal offering)는 땅에서 얻은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도 전제와 같이 번제에 늘 수반되었다.
- (4) 이 소제의 예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소제물에는 반드시 기름과 소금을 첨가하여야 하였는데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민 18:19)을 상징한다.

본장의 요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3절).

# 제 30 장 분향단과 물두멍 및 관유와 향 제조법

단락구분 1-10 분향단의 구조와 제조법 / 11-16 생명의 속전(贖錢)에 관한 규제 / 17-21 물두멍의 구조와 제조법 / 22-33 관유(灌油) 제조법 / 34-38 향 제조법

1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2 장이 일 규빗, 광이 일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하고 고는 이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3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름지며

4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메는 채를 뿔 곳이며

5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6 그 단을 증거케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케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름지며

8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10 아론이 일 년 일 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 일 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은역이 없게하려 함이라

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이십 세 이상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셋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제니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23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유절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제 이백 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 오십 세겔과

24 제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취하여

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6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케에 바르고

27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28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29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31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32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3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35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 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 그 향 얼마를 곱게 짚어 내가 너와 만날 회

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말라

38 무릇 말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막 제사 제도의 계시 중 제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본장은 25-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 기구들에 대한 규정 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1-6절까지는 분향단의 제작 방법과 그것이 배치되는 지점이, 그리고 7-10절에는 관리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4) 그리고 17-21절에는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설치된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물두멍은 일종의 세수 대야인데 성경에는 그 모양 및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다만 등글게 생긴 욱탕(浴湯)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5) 그 외에도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전 규례(11-16절) 및 관유와 향 제조법에 관한 설명, 용도 등(22-38절)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2. ㉡ 분향단의 구조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라(1-10절).

- ㉡ (1) 그것은 가로, 세로 1규빗(약 45.6cm), 높이 2규빗(약 91.2cm)의 직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윗면의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상징한다.  
 (2) 그리고 상단 사면의 귀퉁이에는 뿔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영광과 구원을 의미한다.  
 (3) 또한 향단은 아래 바닥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정금으로 덮여 있는 바, 성경에서 금은 존귀를 뜻한다.  
 (4) 이러한 향단은 지성소 휘장의 바로 앞 곧 증거궤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항상 긴밀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을 끊임없이 피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중단됨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5) 그리고 향단의 뿔은 일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발라져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 성취됨을 의미한다.

### 3. ㉢ 분향단이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한 사실이 주는 영적 교훈을 기도와 연관시켜 기술하라(6절).

- ㉢ (1) 지성소, 특히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여야 할 바를 교훈하셨다(25:22).  
 (2) 또한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이 타오르는 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향취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분향단은 기도를 드리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처럼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것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분향단이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것과 유사하다.  
 (4) 정녕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 본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바로 곁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인가(참조, 마 5:6).

4. **㉠ 분향단이 조각목과 정금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와 연관지워 설명하여라** (1-6절).

- ㉠** (1) 조각목은 단단하고 강하며 정금(精金)의 정결한 것같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기도도 그러하다.
- (2) 즉 하나님께선 정직하며 신실하고 강건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런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다(참조, 잠 15:8).
- (3) 또한 정결한 기도는 순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단에 사용된 금은 모든 찌꺼기가 정제된 금이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도 찌꺼기가 쌓여 있으니 이러한 찌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활의 훈련과 용광로와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제거될 수 있다(참조, 살후 2:13).
- (4) 한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자로서 절대적으로 순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순결한 성도의 기도는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하나님께 흠향(歆饗)될 것이다.

5. **㉠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향불과 등불을 관리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7, 8절)

- ㉠** (1) 본절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며 해가 뜨면 등불을 끄고 심지를 다듬으며 기름을 보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되었던 사역은 아니었으니 일반 제사장들도 그들 고유의 업무로서 이 일을 수행하였다(27:21; 대하 13:10, 11).
- (3) 한편 성경상에서 '향'은 일반적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며(제 5:8)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시 119:105; 뱀후 1:19)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매일 저녁으로 등불을 켜는 것은 곧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살전 5:17)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6. **㉠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하도록 한 규례와 오늘날의 기도와 연관시켜 생각하라** (9절).

- ㉠** (1) 이 사실은 기도가 순수하여야 함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되 온전히 자신의 뜻을 좇는 기도를 바라고 계신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릇된 기도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기도는 대부분이 자기 일신상의 안일을 구하는 기복(祈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3)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혹자는 한국의 전통적 종교인 무교(巫敎)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기독교에까지 스며들었다고 주장한다.
- (4) 이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한국의 교회 가운데 기복적인 면을 강조하는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요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5)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주로 물질적인 혹은 입신 양명(立身揚名)에 대한 기도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지각한 일부 교직자들까지도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고 있음은 슬픈 일이다.
- (6)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지를 분명히 표명해야만 할 때다. 하나님을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화가 있을 것이니 분명 그의 영육(靈肉)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선 인간이 최종적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분이시지 결코 도구가 될 수 없으시다.
- (7)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기도는 신앙 생활의 바로미터(barometer)이다. 순수한 기도

를 할 수 있는 것은 곧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향을 살라 드리자.

7. **㉠**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贖錢)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 (11-16절).

- ㉠** (1) ‘속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펠>인데 ‘덮는다’는 뜻을 지닌 <카팔>에서 온 말이다.  
 (2) 그러므로 이 ‘속전’이란 말에는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분노를 예물로 무마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죄 자체가 가려지거나(시 32:1) 또는 씻겨져서(시 51:2)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속전 제도를 제정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 받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참조, 벰전 1:18, 19).  
 (4) 또한 이러한 속전 제도는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출애굽 사건을 근본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기도 하다.  
 (5) 한편 여기에 나오는 ‘세겔’(shekel)은 화폐 단위가 아닌 무게 단위이다. ‘성소의 세겔’과 ‘보통 세겔’과의 차이점은 확실치 않으나 ‘보통 세겔’의 단위량에 의하면 1세겔은 11.4g이며 1게라(gerah)는 0.57g이다.

8. **㉠**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5절)

- ㉠** (1)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인임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선인(善人) 혹은 악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이다(참조, 롬 3:10).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 따라서 비록 인간은 죄인일지라도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진다(참조, 롬 5:8).  
 (4)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 인간들도 공평하게 보답해야 한다. 아마도 이에 있어서 생명의 속전의 공평함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9. **㉠** 물두명의 용도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8-21절)

- ㉠** (1) 물두명(laver)은 놋으로 만든 일종의 세수 대야로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전에 손발을 씻기 위한 것이다.  
 (2) 맑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은 고대 종교에서 흔히 행하여지던 정결 의식이다. 더 우기 하나님의 성물(聖物)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제사장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보다더 필요하였을 것이다.  
 (3) 그런데 물두명에 대한 규례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준수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례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정결하여야 한다는 교훈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법이다.  
 (4) 물론 그것은 외형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참조, 마 15:1, 2, 11-20). 매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심령의 정결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나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물로써 손발을 씻는 것은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12:4-11).

## 10. ㉠ 관유(灌油)를 만드는 재료들에 관하여 설명하라(23, 2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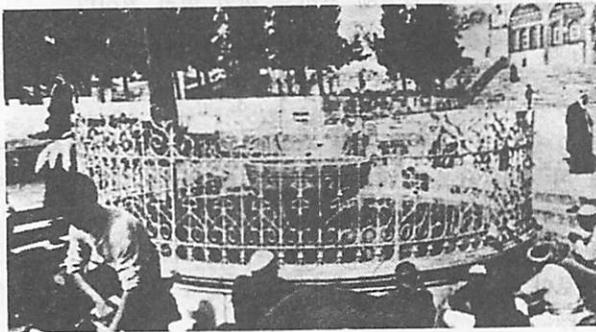
- ㉠ (1) 유질 몰약(流質沒藥) : 이것이 KJV에는 '순수한 몰약'(pure myrrh)으로, RSV에는 '액체 몰약'(liquid myrrh)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것을 '나무에서 나와 영긴 몰약'이라고 의역하였다. 이 유질 몰약은 몰약을 내는 감람과 나무의 껍질을 벗겨 거기서 흘러 나오는 수액(樹液)을 채취한 것인데 애굽에서는 방부제로, 페르시아에서는 향수로 사용되었다.
- (2) 육계(肉桂) : 이것은 당시 애굽과 팔레스틴에서는 희귀한 향품이었다. 이 육계(cinnamon)는 월계수와 같은 나무의 내, 외피(内外皮)에서 채취한 것으로 그리이스와 아라비아에서도 귀중하게 취급되었다.
- (3) 창포(菖蒲) : 공동 번역에는 '향초 줄거리'로 나와 있다. 인도로부터 수입된 방향제인 것 같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 (4) 계피(桂皮) : 계피(cassia)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방향제로서 달콤하고 은은한 맛이 있다.

## 11. ㉠ 본절에 나오는 4가지 향은 어떤 것들인가? (34절)

- ㉠ (1) 소합향(蘇合香) : 팔레스틴에서 자라는 어떤 나무의 분비액(分泌液)을 채취하여 만든 향인 듯하다.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때죽나무'로 번역되어 있다.
- (2) 나감향(驪奈香) : 홍해의 해안에서 모은 감각류의 껍질로부터 채취한 향으로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향 재료로 사용된다.
- (3) 풍자향(楓子香) : 이것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관목을 베어낼 때 나오는 수지(樹脂)로서 쓴 맛을 낸다.
- (4) 유향(乳香) : 감람과 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다.

화보자료

분천(噴泉). 아래의 사진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 뜰이었던 자리. 현재는 오마르 회교 사원 앞의 분천으로서 회교도들은 자신들의 사원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 분천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 깨끗게 한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었으니(18-21절) 이는 정결의 상징이었다(참조, 엡 5:26; 딤후 3:5).

# 제 31 장 성막 건축의 담당자와 안식일 규례

단락구분 1-11 성막 건축을 위하여 부름 받은 브사렐과 오홀리압 / 12-17 안식일 제도에 관한 규례 / 18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주시다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 3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 4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 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 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 8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 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 10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 11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 15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 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 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 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 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 1. ㉠ 본사에서 본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은 20장에서 일단 십계명을 받고 전백성과 함께 언약 체결의 제사를 지낸 모세가 여호수아를 산 중턱에 남겨 놓고 또다시 홀로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내면서 (24: 12-18)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 제사 제도에 대한 계시를 받는 부분이다.
- (2) 본장은 그 내용상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이미 앞서 제시되었던 성막 건축(25-27, 30장)을 직접 담당할 책임자들의 임명을 기록한 1-11절이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여러 율법을 중 안식일 준수를 강조한 12-17절이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비를 직접 써서 주셨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18절이다.

## 2. ㉠ 하나님께서 회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는가?(1-6절)

- ㉠ (1)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다. 하나님께서는 브사렐을 감동시키시어 그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으며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의 조력자로 주셨다.
- (2) 한편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양자(兩者)간의 깊은 인격적 유대 관계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본절에서의 '지혜'는 발명과 창조의 능력, 총명은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을 가리키며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그리고 재주는 이상의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 기술을 가리킨다(pulpit 주석).

3. **㉠ 하나님께서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군가를 부르신 후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범죄한 아담의 수치와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으며(창 3:9),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부르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다(창 6:13).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창 12:1), 모세(출 3:4), 여호수아(수 1:1), 사무엘(삼상 3:4) 등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자를 세우실 때 먼저 그 이름을 불러 주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뜻이다(사 43:1; 45:3, 4).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여 부르신 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롬 8:29, 30).
- (3)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신다는 말이다.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주심으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요 10:3, 4; 계 3:20).

4. **㉠ 오흐리압은 어떠한 자인가? (6절)**

- ㉠** (1) 오흐리압(Oholiab)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천막'이다. 그는 단 지파인 아히사막(A-hisamach)의 아들이다(35:34).
- (2) 여기서 단 지파는 야곱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사이에서 태어난 단(창 30:1-6)의 후예들인데 호전적이며 교활하기로 이름난 지파이다(참조, 창 49:16, 17; 신 33:22).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지파인 오흐리압을 택하여 성막 건축을 관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참조, 고전 1:26-29).

5. **㉠ 성막 건축을 위한 일꾼으로 세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神)이 충만하게 임한 의의를 말하라 (3-6절).**

- ㉠** (1) 그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술적인 재능을 미리부터 보유한 자들이었다.
- (2)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막을 건축하기에 부족했다. 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유(保有)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그러한 재능이 대부분 우상 제작에 악용(惡用)되었다.
- (3) 따라서 브사렐을 위시한 여러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神)이 충만하게 임한 것은 성막 건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必要不可缺)한 일이었다.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예술적 재능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힘입음으로써만이 비로소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었다.
- (4) 한 가지 비근한 예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실 때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실을 들 수 있다(마 26:56). 이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운 모습을 갖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가장 뛰어난 교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 동안에 걸쳐 말씀과 체험의 생생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며 배운 그 모든 교육 내용이 전혀 무용지물(無用之物)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행 1:8; 2:4).

(5) 이처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누가 칼을 쥐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고 권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독재와 부정 혹은 평화와 신뢰를 가져오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재능이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6.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가운데 언제나 '옛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귀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음미하여 보라(15절).**

**㉠** (1) 옛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자신이 해야 할 일거리를 남겨둔 채 안식일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2) 그러므로 옛새 동안 맘 흘려 수고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식일의 휴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

(3) 뿐만 아니라 옛새 동안 힘껏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제 7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자격도 없다. 최선을 다해 옛새 동안을 생활한 사람만이 안식일의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옛새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곧 안식을 갈망(渴望)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날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증진(增進)시켜 준다.

(4) 이상과 같은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 성수(主日聖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하루 동안 종교적 분위기에 젖는 것만으로, 심지어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생활을 영위(營爲)하지 않은 자는 결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7. **㉠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은 무엇인가? (12-17절)**

**㉠** (1) 첫 표징은 무지개이다(창 9:13). 이것은 물로써 인간을 심판하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는 언약의 표징이다.

(2) 둘째 표징은 할례이다(창 17:10, 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가 죄로부터 성결케 되는 것을 나타내 준다.

(3) 세째 표징은 본질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또한 그분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이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곧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4)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을 제정하셨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代贖)의 보혈을 통한 중생을 의미한다(마 26:26-28; 막 14:22-24; 요 3:5; 행 2:38; 고전 11:23-26).

8.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기록하신 증거판 둘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

**㉠** (1) 여기서 '증거판'이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뜻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24:12)의 성취이다.

(2) 이러한 돌판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한 것은 여자적(如字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손가락을 가지고 직접 기록하셨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기록하셨음을 의미한다.

(3)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참조, 신 28장).

(4) 한편 이와 같은 구약 시대의 계명 곧 율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근본적 성격, 즉 말씀을 받아들여 이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고 있다.

## 제 32 장 금송아지와 깨어진 두 돌비

단락구분 1-6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다 / 7-10 하나님의 진노 / 11-18 모세의 중보 기도 / 19-24 모세가 돌비를 깨뜨리다 / 25-29 레위 자손들이 심판을 대행하다 / 30-35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용서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담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오라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더라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

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7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20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증거에 찍히게 하였느뇨

22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 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31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우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우하리라

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1. ㉠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인들 신앙 형성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단절을 불러 일으킨 불행한 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을 위한 순조로운 과정을 거쳐 나왔다.
- (2)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장에 기록되었듯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순탄한 신앙의 여정에 썩기를 박은 것이다.
- (3) 그리하여 이 사건의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 약 40년간 끊임없는 타락과 죄악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었다.

2. ㉠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 (1)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40일을 머물렀는데 성경에 나타난 40이란 수는 시험과 연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 (2)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백성들의 요구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할 ... 우리를 위하여'라고 한 그들의 말 가운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양태(樣態)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3)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립적인 신앙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즉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지자 곧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 (4)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과 개인 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는 개개인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형성되는 것이다.

3. ㉠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아론의 응답은 어떠하였으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6절)

- ㉠ (1)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들을 수집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아론의 태도는 낙담한 백성들의 신앙을 고무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인간적인 알파한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행동이었다.
- (2) 그리하여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 이 송아지는 아마도 속은 나무로 되었고 곁에만 금이 입혀졌을 것이다. 사실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아피스(Apis) 신(神)을 모방한 것이었다.

- (3) 그러나 이 금송아지가 직접적으로 애굽의 신은 아니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적(可示的)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상이 곧 우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4) 이튿날 백성들은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함께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 (5) 한편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에 못이겨 어떤 가시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고착(固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길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잠 3:26).

4. **㉠ 금송아지를 만든 후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4-6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완성된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서 가슴스런 기쁨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로다' 라고 감탄을 발하였다.
- (2)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빠져들자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일(聖日)'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였다.
- (3) 그러나 이 같은 아론의 조치는 도리어 백성들의 우상 숭배심을 더욱 고무시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 (4) 즉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피스 신(참조, ㉠ 3)의 절기 때 행하던 풍습을 모방하여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크게 노래하고 또 춤을 추었다(19절).
- (5) 결국 백성들과 아론의 잘못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니 하나님께선 모세에게 '그러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시었다(10절).

5. **㉠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과 모세의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여 보아라 (7-14절).**

- ㉠** (1)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김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과 모세는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그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고 하였다.
- (2)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탄원하면서 여전히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역설하였다.
- (3) 이와 같은 상반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심각하여서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인데 반하여 모세는 비록 그들의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이다.

6. **㉠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백성'이라고 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7절)**

- ㉠** (1)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롬(Jerom, 331?-420)을 위시한 많은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破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 (2) 그러나 칼빈(Calvin, 1509-1564)은 이와 같은 견해를 반박하면서 본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슬퍼하도록 하려는 데에 뜻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반해 카일(Keil)은 이 2가지 견해를 다 반대하면서 본절은 단순히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언급되었다고 주장한다.

(4) 어쨌든 간에 본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7.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10절).

**㉠** (1)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다(삼상 15:29).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찌기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5:13-16;35:12).

(2)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해 카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보자적인 책임을 상기시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한편 이러한 시험에 대해 모세는 자신이 새로운 민족의 창시자가 되는 영광보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11-13절). 바로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참 지도자로서의 한 일면을 보게 된다.

8. **㉠**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한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음미하여 보아라(11-18절).

**㉠** (1) 모세의 기도는 너무도 간절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던 뜻을 변경시킬 정도로 그의 기도는 간절하였던 것이다.

(2) 그러면서도 그의 기도는 참으로 침착한 것이었다. 온 백성들이 진멸(殄滅)될 위급한 상황하에서도 모세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하게 자신이 간구할 바를 다 아뢰었다.

(3) 또한 모세의 기도는 상당히 논리 정연(論理整然)한 기도였다. 위기 의식에 사로 잡히거나 간절히 기도하는 열정에 빠져 핵심을 잃고 중언부언(重言復言)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논리를 가진 기도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무조건 눈감아 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빕니다’ 하는 식의 호소력 있는 기도였다.

(4)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오늘날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하에서도 성심과 진정을 다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본(模本)이 되어야 할 것이다.

9. **㉠** 시내 산을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취한 조치(措置)는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19-32절)

**㉠** (1)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19절).

(2)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하고 그 가루를 백성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20절).

(3) 책임자 아론을 문책하였다(21절).

(4) 선악을 구분하여 범죄의 주동자 3천 명을 처단하였다(26-28절).

(5)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30-32절).

(6) 이와 같은 모세의 조치(措置)는 먼저 추악한 범죄의 행위를 중단시키고(19, 20절)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을 규명(糾明)하여 책임을 묻고(21-24절) 그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가하고(25-29절) 맨 마지막에는 다시 그들을 위한 사죄(赦罪)의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끝내는(30-35절) 아주 적절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

10. **㉠** 모세가 돌판을 들어 깨뜨린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라(19절).

**㉠** (1) 모세의 이와 같은 격렬한 행동은 단순한 열기의 발로(發露)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들의 타락과 그 결과로 초래된 언약의 파기에 대해 견딜 수 없어 하는 신앙적 의분의 발로였다.

- (2) 여기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을 증거하고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약의 돌판’ 또는 ‘증거의 두 돌판’으로 불리웠던 것이다(31:18; 신 9:9).
- (3)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신 9:17)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무효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곧 새로운 돌판을 주심으로써 언약이 재개(再開)되었다는 점이다(34:1-10, 27-29).

11. **㉠**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이를 뿌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0절)

- ㉠** (1) 이는 곧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분쇄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 (2) 그런데 모세가 금송아지를 파괴할 때 먼저 불에 태운 것은 그것의 중심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고 그 겉 부분만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참조, ㉠ 3).
- (3) 아뭏든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언약의 파기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다.
- (4)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들이 지은 죄값을 그들 스스로가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12. **㉠** 아론이 모세의 문책을 받을 때에 모세에 대하여 ‘내 주여’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 한 태도에 관하여 설명하라(21-24절).

- ㉠** (1) 아론이 자신의 동생인 모세에게 〈아도니〉, 즉 ‘나의 주(主)’라고 부른 이유는 2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 (2)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직무 때문이며 둘째는 모세의 문책(問責)에 대해 아론이 자신의 죄책을 느끼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이것이 곧 아론의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에게 변명하기를 본래 심성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강요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자신은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을 뿐이며 그 결과 저절로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 (4) 하지만 아론의 이러한 변명은 너무나 구차스럽고도 우스꽝스러운 꾀변(詭辯)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하여 그 진노를 푸셨던 것이다(신 9:20).

13. **㉠** ‘백성이 방자하니’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5절)

- ㉠** (1)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인데 그 뜻은 ‘떠나게 하다’, ‘드러내다’, ‘벌거벗기다’ 이다.
- (2) 그러므로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KJV는 이 말을 ‘벌거벗다’(be naked)로, RSV는 ‘헤이해지다’(broken loose)로 번역하고 있다.
- (3) 그리고 NIV는 이를 ‘난폭하게 날뛰다’(be running wild)로, Living Bible은 ‘음란하게 행하다’, ‘간음하다’(had been committing adultery)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공동 번역은 이 귀절을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다’로 의역하고 있다.
- (4)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도(正道)를 벗어나 망령된 행동을 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4. **㉠** 모세가 진(陣)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한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6절)
- ㉠** (1) 이 말은 단순히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말이다.
- (2) 따라서 그때까지 자신의 죄악이 아무리 극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사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자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통회(痛悔)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시 51:17), 마음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시 34:18; 사 42:3; 57:15).
- (4) 따라서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는 것이다(사 1:18; 55:7).
- (5)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마 9:13; 딤후 1:15).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눅 15:7).
15. **㉠** ‘주의 기록한 책’은 무엇인가? (32절)
- ㉠** (1)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다(시 69:28; 단 12:1; 계 13:8; 17:8; 20:12; 21:27).
- (2) 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주민들이 이름을 시민 명부(名簿)에 기록하였던 고대 풍습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이 시민 명부에 의해 그 지방의 토착민 또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되었고 시민권의 특전이 보장되었다.
- (3) 이에 반해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시 69:28)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먼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장차 내세의 영생까지도 보장되어 있다(참조, 계 3:5).
16. **㉠** ‘내가 보울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울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4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겠다는 뜻이다.
- (2) 여기서 ‘보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이 말은 ‘방문하다’는 뜻이다.
- (3) 한편 공동 번역은 본절을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다.
- (4)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제셨다가 다음에 다시금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한꺼번에 징계하시겠다는 뜻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하에서 지은 죄는 비록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도말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6)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은 곧 ‘내가 저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회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 8:12)고 한 것이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다.

## 제 33 장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단락구분 1-3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 4-6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除)하다 / 7-8 진 밖에 세워진 회막 / 9-11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다 / 12-1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허락하시다 / 18-23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위한 모세의 기도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 너희로 젃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끈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4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끈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7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

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므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18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스니라

20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위에 섰으라

22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불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1. **㉠** 본장과 전장(前章)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장 전체는 32:34 곧 백성을 데리고 시내 산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 연결

되는 내용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앞서 보내시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동행을 허락하셨다.
- (3) 모세의 이 같은 끈질긴 기도는 아브라함의 끈기와도 비길 만하다(참조, 창 18:22,23).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눅 11:8). 이처럼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2. **㉠**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말과 같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결과는 어떠한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축복의 근원 그 자체이시다(참조, 민 16:22; 신 28:1-14).
- (2)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곧 영생을 보장받는 축복된 길인 반면에 그분과 동행치 않는 것은 영생의 소망과 미래의 희망이 없는 불행한 길인 것이다.
- (3) 따라서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쾌락과 명성, 각종 부귀 영화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 (4)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탐닉하면 할수록 그와 반비례하여 심적 허탈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것이니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 (5)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창 28:15)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 '황송한 말씀'이란 무슨 의미인가? (4절)

- ㉠** (1) '황송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다바르 하라>는 본래 '그 불길한 소식' 또는 '그 불행한 말'이라는 뜻이다.
- (2)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이 말을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으로, KJV와 RSV는 '악한 소식'(evil tidings)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NIV에는 이것이 '실망시키는 말씀'(distressing words)으로, Living Bible에는 '엄한 말씀'(stern words)으로 번역되어 있다.
- (3) 결국 이 말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은 허용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곳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진리를 담은 찬송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4. **㉠** 이스라엘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4-6절)

- ㉠** (1) 그들의 이전 죄 곧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32장)에 대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것은 저들 마음 속의 슬픔과 통회하는 심령을 겉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다.
- (2) 한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땅에 드러눕거나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행위 혹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행위 등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창 37:29; 삼하 1:11; 은 3:6-8).
- (3)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점차 형식에 치우쳐 진정한 마음의 통회가 없는 외식으로 흐르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지자 요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욘 2:3)라고 외쳤던 것이다.

5. ㉠ 회막(會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7절)

- ㉠ (1) '회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인데 이는 '회집(會集)의 장막',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표상으로 삼으시려고 모세에게 건축하라고 명하신 회막 곧 성막(26장)은 아니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임시적인 것이었다.
- (3) 따라서 여기서의 '회막'이란 말은 어느 특정한 천막 하나만을 가리킨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만남의 장소'라는 기능에 따라 붙여진 보통 명사로 볼 수 있다.
- (4) 그러나 이러한 천막도 하나님의 승인이 있을 때 비로소 회막으로 인정되었지 아무렇게나 세운다고 해서 곧 회막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6. ㉠ 급히 세워 누추한 임시 회막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내린 사건의 영적 교훈을 현대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라(9절).

- ㉠ (1) 물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사랑하신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처소 곧 여러 종교적 건물이나 장소를 아름답게 공들여 장식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경심을 보이는 것으로 매우 잘하는 일이다. 또한 예배 드릴 때에도 아름다운 찬송과 장엄한 의식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 (2)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성전 건축이나 교회 행사가 외부 치장에만 치우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참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건물을 짓는 자들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죄악을 범하기 쉽다. 이는 마치 옛날 동양의 세도가들이나 벼슬아치들이 자신들의 부모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없는 덕을 기리기 위하여 강제로 승덕비(崇德碑)를 세우게 한 것과 같다. 더우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덕질하는 것이다.
- (3) 여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화려하고 찬란한 성막이 지어지기 전 임시 회막에도 내렸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성전 건축과 교회 행사 등을 준비할 때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야 하나 분수에 맞게 그리고 천만 번 삼가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애써야만 할 것이다.

7. ㉠ 모세가 자신의 장막에 돌아간 뒤에도 임시 회막에 남아 봉사한 여호수아의 노력은 어떠한가? (11절)

- ㉠ (1) 그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였다.
- (2) 그는 또 모세의 후계자로서 밤을 낮 삼아 업무를 익혔다. 즉 그는 선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강훈련시켰던 것이다.
- (3) 성도들도 죄악이 판역한 이 세상에서 밤을 새우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대비했던 여호수아처럼 성실한 삶을 살며 봉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각자가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6:13).

8. ㉠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언뜻보면 본질의 말은 20절의 내용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듯하다.
- (2)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말은 원죄(原罪)로 인한 인간의 연약성을 지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뜻이다.
- (3)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20절; 창 32:30; 신 5:24, 25; 사 13:22; 사 6:5).

9. **㉠**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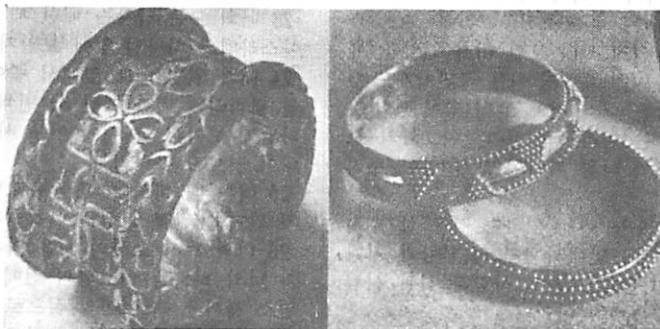
- ㉠** (1) '특별히 선택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다.
- (2) 모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1)는 말과 의미 상통(意味相通)한다.
- (3) 고대에는 '이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친숙한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며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소유권의 표시였다.
- (4) 또한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천사와 밤을 새워 씨름하던 야곱이 그 천사의 이름을 알려고 했던 사실(창 32:29)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본질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 **㉠**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리라'고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 (18, 19절).

- ㉠** (1) 여기서 '주의 영광'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까지 모세가 체험해 왔던 여러 형태의 임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16:7, 10; 24:16, 17)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적 실체를 가리킨다.
- (2) 그리고 '모든 선한 형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형상'이란 말이 없는 <몰 투브>로서 '모든 선함' 또는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다.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므로 어떤 가시적(可視的)이며 고정적인 형체를 지니고 계시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에 대해 형상이 아닌 자신의 선하신 윤리적 속성의 상징적 아름다움을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화보자료

단장품(丹粧品). 아래의 단장품 가운데 왼쪽의 반지는 B. C. 2천년대의 것이며 오른쪽의 팔찌는 B. C. 12세기경에 애굽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이들은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했던 재물을(12:35, 36)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기에(32:2-4)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과 신앙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단장품을 제하라고 명하셨던 것이다(5절).

## 제 34 장 두번째 십계명 들비

단락구분 1-4 새로 만든 십계명 들판 / 5-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다 / 10-17 하나님의 약속과 금지 명령 / 18-26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축제들 / 27-28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과 두번째 십계명 들비 / 29-35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 모세가 들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그 두 들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와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니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와 이름을 반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로다

7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역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8 모세가 금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며

9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1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11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12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울무가 될까 하노라

13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이다

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15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16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17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18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빰월 그 기한에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빰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9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족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20 나귀의 첫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21 너는 열매 동안 일하고 재 칠 일에는 쉬지니 밭 갈 때에나 거들 때에도 쉴지며

22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25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26 너의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

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가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 1. ㉠ 본장의 핵심적 부분은 무엇인가?

㉠ (1) 본장의 핵심적 부분은 14-26절에 나오는 의식 십계(Ritual Decalogue)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2) 본장은 또한 32, 33장의 중요 문제인 모세라는 인물의 종교적 의의와 죄사함에 관한 교리와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장은 언약 법전(Covenant Code, 20:21-26; 22:18-23:19)에 있어서의 의식 부분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3) 또한 본장에서는 33장 마지막 부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징을 보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현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이다.

### 2. ㉡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및 계시들을 산에서 받은 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4절)

㉡ (1) 모세는 호렙 산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민족 해방의 사명을 받고(3:1-14) 최후로 느보 산에서 죽음을 맞았다(신 32:49, 50). 또한 모세 외에도 성경상의 수많은 인물들이 조용한 산이나 들, 강변 등에서 계시를 받은 하였다(왕상 17:1-9; 19:1-18).

(2)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때로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

(3) 그러나 이 말을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 지도자의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참조, 딤페전 4:15).

### 3. ㉢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5-7절)

㉢ (1)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속성 중 '사랑'의 측면을 밝혀 주셨다.

(2) 또한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 사 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공의'의 원리를 밝히시었다.

(3) 그러나 이 말을 여자적(如字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만 선을 더욱 크게 보시고 악은 분명히 미워하시지만 곧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 주는 문학적 표현이다. 특히 이 말은 가족과 혈통에 따른 유대감이 강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큰 호소력을 주었을 것이다.

(4) 한편 자식들은 분명 부모의 인격적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좋은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악한 부모 밑에 문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교육학의 한 상식이다.

(5) 따라서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후손이 천 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

한 비결이다.

4. **㉠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8,9절)**

- ㉠** (1)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2)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3) 기도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달라'는 것이다.  
 (4) 흔히 대부분의 기도들은 자신의 소유 및 안녕을 위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의 소유를 간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간구한 것이다.  
 (5)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누구에게 소속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는 자만이 참으로 행복한 자인 것이다(참조, 요일 4:16).

5. **㉠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겠다고 하신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9,10절)**

- ㉠** (1) 여기서 '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할>은 '물려받다',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소유' 혹은 '상속'을 의미한다.  
 (2) 이 구절이 KJV에는 '우리를 당신의 상속물로 삼아 주소서' (take us for thine inheritance)로, Living Bible에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받아 주소서' (accept us as your own)로 번역되어 있다.  
 (3) 결국 '주의 기업'이란 말은 '열국 가운데서 택하신 주의 백성' (19:5; 신 7:6)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  
 (4)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신 '두려운 일'이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정복(민 21:21-35), 요단 강물의 흐름이 끊어짐(수 3:16, 17),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수 6:20), 태양과 달의 일시적인 머무름(수 10:12-14) 등과 같은 사건들을 가리킨다.

6. **㉠ 본절의 내용은 무엇과 관계된 것인가? (12-26절)**

- ㉠** (1) 파괴되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라고 하신 명령과 관계된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회복된 언약의 증거를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10절) 이어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3) 한편 본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번째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 거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것(11-17절)이고, 두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 관한 것(18-26절)이다.

7. **㉠ '아세라 상'은 무엇인가? (13절)**

- ㉠** (1) 아세라(Asherah)는 아낫(Anath), 아스다롯(Ashtaroth)과 더불어 가나안의 3대 여신이다.  
 (2) 여기서 '아세라'라는 말은 '곧다', '변성하다', '복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샤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3) 또한 공동 번역은 이 말을 단순히 '목상'(木像)으로, NIV는 '아세라 기둥'(Asherah poles)으로, 그리고 Living Bible은 '음란한 우상'(shameful idols)으로 번역했다. 한편 KJV에는 이 말이 70인역(LXX)에 근거하여 '작은 숲들'(groves)로 번역되어 있다.  
 (4) 아뭏든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서 바알(Baal) 신의 어머니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

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다가 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 1. ㉠ 본장의 핵심적 부분은 무엇인가?

㉠ (1) 본장의 핵심적 부분은 14-26절에 나오는 의식 십계(Ritual Decalogue)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2) 본장은 또한 32, 33장의 중요 문제인 모세라는 인물의 종교적 의의와 죄사함에 관한 교리와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장은 언약 법전(Covenant Code, 20:21-26; 22:18-23:19)에 있어서의 의식 부분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3) 또한 본장에서는 33장 마지막 부분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징을 보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현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이다.

### 2. ㉡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및 계시들을 산에서 받은 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4절)

㉡ (1) 모세는 호렙 산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민족 해방의 사명을 받고(3:1-14) 최후로 느보 산에서 죽음을 맞았다(신 32:49, 50). 또한 모세 외에도 성경상의 수많은 인물들이 조용한 산이나 들, 강변 등에서 계시를 받은 하였다(왕상 17:1-9; 19:1-18).

(2)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때로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

(3) 그러나 이 말을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 지도자의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참조, 딤후 4:15).

### 3. ㉢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5-7절)

㉢ (1)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속성 중 '사랑'의 측면을 밝혀 주셨다.

(2) 또한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 사 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공의'의 원리를 밝히시었다.

(3) 그러나 이 말을 여자적(如字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만 선을 더욱 크게 보시고 악은 분명히 미워하시지만 곧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 주는 문학적 표현이다. 특히 이 말은 가족과 혈통에 따른 유대감이 강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큰 호소력을 주었을 것이다.

(4) 한편 자식들은 분명 부모의 인격적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좋은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악한 부모 밑에 문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교육학의 한 상식이다.

(5) 따라서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후손이 천 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

한 비결이다.

4. **㉠ 여호와 하나님과의 강립하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8,9절)**

**㉡** (1)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2)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3) 기도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달라'는 것이다.

(4) 흔히 대부분의 기도들은 자신의 소유 및 안녕을 위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의 소유를 간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간구한 것이다.

(5)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누구에게 소속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는 자만이 참으로 행복한 자인 것이다(참조, 요일 4:16).

5. **㉠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겠다고 하신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9, 10절)**

**㉡** (1) 여기서 '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할>은 '물려받다',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소유' 혹은 '상속'을 의미한다.

(2) 이 구절이 KJV에는 '우리를 당신의 상속물로 삼아 주소서' (take us for thine inheritance)로, Living Bible에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받아 주소서' (accept us as your own)로 번역되어 있다.

(3) 결국 '주의 기업'이란 말은 '열국 가운데서 택하신 주의 백성' (19:5; 신 7:6)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

(4)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신 '두려운 일'이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정복(민 21:21-35), 요단 강물의 흐름이 끊어짐(수 3:16, 17),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수 6:20), 태양과 달의 일시적인 머무름(수 10:12-14) 등과 같은 사건들을 가리킨다.

6. **㉠ 본절의 내용은 무엇과 관계된 것인가? (12-26절)**

**㉡** (1) 파기되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라고 하신 명령과 관계된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회복된 언약의 증거를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10절) 이어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3) 한편 본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번째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 거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것(11-17절)이고, 두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 관한 것(18-26절)이다.

7. **㉠ '아세라 상'은 무엇인가? (13절)**

**㉡** (1) 아세라(Asherah)는 아낏(Anath), 아스다롯(Ashtaroth)과 더불어 가나안의 3대 여신이다.

(2) 여기서 '아세라'라는 말은 '곧다', '변성하다', '복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샤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3) 또한 공동 번역은 이 말을 단순히 '목상'(木像)으로, NIV는 '아세라 기둥'(Asherah poles)으로, 그리고 Living Bible은 '음란한 우상'(shameful idols)으로 번역했다. 한편 KJV에는 이 말이 70인역(LXX)에 근거하여 '작은 숲들'(groves)로 번역되어 있다.

(4) 아뭇튼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서 바알(Baal) 신의 어머니

였다.

8. ㉠ 본절에 나와 있는 소위 '의식 십계'를 간단하게 분류하고 이를 설명하라(14-26절).

- ㉠ (1)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14절). 여기서의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참조, 20:5, 6).
- (2)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17절)는 것은 십계명 중 제 2계명(20:4)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든 사건(32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 (3)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다(18절). 이것은 출애굽시에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회상시키기 위한 것이다(참조, 23:15).
- (4) 초태생(初胎生)을 대속하라는 것(19, 20절)은 13:12, 13에서 이미 주어진 명령의 반복이다(참조, 레 27:26, 27).
- (5) 이 외에도 안식일 준수(21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준수(22, 24절) 및 이와 관련된 세칙들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 (6) 한편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라(26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규례이다(참조, 23:19). 사실상 물이 귀한 광야에서 생활하던 유목민들은 종종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요리하여 먹었으며 이를 특미(特味)로 여겼다.

9. ㉠ 본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상세한 계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끊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12-17절)

- ㉠ (1)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성 때문이었으니 이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영향이 전인류에게 미친 것이다.
- (2) 사단은 대개 순간적인 쾌락,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행복,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세욕 등으로써 우리를 유혹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보다는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에 눈이 어두워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 (3)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 큰 능력을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하였으면서도 곧 다시 타락하였으니 우리들은 감정적이고도 순간적인 신비 체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실로 올바른 신앙이란 지·정·의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다.

10. ㉠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20절)

- ㉠ (1) 아니다.
- (2)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다.
- (3)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란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중의 일부를 감사의 표시로 되돌려 주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될 수 있다.

11. ㉠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29절)

- ㉠ (1) 얼굴은 인간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부분이다.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사람이 40살을 넘기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 (2) 모세의 얼굴에서 놀랄 만한 광채가 났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언행을 통해 남에게 평화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물론 이러한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신앙과 인격의 연마로 인해 은 주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 (4) 한편 여기서 '광채'는 히브리어로 <카란>인데 그 뜻은 '빨이 나다' 혹은 '빛나다'이다. 따라서 모세를 그린 어떤 그림에서는 그의 머리에 빨을 그려 놓기도 하였으며, 또

한 라틴 역에도 <카란>이 뿔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채란 말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다.

12. ㉠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는 무엇인가? (33-35절)

- ㉠ (1)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고후 3:13)고 하였다.
- (2) 그런데 칼빈(Calvin)은 이러한 모세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핵심을 깨달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던 이유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서부터 나는 광채에 현혹되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키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료

성경상에 나타난 수자의 상징적 의미

수자	의 미	풀 이	성경적 근거
1	유일, 통일	한 분 하나님	마 23:9; 요 8:41
2	조 화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	창 2:24; 엡 5:31
3	완 전	삼위 일체 하나님	마 28:19; 고후 13:13
4	은 세계	동·서·남·북	사 11:12; 계 7:1
5	은 총	다섯 배의 축복	창 43:34; 45:22
6	미완성	완결 전의 상태	창 2:31; 신 15:12
7	창 조 완 전	7일간의 천지 창조 완전한 용서	창 2:2 마 18:21, 22
8	새 생명	죽음으로부터의 구속	창 17:12; 뱀전 3:20
9	불완전	감사치 않는 9사람 99마리의 양	눅 17:17 마 18:12, 13
10	완 전	완전한 종결	창 18:32; 계 2:10
12	거 록	거룩한 12반월	창 35:22; 마 10:1-4
14	완 결	14년간의 봉사	창 31:41
15	은 총	15년간 연장된 생명	왕하 20:6; 사 38:5
40	인간의 수한 시련	세대간의 구분 시련의 기간	창 26:20; 행 7:23, 30, 36 출 16:35; 마 4:2; 행 7:30
1,000	무 한	천의 배수	왕상 19:18; 단 7:10

# 제 35 장 성막을 위한 백성들의 헌물

단락구분 1-3 안식일에 관한 규례 / 4-9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들 / 10-19 성막 각 기구들에 대한 설명 / 20-29 백성들의 헌물 / 30-35 브사렐과 오홀리암의 임직(任職)

- 1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 2 옛새 동안은 일하고 제 칠 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 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 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 6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털과
- 7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 8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 9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 10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와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 11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 12 증거대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 13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 14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 15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 16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 17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장과
- 18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 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 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 21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

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22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거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 왔으며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3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 왔으며

24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 왔으며

25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낚고 그 낚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을 가져왔으며

26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낚았으며

27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 왔으며

28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 왔으니

29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34:29)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있으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성막 제사 제도(25-31장)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 건축 재료를 백성에게 요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1-9절).
- (2) 그리고 이에 따라 성막 건축 곧 계약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이며 그리스도 이전의 구속사적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성막 건축이 본장에서는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3) 한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32:28, 35)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원하여 바치고 있음은 실로 감동적이다(21-29절).

## 2. ㉠ 모세는 그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삼았다.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 (1) 모세는 거의 40년간을 애굽 궁전에서 생활하였고 그곳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적인 수업을 닦았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들과 생활하면서 많은 명상의 시간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 (2) 또한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며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중의 앞에 서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 (3)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닦아 온 학문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다. 이것이 모세의 가장 위대한 일면이다. 모세 오경을 읽어 보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혹은 실행자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 (4)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 보자. 우리 주위에는 학식이 뛰어난 지도자 혹은 큰 능력의 사역자들이 많다. 그들이 말씀의 전파와 기독교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실망시켰는가? 이것은 그들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5)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가진 학식과 능력을 못가져도 좋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른다.
- (6)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한 학식과 능력은 자칫하면 교만으로 흐르기 쉽다. 우리는 주위에서 교계(敎界)의 타락 현상을 목격하며 학식과 능력보다 말씀에 대한 충성이 더욱 아쉬움을 절감한다. 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 보자. 과연 나는 말씀에 충실하며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 3. ㉠ 모세가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명하기 전에 안식일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3절)

- ㉠ (1) 사람들은 1가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것에 분망(奔忙)하여 더욱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즉 성막을 짓는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 이 일이 중요한가를 밝히는 동시에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 (3)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자가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 일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바른 일일 수 있는가? 성막 일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날의 안식일에까지 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선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심으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제거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목적을 위한 수단 역시 올바르게 하라는 사실과 함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 있다.

4. **㉠** 구약의 안식일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주일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2, 3절)

- ㉠** (1)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부터 주일 성수(主日聖守)는 철저히 지켜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생활 구조가 복잡해짐으로써 이러한 규례는 점점 약화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 (2) 즉 과거 농경 사회의 자연 농민(自然農民)의 경우는 그들이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사회 구조의 일부분으로 그것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3) 이러한 구조적인 제도 속에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갈등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성직자들조차도 이 문제로 부심(腐心)하고 있다.
- (4)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명백하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본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마 12:8). 즉 오늘날의 성도들도 안식일에 적극적인 선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5. **㉠**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3절).

- ㉠** (1) 이제껏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언급은 있었어도 불까지 피우지 말라는 말은 본절에서 처음 나온다.
- (2)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처럼 요긴한 것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필수적인 것조차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주일 성수를 위한 소극적이고도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내면적이고도 적극적인 주일 성수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6. **㉠**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 ㉠** (1) 죽임을 당하였다.
- (2)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국가 체제가 정치와 종교가 일체화된 신정 국가(theocracy) 형태였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했다.
- (3) 즉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치와 종교의 수장(首長)이었고 그의 말은 종교적인 법이 되는 동시에 정치적인 제재력을 지녔던 것이다.

7. **㉠**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5절)

- ㉠** (1) 자원하는 마음이다.
- (2) 하나님께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행 17:25). 그러므로 그분께선 자신의 소요(所要)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 (3)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아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23:15; 34:20)고 말씀하시되 '무릇 자원하여 바칠지니라'고 하신 것이다.
- (5) 한편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8. **㉠**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恩賜)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고전 12:4-11).
- (2)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란 후천적으로 터득되는 지식과는 사뭇 다른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talent)을 뜻한다.
- (3)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각기 다른 재능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각기 다른 처소와 삶의 터전에서 고유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크고도 포괄적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다.
- (4) 이는 곧 우리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肢體)가 있어 눈은 보는 일을, 귀는 듣는 일을, 그리고 코는 냄새 맡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몸 전체의 활약에 조력하는 것과 같다(고전 12:17).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으로써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심분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0:31).

9. ⓐ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20-29절).

- Ⓐ (1) 그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고유하게 헌신하였다. 즉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각양의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손재주가 있는 자는 스스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실을 짰다.
- (2)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도 그 길은 제각기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인조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개성(個性)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롬 8:28).
- (4) 또한 그들은 최선의 헌신, 가치있는 헌신을 하였다. 즉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최고의 예물들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이다.
- (5)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차선(次善)의 헌신은 무의미하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였으므로 칭찬을 받았으며(요 12:1-8)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알량한 헌신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행 5:1-11).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신 6:5).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우리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신 6:11).

10. ⓐ 이스라엘 족장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더 많은 재물로써 동참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라(27절).

- Ⓐ (1) 사람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유의 불평등이 있어 왔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 또한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 (2) 성경도 이러한 소유의 불평등을 기정 사실(既定事實)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소유를 많이 하기 위하여 나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잠 1:19; 사 56:11; 젤 22:13, 27). 뿐만 아니라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암시하고 있다.
- (3) 본질에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많은 재물을 가졌던 자가 성막을 짓는 데 더 많은 재물을 낸 것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가진 자로서 그것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4)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큰 만큼 그들이 사회에서 봉사하여야 할 의무 또한 큰 것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인 약자는 사회적인 약자와

동일시되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이러한 풍조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도 경제적인 약자가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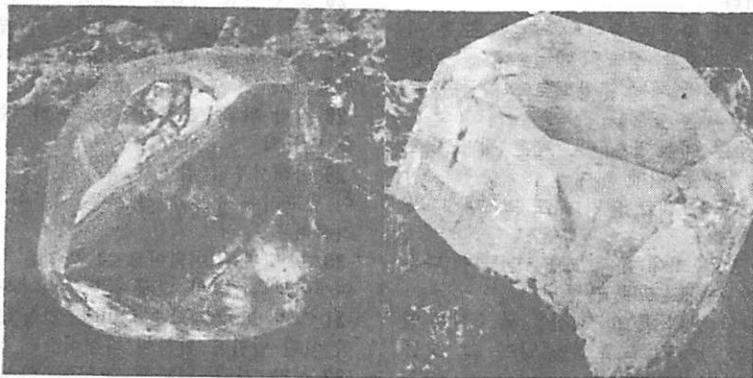
- (6) 잘못된 자본주의가 갖는 병폐(病弊)가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잠식해야 되겠는가. 적어도 교회에서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제적 약자가 위로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족(失足)하는 자가 있다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마 16:26)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 II. Q 모세가 성막 건축의 주역자인 브사렐과 오홀리암을 많은 회중 앞에서 임명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0-35절)

- A (1) 먼저 모세가 그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떳떳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군으로 지명하셨으므로 이 일에는 의문을 제기할 자가 없다(참조, 31:1-6). 대의 명분(大義名分)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
- (2) 또한 공적(公的)인 일을 할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서 임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모세가 대중 앞에서 그들을 임명함으로써 그들은 회중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생긴 것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모세와 같이 지혜롭고 순리(順理)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3) 한편 브사렐과 오홀리암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후로부터 그들은 성막을 짓는 일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그 일을 훌륭하게 처리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인물을 세울 때에 그 인물의 사람됨과 더불어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 화보자료

보석. 아래의 사진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던 12개의 보석 가운데 황옥(topaz, 왼쪽)과 남보석(sapphire, 오른쪽)으로서 색깔은 금색과 청색이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린 보석은(27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여졌으며 또한 이 보석에는 각각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했다(참조, 28:15-21).

## 제 36 장 성막 건축을 시작하다

단락구분 1-3 성막 건축의 직수 / 4-7 넓치는 현물 / 8-13 성막 양장의 제작 / 14-18 염소털 양장의 제작 / 19-30 성막 덮개의 제작 / 31-34 널판띠의 제작 / 35-38 성막 휘장의 제작

1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 오는 고로

4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5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 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 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른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7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8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쪽 양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곧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9 매쪽의 장은 이십 팔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각 쪽의 장단을 같게 하여

10 그 다섯 쪽을 서로 연하여 또 그 다섯 쪽을 서로 연하고

11 연락할 말쪽 가에 청색 고풍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쪽 가에도 고풍 만들되

12 그 연락할 말쪽에 고 오십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쪽의 가에도 고 오십을 달아 그 고풍이 서로 대하게 하고

13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양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14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십 일 쪽을 만들었으니

15 각 쪽의 장은 삼십 규빗, 광은 사 규빗으로 십 일 쪽의 장단을 같게 하여

16 그 양장 다섯 쪽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쪽을 서로 연하고

17 양장을 연락할 말쪽 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쪽 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18 놋 갈고리 오십을 만들어 그 양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19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당화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었더라

2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21 각 판의 장은 십 규빗, 광은 일 규빗 반이며

22 각 판에 두 측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23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니 남으로 남편에 널판이 이십이라

24 그 이십 널판 밑에 은받침 사십을 만들었으니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측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측을 받게 하였으며

25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이십을 만들고

26 또 은받침 사십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27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었고

28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29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점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그리하며

30 그 널판은 여덟이요 각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이라 각 널판 밑에 들씩이었더라

31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32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

33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34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썼더라

35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곧 베

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그릅들을 공교히 수 놓고  
**36**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37**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38**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릅대를 금으로 썼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놋이었던라

### 1. ㉠ 본장의 내용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부터는 백성들의 헌물로 성막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즉 25-31장에서의 세밀한 지시가 본장 8절에서부터 39:43까지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2) 단 한가지 25-31장의 지시와 다른 것이 있다면 36-39장에서는 공사의 순서가 앞의 지시와는 달리 성막 제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즉 앞의 지시는 법궤, 제반, 설비품, 막의 순서, 즉 안에서 밖으로 진행되나 본장에서는 성막, 법궤 등의 순서, 즉 밖에서 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2. ㉠ 하나님께서는 장막 건축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1, 2절)

- ㉠ (1) 브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 성막 건축의 수행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자원(自願)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2) 이처럼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는 시비(是非)를 분별하게 해준다. 즉 지혜는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3)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단 2:20, 21). 하나님께 거하지 않은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잔 피일 뿐이다.  
 (4)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自發性)을 지닌 자들만이 그 일로부터 보람과 기쁨을 찾으며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발성을 지닌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참조, 요 2:17).

### 3. ㉠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예물을 아낌없이 바쳤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7절)

- ㉠ (1) 당시 백성들이 넘치는 예물을 바쳤다는 것은 양이 많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정성이 지극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일 년 밖에 되지 않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았을 때이다.  
 (2)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바쳐서 교회를 세우며 생업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뒷바라지를 한 것은 자기 희생의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3)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기독교는 건실하게 성장했고 세계 선교사(宣敎史)에 볼 수 없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4) 서양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자본주의 논리가 이 땅에서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교회까지 잠식했다. 교회에서도 가진 자가 대우받고 순수한 신앙보다는 측정될 수 있는 행위가 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5)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헌금은 자기 희생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되었다.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그 수치(數值)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며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탈바꿈되었다.  
 (6)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치 않으시며 그 헌금하는 자의 정성을 보신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부의 두 렵돈 헌금을 높이 칭찬하신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막 13:41-44).

(7)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참된 헌금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참된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다(마 22:37). 그리하여 교회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4. **㉠ 성막에 그룹을 무늬 놓아 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그것은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참조, 시 80:1;99:1).  
 (2) 이 그룹(cherub)은 일종의 천사인 듯하지만 그 본질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 9:5에 단 한번 언급되어 있다(참조, 25장 ㉠ 10).  
 (3) 그리고 그룹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급 중에서 최초의 것은 창 3:24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그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곳을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되어 있다.  
 (4) 특히 에스겔서 곳곳에는 이 그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는데(겔 1:4-25;3:12-14; 10:4-22) 그 형상이 꼭 날개 달린 사람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5) 아뭏든 그룹의 신분 및 기능, 형상, 그리고 그 수(數)에 관하여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참조, 사 37:16).

5. **㉠ 본절 이하의 내용은 26장의 반복이다. 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8-38절)**

- ㉠** (1) 25장에서 27장까지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막의 양식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36-40장에서는 실제로 성막을 만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두 기록은 거의 반복에 가까운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여야 할 것을 교훈받는다.

6. **㉠ 성막을 덮는 제 1양장의 제작법은 어떠한가? (8-13절)**

- ㉠** (1) 이것은 가늘게 끈 베실과 청색, 홍색, 자색실로 그룹 무늬를 수놓은 열 폭의 천으로 만든다.  
 (2)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약 12.8m), 넓이는 4규빗(약 1.8m)이며 5폭씩 연결을 한다.  
 (3) 이때 양쪽 천 가에 50개의 청색 고를 만들고 금갈고리 50개로 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커다란 막을 이루게 한다. 여기서 '고'란 것은 둥근 고리(loop)를 의미한다.  
 (4) 한편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6장 ㉠ 4-6을 참조하라.

7. **㉠ 제 2양장과 덮개 및 옷덮개의 제작법은 어떠한가? (14-19절)**

- ㉠** (1) 이것은 염소털로 된 11폭의 천으로 만든다.  
 (2)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약 13.7m), 넓이는 4규빗(약 1.8m)으로 5폭 또는 6폭씩 연결한다.  
 (3) 이때 양쪽 천 가에 50개의 고를 만들고 낫갈고리 50개로 이것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커다란 막을 이루게 한다.  
 (4) 그리고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옷덮개는 해달(海獺)의 가죽으로 만든다.  
 (5) 한편 제 2양장을 설치할 때엔 이것을 좌우 1규빗(약 45.6cm), 앞뒤 2규빗(약 91cm)씩 아래로 늘어뜨린다(26:9, 12, 13).  
 (6)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6장 ㉠ 8, 9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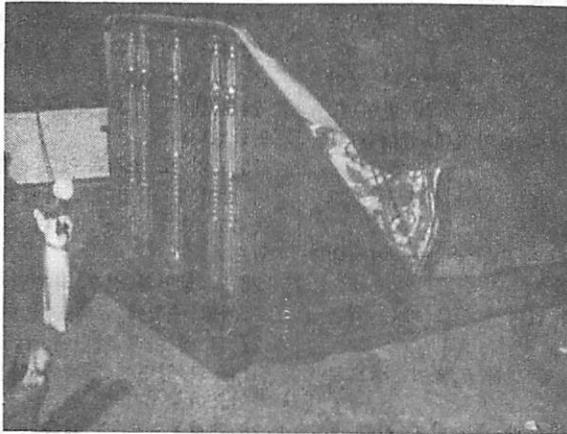
8. **㉠ 성막 둘레에 세우는 조각목 널판 및 은받침과 띠의 제작법에 대하여 설명하라(20-34절).**

- ㉠** (1) 성막 둘레에 세울 널판은 길이가 10규빗(약 4.56m), 넓이가 1.5규빗(약 68.4cm)이다.

- (2) 각 판에는 두 축이 있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편과 남편은 널판 20개씩으로 연결하였고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축’이란 일종의 장부(tendon)를 뜻한다.
- (3) 그리고 서편에는 널판 6개를 연결하며 양쪽 끝에는 2개를 더하여서 곁해 놓았다. 은 밑받침은 16개가 사용되었다.
- (4) 또한 널판을 두르는 띠를 각 편에 5개씩 만들었으며 모두 금으로 덮어 씌웠다. 그리고 이 띠를 꿰 고리와 널판들도 역시 금으로 덮어 씌웠다.
9. **㉠ 지성소 휘장과 출입구 휘장의 제작법은 어떠한가? (35-38절)**
- ㉠** (1)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 (2) 이 휘장을 떠받칠 네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그 곁을 금으로 씌웠다. 그리고 그 밑받침은 은으로, 휘장을 걸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다.
- (3) 한편 장막 문 휘장도 역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기둥 다섯과 같고리에 걸치도록 되어 있었다.

### 화보자료

덮개를 벗긴 성막. 아래의 사진은 암스텔담 성경 박물관에 복원되어 있는 성막의 모습을 덮개를 벗히고 바라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1절) 자신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25:8, 22; 29:42, 43). 이는 ‘임마누엘의 원리’(Immanuel Principle)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심을 상징한다. 즉 광야 시대에는 성막으로 그분의 임재가 표현되었으며 왕정(王政) 시대에는 성전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마 2:23)이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요 14:16)는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이다(참조, 고전 6:19; 고후 6:16).

## 제 37 장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다

단락구분 1-5 범개의 제작 / 6-9 속죄소의 제작 / 10-16 떡상의 제작 / 17-24 등대의 제작 / 25-28 분향  
단의 제작 / 29 관유와 향품의 제작

1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께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며

2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3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4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5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메게 하였으며

6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며

7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니

8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9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10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이 규빗, 광이 일 규빗, 고가 일 규빗 반이며

11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들렸으며

12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13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14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메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15 또 조각목으로 상 펠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으며

16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술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17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처

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18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19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20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21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니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22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23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뚱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24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25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일 규빗이요 광이 일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이 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26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들렸고

27 그 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니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메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28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으며

29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니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전장에는 성막의 본체(本體)를 건축하는 일이 기술되었던 반면 본장에는 성막 안에 배치되는 기구 및 관유(灌油), 향품(香品) 등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 (2)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으며 (36:8-38) 그 후 성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성소 기구들을 차례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 (3) 즉 그들은 범개와 속죄소를 만들었고 (1-9절), 다음은 떡상과 그릇들을 (10-16), 그리

고선 등대(17-24절) 및 분향단(25-28절)을 만들었던 것이다.

- (4) 물론 이러한 본장의 내용 역시 이미 25, 30장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긴 하지만 25, 30장은 각 부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명령인 반면 본장은 그 명령의 실행에 관한 기록이다.

2. **㉠** 브사렐이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는 어떠한 것인가? (1-5절)

- ㉠** (1) '법궤' (ark of law) 라는 말에 있어서의 '궤' (ark)는 히브리어로 <아론>이며 그 뜻은 '상자' (box)이다. 그런데 이 궤 속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곧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졌으므로 이것은 '법궤'라고 불리웠다.
- (2) 그런데 이 궤는 '법궤'라는 명칭 외에도 '언약궤' (ark of covenant, 민 10:33; 신 10:8), '증거궤' (ark of testimony, 레 16:13; 수 4:16), '여호와 의 궤' (ark of the Lord, 수 4:5; 삼상 4:6), '하나님의 궤' (ark of God, 삼상 3:3; 대상 13:12)라는 여러 가지 명칭을 지니고 있다.
- (3) 이 법궤는 길이 2규빗 반(약 114cm), 넓이 1규빗 반(약 68.4cm), 높이 1규빗 반(약 68.4cm)이며 안팎이 정금으로 덮여 있다.
- (4) 또한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금으로 덮고 법궤에 달린 금고리에 꿰어서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 (5) 히 9:4에 의하면 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곧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 한편 시편 기자는 이 법궤를 '주의 권능의 궤' (ark of thy might)라고 표현하였다 (시 132:8).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표였던 것이다.

3. **㉠** 법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기술하라 (1-5절).

- ㉠** (1)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궤 위에 정금을 입힌 것이다. 여기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보여 준다. 이 나무는 땅에서 자라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갈 4:4)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마 2:23).
- (2)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조각목을 둘러싼 정금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았으나 그분이 성육신(成肉身)하신 하나님이심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요 1:14; 롬 8:3; 딤후 3:16; 요일 4:2; 요이 1:7).
- (3) 또한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음과 같이 (히 9:4)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다 (시 40:8). 그분의 삶은 구약의 말씀에 따라 산 삶이며, 그것을 완성시키며, 효력 있도록 한 일생이었다.
- (4) 또한 법궤 속에는 만나가 들어 있는 금 향아리가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 길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양식이 됨을 보여 준다. 주님의 입에서는 항상 생명의 양식이 차고 넘쳤으며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은 언제나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 (5) 또한 법궤 속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다. 이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어졌다 (민 17:8).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난 후에 가장 먼저 싹이 나는 나무이다. 죽었던 지팡이에서 나는 살구나무의 싹은 이와 같이 부활과 관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승리자요 지금도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다.
- (6) 여기에서 (1)과 (2)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성품인 반면 (3) (4) (5)는 성도들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며 생명의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장차 이루어질 부활에 참여하여야 한다.

4. **㉠** 속죄소란 무엇인가? (6-9절)

- Ⓐ (1) 속죄소란 길이가 2.5규빗(약 114cm), 넓이가 1.5규빗(약 68.4cm)인 금으로 만든 법궤의 덮개이다(참조, 25:21).
- (2) 여기서 '속죄소'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인데 이는 '덮개'를 뜻할 뿐만 아니라 '화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죄소'(mercy seat)를 가리켜 일명 '시은좌'(施恩座, propitiatory)라고도 부른다.
- (4) 즉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덮어 주시는 화해의 장소인 것이다(참조, 25:22).

5. ⓐ 속죄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기술하라(6-9절).

- Ⓐ (1)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1회, 즉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레 16:14-17).
- (2)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오직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지참할 때만 입장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 (3)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이다(롬 5:8, 9).
- (4)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상징되었으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완성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이로써 모든 인간은 짐승의 피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마 27:51).

6. ⓐ 성소에 배치된 떡상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여 설명하라(10-16절).

- Ⓐ (1) 등대 맞은 편에 정금으로 만들어진 떡상이 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전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다. 이 떡상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2)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싸여졌다. 여기서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상징하고 정금은 그의 신성(神性)을 의미한다.
- (3) 또한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 떡상 위에 차려 놓은 진설병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떡상이 진설병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떠받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참조, 요 14:13).
- (4) 떡상 들레에는 손바닥 넓이 만한 턱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그 들레에는 다시금테가 둘러졌다. 이것은 상으로부터 떡이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역시 이 정금 턱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
- (5) 이 턱은 손바닥 넓이 만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손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잡아 주시는 것과 유사하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보호함을 받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7. ⓐ 성경에 나오는 살구꽃 또는 살구나무에 관하여 살펴보라(19, 20절).

- Ⓐ (1)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살구꽃'은 그 원어가 지니고 있는 뜻과 같이 흔히 각성(覺醒)과 보호, 희망의 상징이었다(참조, 25장 ⓐ15).
- (2) 개역 성경에선 주로 '살구나무'로, 공동 번역에선 일률적으로 '감복숭아 나무'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알몬드'(almond)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2종류가 있다.
- (3) 그 첫째는 <루즈>인데 창 30:37에 나온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근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구나무인데 KJV에는 특이하게 '개암나무'(hazel)로 번역되어 있다.
- (4) 또 다른 단어로서 성경에 흔히 나오는 것은 <좌케드>인데 그 뜻은 '깨우다', '지켜 보

다'이다(민 17:8; 전 12:5; 렘 1:11). 아마도 이 단어는 살구나무가 지니고 있는 속성을 암시해 주는 듯하다.

- (5) 한편 개역 성경에서 단 한군데 '파단행' (巴旦杏)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창 43:11)도 바로 이 살구나무(almond)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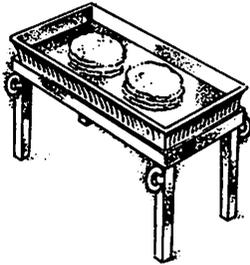
## 화보자료

### 성소의 기구들



등대

등대. 성경에 언급된 등잔의 전통적인 형태는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위의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견해에 따라 그려진 것이다(참조, 25:31).



상



향단

상과 향단. 애굽의 고왕국 시대부터 제사 의식의 행진을 위해 사용했던 고리 형태를 진설병이나 법궤 그리고 향단에 부착하여 옮기기 쉽도록 만들었다. 그 이유는 광야 여정 동안에 계속 성전 기구들을 메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 제 38 장 성막 뜰의 기구들과 재료의 총계

단락구분 1-7번제단의 제작 / 8 물두멍의 제작 / 9-20 성막 뜰을 만든다 / 21-31 백성들이 바친 성막 재료의 총계

1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오 규빗이요 광이 오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삼 규빗이며

2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깻을 만들되 그 깻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낫으로 썼으며

3 단의 모든 기구 곧 툽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읊기는 그릇을 다 낫으로 만들고

4 단을 위하여 낫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5 그 낫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6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낫으로 싸고

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메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8 그가 낫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낫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9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으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 규빗이라

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낫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1 그 북편에도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낫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2 서편의 포장은 오십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3 동으로 동편에도 오십 규빗이라

14 문 이편의 포장이 십 오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15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십 오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16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17 기둥 받침은 낫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18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썼으니 장은 이십 규빗이요 광은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오 규빗이며

19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낫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20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낫이더라

21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제산하였으며

22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23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흘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흘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수 놓은 자더라

24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이십 구 달란트와 칠백 삼십 세겔이며

25 조사를 받은 회중의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 달란트와 일천 칠백 칠십 오 세겔이니

26 조사를 받은 자가 이십 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 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27 은 일백 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일백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일백 달란트요

28 일천 칠백 칠십 오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29 드린 낫은 칠십 달란트와 이천 사백 세겔이라

30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낫 단과 낫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31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 1. ㉠ 본장의 대지를 구분하여 보라.

(A) (1) 본장의 전반부에는 성막 뜰에 배치되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제작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여기서 1-7절은 27:1-8의 본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 9-20절은 27:9-19의 본문을 따르고 있는데 성막 뜰을 외부와 구분하는 성막 포장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 21-31절은 성막을 짓는 데 일한 사람과 이에 소용된 물품(物品) 및 그것을 조달(調達) 하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 **㉠** 변제단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1-7절)

**㉠** (1) 조각목으로 길이 5큐빗(약 228cm), 넓이 5큐빗(약 228cm), 높이 3큐빗(약 137cm) 되는 상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2) 이 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고 중간 부분에는 놋그물이 설치되어 있다.

(3) 그리고 변제단의 부속 기구로서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읍기는 그릇들이 있는데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다.

(4) 한편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7장 **㉠** 2-6을 참조하라.

3. **㉠**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 (1절)

**㉠** (1) 아카시아나무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쉬타> (단수형) 혹은 <쉬팁> (복수형) 이라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대부분 ‘조각목’으로 번역되었고 단 한번 ‘잇딤나무’로 번역되었다(사 41:19).

(2) 한편 학명(學名)으로는 ‘아카시아 세알’ (acacia seyal) 또는 ‘아카시아 토르틸리스’ (acacia tortilis)라고 한다.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며 갈색 계통의 오렌지 빛을 띠는데 아주 좋은 가구용 목재로 쓰인다(참조, 25장 **㉠** 4).

(3)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이 나무는 시내 반도의 사막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

4. **㉠** 제단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절)

**㉠** (1)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참조, 27장 **㉠** 4).

(2) 또한 이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피난처로 생각되었다(참조, 왕상1:50; 2:28이하).

(3) 뿐만 아니라 제단의 뿔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였고(참조, 왕상 22:11; 숙 1:18이하) ‘구원의 뿔’로 표현되기도 하였다(참조, 삼하 22:3; 시 18:2; 눅 1:69).

(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27장 **㉠** 4에 언급되어 있다.

5. **㉠** 물두멍이란 무엇인가? (8절)

**㉠** (1)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봉사하러 들어가기 전, 그리고 변제단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기 위한 일종의 세수 대야이다.

(2) 그리고 이러한 규례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세례 곧 물세례와 불세례(마 3:11)를 예표한다.

(3) 따라서 물두멍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 죄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하며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4) 한편 물두멍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0장 **㉠** 9를 참조하라.

6. **㉠** 성막 뜰에 배치된 물두멍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1) 특수 유리 제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고대인들은 대개 구리로 거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참조, 욥 38:18; 고전 13:12).

(2) 이 거울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인들이 몸을 단장하는 데 필요한 귀중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창 2:31)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미덕(美德)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시적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육체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은 영존(永存)하는 것이므로 보다 더욱 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체를 가꾸는 일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영혼을 가꾸는 일이다(참조, 딤후전 2:9, 10).
- (4)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이러한 모본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회막 문에서 하나님께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거울을 성막 건축용으로 바치었다.
- (5) 이리하여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명은 영적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물에 손을 씻어야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거울이 육체적인 면에서 인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물두명은 영적인 면에서 인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7. **㉠** 뜰 안에 물두명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서 그분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자는 매일 성결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 (2) 그러기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미 성별되어 거룩한 의복을 차려 입고 존귀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했던 것이다.
- (3) 또한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벧전 2:9)이 되었지만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참조, 시 119:9)으로써 매일 자신을 씻어 성결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에 봉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8. **㉠**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역할과 기독교적 여성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라(8절).

- ㉠** (1) 성막을 짓는 데에는 여자들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은, 금 소유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헌신적인 신앙의 표본이 되었고 성막에 설비된 물두명의 재료까지도 제공하였다.
- (2) 성경에는 이 사건 외에도 모범적인 신앙을 소유한 여성들의 예가 많이 나온다. 구약 성경에서는 족장(族長)의 부인인 사라, 라헬, 리브가 등이 개성이 강한 여인들로 부각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3) 그 밖에도 미리암과 드보라는 여선지자이자 여류 시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야엘(삿 4장), 라합(수 2장), 에스더 등은 용감한 신앙을 소유하였고 한나와 아비가일(삼상 25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지혜로움으로 모범을 보였다.
- (4)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예수의 공생애 중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 마리아,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 등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여자로 등장된다(마 16, 27장; 눅 23장).
- (5) 초대 교회의 성립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은 매우 컸으니(참조, 행 1:14) 빌립보 교회 역시 루디아의 개종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다(행 16:14, 40). 그 밖에도 성경에는 브리스길라(행 18장; 롬 16:3; 고전 16:19; 딤후 4:19)와 비비,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및 네레오 자매와 같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롬 16장).
- (6) 게다가 성경은 여자에게 배우자 선택의 권리(창 24:58; 민 36:6) 및 상속의 권리(민 27:1-8), 그리고 부당한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신 24:1-4), 순결을 보호받을 권리(20:14, 17; 레 18:20; 신 22:22-30)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뭏든 히브리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았었음(20:12; 레 19:3; 신 27:16; 잠 1:8; 31:10-31)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7) 한편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오늘날

의 사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교육 정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은 남성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직업에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도 자신의 특수한 재능으로써 교회에 크게 봉사할 수 있으니 인간을 남녀로 만드시고 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여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며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 부당하게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선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그런데 혹자는 여성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가혹하게 취급받았다고 생각한다(참조, 고전 14:33-36; 딤후전 2:11, 12; 벧후 3:1).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당시 문화적 상황과 교회가 처했던 특수한 여건 속에서 취해진 기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교회를 신부나 아내로 묘사한 것을 역(逆)으로 생각하면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가 얼마만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참조, 엡 4:21-32; 계 19:1-10).

9. **㉠ 성막은 ‘증거막’이란 이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명칭과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비교하여 보라(21절).**

- ㉠** (1)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막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즉 회막(33:7; 39:32), 여호와의 전(23:19), 성막(26:9; 39:33), 하나님의 집 장막(대상 6:48), 법막(대하 24:6) 등이다.
- (2) 이런 명칭들은 성막이 갖는 고유한 기능들의 어떤 일부분을 강조한 것이다(참조, 25장 문 11). 본절에 나오는 ‘증거막’이란 말에는 ‘증거의 돌판을 보관하는 증거궤가 있는 곳’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증거의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맺어진 언약의 증표(證表)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 사랑하시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생활의 규준(規準)이다.
- (4) 이와 같이 증거의 돌판은 인간 생활의 표준을 제시했고 증거막은 이러한 돌판을 보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졌다.
- (5)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의 나아갈 바를 끊임없이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 (6) 특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러한 증거의 기능은 오늘날 더욱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며 부패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세상은 밝게 비춰 줄 빛과 부패를 막아 줄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니 구약의 증거막의 기능을 우리가 몸 담은 교회에서 다시 되살리도록 노력하자.

10. **㉠ 이다말에 대하여 설명하라(21절).**

- ㉠** (1) ‘이다말’(Ithamar)이란 이름의 뜻은 분명치 않지만 ‘종려의 섬’이란 뜻으로 추정되어진다.
- (2) 그는 아론의 네 아들 중 막내로서 아론과 엘리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다(6:23).
- (3) 훗날 그의 형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자(레 10:1, 2) 그는 세째 형 엘르아살과 함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민 3:4).
- (4) 그런데 여기서 그의 형이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다말에게 성막 건축에 소요된 물량을 계수하는 것과 같은 큰 임무가 주어졌던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그의 형들보다 이와 같은 통계학적 작업에 재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11. **㉠ 본문에 나오는 무게 단위와 화폐 단위를 간략히 설명하라(24-26절).**

- ㉠** (1) 성소의 세겔(shekel of the sanctuary): 여기서 ‘성소의’라는 말이 부가된 이유는 이것이 ‘보통 세겔’ 단위와는 기준량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소의 세겔’이

‘보통 세겔’과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달란트(talent) : ‘보통 세겔’에 의거하면 1달란트는 약 34kg이다. 1세겔은 11.4g이니 여기서 1달란트는 3,000세겔이 되는 셈이다.

(3) 베가(beka) : 여기서만 나오는 화폐 단위로서 1베가는 1/2세겔이다. 화폐 단위로서의 세겔에는 2종류가 있는데 ‘금 세겔’과 ‘은 세겔’이다. 은 1세겔은 오늘날 일반 노동자의 4일간 품삯에 해당하며 금 1세겔은 ‘은 세겔’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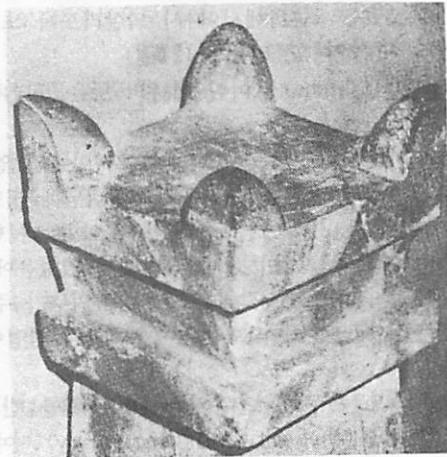
12. **㉠** 성소 건축에 소요된 금은 도합 1,268kg이나 되었다. 유리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많은 금을 소유할 수 있었겠는가? (24절)

- ㉠** (1) 흑자는 성소 건축에 쓰인 금의 양이 너무나 엄청난 것에 대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 많은 금을 조달(調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모순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2) 그러나 당시 애굽에는 금 생산량이 많았던 에디오피아로부터 수입되는 금이 상당하였다. 또한 애굽은 당시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부터 막대한 금을 공물(貢物)로 받았다.
- (3) 그리고 12:35, 36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귀금속을 회사받았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00만이라고 추산(推算)한다면 그들이 장식품으로 지니고 있었던 귀금속품도 상당량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생각했을 때 성막 건축을 위하여 소요된 금의 양은 결코 과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에 열심이였으므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자원하여 아낌없이 바쳤던 것이다(참조, 36:3-7).

### 화보자료

네 모퉁이에 뿔이 달린 단. 아래의 사진은 므깃도에서 출토된 석회암 제단으로서 B. C. 10-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예루살렘의 록펠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장에 나타난 제단의 재료는 나무이고 뿔으로 씌우며 용도는 번제단이었다(1.2절). 제단의 뿔은 뿔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보호’와 ‘힘’을 상징했고(참조, 왕상 1:50, 51; 2:28). 또 속죄제의 피를 그 뿔에 바르기도 했다(29:12; 레 8:15).



## 제 39 장 제사장의 의복 제작

단락구분 1 제사장의 성의(聖衣) 제작 / 2-7 에봇과 견대와 띠 / 8-21 흉패와 열 두 보석들 / 22-28 에봇 받침 겹옷 / 27-31 속옷과 관(冠) / 32-43 성막의 모든 기구가 완성되다

1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2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3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4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서 서로 연하게 하고

5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에 붙여 찼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6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7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 기념의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8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하였으니

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며

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테에 물렸으니

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열 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15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땅아 흉패에 붙이고

16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17 그 두 땅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18 그 땅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테에 매고

19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20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띠 뒷편에 달고

21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2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23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24 청색 쥘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 놓고

25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26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7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베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28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고의들을 만들고

29 가는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0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31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33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4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당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 35 증거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 36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 37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벌여놓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 38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 39 돛단과 그 돛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 40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 41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 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 43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1. **㉠** 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36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막 건축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2) 즉 본장의 전반부에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입을 성의(聖衣) 제작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으며 후반부(32-43절)에는 성막의 모든 부품들에 대한 모세의 확인과 축복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 (3)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 상부(名實相符)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성막 제도를 현실화하게 되었으니 여기에 본장이 갖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말은 성의 제작(聖衣製作)에 관한 서언(序言)인데 본장에서는 동일한 귀절이 7차례나 나온다.
- (2) 실 한 오라기라도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조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순종과 충성심을 엿볼 수 있다.
- (3) 그런데 오늘날 과학주의와 경험주의 사조(思潮)에 휩싸인 현대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3. **㉠** 예봇은 무엇인가? (2-7절)

- ㉠** (1) 제사장들이 흉패 밑에 입는 앞치마와 같은 의복으로서 팔이 없는 겹조끼이다. 이것에는 다양한 치수가 있으나 대체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것이 보통이다(참조, 25장 ㉠5).
- (2) 대제사장의 예봇은 아름답게 짠 띠로 허리 둘레를 죄도록 되어 있으며 윗 부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가 달린 견대를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
- (3) 또한 이것에는 흉패를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이 안에 '우림'과 '뚝뚝'이라는 거룩한 판결 도구를 넣어 두었다.
- (4)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에 비해 보다 간소한 예봇을 입었는데(참조, 삼상 2:28; 14:3) 그것은 '세마포 예봇'으로 불리웠으며 겉에 드러난 장식이 별로 없었다.
- (5) 한편 성경에서는 예봇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상(聖像)으로(참조, 삼상 21:9) 또한 법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어떤 것으로(참조, 삼상 14:18)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4. **㉠** 대제사장 예봇 두 견대에 각각 이스라엘 6지파씩의 이름이, 그리고 흉패 12보석에 각각 1지파씩의 이름이 반복 기록된 의미는 무엇인가? (6-14절)

- ㉠** (1) 예봇 견대는 인간의 책임을 상징하는 어깨에 매여 있었다. 양쪽 견대에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 것은 전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징한다.
- (2) 한편 사랑을 상징하는 가슴 가까운 곳에 부착된 흉패의 12보석에 각각 1지파씩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개인의 자격으로 일일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상징한다.

- (3) 따라서 이처럼 각 지파의 이름이 2번씩 중복된 것은 첫째, 어깨의 보석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총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보여 주며 둘째, 흉패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심을 보여 준다.
- (4) 어느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의 이름은 하늘에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여겨 주신다. 또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어 주시며 사랑이 풍성한 가슴에 품어 주신다. 그리고 각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듯이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빌 4:3; 계 3:5; 20:12).

5. **㉠ 흉패란 무엇인가? (8-21절)**

- ㉠** (1)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베실로 만든 가로·세로 한 뼘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일종의 주머니이다(참조, 25장 **㉠** 5).
- (2) 이것에는 네 줄 보석이 달렸는데 위로부터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가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 그리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 달려 있다(참조, 28장 **㉠** 11).
- (3) 한편 이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의미에 관하여선 **㉠** 4를 참조하라.

6. **㉠ 예복 받침 긴 옷의 모양은 어떠한가? (22-26절)**

- ㉠** (1) 옷 색깔은 청색이며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의 깃을 박듯이 박아서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 (2) 또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석류가 수놓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순금으로 된 방울이 달려 있다.
- (3) 이처럼 예복 받침 긴 옷에 석류를 수놓으며 금방울을 다는 이유와 의미에 관하여서는 28장 **㉠** 14를 참조하라.

7. **㉠ 이상에 나온 것들 외에 제사장 의복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27-31절)**

- ㉠** (1) 가는 베로 만든 속옷과 세마포로 만든 두건, 관, 가는 베실로 짠 고의(袴衣), 청색, 자색, 홍색실 및 가는 베실들로 수놓은 띠가 있다.
- (2)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패가 있으니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세마포로 만든 관의 전면(前面)에 부착되는 것이다.

8. **㉠ 정금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어 관에 부착시킨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30, 31절)**

- ㉠** (1)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제사장이 성의(聖衣)를 입고 성관(聖冠)을 쓰며 띠를 띠고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무한한 성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 (3)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종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외면적인 거룩성을 표출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니 보다 근본적으로 항상 자신의 내면적인 성결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마 23:25, 26).

9. **㉠ 제사장은 왜 이처럼 화려한 옷을 입어야 했으며 또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41절)**

- ㉠** (1) 제사장의 복장은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호화 찬란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 입는 것이 제사장의 허영심을 채워 주거나 그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경배의 대상, 즉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하신 분이므로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하여 최대의 예의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
- (2) 또한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의 부분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시대 감각을 살린 것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 인간이 디자인 한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이 심오한 영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이 복장을 입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란 신분으로 설 수 없었으며 곧 죽임을 당하였다. 즉 제사장 복장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었다.

- (3) 여기서 오늘날의 우리는 깊은 영적 교훈을 받는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듯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 즉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는 누가 보기에든 인정할 만한 실력과 교양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꼭 인간의 세속적 실력과 학식이 하나님의 일군된 자격의 전부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마 15:14).

10. ㉠ 성막의 모든 기구가 완성된 후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축복한 모세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군으로서의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 (43절)

- ㉠ (1) 말하자면 성막은 일종의 조립식 텐트였다. 그러나 일부 포장과 널판지와 윗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의 각 부분은 이스라엘인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던 보통 텐트와는 구조가 전혀 달랐다. 또한 법례, 번제단 등 성막의 제사 기구들은 모세가 본 양식대로 되어야만 했으므로 일단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확인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 (2) 모세는 성막 제작의 지시 명령, 설계도에 대한 설명, 제작 과정의 감독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무리된 뒤에도 이를 확인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였다.
- (3) 특히 그가 제품을 확인 검사한 기준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모든 일을 행하되 하나님 제일주의로 행한 것이다.
- (4) 이처럼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된 자격으로 이 모든 것과 성막 제작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함으로써 일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여기서 ‘축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모세는 사람들을 축복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들도 성도의 자격으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축복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눅 2:34).

본장의 요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1절).



## 제 40 장 성막 봉헌식

단락구분 1-11 성막 봉헌식에 대한 규례 / 12-16 제사장 직분을 위한 아론 집안의 성결식 / 17-33 성막의 완성 / 34-38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다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너는 정월 초 일 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 3 또 증거궤를 들여 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 4 또 상을 들여 놓고 그 위에 물뿜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 놓고 불을 켜고
- 5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 6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 7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 8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 9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 10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 11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 12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 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 14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걸 옷을 입히고
- 15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 16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 17 제 이년 정월 곧 그 달 초 일 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 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20 그가 또 증거궤를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 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22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 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24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 25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26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 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28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 29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30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 31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 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 33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행하였더라
- 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 38 낮에는 여호와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 1. ㉠ 본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본장의 위치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성막의 완성과 그 봉헌 예식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2) 성막의 낙성(落成)으로 인한 제사 제도의 확립은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일대 획기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때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성막 건립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까지에 이르렀다.
- (3) 이 성막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약 시대 제사의 총체(總體)라 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
- (4) 이제 본서는 이러한 성막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 (5) 즉 본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진로를 내다보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본장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다.

## 2. ㉠ 성막을 정월 초 일(初一日)에 세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여기서 '정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써 성립된 종교력(宗教曆)의 제 1월을 가리킨다(참조, 12:2). 즉 이는 '니산 월'(아빔 월이라고도 함)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정월 초하룻날에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만물의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계 21:6)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처음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 (3)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장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였다. 그들은 성전 안에 내재(內在)하여 있었던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을 정월 초하룻날을 기하여 제거하였던 것이다(대하 29:16, 17).
- (4) 물론 모든 날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항상 주를 위해 힘써야 하지만 특별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5) 인간의 기억력 및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념일들이 많다. 그 중에도 정월 초하룻날은 1년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토속 신앙 중에는 설날에 좋은 꿈을 꾸면 그 해 전체에 재수가 있다는 신앙이 있다.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도 정월 초하룻날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 (6) 우리들도 오고 가는 세월 중에 새로 맞이하는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다. 즉 이날에는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 3. ㉠ 성막과 내부 기구들의 제작을 장별로 분류하여 보라(1-16절).

- ㉠ (1) 36장 : 성막  
 (2) 37장 : 법궤, 그룹, 상, 속죄소, 등대, 분향단  
 (3) 38장 : 번제단, 물두멍, 뜰  
 (4) 39장 : 제사장의 성의(聖衣), 예복, 흉패

## 4. ㉠ 성막을 가리키는 이름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절)

- ㉠ (1)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민족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곳이다. 그리고 성막 자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특징에 따라서 성막에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붙여졌다.
- (2) ① 회막(Tabernacle of Congregation, Tent of Meeting) : 33:7; 39:32 등  
 ② 여호와의 전(House of the Lord) : 23:19 등

③ 성막(Tent) : 26:9;39:33 등

④ 하나님의 집, 장막(Tabernacle of the House of God) : 대상 6:48 등

⑤ 증거막(Tabernacle of Testimony) : 38:21 등

(3) 한편 이러한 다양한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하여선 25장 Q 11을 참조하라.

5. Q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2절)

A (1)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성직을 주기 전에 그들을 깨끗케 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셨다.

(2) 그런데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육체의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육체의 정결을 통한 영적인 정결을 의미한다(참조, 마 3:11; 요 3:5).

(3)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의미가 주로 외적, 육체적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 행동은 진정한 영적 의미가 결여된 형식에 치우칠 염려가 있었다(참조, 마 23:1-28).

(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에 의거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외형적이고도 의식적인 규례는 폐지되었다(참조, 마 12:1-13).

(5) 그렇다고 영적인 의미만 보존되면 된다 하여 여러 가지 경건한 일에 대하여 등한시하며 방자하고 경망스러운 행동을 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6) 오히려 예술 비평가들이 강조하듯이 형식과 내용, 사상과 표현은 일치하는 법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이나 경건한 외적 행동과 그에 따르는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6. Q 본장에서만도 모세가 '여호와와 명대로 하였다'는 말이 8회나 반복된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16-32절)

A (1) 성막 제사 제도는 그것이 비록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완성되기 이전의 율법이었으나 인간 구원의 대전제가 되는 속죄의 방법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교의 유일한 길이었다. 이런 속죄의 길인 성막 제도가 인간 의지의 개입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만 된 것은 속죄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2) 또 모세로 대표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8번이나 언급한 것은 반복을 통한 강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다(16, 19, 21, 23, 25, 27, 29, 32절). 즉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중대한 속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를 실천한 것이다.

(3)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도 하나님 제일주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을 당시 그대로의 인간의 행복과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자유란 실로 우리들의 피조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악의 기준이시며 판단자이시다.

(4)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라 함은 인간을 비하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참인간성을 회복하는, 즉 신본주의를 통한 인도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7. Q 이스라엘 회중들이 성막을 짓는 역사(役事)를 끝냈을 때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성막을 뒤덮은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34절)

A (1) 구름이 회막을 뒤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의미한다.

(2) 회막의 원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25:22).

- (3)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심으로 이러한 약속은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완성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 (4)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 길을 여행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5) 한편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과 같은 가시적(可視的)인 하나님의 임재가 목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항상 개입하시며 자신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 (6) 이러한 사실은 영적인 눈이 트인 자만이 알 수 있다. 영적인 눈이 트인 자는 그 옛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험난한 광야 길에서도 위안을 얻은 것같이 오늘날의 험한 세파(世波)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의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 8. ㉠ 모세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35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지도자, 선지자, 입법자, 민족 해방의 영웅이었다.
- (2) 진실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비견(比肩)할 만한 인물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모세 오경에는 그가 신격화되어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순전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즉 오경에는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들이 숨김없이 밝혀져 있다. 그 약점들 중의 하나는 성급한 분노이다(참조, 2: 11, 12; 민 20:10, 11).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자기 혈족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세를 위인으로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 (5) 또한 모세는 고독한 지도자였다.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였고(출 14:11; 민 14:3) 그의 권위에게 도전했다(민 16장). 이런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도 모세는 혼자 갔으며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오직 모세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 (7) 이와 같이 모세는 홀로 있어야 하는 고독함을 지녔고 또한 남 모르게 저야 만하는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다. 즉 범죄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는 수없는 번민,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인 것이다.

#### 9. ㉠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구름과 자신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1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라(34-38절).

- ㉠ (1)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다(신 32:8; 행 17:26).
- (2)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이다(창 12:1-3).
- (3)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이다(창 15:18-21; 17:8).
- (4)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사단이 세운 악한 족속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이다(창 6:4).
- (5) 매우 사악하였던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기 위해서이다(신 7:1-24; 9:5).
- (6) 메시아의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이다(창 3:15; 롬 9:3-5).
- (7)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중개체(仲介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롬 3:2; 9:3-5).
- (8) 영원토록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의 머리로 삼으시기 위해서이다(신 15:16; 28:13).

- (9)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이다(창 12:1-3; 사 2:1-4; 52:7; 66:19-21; 습 8:23; 14:16-21).
- (10)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출 19:6).
- (11)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 세계에 펼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12) 모든 민족에게 우상 숭배의 무의성과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출 20:1-6; 32:21-25; 34:15-17; 신 7:1-6; 13:1-18; 18:9-14).

### 10. ㉠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라(1-40장).

- ㉠ (1) 출애굽 사건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2) 이 같은 사실은 애굽에 내린 열번째 재앙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대속적 보혈로 인하여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참조, 12장 ㉠ 8).
- (3) 한편 성경에는 흔히 성도들의 세상 생활이 나그네 또는 광야 생활로 묘사되어 있다(벧전 2:11).
- (4) 여기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13:21, 22)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심을 보여 준다.
- (6) 즉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생 행로 중에 개입하여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다.
- (7)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징계는 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도들의 삶 속에 죄악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실 것이다(참조, 마 6:10).

## 연구자료

###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록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책인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 보여 준다.

(1) 인류 최초의 실인자는 가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그 갈비뼈로 만든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농사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의 믿음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 인하여(히 11:4) 동생을 질투하였고, 그 결과 동생을 들에서 쳐죽였다(창 4:8). 이로 인해 그는 땅의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잃

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가인에게 조차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 준다.

(2)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므두셀라로서 그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혹은 '신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지녔다. 그는 셋 자손의 족장으로 에녹의 아들이며, 라멕의 아버지로 969세까지 살았다(창 5:22-25). 한편 성경에는 육신을 지닌 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에녹(창 5:24), 엘리야(왕하 2:11), 예수(행 1:9)이다.

(3) 가장 큰 배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배의 재질은 부패를 잘 견디는 삼나무와 잣나무로 되어 있으며 그 재원은 길이가 300규빗(약 137m), 폭이 50규빗(약 23.5m), 높이가 30규빗(약 14m)인데(창 6:13, 14) 이 정도의 부피이면 배수량은 약 20,000t이 된다. 이 배는 약 120년간에 걸쳐서 건조되었다(참조, 창 6:3, 13, 14).

(4)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일이다(창 38장). 그러나 베레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마 1:3). 이와 같이 메시아의 인간적 혈통이 자랑스럽지 못한 것은 부정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5) 가장 긴 여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의 여정이다. 십계명을 받은 시내(호렘) 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불과했지만(신 1:2)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전(空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신 광야와 바란 광야를 거쳐 블레셋 사람과 에돔 사람이 거하는 땅을 지나게 되었고 그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6) 가장 큰 사람은 르바임 족속의 바산 왕 옥과(신 3:11)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다(삼상 17:4). 먼저 바산 왕 옥은 그의 침상의 장이 9규빗(410.4cm), 광이 4규빗(182.4cm)인 것으로 보아 그는 매우 장대했던 인물임이 틀림없다. 또한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293cm)이나 되었던 엄청난 장수였다. 그러나 옥이 에드레이에서 모세에게,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아무리 강한 육신과 인간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7)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이다. 그의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왕상 3:12) 자연에 관한 지식(왕상 4:33)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지혜나 정치적인 지혜도 뛰어났으며, 건축에 대한 지혜도 놀라운 정도였다(왕상 3:28; 4:2-19; 6:2-36; 대하 3:1-4:22). 이렇게 뛰어났던 그의 지혜는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었다(비교, 약 1:5).

(8) 가장 호화로운 건축물은 솔로몬 왕의 궁전이다. 13년에 걸쳐 건축된 이 궁전의 길이는 100규빗(52.3m), 폭은 50규빗(26.15m), 높이는 30규빗(15.69m)에 이른다. 궁전의 들보는 45개로 모

두 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궁전 안의 건물들은 모두 귀하게 다듬은 돌로 건축되었다. 궁전 안의 내장 공사는 당대의 유능한 기술자인 두로 사람 히람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이 궁전의 부와 화려함은 극치에 달했다고 전한다(참조, 왕상 7:1-51).

(9) 가장 부유했던 시대는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었다. 그의 세수입은 금으로 666달란트(약 18,981kg)가량 되었으며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오는 자들이 바치는 공물도 무척 많았다(참조, 왕상 10장). 이같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은이 들처럼 흔하였고, 귀한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다(왕상 10:27).

(10) 가장 많은 부인을 거느린 사람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거느렸던 솔로몬이다(왕상 11:3). 이 수효는 그의 부와 영광이 최고조에 달했던 노년기의 아내의 수자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영광을 잘못 사용한 결과였고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행위였다(출 34:16; 신 17:17). 이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장차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왕상 11:9-13).

(11) 가장 잔인한 여자는 아달라이다. 그녀는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딸이며 유다 왕 아하시야의 모친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이세벨의 파렴치하고 못된 성격을 이어받아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피살되자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손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유다를 통치했다(왕하 11:1-3; 대하 22:10, 11) 그러나 그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였다(왕하 11:4-16; 대하 23:1-21).

(12)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욥으로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다(욥 1:1).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받아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다. 그 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의 오해와 꾸짖음을 들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잃지 않고 인내하였다. 그 결과 그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욥 42:12-15).

##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늘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 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지혜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

##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① 창세기-출애굽기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